

# 논개

푸른 남강 물에 붉은 논개의 마음

정동주 지음



풍천나루의 강물은 아직도 향기로우니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씻고 의로운 논개에게 절하노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적장을 죽였을까

죽음을 각오한 채 거룩한 뜻을 단행했네

화려한 왕조 돌아보면 인물이 많다 하지만

기생이 있어도 오랜 세월 그 이름 한결같이 빛나도다

— 매천 황현 「의기논개비」

4 1976  
2016

책 만들기 40년

한길사  
한길



지은이 정동주 鄭棟柱

1948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났다.

장편시 『순례자』, 서사시 『논개』를 비롯해 대하소설 『백정』 『단야』 『민적』, 장편소설 『콰이강의 다리』 등 40여 권의 시집과 소설집을 발표했다. 마당굿 「진양살풀이」와 오페라 「조선의 사랑 논개」의 대본을 집필했다.

1990년 초부터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여 『카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부처, 통곡하다』 『어머니의 전설』 『늘 푸른 소나무』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장계향 조선의 큰어머니』 등 역사·종교 분야를 읽고 썼다.

1990년 중반 이후 한국·중국·일본의 차문화를 비교하여 한국 차문화의 독자성을 세우기 위한 비교차문화론 연구와 강의를 시작했다. 2013년 '차살림학'을 정립하여 강의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 차살림』 『한국인과 차』 『우리시대 찻그릇은 무엇인가』 『다관에 담긴 한중일의 차 문화사』 『조선 막사발과 이도다완』 『차와 차살림』 등 차와 도자기 문화에 관한 비평적 연구의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논개



# Nongae

by Jung, Dongju

Published by Hangilsa Publishing Co., Ltd., Korea, 2016



# 논개

푸른 남강 물에 붉은 논개의 마음  
정동주 지음

하기사  
N E



## 논개

지은이 정동주  
펴낸이 김언호

펴낸곳 (주)도서출판 한길사  
등록 1976년 12월 24일 제74호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37  
홈페이지 [www.hangilsa.co.kr](http://www.hangilsa.co.kr)  
전자우편 [hangilsa@hangilsa.co.kr](mailto:hangilsa@hangilsa.co.kr)  
전화 031-955-2000 ~ 3 팩스 031-955-2005

부사장 박관순 총괄이사 김서영 관리이사 곽명호  
영업이사 이경호 경영담당이사 김관영 기획위원 유재화  
편집 백은숙 안민재 노유연 이지은 김광연 신종우 원보름  
마케팅 윤민영 양아람 관리 이중환 문주상 김선희 이희문 원선아  
디자인 창포 출력 및 인쇄 한영문화사 제본 한영제책사

제 1 판 제1쇄 1998년 9월 15일  
개정판 제1쇄 2016년 3월 11일

값 15,000원  
ISBN 978-89-356-6961-5 0399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꿔드립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kolisnet](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05683)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받은 논개 영정  
조선시대 전통 영정기법으로 110cm×180cm 크기의 비단 바탕에  
천연채색으로 된 정면 전신입상이다





1920년대의 촉석루 모습



의암 주논개 상  
복원된 생가에 건립된 논개상



以忠臣烈士莫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用充在邊猷隱然有虎豹在山之勢則蕞爾小醜又  
豈敢猖獗而彼雄強兵環坐越視者抑何心歎公之仲  
兄院正公為繼義兵將子弘先侄弘載弘宇或同事於  
錦山晉州之役又致力於稷山之戰前後效忠何莫非  
公義烈所激發也公嘗有詩曰浪撫腰間匣劍鳴時平  
久絕報邊聲如今衛霍生今世虛老無成沒姓名其平  
日所自期亦可想見詎不竒哉且其賤妾公死之日感  
服淒淒於江中巖石誑誘賊將因擠而俱墜死至今人  
稱義巖吁亦烈矣公娶羅州金遠女生二男二女長子

1751년 권적이 쓴 「경상우병사 증좌찬성 최공시장」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를 증명하는 최초의 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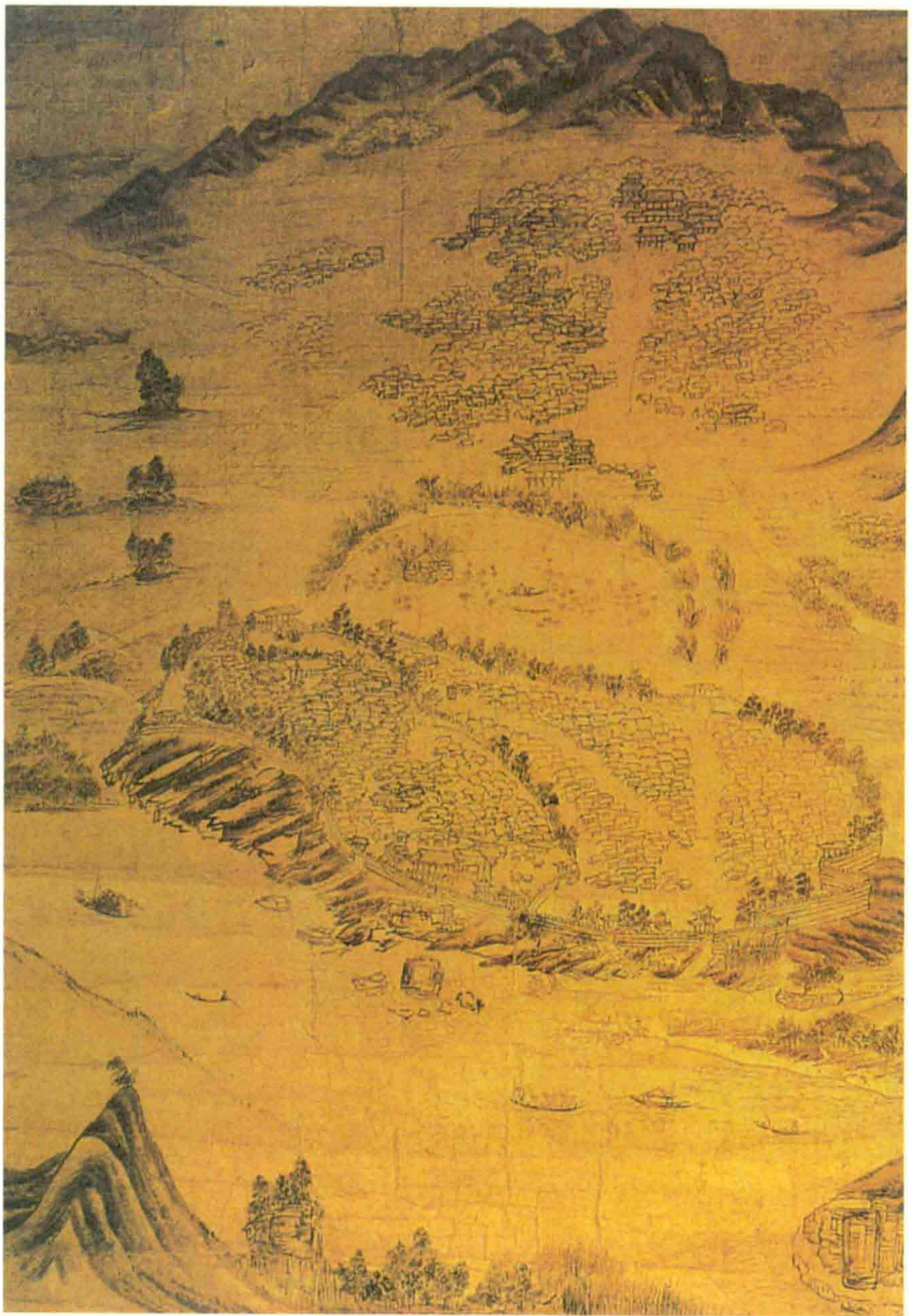


최경희가 지휘한 '골자부대'의 깃발



최경희 영정





조선 후기 때 그려진 진주성





진주성 순의단에 새겨진 진주성전투도







為不察海而伯嚴瑞則加給者至於四十結之多此則難免擅分之罪  
下詢大臣而處之何如若魯曰聞之則言海伯加給四十結加報九十結  
云以加報代加給之數則朝廷何以知之乎此則誠權宜而曰結之法  
至嚴擅分現出之授不可不依定式會處而湖西伯之三結加給戶判  
以為文書不察而非擅分然則容有參酌之道度趙良曰定結雖十結  
之內縱紀增分不可不給罪而但湖西伯之三結加給分戶判既以文  
書不察仰白此則似以可原而至於海而四十結加分不可不依下教  
論罪然如不相亦違矣在魯曰此權之法不過以斟酌分排而已舉大  
數相審則斯可矣軍免通一違計之宜無若干結出入乎如此者魯前  
則皆置之不論矣今以四十結之有加至於會問道臣次知其過也上  
曰既曰擅分則唯者特殺之下猶一結焉定法而嚴瑞則以加報權  
科計之自無歸於擅分而實直可尚末世文勝之時其宜參酌而洪株  
傳若可違事近不察並勿會從重推考事雖不察身為有用亦當只委  
增分事近分疏戶判亦為推考則良曰即令應氣益城誠甚闊切戶判  
於政廢濟世之道非不著實舉行而自上亦為另飭則似好矣上命書

傳教曰應氣益城氏死祠廟側傷形喻京外已死者無依之氏京則該  
處外則各邑著實收瘞瘞瘞盡誠為之夢若加嚴備而子曰禮云禮云  
玉帛云乎哉雖有瘞瘞之名若無其誠若不設為顧令氏事甚於元早  
猶有為氏親自欲相之心而不果申飭餘書京外祭官另擇亦飭祭官  
虔誠以祈禱我元元又命書傳教曰戶判既重憲堂令者為民下教今  
戶判者愈與行若魯曰金羅監司李台重案火特教之下終無赴仕之  
意國體損傷已無可言而魯伯適任己文一道民事可問更為嚴飭使  
連下送似好矣上曰台重事誠惟異矣仍命書傳教曰飭已行矣何傳  
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其然也  
使之語日赴任若魯曰李益延當初乞郡以孝理之政雖為許楚而並  
延事誠不察矣嗚者政官權於都憲德相以有違法例至請推考而寧  
臣出外非好事矣上命書傳教曰李益延之當初乞郡已過矣而寧臣  
不可一任外郎分付該書內職在魯曰登已倦亂保長使金十鎰慶商  
兵使若慶命惠清兵使黃道三大持皆殉節於吾丹朝家俱贈左贊成  
立廟同享而三人中慶命之功功立節尤為卓然而尚未舉為各之禮

此必曾有一體賜之成命而因于孫孫微未得舉行至今後孫始欲  
請賜而賜賜成命未能考出云蓋慶命子文官兵使而先正臣奇大升  
門人也士辰之亂方居母喪為賊所推遷哀起救師律嚴整所向無不  
敵誠實廟至以旄而石界湖南一過之得全慶非在慶會之功為教不  
已賊憤年前晉州之敗大率兵來攻而我無外援慶會等合力同心以  
死固守城陷之日慶會北向四拜投印投江而死今丁卯師臣金潤得  
印於江中封道則自上親自製銘褒獎之聖意至矣金十鎰黃道高使  
厚同安一祠三人皆有越慶會獨無謚不但三人之靈似應賜謚不  
安在朝家褒忠尚節之道大為不均實係大典使之一體賜謚何如上  
曰一例贈謚可也在魯曰小臣嘗以宋考衡事仰違而聖上不為允從  
臣至今惶愧矣續典言守令之謚報文結而私用者勿限年禁銅而考  
衡則乃是擅分非私用以法律言之則似不過為徒三年而至被禁銅  
之律至今未解殊甚可究矣上曰考衡誠為交惠而勿論擅分私用同  
是擅報則不可容易擬改矣大臣備堂退出上曰儒臣持聖學輔聖入  
侍事分付承史始為少選遂退出

庚午三月二十五日申時王世子時敏堂領府事金在魯左議政金  
若魯右議政鄭朝良行戶判書科文秀行司直金聖廟真聖任權曹  
判書申晚兵曹參判檢命凡權曹參判李鼎輔兩曹參判李品顯大司  
諫洪益三右副承旨具九明銀法書金永慶事慶銀注書科正源說事  
官李顯重記注官金弘澤引接入對進伏跪在魯曰日氣驟熱氣候若  
何今日無事矣在魯曰大朝方在靜攝中而夏享大祭必欲親行下情  
不勝迫切矣大王大祀嚴禁故若何今日為安矣中宮嚴氣候若何  
曰安寧矣在魯曰小臣連有疾昨日不得進謁臣僕令始少差故入  
來而夏享儀行之請於不慶允只恨誠意之淺薄不能仰祈聖東更無  
所違矣既至闕中而通值火對致必欲瞻望清儀少伸敬忱而入來矣  
若魯曰日昨大朝入侍時邸下侍坐而大朝下教丁寧懇切下一心  
奉承實不勝欽仰之忱大朝下教三條中大美一教弱用不可以敵強  
已無奈何宜實報祀即我肅廟明大美於天下後世者也大朝又以二  
室并享其牙編送先朝付托邸下為如何我邸下亦當含痛忍耻以大  
朝之心為心矣謝制一數即大朝若心而臣等無狀不能奉承終不得

『승정원일기』 영조 26년(1750) 3월 25일조  
영의정 김재로가 경연에서 최경회의 포상을 건의하고 있다





1629년 정대룡이 쓴 '의암'



의암 탄신기념제례(장수 의암사)





1786년에 초연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게이무라 로쿠스케의 신화를 주제로 한 가부키에 등장하는 게이무라 로쿠스케의 모습

義妓祠記  
 昔日晉之陷晉州也有妓  
 我娘者引日晉封葬於江  
 中之石舞方合抱之投淵  
 而死此其礼也嗟呼豈不  
 烈也哭婦人哉今夫一西  
 之職不逞雪三士之恥陸  
 然城之方隔也隣藩推兵  
 而不救朝廷忌功而示敗  
 使金湯之固失之虜寇之  
 手忠臣志士之憤烈志恨  
 未有甚於仍後者矣云眇  
 少一女子能殲敵酋以報  
 國君臣之羞皦然於天壤  
 之間而一城之敗不逞恆  
 豈不快哉  
 德祖二年壬戌  
 茶山丁若鏞記  
 附感吟一首  
 臺海東曉日月易 花  
 未樓道遙沉山河 畫  
 潭回照佳人舞 戰地  
 棟長留壯士歌 荒城  
 春風回草木 只今迷  
 夜雨漲烟波 銀燭三  
 廟美吳在  
 更耐江過

의기사에 걸려 있는 다산 정약용이 쓴 「의기사기」





복원된 논개 생가



진주성전투를 상징하는 유등행사





성계옥의 집념으로 재현에 성공한 의암별제

後已邢提督玠亦稱忠魂毅魄凜然如生事聞上  
 震悼敕曰天將稱美佞奴忌憚可謂名動三國 賜  
 吏曹判書 賜祭旌閭 仁廟加贈左贊成 英祖  
 丙寅晉人得銅印於南江殉節處 上親製印銘以  
 寵之錄用其子孫因 賜諡焉配羅州金氏教授遠  
 女男曰弘器直長達憲其側出也壻曰鄭惇參奉生  
 之推參奉之授生員曰文弘猷生員生瑗曰弘績武  
 奉事宗憲智憲準憲通政梁禹弼其子與壻也內外  
 曾玄不盡錄而公二兄慶雲慶長二姪弘載弘宇及  
 弘器或殉節焉或繼義焉此皆公懿烈所激發而妾  
 卷三十二

論介公死之日誑誘賊將擠之而投死江中尤亦奇  
 矣嗚呼余每讀國乘至壬辰之變輒三復慷慨於晉  
 陽之事曰唐室之中興由睢陽之保障江淮也我  
 朝之匡恢基晉陽之藩蔽湖嶺也一國之重本係湖  
 嶺湖嶺之衝要在晉陽無晉陽則湖嶺不得守湖嶺  
 不守則國亦難為國矣當晉陽之陷也賊之精銳亦  
 盡於是故收餘兵撤還而湖嶺賴以得全其偉功盛  
 烈可與幸州之捷露梁之戰相上下矣天道好還善  
 惡必報則當借手於後之人以一劒縱橫于南蠻而  
 掃盡妖氛伏平原而答其背上以復 二陵之讎下

연재 송병선이 쓴 「병사 증좌찬성충의공 최공경희 신도비명」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헌



# 의로운 사람, 논개

개정판을 내면서

정동주 시인·동다현 시자

## 1. 왜, 지금 논개의 삶이 소중한가

논개<sup>論介</sup>, 1574~93는 의리<sup>義理</sup>를 실천한 여성이었다. 의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논개가 살았던 16세기 조선의 정신은 성리학의 바탕이며 꿈인 의리를 밝히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정치를 책임진 양반 사대부의 도덕과 윤리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치의 궁극도 의리였다. 그 의리는 굳이 16세기만의 도덕적 힘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한결같이 실천되기를 바랐던 인간의 소망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리를 저버리고 이익과 편리를 따르기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고도 한다.

논개가 살았던 시대는 의리를 따르는 길과 의리를 저버리는 길이 충돌하고 뒤엉켜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의리는 신분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도리의 무게와 크기가 달랐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양반사대부보다는 낮은 신분인 평민, 중인, 천민이 의리의 무게와 크기가 더 무겁고 컸다. 이 같은 의리의 소중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드러나 사람들의 판단을 헛클어놓은 것이 임진왜란이었다.

논개는 임진왜란 중에 그의 삶이 두 동강 나서 오해와 망각의 늪 속에 잠겨버렸다가 죽은 지 147년 만에야 조선의 공식 역사 수면 위로 떠올라서 햇빛을 받아 의인<sup>義人</sup>으로 자리매김한 전라도 장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의 여성이었다. 다만 길게는 30여 일, 짧게는 21일쯤 머물렀던 진주땅에서, 전설적인 일본의 조선 침략군 선봉장이었던 게야무라 로쿠스케<sup>毛谷村六助</sup>를 살해하고 함께 죽은 뒤 진주 사람이었다는 전설과 기록으로 오해가 생긴 채 다시 수백 년의 시간을 떠내려왔다.

논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동안 망각해온 삶과 사랑의 진실을 오해의 거대한 지층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또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참회하면서 재조명 작업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한국의 정신 유산이 될지를 알게 되었다. 이 일은 논개 한 여성만의 몫이 아니다. 이 나라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햇살과 비를 받고 자라는 풀과 뿌리, 열매를 먹고 사는 모든 이의 몫이며, 참회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는 정신의 단련이기도 하다. 인간이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될 인권과 의리에의 귀향이기도 한 것이다.

## 2. 논개의 진실

지난 숱한 시간 동안 논개의 생애와 죽음을 두고 계속된 오해는 매우 복잡한 원인이 겹쳐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깊어졌다. ‘의



로운 사람 논개'에 관한 여러 논쟁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논개의 출생과 연관해 가문에서 비롯된 불우하고 가슴 아픈 내력에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접근해야 길을 찾을 수 있다. 즉 신안 주씨 가문의 정확한 역사라 할 족보와 조상의 산소, 제사, 가문에서 전해오는 말을 모두 참고하여 정리하면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최경회崔慶會, 1532~93의 연보와 해주 최씨 가문의 여러 기록, 최경회 관련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는 일이다. 최경회와 논개가 만나고 인연 맺게 된 사실은 철저히 최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야만 가능하다. 최경회는 과거 문과에 급제했고, 여러 곳에서 조선 정부의 관료로 임명받아 근무했으며, 임진왜란 중에는 조선 정부의 핵심 정책 기관인 비변사 관련 문서에서 그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경상감사 등의 고위직으로 임명했거나 천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경회는 임진왜란 중에 전라도 의병장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참전했다. 의병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받아 숭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호남 의병들에게서 깊은 존경을 받았다. 특히 1592년 여름, 진주성 1차 전투 때 영남 지방을 지원하라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여 진주성전투의 승리를 도왔다. 이 같은 전공으로 중앙 정부의 신임을 받아 영남 지방으로 진군하여 여러 차례 왜군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

관군 지휘관의 여러 문제와 영남 출신 지휘관들의 정치적 평가



로 최경회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영남 출신 의병장들을 두고 호남 출신 의병장에게 영남을 맡기는 것에 대해 미묘한 여론이 있었다. 또한 호남 의병들은 자신들 고장의 위험을 두고 굳이 먼 곳의 영남 지역까지 진군하여 전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컸다. 최경회는 “전라도도 내 나라요, 경상도도 내 나라다. 먼 곳의 위험을 잘 극복하면 가까운 곳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설득했다. 그런 일들의 뒷면에는 당파의 정쟁과 지역주의 갈등 같은 내면의 불화와 균열이 깔려 있었지만, 최경회는 오직 충성과 의리로만 전쟁에 임했다.

이와 같은 두 논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개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논개가 출생하고 성장한 고향을 전혀 모른 채 순절한 진주에만 논의를 집중시켰다. 그의 순절 이후 400년이 넘도록 다만 순절한 진주 축석루 일대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어느새 논개를 진주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둘째, 순절 이후 논개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진주 사람들이다. 전쟁이 끝난 뒤 이름이 있었거나 베풀었던 사람은 모두 포상받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더 많은 보통 사람은 그대로 파묻히고 잊혔다. 진주 사람들은 포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강가에다 제단을 쌓고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공평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처리를 비난하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작했다. 이때 논개가 억울한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택되었다. 집단 민원은 진주 목사, 경상 병사, 경



상 감사로 부임하는 사람들이 겪게 된 보기 드문 사건으로 확대되어갔다. 고위 관리들은 외면할 수 없었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논개라는 인물의 구체적 신원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었다.

셋째, 100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계속된 이 집단 민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되어갔다. 따라서 논개라는 이름도 역사 안으로 편입되어 꾸준히 논쟁의 대상으로 깊어졌다. 1621년, 유몽인이 쓴 글에 처음으로 “논개는 진주 관기<sup>官妓</sup>였다”고 기록되었다. 1630년 경 정대룡이 ‘義菴’이란 글씨를 바위에 새겼다. 1650년 민순지는 『임진록』에 논개가 왜적장을 살해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1651년에는 오두인이 ‘義菴記’를 써서 축석루에 남겼다. 1721년부터는 경상우병사로 온 최진한이 이 일에 적극성을 갖게 되어 중앙 정부와 계속된 논쟁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1740년 영조 임금의 윤험을 받아 축석루 경내에 ‘義妓祠’를 짓고 ‘義菴論介之門’이라는 사액<sup>賜額</sup>을 받아 현판으로 걸었다. 사당 제사 비용도 조선 정부가 맡게 되면서 논개 순절 후 147년 만에 공식화되었다.

넷째, 논개를 관기였다고 기록한 이유는 최초 기록자인 유몽인이 진주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후 모든 기록자는 앞선 기록을 반복하여 옮겼다. 그러는 동안 그 기록을 직접 읽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도 논개를 기생이라 따라 불렀다. 그냥 그렇게 되어왔다. “논개는 최경희가 사랑했다. 최경희가 경상우병사로 가면서 논개를 진주로 데려갔다”는 『호남절의록』 등의 기록



이 호남 지방에서 발견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논개와 최경희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뒤에도 논개는 기생이었다는 세상의 통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섭고 가슴 아픈 일이다.

다섯째, 논개가 최경희를 만나게 된 것은 1577년 최경희가 47세 때 장수현감에 부임했을 때로 그때 논개는 다섯 살이었다. 논개 숙부가 어린 조카딸과 친권자 몰래 비밀리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계약을 하고 남자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반인륜 사건을 재판하면서였다. 논개 모녀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마땅히 의지할 데가 없었다.

논개 어머니는 시동생의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장수현 관아의 관노비를 자청했다. 어린 딸과 함께 관청 노비가 된 논개 어머니는 타고난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최경희 부인이 거처하는 내아 살림을 돕게 되었다. 그때부터 최경희의 부임지마다 함께 따라다녔다.

1587년 논개 나이 14세 때 최경희가 사도시정司樂寺正으로 옮겨가면서 논개를 심부름꾼으로 데려갔다. 1590년 최경희 60세 때 담양 부사로 옮기면서 부인의 권유로 17세의 논개를 부실로 삼았다. 그해에 최경희는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논개를 고향으로 가서 기다리게 했다. 1592년 여름 의병장이 되어 장수에 훈련장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논개의 도움을 받았다. 1593년 6월 15일 진주성전투를 위해 진주성으로 들어가서 논개를 군인 막사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진주 목사의 관할인 교방教坊으로 보내 밤에는 관기들과 함께



머물게 했다. 그리고 곧 전투가 벌어졌고, 진주성은 왜군에게 무너졌다. 최경희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 며칠 뒤 왜군의 전승 축하연 때 논개는 관기의 옷을 빌려 입고 적진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남편의 숭고한 순절을 따르는 절개이기도 했고, 조국의 위기 앞에서 적을 죽이고 자신도 지키는 의리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성공하게 했다. 오직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으로 엄청났다. 왜군의 선봉 돌격대의 상징이기도 했던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논개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왜병들의 사기는 크게 꺾였다. 오랜 외국에서의 전쟁으로 지친 데다 사기가 꺾이고 전쟁 공포감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진주성은 함락시켰으나 호남평야를 짓밟아버린다는 목적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진주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한 논개라는 진주 교방 관기가 왜장을 죽였고, 마침내 왜군이 물러갔다는 말을 한꺼번에 외치면서 폐허가 된 진주의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다.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는 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섯째, 논개의 실재 여부와 죽음에 대한 진실 여부가 관청의 조사로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주땅 누구도 논개를 알지 못했고, 그의 가족이나 집안 역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전라도 장수 사람을 경상도 진주에서 찾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논개 문제가 누군가의 조작이며 정부를 비난하는 비열한 책동이라고 외면했다.

일곱째,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정부의 논공행상 때 최경희의 공적은 일단 무시되었다. 패전했기 때문이다. 1748년이 되어서야 최경



회의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적의 상소가 있었고, 뒤이어 『일성록』<sup>日省錄</sup>에도 기록됨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최경희가 전라도 의병장으로서 아홉 달 동안 경상우도 지역에서 세운 빛나는 공적들이 어찌하여 무시되었는지를 밝혀낸 문헌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논개의 죽음이 지닌 큰 뜻과 높은 가치를 기생 신분이 라는 말을 앞세움으로써 사실상 헐뜯어온 일과도 어떤 연계가 있지는 않았는지 마음 아파한 적도 있었다. 왜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 3. 논개의 고향은 호남이다

7년 동안 조선 모든 곳을 피로 물들이고 짓밟아온 산천을 주검으로 뒤덮었던 임진·정유 전쟁 때, 조선의 어느 동네 어느 집안인들 무사했으랴. 또한 죽어간 수백만 명의 겨레와 비록 죽지는 않았어도 죽은 것보다 더 모질고 아프게 짓밟힌 사람 또한 얼마이랴. 어느 마을 뉘 집인들 조국 수호에 피 흘리고 통곡하지 않은 데 있으며 목숨 바쳐 지키려 했고, 온뜻 다해 돌보고 나누지 않은 사람 있었으랴. 그중에 이순신과 그의 수군의 군량미를 농사짓고 알곡 장만하여 수군의 식량을 이어주었으니, 조선 수군의 공적 중에는 전라도 농민들의 보람도 들어 있지 않겠는가. 내놓고 자랑하지 않은 호남 사람들의 긍지와 덕망 아니던가. 그 호남 사람들이 자랑치 않았음은 전라도도 조선이요 경상도도 조선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걸 알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논개의 그 숨은 공적, 최경희 병사의 과묵하고 의리에 찬 조국 사랑의 믿음 또한 호남인의 기개요 품성이 아니겠는가. 다만 좀더 일찍 이 기상과 기개와 품성을 드높



여 향기로 이루지 못한 탓은 오로지 이 글 쓴 사람에게 있도다.

그런 중에 장수 사람들이 모여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를 만들어 논개의 생애와 사랑을 널리 알리는 데 나서고 있음은 정녕 전라도의 의리와 조국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로다.

2016년 2월 25일

동다현에서

정동주



# 조선의 마음, 푸른 남강 물에 붉은 논개의 마음 머리말

도래 소주 열 번 고아  
애늬 장수한테 믹이갖고  
진주 기생 이애미는  
우리 조선 살릴라고  
옥가락지 열 켠 손에  
애늬 장수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졌네  
진주 남강 떨어짐서  
노랑 수건 파랑 수건  
수건 두 개 떠올라 오면  
노랑 수건은 건져주고  
파랑 수건은 건지지 마라

올해로 여든다섯 살 되신 어머니가 처녀 때 길쌈하면서 부르던 노래다. 물레질을 할 때나 삼 삼을 때 동무들이 짹짹으로 마주앉아 한쪽에서 한 소절을 먼저 메기면 다른 쪽 여인들이 다음 소절을 받는데, 노래하는 사람마다 남 모르는 설움이며 감춰진 감정을 섞어



서 부르기 때문에 노래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 식민지 한복판 아슬한 민족의 벼들 위에서 기구한 운명을 짜며 불렀던 이 노래가 지닌 상징성은 결코 만만치 않다. 어머니는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애옥살이에 자식을 낳아 기르셨고, '이애미'의암, 義巖의 전설은 식민지 시기 진주 남강 기슭에서 고달픈 삶을 꾸렸던 사람들에게 식을 줄 모르는 분노와 그치지 않는 겨레 사랑을 함께 일깨워주었다. 어머니 기억 속에는 논개에 관한 전설이 형성되는 사실과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와전에 의해서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사건이 들어 있다.

그중 하나는 논개의 제사와 관련된 일이다. 이날에는 축석루 아래로 흐르는 남강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사고가 나고 만다는 것이다. 사람이 익사하든지 가축이 물에 빠져 죽든지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삿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긴장했고, 그날이 저물기 전 어김없이 들려오고야 마는 그 우울한 소문이 있고 나서야 사람들은 긴장을 풀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같은 불행이 계속되는 원인이 논개 제사를 성심껏 모시지 않는 데 있다고 믿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제삿날이 되면 정중하게 성대한 제례의식이 베풀어졌는데,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논개 제사가 금지되었다. 그때부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논개 제사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는 광경들을 들려주셨다. 어릴 적 논개 제사를 직접 목격했던 어른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80년 가까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나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전에는 해마다 6월 29일만



되면 진주 동서남북 100리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진주로 모여들었다. 논개 제사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남강 건너 대숲 아래 백사장에는 길다랗게 차일이 쳐지고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축석루에서 제사가 시작되는 사시<sup>巳時</sup>쯤엔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축석루 쪽으로 눈길을 모았다. 색색의 비단 제복을 입은 여자 제관들이 축석루에 올라 제례의식이 시작되고, 뒤이어 춤과 노래가 베풀어진다. 특히 시조창이나 판소리가 등장하는 대목에 이르면 남강 양쪽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축석루 쪽에서 선창을 하면 건너편 백사장 차일 밑에 있던 사람들이 화답을 하는 것이다. 밤이면 강가에 횃불을 밝혀놓고 술과 떡이 사흘 밤낮 구경꾼들에게 베풀어졌다. 진주 지방 큰 부자들이 술과 음식을 따로 장만하여 나루터로 실어와 구경꾼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다.

한국 역사 어느 구절에서도 한 사람에게 올리는 제례의식이 이토록 진지하며, 계층과 신분 그리고 성씨의 구분 없이 수많은 이들이 사흘 밤낮을 제사에 참여해 놀았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그 우울한 소문은 내가 어렸을 때인 195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남강에 익사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오늘이 이애미<sup>의암</sup> 제삿날인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듯 논개는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후 벌어졌던 왜군들의 전승 축하연 때 신분을 위장하여 연회장에 잠입해 적장을 살해함으로써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과 역사 사이를 아무 거리낌없이 넘나들고 있는, 근대적이며 혁명적인 삶을 살다 간 여성



이다.

논개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핵심 축은 적장을 살해한 동시에 자신도 순국한 사실에 있다. 진주성 함락의 책임을 지고 자결한 부군 최경회를 따라 자결해버렸더라면 논개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열녀 반열에도 올라 가문에 영예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논개는 열녀가 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윤리와 강상綱常으로 잘 닦아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뜻으로 죽음의 험한 길을 개척했다. 열녀이기를 마다한 논개가 그 대신 실천해 보인 것은 신분까지 위장하면서 적장을 유인하여 살해한 사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적극적 충忠의 실천임이 분명했지만, 조선의 지배 이념은 여성이 행한 충을 오히려 지배 이념 또는 남성우월적 권위주의에 대한 불순하고 묵과할 수 없는 도전쯤으로 보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논개는 이 같은 남성 중심의 획일적 가치관에 종속된 여성의 죽음을 열녀라고 규정하는 그때의 상식들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참된 사랑의 승화라고 믿었던 것 같다.

이 신선하고 과감한 행동의 결과 논개는 자신이 속한 신안 주씨 가문과 가문을 왕조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왕조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외면당했다. 그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는 1621년 유몽인柳夢寅이 쓴 『어우야담』於于野談의 기록 때문이었다. 이것을 필두로 한 이후의 모든 기록과 전설의 핵심은 논개는 비록 기생이면서도 기특하고 가특한 행동을



보였다는, 마음에도 없는 저 입에 발린 칭찬들이었다.

이 같은 논개의 생애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부터였다. 1970년대 내내 자행된 정치 폭력과 80년대의 그 잔혹한 폭력의 비인간적 참상을 극복해보기 위한 나름의 고뇌 끝에 『서사시 논개』를 구상했다. 나는 논개의 죽음을 패권주의적 폭력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인간상의 한 전형으로 보았다. 왜국이 조선을 침공한 것은 단지 조선을 노예의 나라로 삼아 패권주의적 전쟁과 폭력을 자행하기 위해서였다. 논개는 이 같은 폭력에 항거했고 나는 그의 죽음을 폭력에 대한 항거의 표상으로 노래하고 싶었다.

논개의 죽음은 그의 신분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 문제는 그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생이냐, 아녀이냐는 한가한 논쟁을 벌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폭력의 유력한 한 원인이 되는,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 근거 없는 모든 차별의 모순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해악을 말하고 싶었다. 남녀, 지역, 빈부, 학력, 직업, 계급의 차별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다름 아닌 ‘논개와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신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우리의 차별 문제에 대한 의식의 진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한 지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서사시 논개』 이후 15여 년이 지나는 동안 ‘차별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더욱더 절실해졌고, 논개와 관련된 귀중한 문헌과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논개 관련 연구작업도 끊임없



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연구성과와 문헌자료를 모두 정리해둠으로써, '조선의 마음, 푸른 남강 물에 붉은 논개의 마음'을 만나고 싶은 분들을 논개의 길이 나 있는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1998년 9월

정동주







의로운 사람, 논개 | 개정판을 내면서 · 17

조선의 마음, 푸른 남강 물에 붉은 논개의 마음 | 머리말 · 26

논개의 길을 찾아서 · 35

덕유산 저쪽 · 51

운명 · 77

고난의 사리 · 111

147년 동안의 의로움 · 171

죽어서 말하는 논개 · 213

‘의기 논개’와 ‘논개’ · 285

논개에게 바쳐진 노래들 · 299

논개 전설 · 319

주 · 347

연보 · 351

참고문헌 · 352







논개의 길을 찾아서

... 志而不悲其志而哀其死也  
... 虎豹在山之勢則  
... 越視者抑  
... 兵將子弘笮任弘載  
... 公為然義







## 1. 역사 속의 길

1998년 1월 16일 국립진주박물관 강당에서는 '임진왜란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온 일본 공립여자대학 기타지마 만지<sup>北島万次</sup> 교수는 매우 귀중한 임진왜란 관련 문헌 한 가지를 소개했다. 그날 이전까지 한국 역사학계는 물론 고문서 관련 학자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한 문헌이었다. 17세기 중반 무렵 조선의 한 문인이었던 민순지<sup>閔順之</sup>가 쓴 『임진록』<sup>壬辰錄</sup>이 그것이었다.

기타지마 교수는 『임진록』 중에서도 특히 진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발췌하여 소개했다. 논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때까지 한국에서 발굴 정리된 180여 종류의 논개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의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기존의 한국 자료들은 모두 논개를 '진주 관기'나 '장수 관기'라고 못박은 다음, 왜군의 전승 축하연에 끌려나가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거나 술까지 마시다가 왜장과 함께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민순지의 『임진록』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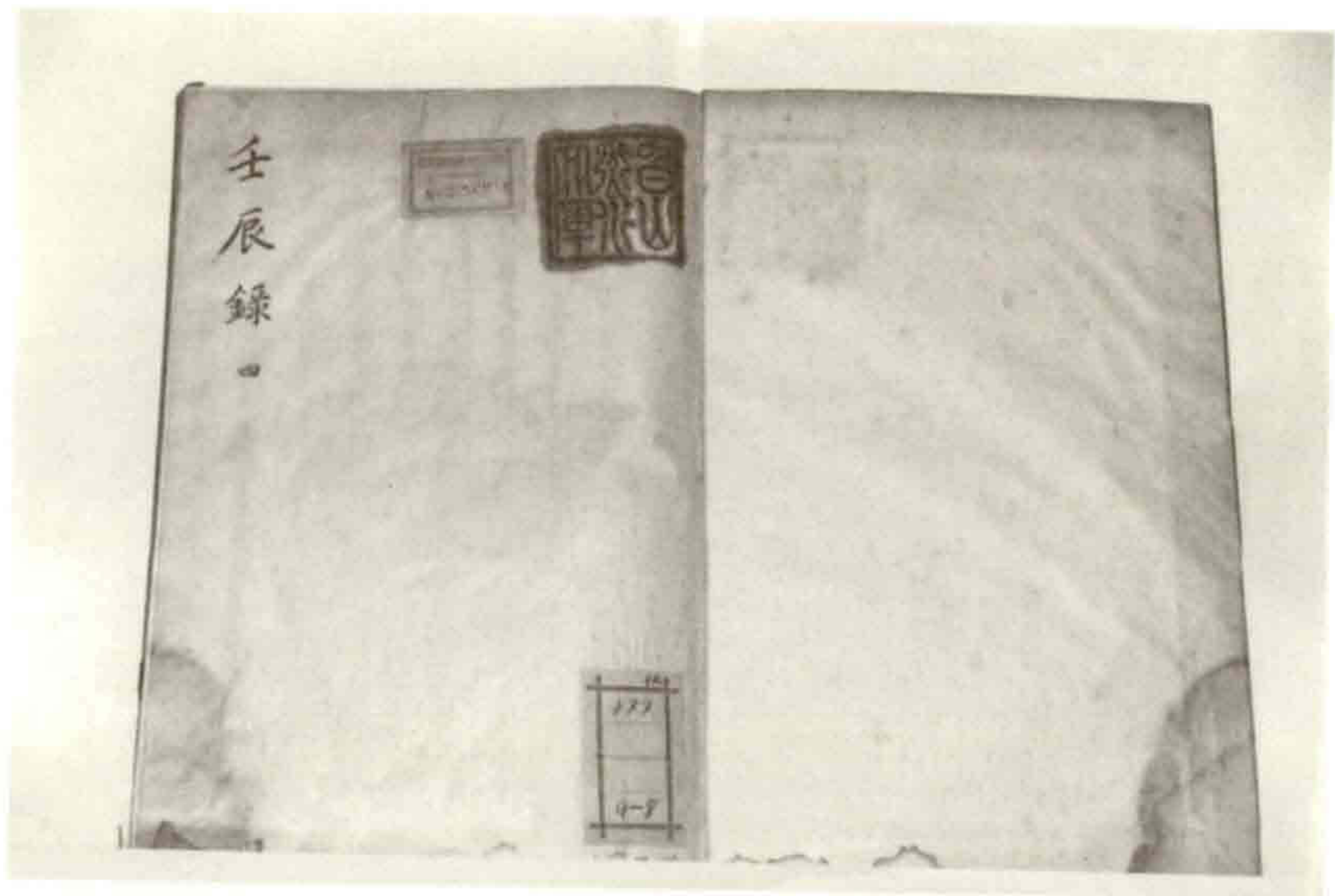
왜적이 성에 들어와 진주의 기생과 미녀를 다투어 노략질했다. 논개라는 여자가 일부러 예쁘게 꾸미고 있자니 적장이 좋아라며 다가왔다. 함께 축석루 바위 위로 오른 논개는 적장을 끌어안고 절벽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賊入城 爭掠州妓美女 有論介者 故盛粧而媚之 賊將悅而狎之 與遊羸石樓岩上 論介乃抱賊將投崖而死

모두 42자로 정리되어 남겨진 이 한 구절로써 400년 동안 끊임 없이 논란이 되어온 논개의 죽음과 신분 문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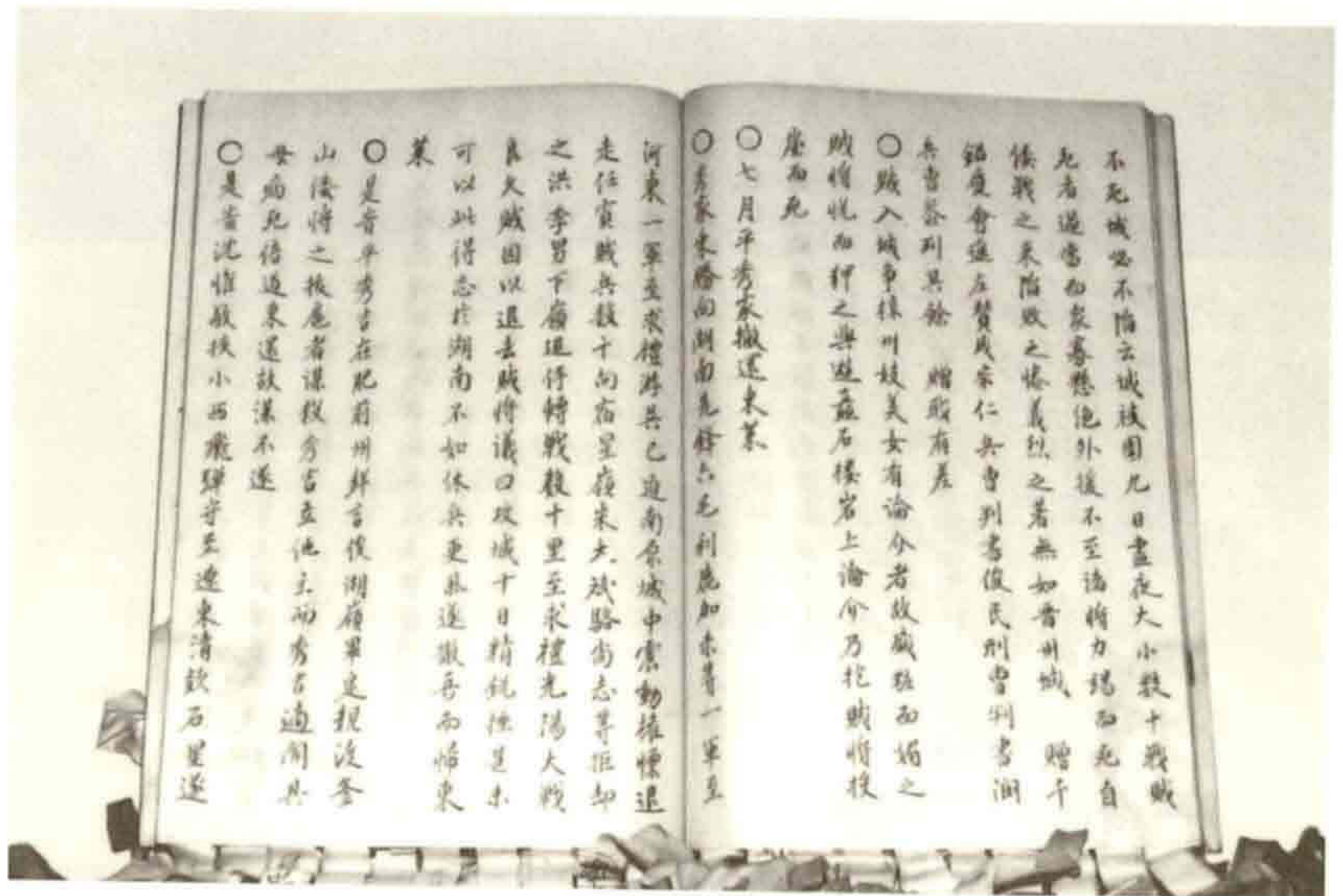
민순지의 『임진록』은 원래 한국 어딘가에 있었던 문헌이었다. 그러다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감행한 임진왜란 관련 역사 자료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탈 때 일본으로 운반된 수많은 자료 가운데 하나였다. 그 후 『임진록』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동경대학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동경대학에서 조선사를 전공 하던 역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가 문제의 『임진록』을 대출 받아 그의 집에서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23년 9월 저 악명 높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여 동경대학 도서관은 불타버렸다. 그때 이케우치의 손에 있던 『임진록』은 기적처럼 대재앙을 피하게 되어 논개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

논개. 그는 죽음이 먼저 역사에 기록된 여성이다. 그가 죽은 남 강을 품에 안고 있는 진주에서 그는 ‘진주정신’의 고고한 초석으로





17세기 중반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민순지의 『임진록』  
(동경대학 도서관 소장)



『임진록』에 실린 논개 관련 기록





1920년대의 촉석루 모습

서 의義의 상징이다.

‘진주정신’은 진주의 역사와 정신의 크기와 깊이 안에 들어차 있는 의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주 특유의 역사적 색채이자 정신의 문양이라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진주정신으로 맨 먼저 남명 조식南冥 曹植의 경의사상敬義思想을 꼽는다. 깊이 문힐수록 그 뜻이 널리 퍼져나간 이 경의사상은



진주정신을 이루는 다른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의 근본정신이다.

1862년의 진주농민항쟁, 한국 최초의 본격적 인권해방운동인 1923년의 형평사<sup>衡平社</sup>운동, 그리고 논개의 죽음은 모두가 의<sup>義</sup>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진주농민항쟁은 진주 지방의 사투리이자 진주의 역사성과도 긴밀한 관련을 지닌 '에나'어떤 일 또는 현상의 진실을 뜻하기도 하고, 그 진실을 다짐받거나 다짐할 때 맹세의 뜻으로 쓰는 은어라는 말을 낳기도 했는데, 19세기 후반 조선 관료의 부패와 수탈 구조에 항거한 진주 농민들의 항쟁은 뒷날 동학혁명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이 농민항쟁은 유달리 의를 숭상해온 진주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백정 등 천민 신분의 인간해방을 부르짖었던 형평사운동 역시 진주 사람들의 의를 향한 특유의 열정과 신념의 좋은 증표라 말해도 좋으리라.

그리고 진주성 2차 싸움에서 논개의 적장 살해와 순교 정신에 대해 진주 사람들은 또다시 의로운 기상을 높이 외치며 논개가 섰던 바위를 의암<sup>義巖</sup>이라 부르고 그 바위에다 전서체로 '義巖'이라 깊게 새겼는데, 눈비와 바람의 시새움을 잘 견디고 있다. 이렇듯 논개는 진주정신의 초석이자 가장 가까이 살아 있는 역사의 숨결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좁고 험한 길 저편에 있는 의<sup>義</sup>의 거처를 가리키고 있다.



## 2. 마음속의 길

그가 살았던 19년 동안의 흔적은 11종의 금석문, 40종류의 고문헌, 39권의 단행본, 37편의 논문, 5편의 연극, 5편의 소설, 50여 편의 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가 순국한 장소인 남강가의 '의암', 그의 죽음을 기리는 진주성 축석루 옆의 '의기사'義妓祠, 함양군 서상면 방지<sup>芳池</sup>마을의 무덤, 장수군 계내면 주촌의 탄생지, 재판을 받았던 장수현 관아 마당에 서 있던 소나무, 진주에서 죽은 지 207년 만에 고향 장수땅으로 돌아온 이름과 영혼에게 바쳐진 '논개생장향수명비'論介生長鄉墅名碑가 있는 장수읍 의암사義巖祠에는 그를 기리는 후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400여 년의 눈비와 바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논개의 마음을 찾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가뭇고도 이기적인 사랑을 비춰보고자 함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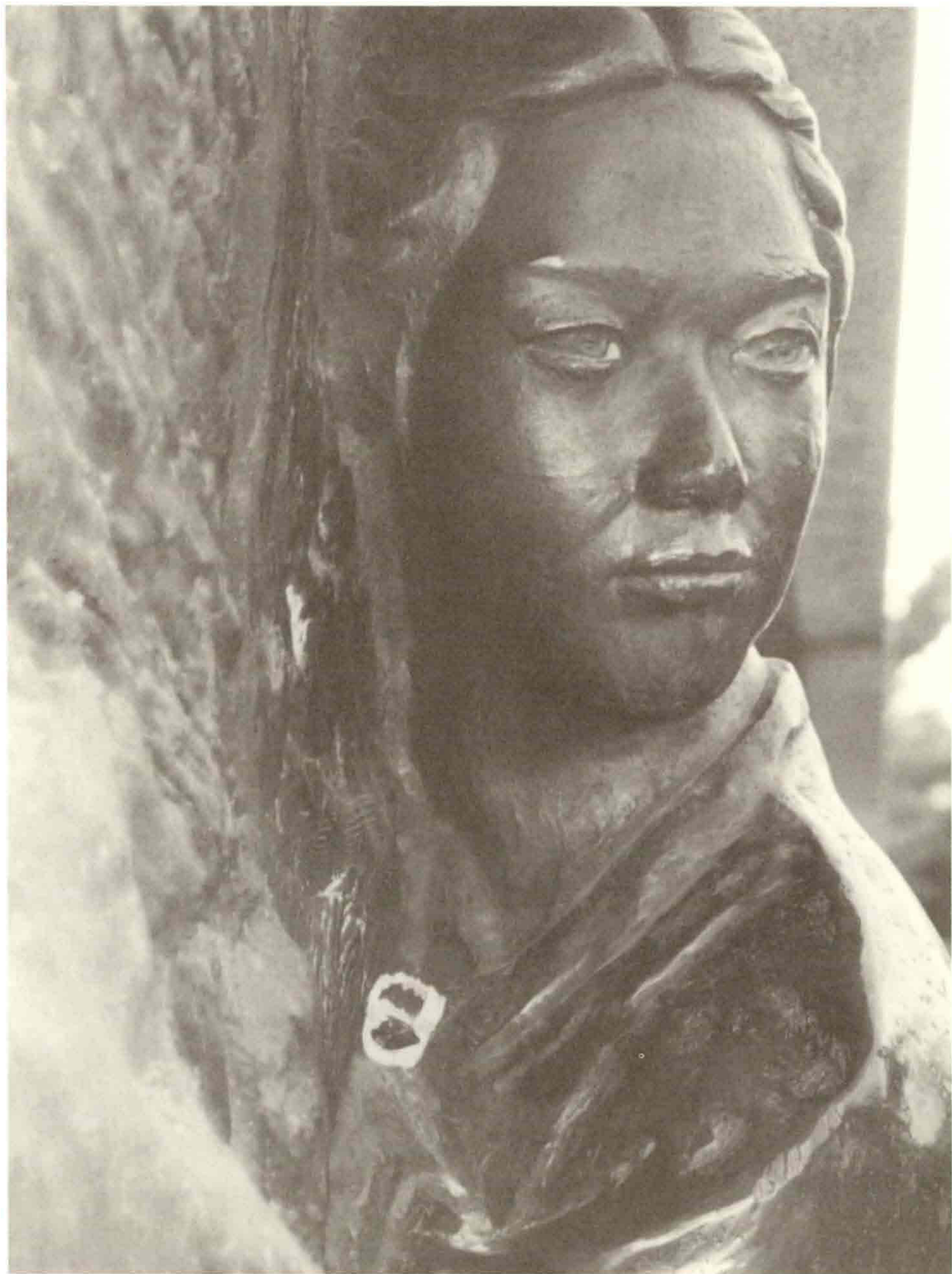
그리하여 역사의 거울인 논개의 마음에 비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닌 삶의 형식과 사랑의 색채를 물들이는 것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인지, 뒤틀린 물질적 소유욕인지를 깨닫기 위해 오늘도 여행자들은 논개의 길을 떠나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논개는 16세기 후반을 살다 간 인물이며, 그에 관한 많은 부분이 전설의 형태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 인물에 관한 전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서 역사적 성향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물 전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것이며 역사적인 진실을 지니고 있다.

논개 전설은 임진왜란 때인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을 함락한





진주성 순의단 벽면에 새겨진 논개 청동 부조



왜군의 전승 축하연에 기생 신분으로 위장 잠입하여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살해한 동시에 자신도 남강에 투신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왜장과의 죽음이 전설의 형태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논개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 있다. 즉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한 목적이나 자신에 관한 객관적 신분 상황 따위를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겠다는 어떤 사전 계획도 단호하게 부정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는 부녀자였고,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집이나 간략한 행장을 써서 남길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숨가쁘게 살아온 불과 열아홉살의 나이. 시퍼런 복수심이 숨을 죽이고 타올라 차라리 넉넉한 고요로 몸을 바꾼 열정의 화신이었다. 그렇게 죽는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장 남기는 것조차 자신의 순결한 의지를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거듭 자신을 준열하게 꾸짖었을까. 마침내 적장을 죽였고 논개 자신 짧은 육신의 생애도 강물 속으로 저물었다.

논개가 죽은 그 자리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 아니라 타향 진주였다. 그것도 길어야 20일밖에 머물지 못한 진주였다. 그런 상황에서 죽은 논개의 모든 것은 다만 전설이란 이야기 보따리에 싸여 역사의 바깥 변두리에 외로 서서 흘러왔다. 하지만 전설과 이야기야말로 논개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료다. 논개를 400년도 더 지나 시대를 초월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민족의 애인으로 자리 잡게 만



든 것이 바로 전설과 이야기가 지닌 민족적 모성의 놀라운 힘이기 때문이다. 만약 논개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기록들이 저 도도한 사대부들의 문집이나 무슨 실록이며 이러저러한 관찬 자료집 속에 들어 있었다면 논개는 벌써 문자의 독소와 차별적인 주의주장들에 압살되고 발기발기 뜯겨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순수무구한 정신의 거처로서 가장 훌륭한 곳은 씩없는 전설과 이야기로 출렁이며 지치지 않는 생명력으로 되살아나는 저 민중의 바다임을 알겠도다. 논개는 그의 죽음부터 먼저 역사에 오른 여성이다. 죽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성씨를 가졌는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부모며 집안 형편은 어떠한지 따위는 처음부터 전혀 문제가 못 되었다. 그래서 기구한 모습으로 역사 앞에 섰고 거꾸로 매달린 채 여러 세기를 살아왔다.

한 인간에게 주어진 한 생애 분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논개는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야기와 전설 속으로 들어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으로 끝나지 않는 길을 열면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 3. 그리움의 길

논개는 역사 속에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치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그리움의 강물로 차올라 영혼을 적시는 노래가 되고 때로는 산천을 수놓는 춤이 되기도 한다. 그가 태어나 자란 장수땅과 순국한 진주땅을 잇는 국도 3호선을 따라 역사기행이나 문학기





의암사 충의문(전북 장수군 장수읍 소재)



행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어제를 그리워하고, 남아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그리는 까닭에 대한 대답을 자신들에게서 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대답들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다. 그리움 그 자체가 질문이며 대답이라는 것. 논개를 향한 그리움이 낳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 중에서 가장 낮익고 친숙한 것은 '논개 제사'다.

논개가 순국한 지 한 해 뒤인 1594년부터 진주 사람들은 남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진주성 함락 때 전사한 관군과 의병들 중에서 직위가 높고 이름 있는 이들에겐 지체없이 논공행상이 이루어져 길다란 명칭의 벼슬이 여러 개씩 추증되고 이름이 사당祠堂에 모셔져 국가에서 봄가을로 정중하게 제사를 올려주었다. 그러나 진주성전투에 참가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고 분명한 공적을 세우고 죽은 논개에겐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진주 민중들이 논개 제사를 모시겠다고 나섰다.

사당에 위패가 모셔지고 봄가을로 국가에서 제사를 올려주게 된 저 지체 높은 자들이란 정치적으로는 관료이며 경제적으로는 지주였고 사회적으로는 양반이며 문화적으로는 또 문자문화를 독점한 지배계층이었다. 국가는 그런 자들만을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민중들에게는 충忠을 강요했다.

논개라는 이름은 진주 민중들의 가슴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국가의 무능과 관료의 부패, 수탈, 탄압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왜군의 침략까지 받아 생존을 무참하게 유린당한 민중들은 국가와 관료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생존의 양식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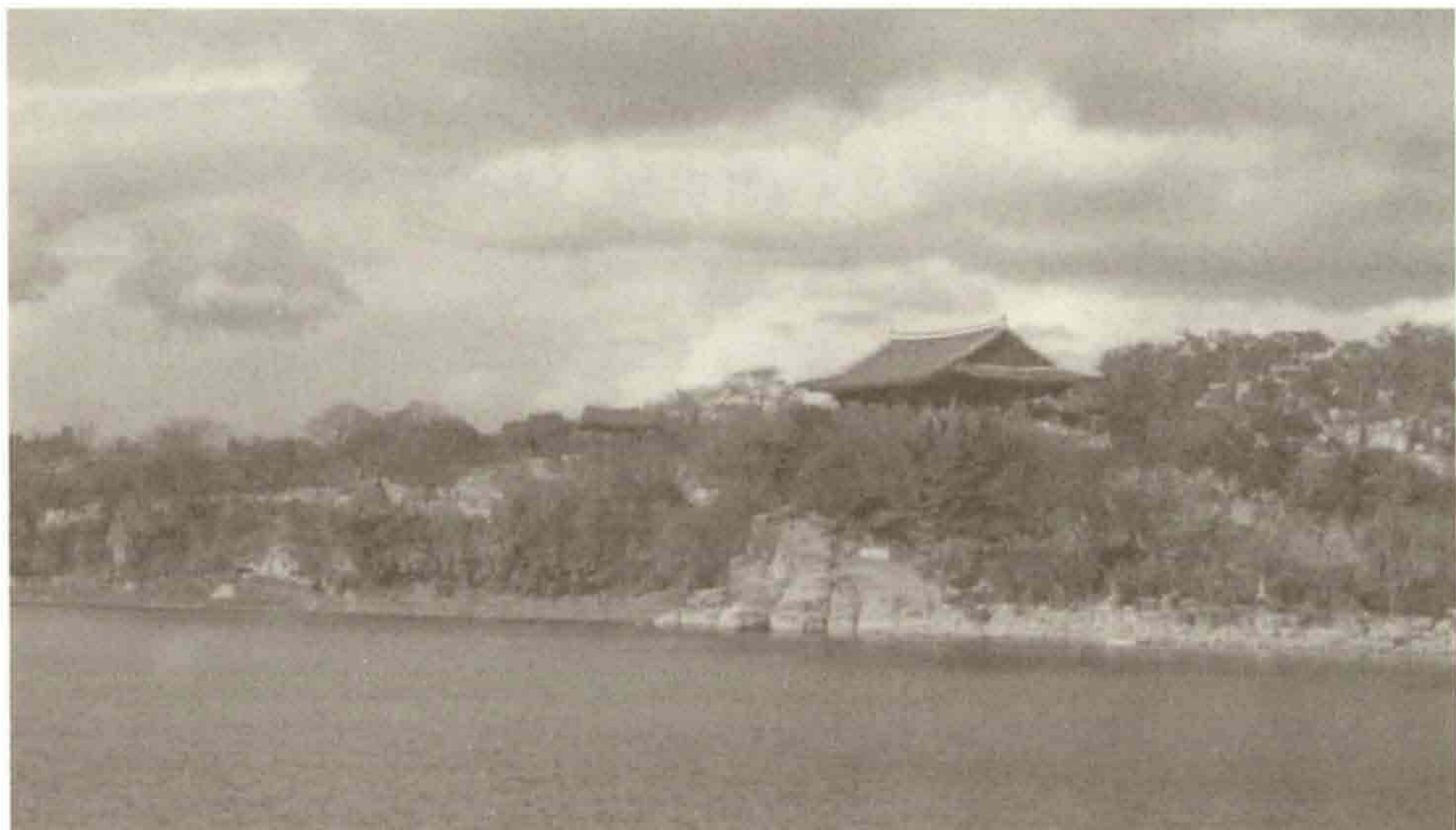
그 같은 민중의 분노와 절망은 논개의 죽음을 통해 비폭력적인 위로와 승화를 체험했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그들의 가슴에다 논개를 묻어두었다.

지배계층 출신 남자들이 화려하고 장엄한 사당 안에서 벼슬아치들에게서 제사를 받을 때, 논개의 영혼은 하늘을 지붕 삼아 대지를 제상<sup>祭床</sup> 삼아 진주 민중들이 손수 장만한 제수와 오래도록 참아온 분노와 절망을 안으로 삭여서 바치는 절과 축문으로 추모되기 시작했다. 제사에 참석하는 조건이나 자격도 다만 민중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논개 제사의 가장 값진 제물은 민중들의 눈물과 애환,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정치적 질곡과 잔혹함으로 상처받은 그들의 몸과 마음 그 자체였다.

그렇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올리던 제사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논개가 죽은 지 147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할 수 있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한사코 외면하고 부정하던 논개 죽음의 참뜻을 뒤늦게 인정한 조선 조정이 사당 안에서 봄가을로 논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한 것은 1740년부터였다. 그러다가 다시 1868년부터 기존의 봄가을 제사 대신 이른바 '의암별제'<sup>義巖別祭</sup>가 특별히 제정되어 진주 관기들이 제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의암별제는 그후 1910년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이후 금지되었다. 그러자 논개 제사를 주관해오던 기생들은 총독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밤중을 이용하여 축석루에 올라 논개 제사를 봉행했다. 그러다가 결국 발각되어 처벌을 받은 뒤로는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그러나 해마다 제삿날이 돌아오면 몇몇 나이들고 기개 있는





지금의 축석루 전경

기생들은 축석루 대신 '의암' 위에 올라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서 큰 소리로 울며 나라 뺏긴 설움과 논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연을 읊조렸다.

남강 기슭 대숲까지 찌렁찌렁 울리도록 울어대는 늙은 기생의 통곡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논개 제삿날임을 알고는 함께 설움을 씹으며 그리움의 안부를 묻곤 했다. 해방 이후 '의암 별제'는 복원되지 못한 채 진주성 함락일에 함께 올리는 위령제의 한 부분으로 그 명맥이 겨우 이어졌다.

그러다가 한 여성의 집요한 연구와 노력 끝에 폐지된 지 82년 만인 1992년에 와서야 '의암별제'가 복원되어 봉행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논개를 향한 그리움을 키우는 마음의 현무<sup>獻舞</sup>가 축석루 위에



서 펼쳐지게 되었다.

왜 진주 민중들은 그토록 논개 제사에 혼신을 바쳐왔을까? 의암 별제의 그 장중함과 엄숙성,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숭한 제례의식들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예술성 짙은 제례의식인 의암별제는 과연 누구의 무엇을 위해 올려지는가? 그리고 다시 묻노니, 논개는 과연 누구인가?



덕유산 저쪽

三國志曰士節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其志則葛爾小醜又  
豈敢隱然有虎豹在山之勢則葛爾小醜又  
豈敢而彼  
誰去環坐越視者抑何心歎公之仲  
天降正公為然義兵將子弘筦任弘載弘字或同事於







## 1. 육십령

덕유산은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있는 소백산맥 중심부에 솟은 1,614미터 높이의 큰 산이다. 향적봉으로도 불리는 주봉인 상봉<sup>上峰</sup>과 남서쪽에 있는 일명 남덕유산인 중봉<sup>中峰</sup>으로 쌍봉을 이루고 있는 명산이다. 상봉과 중봉을 연결하는 능선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도경계이기도 하다. 지금의 전북과 경남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이 능선은 일찍이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이기도 했다.

그 국경선에는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이 넘나들며 서로의 문물을 뺏고 뺏기던 매우 험준하고 절묘하게 트인 통로가 있었는데 ‘육십령’<sup>六十嶺</sup>이란 고개가 그것이다.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장계리를 잇는 고개로, 마루의 높이가 해발 734미터나 되는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여서 옛날에는 밤낮으로 화적떼가 들끓어 60명이 모여야 마음놓고 고개를 넘을 엄두를 낼 수 있었다 하여 육십령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의 고개이기도 하다.

신라 때는 육십령 동남쪽에 함미산성을 쌓고 신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백제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기도 했다는 기록이





복원된 논개 생가터의 논개 동상



남아 있을 만큼 덕유산을 경계로 신라와 백제는 오래도록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줄기차게 싸웠다. 그중에서도 신라 쪽 영토인 함양(咸陽)은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였다. 이 함양이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신라 때로 '속함군' 또는 '함성'이라 불리다가 경덕왕 때 이르러 '천령군'으로 바뀌었고, 고려 현종 때 비로소 함양군이 되었다.

함양군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되고 있는 인물은 함양 태수를 지낸 최치원일 것이다. 그리고 함양군 사람들이 함양땅을 '뼈대 있는 곳'이라 자랑할 때 흔히 "좌강 안동이나 우강 함양이다"라고 한다. 이 말은 낙동강 동쪽에서는 안동이 훌륭한 유학자를 많이 낳은 땅이지만 낙동강 서쪽에서는 함양땅이 단연 으뜸이라는 근거 있는 자부심이자 뿌리 깊은 긍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우강 함양'의 초석이 된 이는 한때 안의 현감을 지낸 정여창이다. 안의는 함양땅을 아우르는 매우 큰 행정 구역을 일컫는 이름이다. 정여창은 세종 때 함양땅 지곡면에서 태어나, 함양 군수를 지낸 김종직에게서 글을 배웠다.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세자에게 강론하는 시장원 설서를 지낼 만큼 학문에 뛰어났으나, 연산군 때 그의 스승인 김종직과 더불어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죽었다. 뒷날 그의 제자들은 이른바 영남 사림학파를 형성하고 특유의 학풍과 세력을 구축하여 조선시대를 풍미했다.

아무튼 삼국시대부터 그래왔듯이 덕유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육십령은 백제와 신라,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요긴한 접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산중이면서 고요처럼 산과 물과 나무의 자태



속에 깃들여 있는, 함양땅에 대치로부터 새로운 문물의 바람이 불어드는 천혜의 숨길이기도 했다.

산 너머 또 산이 있고 고개 너머 또 고개가 있는 두메산골 함양 땅에 '신안 주씨'新安朱氏들이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였다.

함양땅으로 들어와 최초로 뿌리내린 신안 주씨의 흔적으로 지금의 함양군 서상면 '우락산' 기슭에 있는 무덤을 꼽는다. 삼국시대 말엽이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락산의 이 무덤을 두고 지금 함양땅에 사는 신안 주씨 후손들은 함양땅에 들어온 최초의 신안 주씨라는 오랜 전설을 사실로 믿고 있다.

주씨는 원래 중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였지만 한반도로 들어온 뒤 초기에는 주로 북한 지방에 거주하다가 차츰 남쪽으로 분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라남도 화순 지방에서 본격적인 거주를 시작하면서부터 능성綾城이란 본관이 사용된 이후 주씨들은 다시 이동했다. 호남에서 섬진강을 건너 하동땅으로 들어와 사천泗川과 함양 그리고 지리산 서북쪽 장수땅으로 분포되기 시작했다. 특히 함양 지방으로의 이주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토착성과 다른 문종과의 유대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주씨들의 세력 기반이 초창기부터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무열공武烈公의 후예들

논개와 주논개. 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 같은 두 이름은 곧 그의 역사적 성격을 말해준다. 주논개라는 이름이 신안 주씨 가문에 속



한 씨족 구성원임을 뜻한다면, 논개라는 이름은 씨족이나 출신 지역 같은 제한적 영토를 초월하여 조선 민중들의 마음에 소속된 조선의 마음이다. 그런 그가 4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고향의 사막에서도 죽지 않고 걸어와 마침내 우리의 부끄러운 그리움으로까지 넓어지고 깊어져 차오르게 된 것은 먼저 씨족 구성원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문은 신안 주씨 중에서도 더욱 구체적으로는 무열공파 武烈公派에 속한다.

‘무열’이란 조선 세종 연간<sup>1419~50</sup>에 병조참판을 지낸 주몽룡<sup>朱夢龍</sup>의 시호<sup>諡號</sup>. 주몽룡은 경상도 사천 태생인데 사천, 진주 지역 신안 주씨들의 중흥 시조이자 ‘무열공파’를 새롭게 연 인물이다.

신안 주씨 22세손이며 무열공파의 중시조<sup>中始祖</sup>인 주몽룡의 뒤를 이어 23세 인달<sup>仁達</sup>, 24세 하명<sup>夏鳴</sup>, 25세 도명<sup>道明</sup>, 26세 상신<sup>尙臣</sup>, 27세 용일<sup>溶一</sup>로 이어진다. 26세 상신은 원래 두 아들을 두었다. 용일과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 신안 주씨 족보에서 용일만 남고 사라진 상신의 다른 한 아들이 곧 주논개의 할아버지다.

그런데 신안 주씨 ‘무열공파’의 족보에는 상신의 두 아들 중 둘째아들인 주용일<sup>朱溶一</sup>과 용일의 후손들에 관해서는 이름과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용일의 형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그리하여 족보만으로 볼 때 상신은 두 아들이 아니라 ‘용일’ 하나만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논개와 직접 관련된 씨족에 관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이것이 주논개의 출생과 신분에 관한 비밀이 생기게 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논개 또는



新子姓錄卷之四

鎮安  
富貴  
五山

子商臣

基洪都而孝子  
湖子原  
配舍氏  
墓外也洞子原

子溶一

明通設大夫  
基衣水溪內而  
墓村右西原  
配連城徐氏  
墓全封

字汝玉  
墓統山下  
配晉州善氏父同  
墓下川里  
百原

子聖甲

子運彩

子大鳳

字大輝  
墓漢南而東村  
右西原  
配青松沈氏  
墓以封

子大祥

子昌傑

子昌祿

子粉遜

子文福

子完儀

字曼保  
墓于義而上面  
墓現前甲原  
配安東金氏  
墓全原于堂

子命福

子芳榮

子正榮

子俊榮

字世五至子生  
慶後十月二十  
一日卒  
配南原鄭氏父元  
一曰墓六老于  
原全封

子模榮

子度連

子雲赫

字永春  
墓及覺而孝子  
配密羅朴氏  
墓上村右

子聖載

子寧術

子珽允

子寧模

子模元

子寧德

신안 주씨 무열공파 세보에 기록된 주용일과 그의 후손들



주논개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이름인가? 그렇지 않다.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과 관련하여 왜장 가토 기요마사<sup>加藤清正</sup>의 전설적인 부장<sup>副將</sup>이었던 게이무라 로쿠스케를 살해하고 자신도 순국한 분명한 조선 여성이다.

그런데도 왜 그의 출생과 신분 그리고 가족관계와 집안에 관한 일들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 좀체 그 참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의 존재는 곧 논개가 지닌 역사적 의미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 같은 주논개의 가족사에 얽힌 오랜 비밀이 영원한 비밀로 화석화되어버린 것은 아니다. 무열공 후손 중 누군가의 눈과 입에 의해 그 오랜 비밀의 한 끝자락이 이른바 '삼대함구역전'<sup>三代緘口歷傳</sup>: 현존하는 신안 주씨 무열공파 족보 중 주용일 이후의 3대가 비어버린 비밀을 뜻함이란 화두로 유전되어 핏속에 숨어 내려왔다.

이 비밀의 화두를 품어온 것은 주용일의 후손들이다. 주용일은 다섯 아들을 두었다. 대봉<sup>大峰</sup>, 대상<sup>大祥</sup>, 대익<sup>大益</sup>, 대형<sup>大炯</sup>, 대숙<sup>大淑</sup>이다. 그중 셋째인 대익은 명의<sup>命儀</sup>에게 대를 물렸고 명이는 세 아들을 두었다. 모문<sup>模文</sup>, 모유<sup>模有</sup>, 모환<sup>模煥</sup> 3형제 중 모유가 대를 물려받았다. 모유는 도기<sup>度基</sup> → 옥용<sup>玉容</sup> → 복돈<sup>福墩</sup> → 우순<sup>尤淳</sup> → 창렬<sup>昌烈</sup> → 규상<sup>圭相</sup> 으로 대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장수군 계내면 주촌리 뒷산에 묘비와 함께 무덤이 남아 있는 주용일의 후손들은, 주용일에게 형님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의 손녀가 주논개였음을 비밀로 지녀왔다. 이 사실은 또한 장수땅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면서 '주논개'가 아닌 '논개'의 생애



와 사랑으로 자라나 더욱 또렷한 자태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다.

아무튼 함양땅의 신안 주씨는 조선 초기에는 그다지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으나 조선 중엽 이후에 이르면서 차츰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했다. 『을사乙巳 음 3월, 12월 조객록弔客錄』, 『임진 2월 부의록聘儀錄』, 『무술 8월 영객록迎客錄』, 『정해 10월 22일 영객록』, 『병오 음 3월 부의록』 등에서처럼 함양군 서상면 방지마을의 신안 주씨 가문은 오래전부터 유력 가문으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 3. 민재를 넘어서

덕유산 한 자락이 남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자갈한 능선이며 봉우리를 만들고 그 능선 한곳에 민재라는 고개를 살짝 걸쳐놓았다. 민재 동쪽은 경상도 함양땅이고 서쪽은 전라도 장수땅인데, 동쪽의 함양군 서상면 방지마을에서 서쪽의 장수군 장계면 곶촌마을까지는 산길로 30리 거리다.

민재 동쪽 계곡은 금선골, 서쪽 계곡은 싸릿골이라 불렀다. 조선의 16세기는 연산군의 정치적 광란으로 시작되었다. 뒤를 이은 중종반정의 격동도 우울한 연대기에 암울한 좌절을 더했을 따름이다. 왜구의 창궐과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불안과 침체, 정치권력의 대립과 부패는 민중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덕유산 이쪽과 저쪽 산골 사람들의 삶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는 참담한 세월 보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철쭉이 온 산록에 불을 놓는 봄철이면 민재 동서쪽 사람들은 금선골에서나 싸릿골에서 서로 어울려 산나물을 뜯고 나무껍질을 벗





논개의 선조들이 살았던 경남 함양군 서상면 방지마을 전경  
마을 뒷산이 민재, 그 너머가 장수군 계내면 궐촌마을이다

기면서 팍팍한 세상살이를 한탄하며 배고프고 눈물나는 긴긴 봄날  
을 견디곤 했다.

삶의 아프고 서러운 정도를 견준다면 경상도 함양보다 전라도  
장수땅이 더 심했다. 장수땅은 일찍이 유배지였을 정도로 험준하  
고 척박한 산악지대여서 농작물의 소출이 부실했다. 그런데도 사  
람들의 성정은 올곧고 품행은 단아했다. 산골짜에서 산나물을 뜯  
던 사람들은 서당 얘기도 주고받았다. 함양땅은 옛날부터 서당이  
흔했던 데 비해 장수땅 중에서도 궐촌 같은 산골에서는 서당을 앓  
힐 만한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궐촌 사람들은 함양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서당 얘기를 들으면서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면서 권촌 사람들은 권촌에도 서당을 차릴 궁리를 했다. 문제는 훈장이었다. 다시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함양군 서상면 방지마을에 사는 사람을 훈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주용일의 형님이 적임자로 천거되었다. 그때 권촌의 서당 훈장으로 초빙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훈장 또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초빙된 훈장의 손녀가 주논개라는 사실뿐이다. 주논개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도 주논개가 그의 고향이 아닌 낮선 땅 진주에서 왜장을 살해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주논개가 아닌 논개라는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개의 삶이 역사의 햇빛 아래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1593년 6월 진주성 함락 후 의암에서 의거가 있는 지 207년이나 지나서였다.

기생 논개는 장수<sup>長水</sup> 사람으로 공<sup>公</sup>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성으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며 적장 두 명을 유인, 마주 대한 채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 나서 자신도 죽었다. 뒷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놓기를 '의암'이라 하였으며 비를 세웠다.

1800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호남절의록』의 1권 하<sup>下</sup> 33쪽의 「임진의적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sup>壬辰義蹟 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sup> 뒷



黃武烈公熊峙梨峨之戰斬獲甚多錄宣武原從勲

忠毅公崔日休堂事實

崔慶會字善遇號三溪又號日休堂海州人文憲公冲後  
贈領議政天符子 嘉靖壬辰生自幼儀形歧嶷度  
軒豁受業於梁松川應鼎奇高峯大升門溪造淵源之  
學嘗作松竹菊爭長說行於世辛酉司馬兩試 隆慶  
丁卯文科應歎華顯連 除四邑皆有異績寧海民為  
之圖形立生祠以 殿庭試藝高等再加官資思蒼朴  
公淳以才全文武可任間寄薦于 慈席庚寅冬遭內  
艱哀毀盡禮壬辰 大駕西狩公以身居草土不得履

立祠和順加 贈左替成 英廟丙寅晉州官奴黃貴  
同於南江淺灘中見其有清澹之氣搜得一印即公殉  
節時抱而授江者也兵使馳 啓封進 上親製古印  
銘序 命鑄銀匣匣上刻銘序令本鎮立閣藏之 親  
製祭文 致祭彰烈及廢忠祠 贈謚忠毅奉葬于綾  
州俞判書家墓撰墓表權贊成摘製謚狀 伯兄進士慶  
鳥城仲兄 贈承旨慶長癸巳為總義兵將子直長弘  
器丁酉從勤 紹兵戰建德山任持平弘義丁酉為招諭  
使募義開城徑流馬弘宇癸巳以子弟佐幕同赴晉州  
匪弘受丁酉同殉鳥城從孫繼憲丙子倡義從曹原鳴  
海丙子倡義旁五代孫戶曠戊申倡義戶曠戊申殉賊  
惟資○或論介長水人公所賜也施入晉州及城陷盛  
其德澤訪賊將二人對舞南江危巖上兩手挽二  
城墜江而死後人鑄其像曰義巖立碑 和順

『호남절의록』에 실려 있는 최경회와 논개 관련 기록

부분에 부기<sup>附記</sup>된 매우 이채로운 기록이다. 여기서 공公은 최경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논개는 그의 생애가 처음 알려진 최초의 문서에서 일휴당 최경회<sup>日休堂 崔慶會</sup>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최경회라는 이름이 논개의 직계 조상이나 가족들 이름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호남절의록』보다 39년 뒤인 1839년에 간행되었으며 『호남절의록』과는 달리 「논개조」<sup>論介條</sup>를 따로 분리해놓은 『호남삼강록』은 『호남절의록』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논개는 장수의 관기<sup>官妓</sup>로 진주 병사<sup>兵使</sup>: 병마절도사를 일컬음 최



경희가 사랑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성이 함락된 뒤 왜장은 논개와 더불어 축석루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뜻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 취하자 끌어안고 누樓 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에 비를 세우고 고을 관청 스스로 매년 치제致祭를 한다. 장수 본현本縣에 정려旌闕가 있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희가 사랑했던 사람이며, 고향은 전라도 장수 땅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면서부터 논개는 마침내 삶과 죽음이 한몸으로 완성된 셈이다. 그러나 죽음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삶은 이제 겨우 사랑과 고향의 아슬한 흔적으로만 희미하게 나타났을 뿐이다. 최경희는 누구이며, 논개는 왜 그와 사랑했는가. 또한 장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성씨며 가계는 또 어떠했는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구한 사연을 겪어야만 할지 모른다.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은 모두 죽음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져왔다. 『호남절의록』은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정유재란과 병자호란 등에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절의節義한 호남 출신의 의적義蹟을 수록한 문헌이다. 이 속에 최경희와 함께 논개의 간략한 행적을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들어 있다. 따라서 『호남절의록』은 논개의 출생지 중심으로 씌어진 최초의 문헌이다. 이는 지난 207년 동안 진주에서 논의되어온 죽음에서 장수에서의 생애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놓은, 호남 사람



以忠臣烈士莫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河州克壯遺敵隱然有虎豹在山之勢則蕞爾小醜又  
 寧敢猖獗而彼強兵環坐越視者抑何心歟公之仲  
 尼院正公為繼義兵將子弘先任弘載弘宇或同事於  
 錦山晉州之役又致力於穆山之戰前後效忠何莫非  
 公義烈所激發也公嘗有詩曰浪撫腰間匣劍鳴時平  
 久絕報邊聲如今衝霍生今世虛老無成沒姓名其平  
 日所自期亦可想見詎不奇哉以其賤妾公死之日感  
 賦遺妾於江中巖石詭誘賊將因擠而俱墜死至今人  
 稱羨巖呀亦烈矣公娶羅州金遠女生二男二女長子

1751년 권적이 쓴 「경상우병사 증좌찬성 최공시장」  
 논개와 최경회의 관계를 증명하는 최초의 문서

들의 간곡한 소망이 실현된 역사적 진보였다.

『호남절의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수단유사(收單有司) 여러 사람의 이름을 쓴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사무를 맡도록 그 단체에서 임명한 사람  
 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각 집안을 방문 조사하게 한 뒤 그 조사된  
 내용을 참고로 했다. 이때 영조 26년(1750년) 3월 25일조 『승정원일  
 기』에서 영부사 김재로가 최경회의 포상을 처음으로 건의했고, 이  
 사실을 안 최경회의 현손 최급이 좌참찬 권적을 찾아가 시장(諡狀)을  
 써달라고 간청했으며, 권적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경상우병사  
 증좌찬성 최공시장」을 썼음이 알려졌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와



권적이 쓴 「경상우병사 증좌찬성 최공시장」은 『호남절의록』의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일휴당실기』가 간행되면서 논개는 장수땅에서 새롭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세 기록은 간행 과정이나 방법에서 상당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고 있었겠지만 여전히 조선 조정으로부터 공인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호남 지방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민간에서 전승되어오던 비밀스런 얘기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은 매우 큰 공헌이었다.

민중의 바다 속엔 역사의 모성이 살며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 존재한다.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온기와 진실이 묻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민중의 바다는 되살려내고 만다.

논개는 목숨 바쳐 충절을 지킨 그 고귀한 의거로 하여 시대를 초월하면서 겨레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이다. 죽음이 죽음으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다만 명백하고 단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개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짧은 생애의 빛과 그림자는 장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의 죽음을 전후한 어떤 시기부터 홀연 장수땅에서 사라져버렸다. 신안 주씨 집안의 논개와 직접 관련된 모든 증거도 이 시기에 어떤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년도 더 지나가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200년 전 그 논개가 다시 고향땅을 찾아왔다. 하지만 장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무서운 비밀처럼 전해 내려오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전설 속의 그 논개와 『호남절



의록』 등의 기록 속에서 걸어나온 논개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민중은 민중 그 자체가 기록이자 증거이며 불멸의 화석이다. 그리하여 장수 사람들에게 전승되고 있던 어느 희미한 전설 한 토막이 되살아났다. 민중이란 역사의 불씨다. 그 불씨는 피눈물과 무덤으로 지켜진다. 마침내 논개 전설이 장수 사람들 가슴속에서 강렬한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한 번 옳은 일은 영원히 옳은 법. 장수땅은 옛날부터 충절의 고장이었던 만큼 장수 사람들의 심성과 인심은 유달리 충<sup>忠</sup>과 절<sup>節</sup>에 순응했다.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일휴당실기』는 장수 사람들의 입속에서만 전승되면서 역사 밖의 어둠과 습한 그늘로서 있던 논개를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지혜이자 용기의 산물이었다. 죽은 지 25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논개의 고단한 녀를 안고 장수 사람들은 아파했다. 그런 나머지 장수 현감으로 하여금 논개의 목멘 귀향을 기념하는 의식을 베풀게 했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향도 부모도 없는 서럽고 기구한 뜨내기가 되어 온갖 험하고 사악한 입들과 곡해<sup>曲解</sup> 사이에 끼여 씻을 수 없는 능욕과 멸시받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했다.

고향이 밝혀진 지 207년, 그런 뒤로 다시 46년이 더 지난 1846년, 마침내 고향땅 장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죽음으로만 떠돌다 돌아온 논개에게 장수 사람들이 바친 헌시이자, 장수 사람들의 목멘 환영사를 장수 현감 정주석<sup>鄭胄錫</sup>은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광풍이 몰아쳐 천만 가지 물건이 뒤섞이어 대오<sup>隊伍</sup>를 가릴 수 없듯이 전쟁으로 인해 흐트러진 질서를 영웅 열사라도 어찌 할 수 없는데 연약한 여자가 큰뜻을 헤아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마치 자기 집에 돌아가듯 가볍게 하였으니 어찌 열렬이라 아니할 것인가.

거사 당일을 생각해보면 서릿발같이 차고 고추같이 매운 그 기개가 하늘의 해와 별같이 빛났으니 이 어찌 장하다 아니할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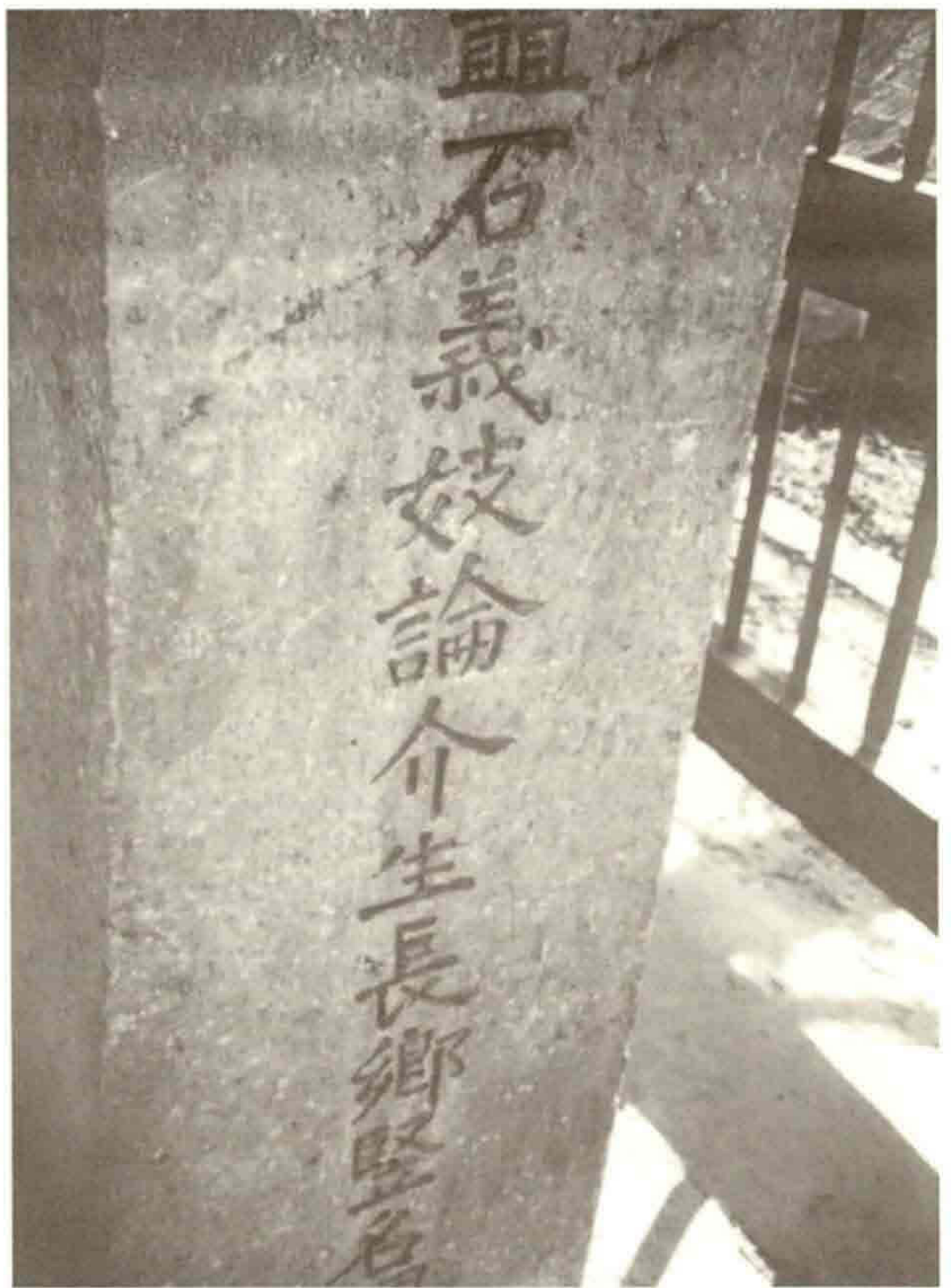
산에는 신령스런 풀이 있고 물에는 맛있는 샘이 있어서 군자도 칭송하는데 하물며 예사 사람으로서야 칭송하지 않을 수 없도다. 절개는 본래 타고난 천성이라 말한다.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육십 평생이 되었으니 썩은 선비라 오히려 부끄럽구나.

언제나 의, 열의 큰 공을 세운 이 여인에게 고운 옷을 입듯 공경심이 생기고 항상 감개무량하여 이제 수명비를 세워서 후세에 전하고 남은 여생을 순한 바람이 불어가듯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을 써서 새긴다.

승전기원 네번째 병오년 구월 상순 현감 서원 정주석 조심스럽게 비문을 짓고 아들 기염이 비문을 씬.

— 「족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sup>蠡石義妓論介生長鄉暨名碑</sup> 중에서





장수읍 의암사 경내에 있는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

#### 4. '낳은 개'와 '놓은 개'

이렇듯 죽음보다 뒤늦게 밝혀진 삶이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 않듯이, 논개의 삶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논개의 출생, 이름이 지닌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끝없는 상상력과 자기합리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논개의 출생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지닌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개의 조부는 통정대부<sup>通政大夫</sup> 주용일<sup>朱溶一</sup>의 형님인데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권촌에 살았다. 이 마을은 주씨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이라고도 불렀다. 주용일의 형님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촌 방지마을에서 민재를 넘어 장수로 이사를 왔는데, 오래전부터 기울어진 집안 형편 때문이었다. 주용일도 그의 형님을 따라 장수로 이사했다.

논개의 아버지도 그의 부친이 가르치던 주촌 서당의 훈장으로 생업을 이었다. 논개 모친은 밀양 박씨이며 그의 선조는 팔도 병사<sup>八道兵使</sup>로 황석산성 싸움에 공적이 큰 박명박 장군이다.

논개 조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높은 학문과 도덕을 잘 배워 문장과 덕행이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논개 조부는 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양 서상면 방지마을에서 살다가 그의 학식과 덕망이 민재 너머 장수 권촌까지 널리 알려져 그곳 서당 훈장으로 초빙되어 이사를 한 셈이다.

논개 아버지에게는 '대룡'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에 괴질로 죽고 그의 아내는 마흔 살 중반까지 태기가 없었다. 부부는 아들 잃은 실의를 딛고 함양 덕유산의 영각사에 3년 동안 치성을 드린 끝에 딸을 얻었는데 그가 논개다.

논개가 태어난 생년월일은 1574년 9월 3일 밤이다. 태어난 생년월일을 사주<sup>四柱</sup>로 따지면 사갑술<sup>四甲戌</sup>이 된다. 즉 갑술년<sup>甲戌年</sup>, 갑술월<sup>甲戌月</sup>, 갑술일<sup>甲戌日</sup>, 갑술시<sup>甲戌時</sup>에 해당된다. 술<sup>戌</sup>은 지지<sup>地支</sup>로서는 제11위에 해당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부인이 개를 낳았다며 위로해준 뒤 딸의 이름을 논개<sup>論介</sup>



라 지었다.

이런 내력을 지닌 '논개'라는 이름은 곧 여러 사람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전설이 되고, 여러 가지 독특한 기록으로 남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름에 관련된 여러 내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1) 음운학적 관련설

논개가 태어난 1574년 9월 3일 밤을 사주로 따지면 사갑술<sup>四甲戌</sup>이 되는데, 개<sup>戌</sup>가 네 마리인 셈이다. 술<sup>戌</sup>을 개띠라고 이르는 습속의 영향이다. 논개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술<sup>戌</sup>이 넷이니 개라는 의미가 매우 강렬하다. 조선왕조 역사 중에서도 실제로 사갑술 사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조<sup>英祖</sup>가 그 장본인이다.

둘째는 '개<sup>戌</sup>를 낳았다'라는 표현 방법이다. 즉 '낳는다'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놓는다'가 된다. 실제로 경상도에서는 '얼라 놓는다' '에미돼지가 새끼를 놓는다' '아 놓으로 친정 간다'에서처럼 '낳는다'를 '놓는다'로 발음한다. 논개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도록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장수로 이사했기 때문에 발음은 여전히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셋째는 자식이 귀한 형편이 되어버린 논개 아버지는 요절한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침통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중에 아내가 출산한 아이가 딸인 데다 기이한 사



주까지 타고난 것으로 확인되자 몹시 착잡한 기분이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서운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록 딸자식이긴 해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즉흥적인 작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천한 이름은 운명을 길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오랜 민중의 정서가 크게 작용했다.

개<sup>戌</sup>를 낳았다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개를 놓았다가 되는데, 이것을 이름이 되도록 정리해보면 '놓아놓은 개' 또는 '놓은 개'가 되며 이를 다시 경상도식 발음으로 말하면 '놓은 개'가 된다. 이 '놓은 개'를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그냥 '노옹개'로도 발음하고, '노은개' 또는 '논개'로도 발음한다. 이 '논개'가 이두음<sup>吏讀音</sup>을 따서 '논개<sup>論介</sup>'로 되었다. 그리고 흔히 귀한 자식들의 어릴 적 이름을 개똥이니 바우니 하고 불러서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갈망해온 우리 민족의 오랜 습속도 참작하여 개<sup>戌</sup>를 개<sup>介</sup>로 썼다는 전설과 기록들이 많다.

## 2) 천민 출신설

논개<sup>論介</sup>라는 이름으로 볼 때 그의 출신 성분이 천민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논개라는 이름만으로 보면 그녀가 양가 출신이라곤 수긍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나치게 개<sup>戌</sup>와 개<sup>介</sup>의 표현상 느낌이 지닐 수 있는 천박성에 민감한 나머지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논개와 똑같은 이름을 그녀가 살았던 당시의 기록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기록상의 논개는 분명 천민이 아니



있기 때문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논개 여산군인 양인조충량지여야”論介 礪山郡人 良人曹忠良之女也라고 적혀 있다. 그 밖에 덕개德介, 옥개玉介, 인개仁介 등 논개와 유사한 이름들은 임진왜란 이전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논개’論介라는 이름이 풍기는 느낌만으로 그녀가 천민 출신이라고 단정짓는 주장들은 아무래도 경솔해 보인다. 또한 어떻게 든 논개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남성들의 근거 없는 남성우월주의의 한 증거—실제로 여성이 그런 주장을 편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씨朱氏 부정설

논개의 성과 이름이 주논개朱論介라는 통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노운개盧雲介라는 설과 노은개魯隱介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경우는 논개의 출신이 몰락한 양반인가 아니면 천민인가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개의 본성本姓을 일설에는 송씨宋氏라 하기도 하고, 노운개라는 본명이 잘못 전해져서 논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등 이름조차 분명치 않고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가 천한 집안 출신임에 틀림없는 듯하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도 ‘음운학적 관련설’의 연장선상에서 파생된 한 갈래일 뿐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 4) 일본 이름설

‘논개’論介라는 이름이 일본 이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介자라는 글자를 일본 이름이라는 증거로 내세운다. 일본인들의 이름자 끝에 ‘介’자를 붙이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 이름에 주로 사용하고 여성 이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론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은폐시키고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은폐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 그중 하나는 논개가 처음부터 일본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처음부터 그의 연인이었던 논개를 조선으로 데리고 왔다가 진주성 전투 때 실수로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논개가 조선 여인이었지만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위용에 매료되어 그의 연인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 함께 일본 게야무라의 고향으로 가서 자식까지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개신장군이 되어 돌아간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신아홉 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고향인 후쿠오카 지방 게야무라 마을에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 여러 개의 전설이 떠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까지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나치게 게야무라 로쿠스케 신화에 기울어진 나머지 일본의 전설과 기록을 맹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게야무라 로쿠스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전혀 몰랐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하지 않고는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생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논



개라는 이름이 일본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측인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본 사대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결국 '논개'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지난 400여 년 동안 저토록 다양한 견해가 생겨난 것은 논개의 출생지와 사망지가 달랐고, 죽은 후 207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지나도록 출생지와 출신 가계 등이 철저히 가려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주논개'가 아닌 '논개'라는 이름으로만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논개'가 아닌 '논개'라고만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죽음이 지니고 있는 매우 특수한 동기와 비밀스런 죽음의 결심 그리고 목숨을 건 의지의 실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운명

公之死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其志之壯猷隱然有虎豹在山之勢則曩爾小醜又  
何足道哉而彼強乎環坐越視者抑何心歎公之仲  
尼也公為繼義兵將子弘笄任弘載弘字或同事於







## 1. 장수 현감 최경회와의 만남

논개의 생애와 죽음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최경회’<sup>崔慶會</sup>다. 최경회와의 만남을 통해 논개의 생애와 죽음의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논개의 일생과 죽음을 말해온 수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대목도 바로 최경회와의 만남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도 전설과 기록들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전하고 있다. 논개의 이름과 출생의 비밀에 뒤이어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기록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논개의 생애 한 부분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 아버지 주달문<sup>朱達文</sup><sup>2)</sup>은 궁핍한 살림살이를 유산으로 남겨놓고 죽었다. 논개 나이 열세 살 때였다. 논개 어머니 박씨 부인은 외동딸 논개를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던 중 시동생에게서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박씨 부인과 논개 모녀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시동생 주달무와 한집에서 지내자는 것이었다. 살림살이를 합치면 농사와 다른 고된 일은 남자인 달무 자신이 맡아서 할 테니 박씨 부인은 그저 집안 살림이나 돌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여러 날 궁리 끝에





논개 어머니 밀양 박씨의 친정 마을인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전마을

박씨 부인은 시동생 달무의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살림을 합쳤다.

한편 달무는 형님 달문이 죽고 난 뒤 이웃에 사는 김풍현에게서 은밀하게 묘한 제의를 받았다. 김풍현은 동네에서 끼니 걱정 않고 부유하게 사는 자였다. 그런 그에게 나이가 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이었다. 비록 살림살이는 흠족하다 하지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해 그의 아들은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김풍현은 마침 달문이 죽고 홀로 된 박씨 부인의 외동딸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달문이 살아 있다면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었다. 박씨 부인의 가정 형편은 웅색하기 그지없었고, 더구나  
달무라는 위인은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축내며 사는 데다 적  
지 않은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음모였다.

김풍헌은 달무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손길을 뺏겼다. 달무  
의 조카 논개를 김풍헌 집의 민며느리로 들여보내주면 그동  
안 달무가 시달려온 채무 전액을 갚아주는 것은 물론 상답으  
로 다섯 마지기를 얹어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달무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속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리하여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박씨 부인과 살림을 합치자는 제의를  
했고, 박씨 부인이 망설이는 사이사이 설새없이 채근질을 했  
다. 끝내 살림살이를 합치게 되자 달무는 김풍헌과 은밀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논개를 김풍헌 집의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구두 약속을 한 다음 빚을 갚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김  
풍헌에게서 받았다. 논개가 민며느리로 들어오기만 하면 땅  
문서는 그 즉시 넘겨준다는 약속도 함께 받았다.

달무는 손에 큰돈을 쥐게 되자 그길로 노름판에 뛰어들어 집  
을 잇고 지냈다. 나쁜 소문은 걸음이 빨랐다. 박씨 부인이 시  
동생 달무가 저지른 비행을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시동생 달무가 그토록 살림을 합치자고 종용  
했던 이유를 알았다. 살림을 합친 이상 논개에 대해 달무도  
친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서둘렀다는 것을 뒤늦  
게야 알고서 후회했다.



박씨 부인은 궁리 끝에 논개를 데리고 도망을 치기로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논개를 김풍현의 민며느리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다. 그것도 돈과 토지를 받고 논개를 인신매매한다는 세상의 비난을 듣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재를 넘어 경상도로 도망쳤다. 우선 박씨 부인 친정 마을인 안의현 봉전마을<sup>지금의 함양군 서하면 봉전로</sup>로 피신했다.

박씨 부인이 논개를 데리고 달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김풍현은 달무를 찾았지만 달무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김풍현은 장수 현감에게 주달무와 박씨 부인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혼인하기로 약속하면서 건네준 혼인 예물을 장만하기 위한 돈을 횡령한 채 도망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장수 현감은 최경희였고, 최경희는 즉시 박씨 부인과 주달무를 체포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달무는 행방불명이었고, 친정 마을에 숨어 있던 박씨 부인과 논개는 장수 현감 최경희 앞으로 끌려나왔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다.

이것이 논개와 최경희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과정의 맨 첫 번째 부분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모순점이 드러난다. 기존의 여러 전설과 기록 간에 존재하는 모순과 문제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큰 모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논개와 최경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 즉 혼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횡령하고 도주한 죄목을 주요





최경희 영정

안건으로 한 재판이 열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하고 있는 여러 기록의 공통된 모순점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존 기록들이 지닌 공통된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최경희의 공인된 이력서는 매우 훌륭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논개 열세 살 때 주달문이 죽었고, 그리하여 박씨 부인이 시동생에게 의탁했는데, 이를 기화로 달무가 일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모든 전설과 기록이 공통적인 핵심 사항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다.



즉 논개가 태어난 것은 1574년이고, 주달문이 죽던 해에 논개 나이 열세 살이었다는 것이 기존 전설과 기록의 공통점인데, 논개 나이 열세 살 되던 때는 1586년<sup>선조 19</sup>이 된다. 따라서 1586년이던 바로 그해에 최경회는 과연 어디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최경회<sup>1532~93</sup>에 대한 공식적인 이력서를 들춰보기로 하자.

- 이조 중기의 문인이자 무인.
- 자는 선우<sup>善遇</sup>, 호는 삼계<sup>三溪</sup>, 시호는 충의<sup>忠毅</sup>, 본관은 해주<sup>海州</sup>.
- 1532년 전라도 화순현 삼천리에서 아버지 천부<sup>天符</sup>, 어머니 순창 임씨 사이의 셋째아들로 태어남.
- 1546년<sup>15세</sup> 나주 김씨와 결혼.
- 1548년<sup>17세</sup> 송천 양응정<sup>松川 梁應鼎</sup> 문하에서 수학. 그해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입음.
- 1557년<sup>26세</sup> 고봉 기대승<sup>高峰 奇大升</sup> 문하에 들.
- 1561년<sup>30세</sup> 사마시에 응시, 생원·진사 양과에 합격.
- 1567년<sup>36세</sup> 식년문과<sup>式年文科</sup>에서 을과 제1인으로 급제.
- 1574년<sup>43세</sup>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을 거쳐 옥구 현감.
- 1575년<sup>44세</sup> 홍양 현감.
- 1577년<sup>46세</sup>~1579<sup>48세</sup> 장수 현감.
- 1579년<sup>48세</sup>~1581<sup>50세</sup> 무장 현감.
- 1582년<sup>51세</sup>~1583<sup>52세</sup> 영암 군수.



- 1584년<sup>53세</sup>~1587<sup>56세</sup> 영해 부사.
- 1587년<sup>56세</sup>~1590<sup>59세</sup> 사도시정<sup>司藥寺正</sup>.
- 1590년<sup>59세</sup>~1591<sup>60세</sup> 담양 부사.
- 1590년<sup>59세</sup>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돌아가면서 사직.
- 1592년 7월<sup>61세</sup> 모친상중에 의병장이 되어 금산, 무주전투에서 전공을 세움.
- 1593년 4월<sup>62세</sup>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됨.
- 1593년 6월 15일 진주성으로 들어와 전투 준비를 함.
-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의 책임을 지고 남강에 투신 자살.

1586년 8월(또는 여름)에 장수현 관아에서 장수 현감 최경희가 논개 모녀에 대한 재판을 주재했다고 통설들은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설들이 주장하는 1586년에 최경희는 어디서 무슨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가. 기록에 따르면 1586년<sup>선조 19</sup>에는 영해 부사로 부임해 있었다.

그렇다면 논개 나이 열세 살 때이자 1586년이던 그해에 주달문이 죽고 그 때문에 달무와 박씨 부인이 살림을 합치는 사정이 발생했으며 뒤이어 민며느리 사건이 있었다면, 박씨 부인과 논개를 재판한 사람은 장수 현감 최경희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논개와 최경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생길 수가 없고, 더더욱 논개는 최경희가 사랑한 여인이 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

논개가 태어나던 해인 1574년 당시 최경희는 43세의 장년으로





장수 사람들이 세워준 최경회 현감의 송덕비(오른쪽에서 두번째)

옥구 현감으로 있었고,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부임한 1577년은 그의 나이 46세였던 데 비해 논개는 겨우 네 살에 불과했다. 최경회는 1577년에 부임하여 1579년 48세 때 무장 현감으로 옮겨가기까지 약 3년 동안을 장수 현감직에 머물면서 선정을 베풀었고, 장수 사람들은 그에게 선정공덕비를 세워주면서 그의 업적을 두고두고 기렸다.

『호남절의록』 등이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있을 때 논개 모녀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 결과 논개가 장수 관기가 됨과 동시에 최경회가 논개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논개의 나이가 과연 몇 살쯤이나 되었을까? 최경희에 관한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가 장수 현감을 지낸 1577~79년까지는 그의 나이 46세에서 48세 때였는데, 그때 논개의 나이는 겨우 4세에서 6세 사이에 불과하다. 그런 어린 여자아이를 최경희가 그것도 공식 기록 등에서 “관기 논개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을 만큼 가까이 두었다는 말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경희가 논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경희가 장수 현감에서 물러난 1579년 당시 논개의 나이가 스무 살쯤은 되었어야 할 것이고, 진주성 함락 때인 1593년에는 줄잡아도 35세 전후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어야만 옳다.

그런데 논개의 죽음을 기록한 모든 기록이나 전설은 논개가 죽던 때 그의 나이를 한결같이 꽃다운 19세 또는 20세쯤의 어린 나이였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논개의 아버지가 사망한 연대와 민며느리 사건이 발생한 연대는 매우 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여러 기록과 전설은 최경희라는 매우 중요하고 귀한 가치를 지닌 인물의 공식 기록들보다는 논개의 극적인 삶에서 느껴지는 교훈과 감동에 몰입해버린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문제는, 1574년에 논개가 태어났다는 것, 1577~79년까지 최경희가 장수 현감을 지냈다는 것, 그리고 논개의 민며느리 사건과 박씨 부인의 친정으로의 도피가 있었고, 그로 인한 재판이 장수 현 관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 그때 최경희가 재판을 맡았고, 소신껏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재판 결과로 논개와



최경희의 숙명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그 재판이 있는 지 15년 뒤인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되고, 논개는 부군 최경희의 죽음이 있는 뒤에 적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살해하는 의거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인정한다면 기존의 전설과 기록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온 논개 열세 살 때 아버지가 죽고 그 죽음의 결과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 2. 달빛에 물든 전설적 사랑

무섭도록 궁핍한 살림살이였지만 총명하고 젊은 한 조선 여성의 비극적 삶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것이 논개의 생애다. 아버지가 죽은 뒤 논개와 박씨 부인이 겪은 고생이나 인권유린은 여성을 주체로 보지 않고 아버지 또는 남성 중심 가계 구조의 종속적 일원으로밖에 보지 않는 조선시대 가부장적 규범의 처참한 피해자임을 뜻한다. 논개의 혼사 결정권이 숙부 주달무가 아닌 논개 자신이나 박씨 부인에게 있었거나, 무책임하고 방탕한 주달무의 후견 없이도 논개와 박씨 부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혼인을 빙자하여 금품을 횡령했다는 파렴치범으로 재판을 받는 불행은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은 벌어졌다. 장수현 관아에서 시작된 재판이 아니었다면 논개와 최경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논개보다 42세나 나이가 많은 최경희가 논개를 부실로 삼았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



적이다. 그래서 많은 전설과 기록이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생겨나고, 새살이 돋고, 모든 사람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된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불가사의한 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전설이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통틀어 19년밖에 살지 못한 논개의 짧은 생애 어느 굽이에서 그 아득한 사랑의 하늘이 떠 있었을까?

허다한 남성들이 남성의 권위와 명분을 위해 나이 어린 여자를 즐겨 첩실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는 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만큼 여자는 나이가 어리고 남자는 늙어버린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런 경우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자들은 대개 비천한 신분이다 가난하지만 총명하고 감쪽한 용모를 지닌다. 남자는 약간의 금전이나 양식, 드물게는 토지 문서를 여자의 부모 손에 쥐여줌으로써 당당하게 어린 여자를 첩실이란 이름으로 데려간다. 그러다가 남자가 죽고 나면 여자는 수절을 강요받거나 개가한다. 그렇게 속물적 육욕의 공급자로서 탕진당하고 마는 것이 지난날 조선 여자의 일생이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세속적인 조건으로만 놓고 볼 때 논개와 최경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달랐다. 진주성 함락 후 최경회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 그때 논개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서 조선 사회가 규정해놓은 전통적 가치로서 가장 여성다운 것이라고 단정지어놓은 것은 먼저 간 부군을 따라 자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결은 조선 사대부 여자들이 오랜 전통적 덕목으로 숭앙해온 의열<sup>義烈</sup>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전통이란 자칫 감옥으



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논개는 그 같은 전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났다. 엉뚱하게도 적장 살해를 통해 충절<sup>忠節</sup>을 실천했다. 조선 사대부 여인들의 보편적인 의열을 초월한 것이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한 빛이며 향기다. 그 같은 비범함은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잉태되기 어렵다. 자연적 자아가 아닌 초자연적 자아로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적극적 변신의 기회가 필요하고, 그 기회를 자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갈망해야만 한다. 초월적 변신에 의한 정신적 힘이 현실 세계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초자연적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언제쯤 있었을까?

이는 논개의 최경희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흠모의 영향력으로서만 가능하다. 평범한 부부 관계나 혼한 일상에서의 첩실 관계로서는 상상하기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아스러움을 증폭시키기 위해 기존의 전설과 기록들은 억지에 가까운 모순된 일들을 조작해 남겨놓고 있다. 그런 전설과 기록들은 논개를 고소설 속의 여성 영웅과 흡사한 재능의 소유자로 전달하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른테면 혹독한 궁핍과 문란한 사회 기강 속에서 조선의 대부분 아이들은 굶주림과 무지의 세월을 살았지만, 논개는 아버지가 훈장이어서 언제나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또한 옛날부터 유교사회에서는 비록 부모나 남자 형제가 지식계급일지라도 여자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같은 사회 습속 때문에 여자는 늘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 그러나 논개는 아버지에게서



직접 글을 배웠고,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경우에서 논개의 특별한 재능과 용모, 상식을 뛰어넘는 기회와 조건이 부여되었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래서 논개와 박씨 부인의 재판과 재판 이후의 과정과 상황에 관해 최경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기준점을 등한시한 채 논개의 시련과 고통만을 돋보이게 하려고 매달린 나머지 또다시 사실의 왜곡과 과장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논개와 박씨 부인이 겪게 된 분노와 비애에만 매달린 나머지 최경희의 시간적·장소적 이동과 변화에 대한 관찰을 등한시켰거나 아예 무시한 채 논개 삶의 비극성과 극단적인 인내심 연출에만 몰두해왔다. 이렇게 시작된 논개와 최경희의 사랑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전해진다.

#### 1) 장수현 급수노비설

이 주장은 논개와 그의 어머니가 장수현 관아에서 최경희 현감으로부터 재판받는 장면을 주로 강조한다.

논개 모녀는 경상도 안의현 봉전마을 논개 외가에 숨어 있다가 장수현에서 급파된 포졸들에 의해 체포되어 압송된다. 사실 심리가 시작되자 이 사건은 뜻밖으로 매우 중대한 쟁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 차례대로 규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작 동시에 심리를 진행시켜야 할 주달무가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꺾석이었다.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진술이 빠진 상태에서 재판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김풍헌과 주달무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김풍헌이 고소장에서 주달무에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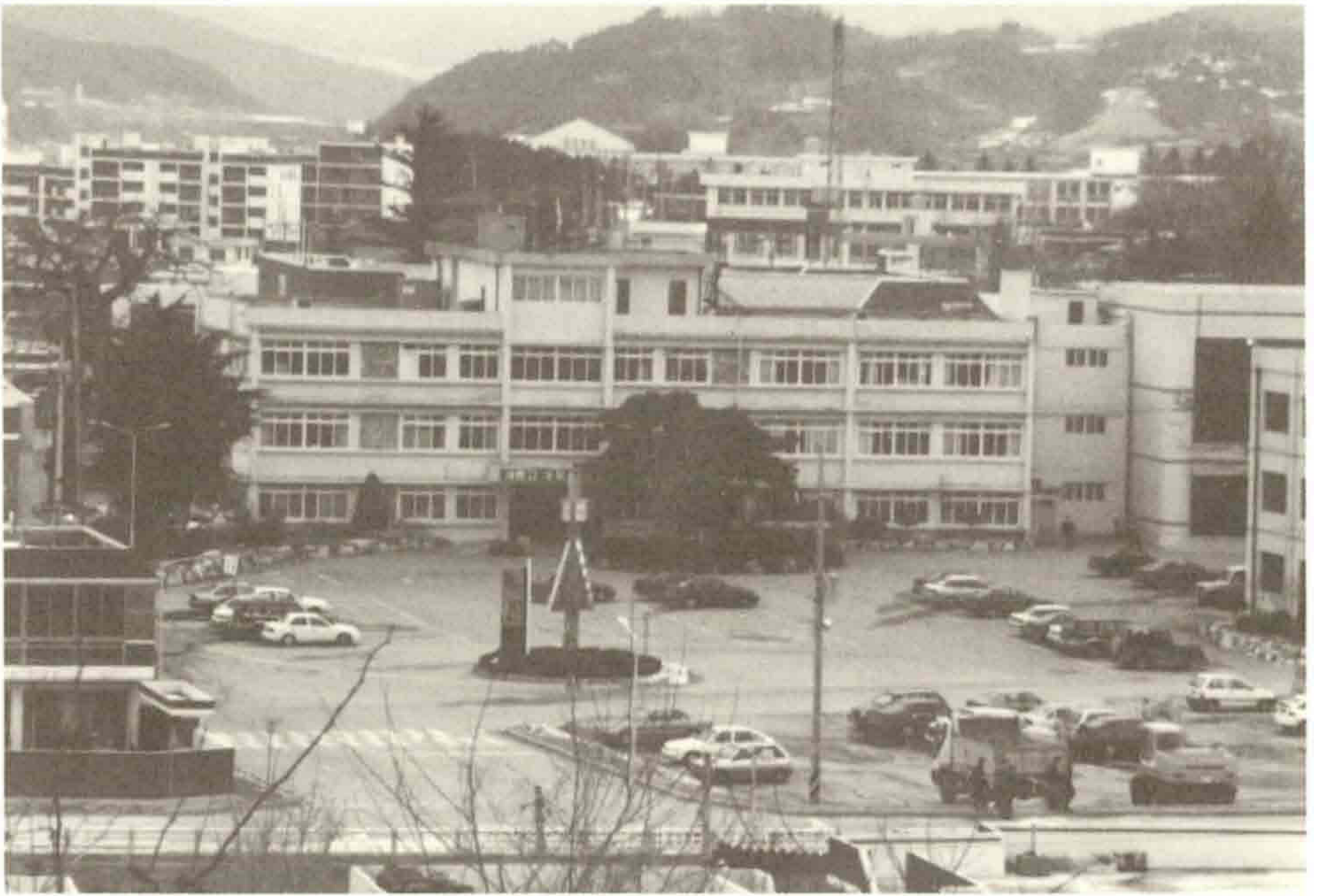
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실질 액수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달무를 체포해야만 했다.

주달무는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런데도 김풍현은 모든 책임을 주달무에게 뒤집어씌웠다. 논개를 민며느리로 데려가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도 주달무였으며, 여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결정한 것도 전적으로 주달무 혼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풍현은 주달무의 그런 제의를 받고 나서 주달무를 나무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비록 자기 자식이 성치 못한 몸이다 정신도 온전치 못하여 나이가 들도록 혼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감생심 감히 어찌 논개 같은 아이를 민며느리로 들여놓을 생각을 꿈엔들 할 수 있겠느냐며 주달무를 꾸짖었다 한다.

또한 주달문이 살아 있었다면 주달무가 이 같은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겠으며, 홀로 된 박씨 부인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거리는 크게 비난받을 비인간적 처사라며 거듭 꾸짖었다 한다. 그래도 주달무는 김풍현을 설득하려 들었다. 하도 권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주달무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었더니 결국 이 지경이 나고 말았는데, 김풍현 자신도 피해자라며 소리소리 친다.

논개 어머니는 김풍현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달무가 비록 낭비벽이 있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품성 때문에 더러 술도 마시고 투전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야 웬만큼 바깥 출입하는 사내치고 안 그런 사람 있겠느냐며 시동생을 옹호했다. 그리고 대





논개의 재판이 있었던 장수현청 자리(지금의 장수군청)  
청사 앞에 있는 4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논개의 솔'이라 부른다

곡리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도 김풍헌이 먼저 주달무를 회유하고 협박해서 끌어들이는 다음 금전으로 함정을 파서 빠뜨렸다고 하는데 그 소문을 귀담아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최경희 현감은 나졸을 대곡리로 보내 논개 어머니가 들었다는 그 소문의 실재 여부를 알아보도록 했다. 그러자 김풍헌은 사람을 시켜서 그 같은 소문이 나졸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했다. 풍헌이라는 지위의 위세와 지주라는 무시하지 못할 세도를 앞세운 위협이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소문의 실상대로 말해주었다.



최경희 현감은 고뇌했다. 주달무가 등장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판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최경희는 심리를 계속 연기시켰다. 주달무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김풍현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

논개 어머니의 진술은 지극히 간단했다. 남편이 죽은 뒤 곤경에 처한 자신들을 돌봐주겠다고 여러 번 말해온 시동생의 고마운 마음을 존중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논개가 민며느리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시동생은 벌써 그 대가를 지불받아 어디론가 달아나버렸으며, 김풍현은 논개를 민며느리로 데려가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경희는 거듭해서 주달무와 논개 어머니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김풍현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다음 주달무가 특정 거처로 먼저 도망가 숨어 지내고, 주달무가 없는 재판은 결국 논개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풀려난 논개 모녀가 이미 주달무와 약속된 특정 거처로 가서 돈을 나눠 갖자고 모의했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논개의 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궁핍하기는 했지만 어엿한 훈장 가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논개 모녀와 주달무는 사전에 어떤 모의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결국 최경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만 했다. 주달무가 체포되는 대로 심리를 재개할 것이며, 김풍현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주달무를 데려와서 계약내용을 확인시



켜야 할 의무가 있고, 논개 모녀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개 모녀는 무죄 석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주달무가 체포되어 논개 어머니의 진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중형에 처하리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논개 어머니가 최경회 현감에게 호소한 내용 때문이었다.

비록 무죄로 판명되어 죄인이라는 누명을 벗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논개를 데리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선 자신들이 살아온 대곡리로는 돌아가 살 수 없었다. 주달무가 일을 저질러놓고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김풍헌이 또 무슨 일을 벌여서 모녀를 위협할지 두렵다는 것이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도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여자는 출가외인인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 집안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장수현청에서 무슨 일이든 해주면서 적당한 거처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긴급한 피난인 셈이었다.

최경회는 여러 가지로 궁리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안심하고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는 최경회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수 현감이 임의대로 논개 모녀를 관아에 머물게 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만 임시로 내아에서 지내되, 내아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하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논개 모녀가 안심하고 돌아가 살 곳이 나타나지 않은 채



최경희는 다른 곳으로 전직되어 갔고, 논개 모녀는 결국 장수 내아에서 급수<sup>汲水</sup>노비로 등록되어 살았다. 그러다가 박씨 부인이 죽자 논개는 장수 관기로 적을 옮겼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과 흡사하기는 하지만 논개 모녀가 장수 내아 급수노비로 살게 된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는 주장도 있다. 즉 재판 결과 논개 모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경우다.

비록 주달무가 체포되지 않아서 김풍헌과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논개의 혼인 결정권은 주달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머니 박씨 부인에게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따라서 주달무와 박씨 부인이 논개의 혼사 문제에 관해 어떤 의논도 하지 않았고 주달무가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김풍헌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은 박씨 부인이 김풍헌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전적 손실을 배상해줄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장수현 급수노비로 3년간 복역하라는 내용이었다. 박씨 부인은 급수노비가 되었지만 나이도 쉰 살 후반인 데다 몸이 병약하여 급수노비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논개가 최경희에게 어머니 대신 자신이 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거둬진 논개의 호소에 최경희는 감동했다. 그리하여 3년 형기를 2년으로 감형시켜주면서 논개에게 대리복역을 허락했다. 논개가 복역을 마쳤을 때 최경희는 다른 지역으로 전임된 뒤였고 박씨 부인도 그동안 병을 앓다 죽고 없었다. 오갈 데 없어진 논개는 결국 장수 관기로 적을 옮겨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때 마침 최경희가 의병대장이 되어 장수 월강평야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의병 모집도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소식을 들은 논개는 그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최경희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월강평야에서 훈련 중인 의병들을 도왔다. 최경희가 진주로 갈 때 의병들과 함께 논개도 따라가서 죽었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주장은 서로 얼마만큼씩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꽤나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허구성과 모순은 자칫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 자체를 부정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논개가 겪게 된 불우한 처지와 절망적인 환경에만 지나치게 천착해 들어간 나머지 사실 확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주장들이다.

먼저 논개가 열세 살 때 주달문이 죽자 논개 모녀가 시동생에게 의탁했는데 이를 기화로 달무가 일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재직했던 역사 기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개된 것이다. 또 논개가 태어난 해인 1574년과 사망 연도인 1593년이라는 불변의 기록 또한 전혀 참작하지 않고, 오로지 논개의 전설적 삶에만 몰두하여 과장하고 확대시킨 나머지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주달무가 논개를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들여놓을 때론적 음모를 획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달문이 죽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주달문이 죽은 때를 논개가 열세 살 되던 1586년<sup>선조 19</sup> 겨울이라고 한다. 그해 겨울을 지내고 다음해 봄 주



달무가 논개 모녀를 설득했으며, 그해 늦은 봄 김풍현과의 밀약이 폭로되고 초가을에 재판이 결정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논개의 민며느리 사건이 터졌을 때 논개 나이는 14세여서 혼인시기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 민며느리 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논개 어머니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수현 급수노비형을 선고받는다. 그때 박씨 부인의 나이 벌써 쉰 살 후반인 데다 병약했던 탓으로 논개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복역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논개의 지극한 효성이 인정되어 감형 처분을 받는다. 논개가 복역을 종료한 뒤에도 최경희는 장수현감으로 계속 재직 중이었고, 논개는 복역 중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귀향처가 없었다. 그런 사정을 눈치 챈 최경희의 아내 나주 김씨가 논개를 내아에 머물면서 살림살이를 돌보도록 선처를 베풀었다. 그때 이미 논개 나이 열다섯 살이었다. 김씨는 그때 몸이 몹시 병약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양해야 할 형편이었다. 결국 김씨는 화순으로 돌아가기 전에 최경희로 하여금 논개를 부실로 들어앉힐 것을 간청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 논개는 1574년에 태어났다. 주달문이 죽었다는 1586년에 논개 나이 13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1586년 여름 장수현 관아에서 논개 모녀가 어떤 이유로든 재판을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1586년 당시 장수현감은 최경희가 아니었다. 그때 최경희는 영해 부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장수현감이 영해 부사의 명령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체제도 사정도 아니었다. 따라서 1586년 겨울에 주달문이 죽고,



그로 인해 동생 주달무가 홀로 된 형수 박씨 부인과 어린 조카의 궁핍하고 외로운 처지를 악용하여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비밀계약을 체결한 탓으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587년 여름이며 당시 재판관이 장수 현감이었던 최경희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586년 주달문의 죽음에서 비롯된 1587년 논개 모녀의 재판 자체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원인이 되어 전개된 논개의 장수 관기 입적설이나 최경희의 부실이 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허구다.

## 2) 장수 관기설

혼인빙자 재물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였다. 그러나 논개 모녀는 신변의 위험과 극도로 곤궁한 생활고로 인해 장수 관기로 적을 옮겼다. 관기로의 변신은 조선시대 몰락 양반 가문의 여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유형이기도 하다. 아무튼 장수 관기설은 논개와 최경희가 만난 시점을 놓고 다시 의견이 갈라진다.

첫 번째 의견은 이렇다.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있을 때 논개의 민며느리 사건 송사 해결과 관련하여 논개는 은덕을 입었으며, 그 후 가문이 몰락하여 기생이 되어 있던 중 임진왜란이 터졌다. 최경희가 의병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논개가 은인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하여 최경희가 의병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장수 월강평야로 가서 의병들을 돕다가, 진주성으로 이동할 때



後已邢從督珩亦請忠魂毅魄凜然如生事聞上  
 震悼敕曰天將稱美佞奴忌憚可謂名動三國贈  
 吏曹判書 賜祭旌閭 仁廟加贈左贊成 英祖  
 丙寅晉人得銅印於南江殉節處 上親製印銘以  
 寵之錄用其子孫因 賜諡焉配羅州金氏教授遠  
 女男曰弘器直長達憲其側出也壻曰鄭惇參奉生  
 之推參奉之授生員曰文弘猷生員生瑗曰弘績武  
 奉事宗憲智憲準憲通政梁禹弼其子與壻也內外  
 曾玄不盡錄而公二兄慶雲慶長二姪弘載弘宇及  
 弘器或殉節焉或繼義塲此皆公懿烈所激發而妾  
 論介公死之日誑誘賊將擠之而投死江中尤亦奇  
 矣嗚呼余每讀國乘至壬辰之變輒三復慷慨於晉  
 陽之事曰唐室之中興由睢陽之保障江淮也我  
 朝之匡恢基晉陽之藩蔽湖嶺也一國之重本係湖  
 嶺湖嶺之衝要在晉陽無晉陽則湖嶺不得守湖嶺  
 不守則國亦難為國矣當晉陽之陷也賊之精銳亦  
 盡於是故收餘兵撤還而湖嶺賴以得全其偉功盛  
 烈可與幸州之捷露梁之戰相上下矣天道好還善  
 惡必報則當借手於後之人以一劔縱橫于南蠻而  
 掃盡妖氛伏平原而答其背上以復 二陵之讎下

연재 송병선이 쓴 「병사 증좌찬성충의공 최공경회 신도비명」

논개와 최경회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헌

함께 따라가 전투에 참가했고, 진주성 함락 때 최경회가 자결하자 은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적장을 죽이고 논개도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논개가 이미 기생 신분이기 때문에 왜장을 살해하기 위해 위장 잠입할 필요성이 없다. 그만큼 왜장에게 접근할 기회가 한껏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경회가 논개를 첩실로 사랑했다는 기록이다. 이 경우 최경회가 논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추정해볼 만한 시기가 있기는 하다. 1592년 7월 중순경 최경회가 모친상중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고경명의 뒤를 이어 전라우의병장이 되어 장수현 월강평야에 머물고 있었던 8월부터 장수현 월강훈련장을 떠난 그해 9월 중순까지의 약 한 달 동안이다.



장수땅은 최경희가 의병을 일으킨 이후 최초의 전투 근거지였다. 약 20여 년 전 그곳의 현감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고, 여기에 화답하여 장수 사람들은 최경희의 공덕비를 세웠다. 그런 장수에서 최경희가 의병청을 열어 의병을 모집했고, 그때 장수 사람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최경희를 도왔으며, 그때 논개도 자연스럽게 최경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경희의 생애와 인품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효행이 남달랐던 선비다. 부모의 병환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관직을 내놓고 고향으로 달려가 부모의 병환을 돌보았다. 심지어 1590년 모친상을 당하자 그는 담양 부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빈소를 지켰다. 상중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곧이어 의병이 조직되었지만 그는 부모 상중임을 더 중시하여 의병장 추대 제의를 모두 거절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고경명이 전사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상복을 입은 채 전선으로 나섰다. 불가피하게 의병장이 되고 그것도 전라우의 병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무주, 전주의 왜적과 전투를 치르는 중이었고, 무엇보다도 모친의 상중에 여자를 가까이했으리란 추측은 위험하다.

더구나 평소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감 재직 때 재판으로 인해 잠시 안면이 있었던 관기 출신의 어린 여자를 가까이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더더욱 무리가 있다. 특히 그때 최경희는 나이 61세였고, 의병장이란 의병들에게서 인품



과 가문의 품위로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1592년 8, 9월 사이 장수현 월강평야에서의 재회설은 그 동기에 관한 설명이 지나치게 조작된 것 같아 보인다.

두 번째 의견은 또 이렇다. 논개가 기생이 되어 고향을 떠나 있다가 전장터인 진주에서 최경회를 만나게 되어 은혜를 갚기 위해 거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경회가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된 159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이뤄졌다는 견해다.

이 주장은 논개가 진주 관기였다는 것을 못박아두고서 한 해석이다. 이 주장은 『호남절의록』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최경회가 경상우병사에 임명되어 진주로 갈 때 논개도 최경회를 따라 진주로 갔다는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이 주장은 최경회가 진주성으로 들어온 것이 1593년 6월 15일이었음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최경회가 진주성에 머문 시간은 15일뿐이며, 15일 내내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을 고려한다면 진주 관기로 와 있던 논개가 최경회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은 논개를 진주 관기로 못박기 위한 모략에 불과하다.

### 3) 급수비 계속설

이 주장은 여러 가지로 매우 특별한 데가 많다. 즉 앞에서 전개해 보인 재판까지의 과정은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그러나 재판에



이르는 구체적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주달문이 죽은 것은 논개가 아주 어린 시절이라고 본다. 대략 4, 5세 무렵에 부친을 여의게 되었다. 그때 박씨 부인은 신살 정도였다. 주달문은 청빈한 선비였다. 살아 있을 때는 그런대로 식구들 끼니를 잇게 해주었지만 죽고 나자 당장 끼니 걱정부터 하게 되었다.

어쨌건 주달문이 죽은 뒤 동생 달무는 대곡리의 부자인 김풍헌과 어린 논개를 김풍헌 집 민며느리로 들여보내는 문제를 은밀하게 모의했다.

김풍헌이 대가로 제의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달무는 그의 형수 박씨 부인에게 살림을 합치자고 설득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박씨 부인은 시동생의 고마운 마음으로 알고 동의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주달무는 김풍헌에게서 약속한 금품을 받았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시동생이 저질러놓은 비인간적 처사를 알고는 그날로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안의현 봉전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김풍헌이 장수 현감에게 고소를 했다. 주달무는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장수현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에게 체포된 박씨 부인은 어린 논개를 데리고 장수 현감 앞까지 끌려갔다. 어린 논개는 어머니 곁에 꼭 달라붙어 서서 주위를 살폈다.

재판에서 박씨 부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제 겨우 네댓 살 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민며느리로 데려갈 생각을 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김풍헌은 인륜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며, 처음부터 반인륜 범죄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달무와의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주달무에게 지급한 금품은 김풍헌 스스로의 책임일 뿐 논개 모녀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도망갔던 주달무도 끝내 체포되어 끌려나왔다. 주달무는 김풍헌에게 받은 금품 일부를 되돌려주고 곤장을 맞은 뒤 감옥에 갇혔다.<sup>3)</sup>

김풍헌도 오히려 곤장을 맞고 재판은 끝이 났다. 그러나 논개 모녀의 사정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어린 딸을 껴안고 울던 박씨 부인이 최경회 현감에게 호소했다. 원래 살던 주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곳은 이미 시동생 식구들의 원망과 저주가 그들을 기다릴 뿐이며, 설혹 주촌으로 돌아가 살게 된다 하더라도 김풍헌이 장차 무슨 보복을 해올지 두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살 만한 곳이 생길 동안만이라도 장수현 관아에 머물게 해달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했다.

최경회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인 논개 모녀에게 며칠 동안만 관아에서 지내다가 떠나라고 했다. 돌아갈 곳이 없게 된 논개 모녀의 소식을 들은 최경회의 아내 김씨는 그들을 내아로 불렀다. 박씨 부인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김씨는 우선 박씨 부인의 덕성스러움과 예절에 호감이 갔고, 무엇보다 어린 논개의 총명함에 마음이 끌렸다. 그리하여 김씨의 보호 아래 논개 모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김씨는 논개 모녀를 친척처럼 여기게 되었다.

최경회는 1579년 무장 현감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김씨가 최경회에게 논개 모녀도 함께 데려가자고 권했다. 박씨 부인의 바느



질 솜씨와 부엌살림 솜씨를 무엇보다도 높이 샀다. 그러자 최경회는 논개 모녀를 불러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박씨 부인은 노비로 삼아도 좋으니 함께 데려가달라고 간청했다. 최경회는 김씨와 의논한 끝에 관아의 침방<sup>針房</sup> 관비<sup>官婢</sup>로 논개 모녀를 등재시킨 뒤 정식 수행원으로 삼아 무장으로 데려갔다. 그때부터 논개 모녀는 김씨의 보살핌을 받았다. 특히 논개의 총명함은 김씨의 가르침에 의해 경이롭게 빛을 더해갔다.

박씨 부인은 논개에게 일찍부터 몇 가지 일에 대한 반복 교육을 시켰다. 첫째는 최경회 현감과 김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경회는 논개 모녀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박씨는 믿었다. 끝없는 가난과 궁핍에서 모녀를 건져내주었고, 달무와 김풍헌이 모의한 인신매매의 함정에서 구원해주었다고 믿었다. 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논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최경회는 계속 변방으로만 옮겨 다녔다. 1583년 영암 군수에서 1584년 영해 부사로 영전했다. 영해 부사로 있던 중에 사도시정<sup>司樂寺正</sup>이란 중앙관직을 임명받았다. 사도시란 궁중의 미곡과 간장 등의 공급과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로 최경회는 혼자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부인 김씨는 벌써 여러 해째 지병을 앓고 있어서 서울로 따라가기 어려웠다. 최경회는 56세였다. 누구든 따라가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 책임은 나주 김씨에게 있었다. 김씨는 논개를 유심히 살폈다. 2년 전에 어머니 박씨를 여의고 혼자가 된 논개는 그때 열네 살에 불과했지만 웬



만한 살림은 능히 보살필 수 있었다. 그동안 나주 김씨가 가르쳐온 덕분이기도 했다. 김씨는 최경희에게 논개를 데려가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받으라고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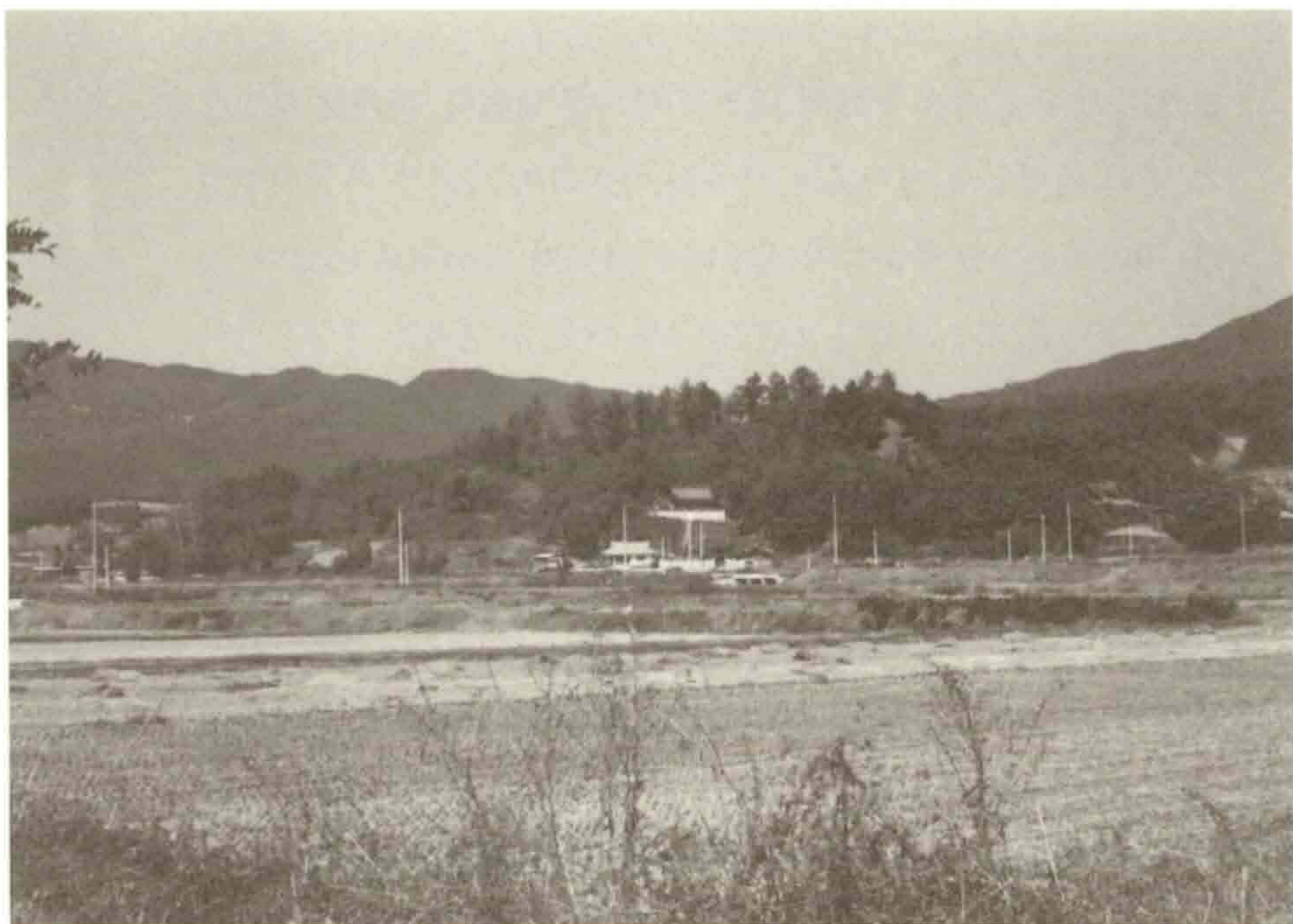
논개는 최경희를 따라 서울로 갔다. 1590년 초봄 최경희는 다시 담양 부사에 임명되어 돌아왔다. 그때 최경희 나이 스아홉 살이었고 논개는 열일곱 살이었다. 담양 부사로 부임하면서 최경희는 논개를 부실로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논개는 열일곱 살 되던 해에 최경희의 소실이 되었다. 논개가 최씨 문중 사람이 된 지 9개월 뒤인 1590년 12월에 최경희는 어머니 순창 임씨(淳昌林氏)의 상을 당했다. 담양 부사를 사직하고 고향 화순으로 떠날 때 최경희는 논개에게 장수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권했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첩실을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개는 공손하게 이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미 최경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논개도 자신이 무섭게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최경희도 그런 논개의 변신을 느꼈다. 최경희는 모친 상을 당한 상주의 예를 다했다. 모친상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은 위기였다. 최경희는 더 이상 빈소를 지키고만 있을 수 없어 의병장이 되었다.

금산, 무주, 전주, 남원이 워낙 다급하여 그곳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이미 환갑의 나이였다. 최경희는 의병을 더 많이 모집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 최경희는 장수를 떠올렸다. 그가 의병을 이끌고 장수로 향





1592년 8~9월, 최경희가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켰으며, 논개와 재회했던 월강평야와 최경희의 님을 기리는 월강사

한 것은 군사적 목적과 함께 그의 잠재의식 속에 늘 깨어 있는 논개와의 재회도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1592년 장수현 월강평야에 의병청이 설치되었다. 장수 사람들의 헌신적인 협조는 군사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었다. 들판은 넓고 은밀한 곳이어서 군사 훈련장으로서는 적격이었다. 가까운 무주, 진안, 용담, 남원, 임실, 무장 등에 격문을 띄워 의병을 모집했다. 의병들은 순식간에 장수로 모여들었다. 최경희의 덕망과 인품을 흠모하던 청년들이었다.

최경희는 월강평야를 근거지로 해서 800여 명의 의병을 모으고 훈련시켜 남원과 전주 지방에 출몰하는 왜적을 공격했다. 최경희



의 월강평야 군영은 논개의 내조로 활기에 넘쳤다. 논개는 부인들과 함께 의병들의 전투복과 식사를 마련하며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최경회는 9월 중순까지 장수에 머물다가 남원으로 떠났다. 논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593년 4월 21일 최경회는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다. 논개는 혼자서 남자로 변장하여 최경회에게로 갔고, 우여곡절 끝에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 최경회를 만날 수 있었다. 진주성 안은 왜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준비로 긴장해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진주성은 왜적에게 함락당했다. 그리고 최경회가 죽고, 논개는 적장과 함께 죽었다는 내용의 주장이 '급수노비계속설'의 핵심이다.

결국 논개와 최경회의 만남에 관한 견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논개가 최경회의 부실이었다는 명백한 사실, 최경회가 장수 현감을 지낸 것이 1577~79년이며 1579년에 다시 무장 현감이었다는 사실, 논개의 죽음이 자연적 자아의 발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뒤따라간 것이기보다는 초자연적 자아의 실현이라고 볼 때 최경회에 대한 존경과 흠모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는 상당한 시간적·공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경회와 논개가 만난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지금까지의 통설과 기록들, 이를테면 최경회가 장수 현감을 지낸 것이 1586년 혹은 1589년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개는 철저하게 최경회를 배제시킨 채 논개만 내세워 온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논개와 최경회 두 사람의 달빛에 물든 전설적 사랑은 세속의 오해와 지나친 과장 혹은 터무니없이 조작된 이야기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400년 동안의 오랜 어둠과 고독 속에서 살아 남았다.







고난의 사리

公之死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其志則葛爾小醜又  
安能而彼強乎環坐越視者抑何心歎公之仲  
天降正公為繼義兵將子弘先任弘載弘字或同事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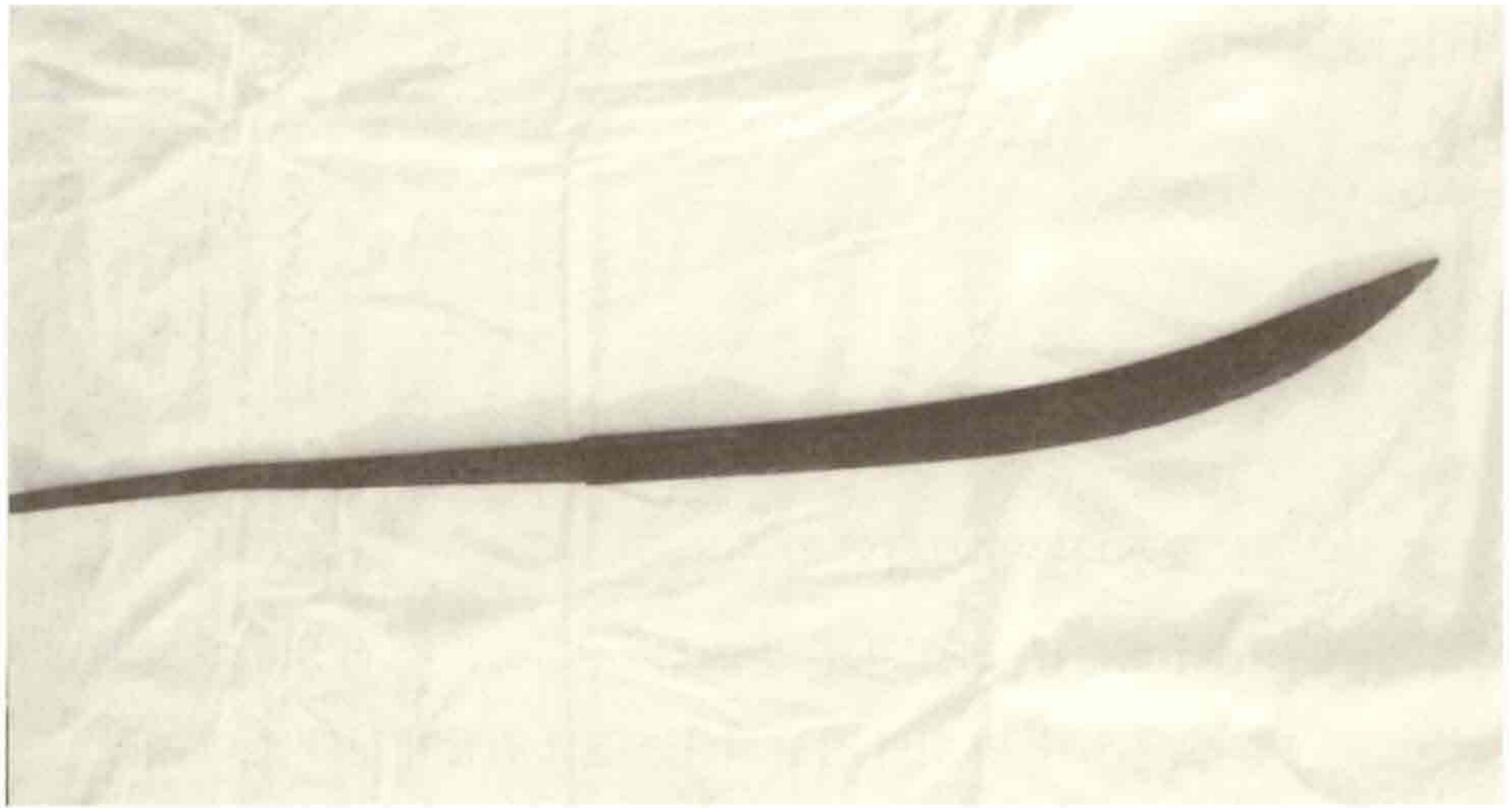
## 1. 오동나뭇잎 문양의 칼

전남 화순읍 '해주 최씨' 문중에는 전설적인 칼 한 자루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칼이 지닌 역사는 결코 간단치 않다. 칼이 제작된 연대, 제작자와 제작자의 국적, 칼의 소지자와 소지자가 참여했던 전투, 해주 최씨 문중에서 그 칼을 소장하게 된 이유, 해주 최씨 문중이 그 칼을 지금까지 보관해오면서 치러야 했던 고난 등은 참으로 기구하고 처절하다.

우선 문제의 이 칼과 관련된 전투와 인물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왜군의 주력 부대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부대는 평양과 함경도를 각각 점령했다. 조선 침략에 참전한 왜군 중에서 주로 경남 서부지역을 넘본 것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부대였다. 고바야카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양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부대는 전쟁 초기에는 곧장 서울로 북상했다가 호남지방을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호남지방은 그때까지도 왜군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있어서 공략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선 침략군 선봉대가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출했지만 후방지역





1592년 10월 우지치전투에서 최경희가 왜장에게서 빼앗은 언월도  
이 칼의 제작자는 모루미치<sup>モロミチ</sup>라는 일본인이다

인 경남 서부지방과 호남지방 전체가 왜군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은 곧 선봉대의 식량과 무기의 계속적 공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뜻했다. 더욱이 바다는 이미 이순신과 원군의 연합함대에 의해 완전히 봉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으로의 안전한 보급품 수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방지역에서의 기습공격을 완전 차단시켜야만 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길 다란 보급로는 무수한 조선 의병들에게 설새없이 기습당하고 공격 받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삼스럽게 호남지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호남지방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임을 알고 나서부터 호남지방 공략을 서둘렀다. 호남지방을 왜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있는 것은 호남 의병들이었다.



의병들에 의해 지켜진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곡식은 피난길에 올라 있는 조선의 왕과 관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물론 이순신과 원균의 해군 군량미로도 쓰였다. 그리하여 이순신의 해군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순신까지 꺾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호남지방을 점령해버리는 것이었다. 또한 호남 곡창지대를 장악하게 된다면 조선에 진출해 있는 왜군의 군량미 상당 부분을 조선 안에서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좀더 쉽게 중국 진출도 넘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고바야카와 부대는 호남지방을 공략하기 위해 충청도 옥천으로 남하하여 주둔했다. 한편 고바야카와 부대의 일부 병력은 다소 늦게 조선에 상륙하여 경남 서부지역의 중앙 통로라 할 수 있는 함안, 의령, 삼가, 단성, 함양을 지나는 경로를 통해 호남지역 진출을 시도했다.

한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부대도 경상도 지역의 완전 장악을 위해 개령에 본거지를 두고 경남 서부지역을 공략할 기회를 노렸다. 경남 서부지역은 왜군이 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요충이었다. 경남의 서부지역이 평정되지 않는 한 곡창지역 호남으로의 진출은 매우 위험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점이 진주였다. 그리하여 고바야카와 부대는 옥천에 본진을 두고서 금산을 거쳐 진주로 공격해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먼저 금산을 공격했다. 고경명의 의병은 금산전투에서 패했고 고경명은 전사했다.

처음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킬 때 고경명은 최경희에게 의병 참전을 권했다. 그때 최경희는 모친상중인 데다 시묘살이로 인해 건



강을 많이 해친 상태여서 곧바로 참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카 홍재가 대신 참전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고경명이 전사하고 금산성이 함락되면서 호남이 위기를 맞게 되자 최경회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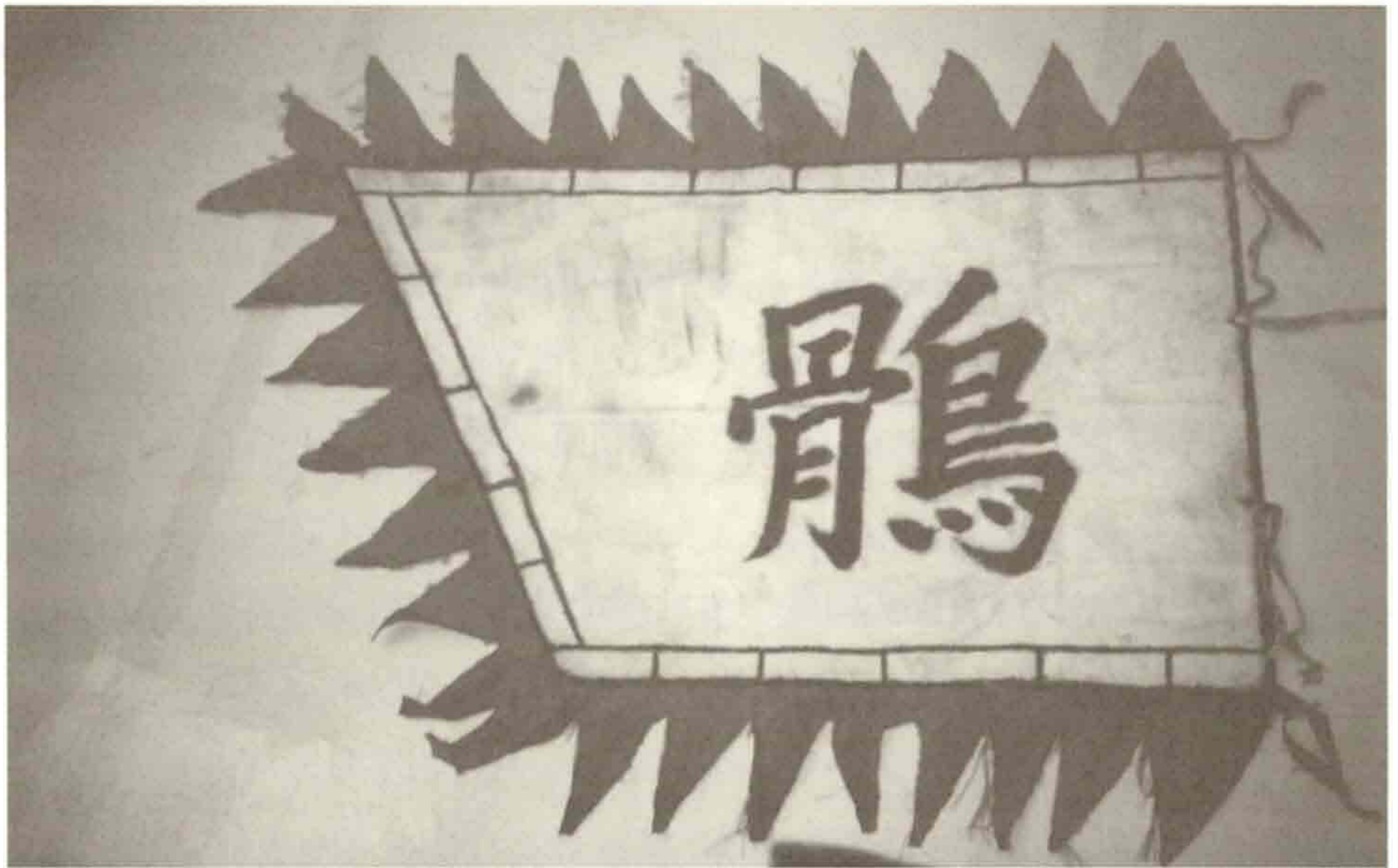
금산전투에 참전했던 여러 장수는 자신들의 출신지를 거점으로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화순과 능주 지역에서도 의병의 재집결이 논의되었고 이때 최경회도 의병에 가담했다. 최경회는 고경명 부대의 맥을 이어 재구성된 화순, 능주 지역의 맹주로서 전라우의병장의 책임을 맡았다.

최경회는 7월 26일 의병을 일으킨 다음 8월에 남원으로 옮겨 군사를 증원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만큼 군사 증원은 쉽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본거지를 장수로 옮길 결심을 했다. 지난날 장수 현감으로 있을 때 베푼 여러 가지 선정의 결과도 있고 해서 의병 모집이 다른 지역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수에는 논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병 동원과 왜군에 대한 공격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장수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내는 데는 논개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았다.

기대한 만큼 장수 사람들은 협력해주었다. 장계 월강평야에다 의병청을 세우고 장수는 물론 인근의 무주, 진안, 금산에까지 의병 모집을 위해 사람을 파견했다. 논개는 눈에 띄지 않게 의병 모집과 훈련 중인 의병들의 뒷일을 도왔다. 논개는 마을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의병 훈련에 필요한 여러 일을 함께 해냈다.

조국수호 의지로 불타는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훈련을 거





최경희가 지휘한 '골자부대'의 깃발

처 정예병 500명을 선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의병 지원자가 집결했다. 한 달여의 맹렬한 훈련 끝에 마침내 최경희의 의병대는 정식으로 부대의 이름과 깃발까지 갖추었다. 조정으로부터 공인된 부대 명칭은 '골<sup>鴉</sup>자부대'였고, '골'자가 찍힌 깃발도 만들었다. 부대 명칭은 최경희가 만든 것인데, '골입아군'<sup>鴉入鴉群</sup>, 즉 '송골매가 날아들면 갈가마귀떼가 놀라 흩어진다'는 뜻이었다.

1592년 9월 중순 최경희의 골자부대는 맨 첫 번째 전투인 무주 전투를 저 유명한 고바야카와 부대와 벌였다. 최경희는 적을 속이기 위한 전술을 폈다. 벧짚을 묶어 말 위에다 싣고 사람은 그 뒤에 앉아 고함을 지르게 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밤이 지새도록 그렇게 맞섰다. 왜적들은 조총을 쏘거나 화살을 퍼부었다. 대부분의 탄



환과 화살은 벗짚에 꽂힐 뿐이었다. 골자부대는 왜적의 탄환과 화살이 바닥나기를 기다렸다. 새벽 먼동이 트고 아침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골자부대는 칼과 창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왜적들은 탄환과 화살이 부족하여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적들의 참담한 패배였다. 이때부터 왜적들 사이에서 골자부대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금산전투에서 승리한 왜적들은 일단 무주까지 압박해 들어왔다가 전투에서 패하자 다시 금산 방면으로 퇴각한 후 경상도 지역인 김천, 개령, 성주 방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때 최경회는 왜적들의 퇴로로 예측되는 곳에다 골자부대를 매복시켰다. 지형이 험악하고 좁은 길이 외가닥으로 나 있는 곳으로밖에는 적들이 퇴각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퇴각하던 왜적들은 곳곳에서 매복해 있던 골자부대의 기습을 받아 괴멸되어갔다. 사력을 다한 탈주와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최경회는 흰 말을 탄 왜장 한 명이 수십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른바 '우지치'牛旨峙에서였다.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상남도 거창군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계지점인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 2리 주치走峙 고개다. 최경회는 화살을 겨누었다. 그의 활숨씨는 일찍이 소문이 나 있었다.<sup>4)</sup> 활은 왜장을 명중시켰다. 죽은 왜장한테서 그림 한 점과 칼 한 자루를 노획하자 골자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림은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였고 칼은 여덟 자나 되는 큰 칼이었다.





최경회가 우지치전투에서 노획한 칼의 오동나뭇잎 문양(중단의 문양)

현재 전남 화순의 '해주 최씨' 문중에서 보관해오고 있는 칼이 바로 1592년 9월 중순 고바야카와 부대와 벌인 우지치전투에서 최경회가 왜장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것이다. 칼의 손잡이 세 군데에 오동나뭇잎 문양이 새겨져 있다. 손잡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상·중·하단으로 나뉘어 오동나뭇잎 문양이 7-5-5형식으로 된 것(七五桐: 상단의 오동나뭇잎은 7개의 무늬로, 중단과 하단의 오동나뭇잎은 각각 5개의 무늬로 되어 있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소지했던 칼을 뜻한다. 그보다 한 급 낮은 것은 5-3-3형식(五三桐: 상단의 오동나뭇잎은 5개의 무늬로, 중단과 하단은 각각 3개의 무늬로 되어 있다)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다이묘(大名)급 장군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사한 칼이다. 전남 화순의 해주 최씨 문중에서 보관해오는 칼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칼은 무로마치 막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서 기마부



대에서 사용하는 나가마키<sup>長卷</sup> 형식의 칼이다. 단검<sup>短劍</sup>, 중검<sup>中劍</sup>, 장검<sup>長劍</sup> 가운데 약 2미터 길이의 이 장검은 말에 탄 사람이 상대방 말의 발목을 자르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약 30년간 유행되었던 칼이다.

또한 이 칼을 만든 사람인 ‘모루미치’<sup>盛道</sup>는 일명 ‘미노<sup>美濃</sup> 칼’의 한 분과였다. 오다 노부나가<sup>織田信長</sup>의 고향이자 그의 무기고 역할을 했던 미노 지방의 모루미치 가문은 1532년<sup>天文1</sup>경부터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여 무로마치 시대<sup>1394~1595</sup>에 전성기를 맞았던 일본 칼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이 시기는 제철 기술이 발달하고 무사들의 영토 확장 욕구가 강해진 나머지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졌던 전국시대로, 칼은 외형상의 멋보다는 실용성과 견고함이 특별히 중시되던 시대였다.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닌 칼이 ‘해주 최씨’ 문종으로 들어온 뒤 그 칼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 2. ‘영남지방도 우리 땅이다’

금산, 무주 지방에서 패한 고바야카와 부대와 다른 왜적들은 일단 성주와 개령 방면으로 후퇴했다. 그러자 경상우도 지역이 다시 위협에 빠졌다.

경상우도 순찰사 조종도는 최경회의 전라우의병에게 속히 도와 달라는 원군 요청을 해왔다. 최경회는 그의 골자부대 의병들에게 경상도 구원을 위한 출정을 명령했다. 그러자 대원들은 경상도 방어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완곡하게 거부했다. 왜적의 기세가 사방



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어째서 호남지방을 버리고 먼 영남지방을 구원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경희가 그들을 꾸짖었다.

“호남지방도 우리나라 땅이요 영남지방도 우리나라가 아닌가? 의<sup>義</sup>를 위해 장수가 된 사람들이 어찌 지역의 멀고 가까운 것을 따져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 최경희는 지역적 차별성 때문에 국가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전쟁 시기인데도 당쟁과 지방색의 폐단으로 국가의 시련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여겼다.

최경희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후 그의 행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그는 1592년 7월 26일 의병을 일으켜 1592년 10월 경상도로 들어온 후 죽을 때까지 9개월 동안을 줄곧 경상도에서만 지낸 유일한 호남 의병장이었다. 불평하는 장수들을 회유하여 남원을 출발한 최경희의 군은 운봉, 함양을 지나 산음<sup>山陰</sup>으로 향했다.

한편 1592년 10월 초, 왜장 도요토미는 호소카와<sup>細川忠興</sup>, 가토<sup>加藤光泰</sup>, 하세가와<sup>長谷川香</sup>, 기무라<sup>木村重尙</sup> 등에게 명령하여 5만 명의 왜군을 이끌고 부산에서 진주로 진격하도록 했다. 10월 3일, 적병은 길을 나누어서 진주로 진격해왔다. 한 부대는 말티고개<sup>馬覘</sup>를 넘고, 다른 한 부대는 불천<sup>佛遷</sup>에서 진주를 바로 공격했다.

이때 병사 유승인이 나아가 막다가 진주성으로 물러났으나, 진주성에 영주<sup>領主</sup>가 들어 있으면 명령이 통일되지 못한다고 하여 유승인의 진주성 진입이 거부당했다. 성안에서는 김시민을 수장으로





진주성전투도

하여 항전을 준비했다. 이때 성안에는 3,700여 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에게도 모두 남장을 시키고 성문 위에는 용대기<sup>龍大旗</sup>를 꽂고 일렬로 대오를 지었다.

6일 아침 1천여 명의 왜병 총수가 일제히 성안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천지를 뒤흔드는 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왜병 3만 명이 일시에 성안으로 달려들려고 했다. 이때 김시민은 악공을 시켜 일부러 누대 위에 올라가서 피리를 불게 하고 궁시<sup>弓矢</sup>와 탄환은 되도록 아꼈다. 그리고 도끼, 낫, 물 끓이는 가마솥을 준비시켰다.

10일 밤 사경<sup>四更</sup> 무렵, 왜병은 퇴거하는 듯하더니 모든 햇불을 끈 채 동문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적은 사다리를 놓고 개미떼



같이 성벽을 타고 올라왔다. 김시민의 군은 성 위에서 탄환과 화살과 불덩이, 끓는 물과 돌맹이를 폭포같이 쏟아부었다. 적의 시체는 산처럼 쌓였다. 이때 김시민은 적이 쏜 탄환에 왼쪽 겨드랑이를 맞고 쓰러졌다. 이것을 본 곤양 군수 이광악<sup>李光岳</sup>이 대신하여 적장을 쏘아 쓰러뜨렸다. 다음날 오전 8시경 적은 퇴각했다.

이 싸움에서 광재우는 진주성 북쪽 비봉산에 진을 쳤고, 의병장 최강과 이달은 남강 건너편 두골평<sup>頭骨坪</sup>에 진을 치고 적의 후면을 위협했다. 의병장 김준민의 군대는 사천에서 응원하고, 최경희의 군은 어숙령<sup>魚束嶺</sup>에서 맹공을 가했다. 제1차 진주성전투는 안팎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제1차 진주성전투 때 최경희의 군은 직접 성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진주 인근에서 적의 후방지원을 차단시키면서 진주성 안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들은 진주 외곽으로 후퇴하여 성주와 개령을 다시 점령했다. 제1차 진주성전투 이후 최경희 군의 전투는 주로 진주 외곽 지역에 산재해 있는 왜군을 격파하는 데 주력했다. 최경희 군은 산음에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김면 군과 합세하여 개령을 공격했다. 그러나 개령에서 패배했다. 다시 전라도 관군과 전라도 의병 및 경상도 여러 군사가 합세하여 성주로 진격했으나 또 실패했다. 군량미와 무기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경상도 의병장들은 지역 유지들에게 통문을 띄워 원조를 요청했다.

10월 2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라좌우 의병과 김면 군이 연합 전선을 이루어 개령 공격전을 펼쳤으나, 왜적의 기세가 치열하여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중순 이후 전라좌우 의병이 분리되어 최경희의 우의병은 김면 군과 함께 개령에서, 임계영의 좌의병은 정인홍 군과 더불어 12월 중순까지 성주성 수복전을 주도했다. 임계영 군은 정인홍 군과 연합하여 12월 14일 총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그런데 정인홍 군은 약속을 어겨 참전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임계영 군 단독으로 성주성을 공격했는데, 이때 부장 장윤이 앞장서서 적과 접전을 벌였다. 전투는 해가 저물고 나서야 적의 패배로 끝났다. 이처럼 진주성과 경상도 일대에서 전라도 의병장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전라좌우 의병들의 활약상이 크게 두드러지자 비변사에서는 “각 도의 의병 가운데 곽재우, 최경희, 임계영이 거느린 군사는 쓸 만해 보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바야흐로 경상도에 있으니 급히 군사를 정돈하여 근왕<sup>勤王</sup>: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하게” 하도록 왕에게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영남지역 유생들이 비변사의 제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생들의 논리는 단호했다. 진주성전투에서 경상도 의병만으로는 왜적을 물리치기가 불가능하여 전라도 의병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했다. 제1차 진주성전투의 승리로 전라도가 안전해졌고, 전라도의 안전은 다시 경상도의 안전을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안전으로 왜적은 경성 지역에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왜적을 몰아내기는 쉬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리하여 경상도를 수호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왕을 지키는 길임을 들어, 의병장들



을 경성으로 불러들여 왕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므로 비변사의 제안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성일 또한 의병장들의 근왕을 중지할 것을 조정에 건의했다. 『난중잡록』 기사년 1월 8일자에는 김성일의 건의문을 전하고 있다.

고을이 함락된 뒤로 겨우 대여섯 개의 빈약한 고을만이 남았는데, 그나마 흉악한 왜적이 사면에 들끓어 기어코 삼키려 하는 형세입니다. 이런 때는 호남 의병이 머물러 있으면서 대처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하루아침에 군사와 무기를 거두어 물러간다면 왜적들은 후원군이 없음을 알고는 마구 몰려와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근거지조차 남지 않게 될까 염려됩니다.

결국 왕은 지역 유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병장들의 근왕을 중지케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1차 진주성전투 기간 중 의병장들의 전과가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명해준 것이 제1차 진주성전투다. 제1차 진주성전투는 왜적들이 지름길을 택하여 곡창지역 호남 평야를 장악하여 조선에서 직접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전투였다. 이 같은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우도의 방어 거점인 진주성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제1차 진주성전투가 시작되기에 앞서 경상우도에서 전라도 의병장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오자, 대부분의 전라도 의병들이 가까운



전라도를 두고 어찌서 멀리 있는 경상도까지 가서 방어전을 펼쳐야 하느냐고 드센 반대를 했을 때, 최경희가 그들을 달래고 설득시켰던 논리도 바로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임진왜란 때 왜군의 군사 행동은 조선의 주요 거점만을 연결하는 점선에 불과했을 뿐 결코 조선과의 전면전 양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 활동은 승패를 떠나 우선 왜적에게 그들의 후방 기지 사수를 위한 수비병 증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현상은 곧 전방과 후방 사이의 연락 두절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보급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왜군들은 해로를 통한 보급품 운송을 계획했지만 이순신의 수군에게 저지당하자 보급품의 안전한 공급이 불가능해져 평양에서 더 이상의 북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왜적은 이미 점령한 경상좌도를 기반으로 우도를 점령하고 나아가 호남평야까지 장악하려고 했다. 의병장들도 이 같은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철저한 방어를 위해서는 호남의 곡식을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경상우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임진왜란 동안 진주 사람들의 결사 항전태세는 계속되었고, 왜군에 대한 저항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호남을 공격하는 길은 크게 세 갈래로 잡을 수 있다.

첫째는 창원 → 함안 → 정암진 → 의령 → 삼가 → 거창 → 안



의→육십령→웅치 또는 거창→함양→팔랑치.

둘째는 창원→진주→단성→산청→함양→팔랑치 또는 함양→거창→안의→육십령→장수.

셋째는 진주→하동→섬진강→광양→구례.

이 밖에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영산→창녕→낙동강→초계→합천→거창, 또는 낙동강→고령→성주→거창, 또는 지례→우지→거창, 또는 지례→부항현→대덕현을 넘어가는 길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영호남의 경계는 덕유산과 지리산으로 뻗은 소백산맥의 준령들인데, 이 준령을 넘나들 수 있는 목은 섬진강, 팔랑치, 육십령, 부항현뿐이다. 또한 이들 목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외곽지대 요충이 창녕의 정암진, 초계의 적포, 고령의 무계, 성주, 지례, 우지현이다.

왜군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갈래의 접근로가 의령에서 광재우 군에게 막히자, 이번에는 우회로를 이용하여 호남 진출을 획책했다. 따라서 우회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했다.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같은 요충지를 사수해야만 했다. 이 중요성을 해결해 준 것이 의병들이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 때문에 진주성은 언제가 되었든 또다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호남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적 거점이 진주였기 때문이다.

제1차 진주성전투 이후 최경회는 조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19일자 기록은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적이 물러나지 않고 일로에 진을 연  
이어 치고 있으니 한쪽에서 멋대로 총돌을 일으킬 염려가 반  
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경희는  
의병장으로서 정예병을 이끌고 지레, 거창 두 지역 사이의 요  
충지대를 차단하였으니, 호남 한 도와 영남우도가 여태까지  
보존된 것은 모두 그의 힘입니다.

이제 남원 부사를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군사를 철수하고 먼  
곳으로 부임하게 한다면 보장<sup>堡障</sup>이 걸히게 되어 방어가 염려  
스럽습니다. 피차 가고 머무르는 것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최경희를 남원 부사에 체직하여 일이 안정될 때까지  
그대로 의병을 거느리고 유방<sup>留防</sup>하게 하소서. 상<sup>上</sup>이 따랐다.

조정에서는 최경희의 공로에 대해 충분한 상훈을 내려야 한다  
는 것과, 그 상훈 뒤에 닥쳐올 적의 방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로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경희를 다른 지역의 관리  
로 보내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형태의 관직을 내림으로써 최경희  
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의중을 드러냈다. 『선조실록』 권  
37, 26년 4월 21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전에 이광약을 경상우병사에 제수했는데 1593년 1월 15일 성주에  
주둔하고 있던 적이 남으로 내려오자 영호남의 모든 군사가 진주성으로 들어  
가 지켰는데, 이때 경상우병사 김면이 죽자 광양 현감 이광약으로 하여금 이 직  
을 대신하게 했다, 이제 서울에 있던 적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충청도 이상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영남이 가장 긴요하니 장수를 뽑아 임무를 맡길 때 십분 면밀하게 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건대 광악은 재기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군중軍中에 등용되었으므로 위엄과 명망이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병장 최경회는 무신은 아니지만 여러 번 전공을 세워서 명성이 크게 드러났고, 재능도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호남의 의병은 이미 그와 친숙해 있으니 사변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직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진주성전투에서의 전공과 재능이 경상우병사 직을 맡을 만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 데다 적의 남하에 따라 경상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경회는 다시없이 필요한 인재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선조실록』 권38, 26년 5월 16일에는 최경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경상감사 김늑은 인물이 온화하여 평시에는 한 지방의 임무를 맡는 것이 괜찮으나, 지금은 군무의 조치가 평시보다 열 배는 되므로, 진실로 재주와 명망이 특이하고 지모와 사려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면 이 중임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최경회는 새로 병사兵使에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침착하고



중후하며 지략이 있어 감사에 합당하니, 그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소서. 그다음으로는 이시언과 곽재우도 임명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최경회를 경상우병사에 임명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상 감사로 승진시켜 경상도 방어전략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논의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고 김늑이 그대로 경상 감사직을 유지했다.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직에 임명된 사실이나 경상 감사에 천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특히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사람이 호남 출신의 최경회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당시 경상도의 군사적 위기와 동시에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더더욱 그렇다. 최경회가 임명되기 전 경상우병사는 이광악이었지만 그는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아 최경회로 바뀌었다. 이광악보다 앞선 경상우병사는 김면이었는데, 그는 정인홍·곽재우와 함께 영남지역의 뛰어난 의병장이었으며, 남명 조식의 제자로서 영남의 세도가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광악의 뒤를 잇는 경상우병사는 당연히 정인홍이나 곽재우 두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상우병사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의 직책이 영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에게 주어지지 않고, 놀랍게도 최경회가 1593년 4월 21일 경상우병사에 임명된 것이다. 군사적·정치적 능력으로 볼 때 최경회보다 뛰어난 경상도 출신 의병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배제시키면서 전라도 출신 의병장을 임명한 데는





진주성전투도

그 나뭇잎의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16세기 말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동서분당<sup>東西分黨</sup>으로 동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 서로 반목 질시하면서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아온 조선 정치는 급기야 임진왜란의 침략전쟁 중에도 소모적인 내분과 망국적인 질시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파적인 정치세력끼리의 대립은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인 의병이 일어날 때에도 서로간의 정파 소속 문제 때문에 의병의 참여형태나 운용방법에서 갈등이 생겼다.

최경회도 엄밀히 따진다면 서인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경회는 전쟁 시기인 그 시점에 당색과 지방색의 위험성을



빠져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기색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영남 의병장들과 화합하여 왜적을 격멸시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사실 김면이 경상우병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관과의 대립을 피하고 관군과 의병군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력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정에서도 당파와 지방색이야말로 왜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셈이다.

영남 사림이라는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인홍이 경상우병사 임명에서 배제된 이유는 그가 의병을 사병화하여 향촌에서의 사소한 이익과 권리를 챙기는 데 이용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절의를 숭상하는 남명 학문을 계승한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나치게 원칙론에 머물며 상대 세력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적 성향에 기인한다. 그 결과 그는 민심으로부터 원망을 들으면서 시대적인 소명과 진실에서 멀어져 있었다.

거기에 비해 최경희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임진년 9월 경상도 원군요청 때 부하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시켜 기어코 제때에 지원했다. 부하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그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일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왜 옳은지를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 의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부하들에 대한 그의 이 같은 세심한 배려와 억압적이지 않은 인간적 태도는 곧 그의 의병군이 강해질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기도 했다. 의병들은 그런 최경희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최경희는 부하들의 신뢰에 대해 전투에서의 승리로 답했다. 최경희와 의병들



간의 굳건한 신뢰와 그로 인한 단결력은 다른 의병군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빛나는 교훈이었다. 전라도 출신 의병들을 이끌고 경상도로 온 최경회와 그의 의병군들은 경상도 의병장들과 잘 융합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상우병사 임명에 대해 조정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계열을 강조하는 인물을 선택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려 했다. 전쟁터에서 당리당락만 따르면서 사사로운 이익만을 챙기는 저 술한 정치적 인물보다는 국가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찾던 중 최경회가 발탁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이러한 목적은 결국 실패했다. 최경회를 경상우병사로 천거하자 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시기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걸고 드러낸 정파도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제2차 진주성전투 때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 전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참담한 패배가 예언되어 있었다. 지방색의 모순과 폐해가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처럼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슬픈 일이다.

### 3. 원추리꽃 필 때

켜켜이 쌓인 고난의 지층 아래서 하늘을 보기 위한 마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자란 사랑의 눈은 신비한 능력을 지닐 수 있었다. 일상적인 욕망을 먹고 자란 육신의 눈은 코앞에 닥친 죽음을 몰라보지만, 정신적 변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초월의 눈은 일상적 욕



망의 세계 너머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견했다.

논개는 부군이 의병장으로서 왜적과의 전투에 참여한 뒤부터 그전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전쟁 전의 생각이 주로 최경희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전쟁 이후로는 최경희의 의병 활동과 의병들의 목숨을 건 행동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도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최경희의 나이는 벌써 62세였다. 그런데도 피가 끓는 청년들과 함께 밤낮을 안 가리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의병들을 지휘했다. 의병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내걸고 적과의 전투에 나선 의에 살고 의에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의 의로운 마음을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것은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도덕적 품행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던 최경희를 떠올릴 때마다 논개는 새삼 경외감이 커졌다.

그리고 최경희의 몸을 돌보지 않는 그 같은 큰 행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지, 왜 그토록 자신과 가문의 현실적 이익이나 명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하고 힘든 전쟁터에서 앞장을 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일 때마다 논개는 골똘히 그 생각에만 매달리곤 했다.

그러면서 최경희와 함께 살아온 지난 15년 동안 논개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해온 최경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되었다. 크나큰 은혜를 베푼 은인, 변방의 현감이나 군수 혹은 부사로만 전전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을 입밖에 내지 않고 부임지마다



최선을 다해 백성을 위하던 정직하고 청빈한 삶의 태도, 부인 나주 김씨에 대한 정중하고 자상한 예의,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는 남다른 인간애의 표현을 볼 때마다 논개는 그저 최경희의 그늘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없는 행복으로 알았다. 그때는 그저 그렇게만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15년 전의 그 운명적인 재판이 있는 뒤로 최경희의 은총 아래서 살아나 철이 들고 인간의 길을 깨닫기까지 그 숭한 날들이 어떤 간곡한 인연의 힘으로 오갔는지를 새롭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되 물을수록 점점 더 알 수 없는 의심의 심연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어쩌면 그 같은 의심은 논개 자신으로서는 깨닫기 불가능한 차원의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최경희가 그토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예순이 넘은 몸으로도 전쟁터의 위기와 극한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유와, 논개 자신의 서럽고 구차한 육신과 운명을 최경희의 삶 속으로 이끌어 지켜주고 키워준 까닭이 모두 크고 깊은 알 수 없는 차원에 속하는 한 가지 능력에서 나왔으리라는 어렴풋한 예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예감은 차츰 확신으로 바뀌었다. 의병들에게서도 격조 높고 단호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신념과 전장에서 의 결연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논개는 그저 한 사내를 흠모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며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의병들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인지를 불쑥불쑥 상상해보기도 했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모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分佈當歷此境郵亭即令文上合不獻持書馳  
公到各處

審何故馳核事我軍元名一千六百餘名而牛上日伏兵處抄送

百餘名留陣者僅四百名而皆非完軍乃大侍副將送予希謀

書與軍寇軍糧刷馬各項盟官僕從及入送牛上軍人亦曰人

定一人以守留置卜物者也泛論則留陣軍四百名多而通上

送計之則實去赴戰之人私自烟慮今奉

馳書賊逼門戶痛憤因極就其中抄殺難未滿百當不分是在

赴是計伏惟

令亮謹狀不備

壬辰十一月初一日孤哀子崔慶會狀上

世察使 李壽

최경희가 순찰사에게 보낸 친필 편지

이 편지에는 1,600명이었던 최경희의 부대가 다른 부대 지원,

매복 작전 파견 등으로 인해 400명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배계급의 당쟁은 국론을 분열시켰고, 정치와 관료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여 조선 사회는 붕괴되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20여 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것은 조선의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했는가를 극명하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관료들의 민중에 대한 수탈과 오랜 가렴주구로 민심은 정부를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런 중에 왜적의 침략을 받게 된 조선 정부는 왜적을 막기 위해 군대를 급히 정돈하고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려 했지만 군사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서울이 왜적에게 함락당하고 왕이 피난길에 오르자 민중들은 왕의 피난길을 막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왕이 서울을 떠나자 노비들은 그들의 노비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장례원과 형조에 불을 질렀고 이 때문에 궁궐이 모두 불타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불행 가운데서 일어선 것이 의병이다. 국가를 책임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징병에는 결연히 반대했던 민중들이었지만, 민중의 지도자가 나서서 나라와 민중을 구하자는 절규에는 마치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과 같이 기꺼이 응했던 것이 의병이다.

논개는 최경희가 장수 월강평야에서 장대<sup>將臺</sup>를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경희의 '골자부대'가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논개는 전신을 휘감고 도는 묘한 감동의 전류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정신적인 변신을 향하여 눈뜨기 시작했다.

최경희는 무주 적산산성전투 이후로 줄곧 경상도 지역에만 머



물렀다. 장수에서 백릿길 또는 그보다 약간 먼 곳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논개는 거의 빠짐없이 최경희의 건강과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

제1차 진주성전투가 있는 후 겨울로 접어들었다. 최경희의 골자부대가 겨울을 나아 하는 지역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동쪽과 북쪽이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 눈보라와의 싸움만 해도 이미 목숨을 내걸다시피 해야만 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마냥 부족할 따름이었고, 더구나 최경희는 예순을 넘긴 노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앓아 누운 적은 없었다. 만사를 인내 하나로 넉넉하게 다스려냈다. 논개는 의병의 아내들과 함께 겨울 내내 솜을 넣어 누빈 갑옷을 지어 전선으로 보냈고, 전사한 의병의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했다. 겨울을 나는 동안 최경희의 골자부대는 추위와 불리한 전투 상황으로 많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엄청난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전선을 내놓지 않는 의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논개의 정신적 변화는 차츰 뚜렷해지는 목적의식으로 몸을 바꾸어갔다. 그러던 중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최경희의 부장한테서 논개는 매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것은 1593년 2월 12일부터 벌어진 행주산성전투에 관한 소식이었다. 무엇보다 논개를 감동시킨 것은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에게 패한 왜군이 다름 아닌 고바야카와 부대였다는 사실이었다. 고바야카와 부대라면 이미 1592년 9월 중순에 있었던 무주전투에서 최경희의 골자부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 부대였다.



또한 논개를 더욱 흥분시킨 것은 고바야카와 부대와의 최후의 혈전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행주산성전투가 막바지에 돌입했을 때 왜군으로서의 마지막 남아 있던 제7대 대장 고바야카와는 행주산성 서북쪽 자성<sub>子城</sub>을 지키던 승군<sub>僧軍</sub>을 돌파하고 성을 공략하기 위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승군은 동요했다. 행주산성이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때 권율도 총공격으로 맞서 왜적과의 치열한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조선 관군도 화살이 다했다. 그때부터 투석전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성안에 있던 부녀자들이 총동원되었다. 부녀자들은 입고 있던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치마 앞쪽으로 돌맹이를 날라오기 시작했다. 돌맹이가 유일한 무기로 변한 전쟁터에서 여성들이 치마로 날라다준 돌맹이는 곧 승전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다. 논개는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에 눈을 빛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때까지 모호한 빛깔과 모습으로만 맴돌던 그 신비한 차원의 내용들이 아주 또렷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최경희가 지닌 그 놀라운 세계, 의병들이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자신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과 기회가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때 최경희는 논개에게 간략한 소식을 전한 뒤 곧장 창원에 있는 경상우병영으로 옮겨갔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날 약속을 했지만 논개는 그 약속만 믿고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조선 사회의 윤리와 인습의 질긴 껍질과 끈으로 친친 묶여버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차원을 논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계속된 뜨겁고 처절한 정신적 변신을 위한 몸부림 끝에 가까스로 깨닫게 된 자아완성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최경회는 1593년 6월 15일 진주성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병영 소재지인 창원에서 주로 지냈다. 왜군의 총공격설이 난무하던 어느 날 충청 병사 황진<sup>黃進</sup>이 병영으로 찾아왔다. 황진은 뜻밖에도 논개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 느닷없는 광경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는 최경회에게 논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지난 4월 최경회가 보낸 소식을 들은 후 아무래도 장수에서 가만히 앉아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했다. 더구나 왜적들이 부산 쪽으로 집결한 다음 총력을 기울여 진주성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최경회가 경상우병사만 아니어도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어느 것 하나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찌면 지금의 이별은 영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장수를 떠나왔다고 했다. 남자 모습으로 변장하고서 결국 최경회가 머물고 있는 창원을 향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논개가 육십령을 넘을 때 덕유산 산자락엔 원추리꽃이 풀숲에 숨어서 논개의 위험한 여행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오다가 산청군 오부면에서 왜적의 척후병에게 붙들렸다. 왜적들은 논개를 함안 쪽으로 압송했다. 왜군의 포로가 된 논개가 함안 양곡 부근을 지날 때 마침 충청 병사 황진이 최경회와 진주성 방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황진





경남 산청군 오부면 소재지

의 군사들은 왜적을 발견하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여 간단히 왜적 소부대를 소탕했다. 그 과정에서 남자로 변복한 논개를 발견했다. 논개는 최경희와의 관계와 최경희에게 가던 중임을 말했고, 황진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최경희에게로 논개를 데려갔다. 최경희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논개를 더 이상 떼어놓지 못하고 남장을 시켜 진주성으로 함께 들어갔다.

한편 왜병이 서울에서 철수하게 되자 도원수 김명원과 순변사이빈은 각 도의 장수들을 이끌고 적을 추격하여 남하한 다음, 김명원은 선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6월 7일 감사 권율과 도원수직을 교대한 뒤 의령현에다 진을 쳤다. 도원수 권율은 병사를 거느리고 운봉현을 거쳐 창녕현과 의령현 등 여러 읍에 주둔했다. 그러나 이때



도원수 권율, 의병장 곽재우, 경기방어사 고언백 등 관군과 의병 사이에 전술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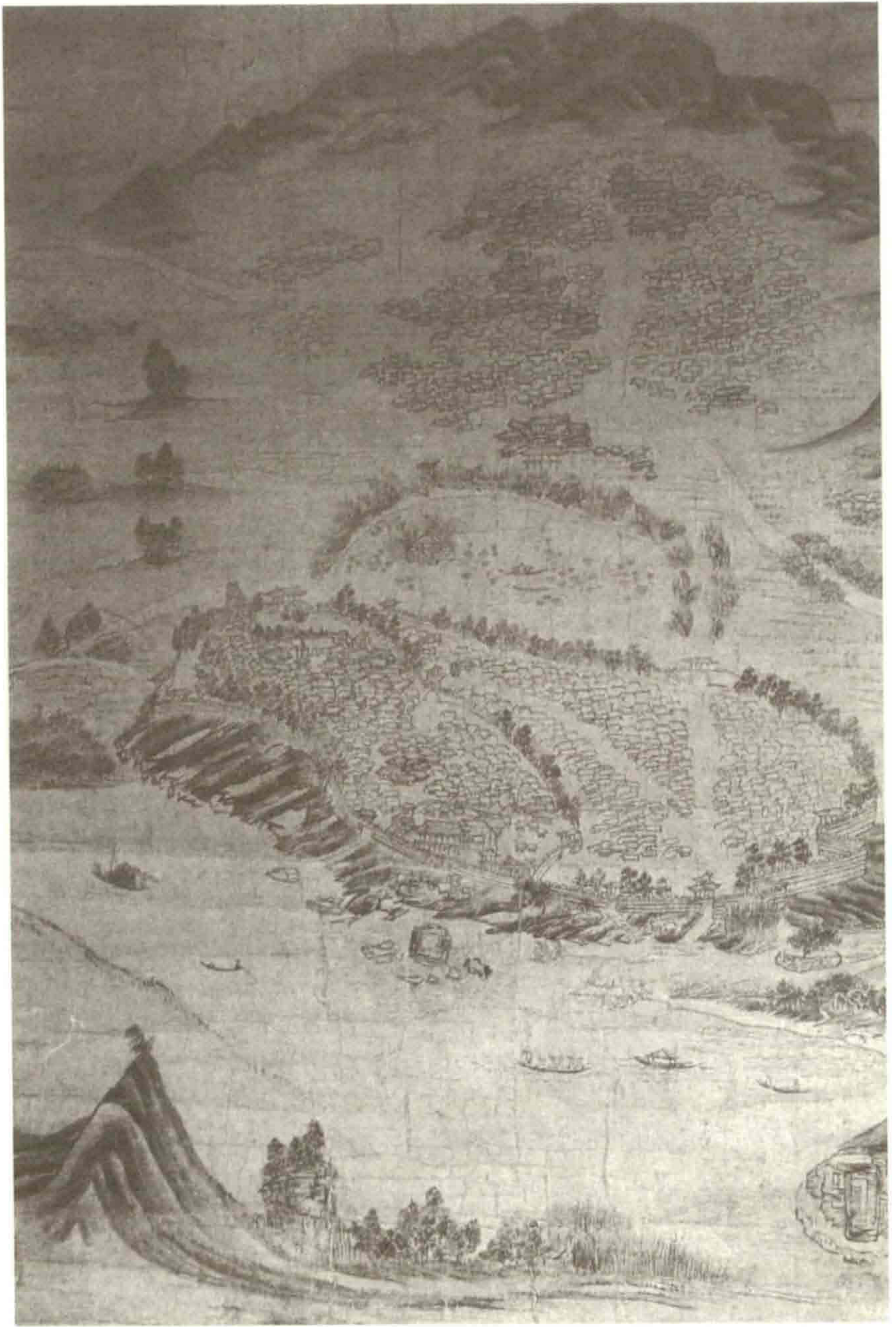
한편 동래 등에 주둔해 있던 왜병 20여만 명이 김해, 창원을 거쳐 함안의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해에서는 육로로, 창녕에서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수륙으로 병진하여 함안, 의령, 반성을 차례로 점령했다.

왜군이 함안 일대를 분탕질하자 순변사 이빈은 급히 의령으로 와서 각 도의 장수들에게 말했다. 왜적들의 계획은 필시 진주를 함락시키는 데 있으며, 지금 진주성에 있는 군사로는 성을 지키는 것이 무리이므로, 각 도의 의병을 진주로 보내어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각 도의 장수들은 이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도원수 권율이 지강<sup>枝江</sup>을 건너 왜적을 공격하려고 하자 진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수성론<sup>守城論</sup>과 진주성을 비워버린 채 외곽에서 적의 기세를 꺾자는 공성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수성론자들은 만약 진주성을 포기하면 적은 내지<sup>內地</sup> 깊숙이 쳐들어와 그 환난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니 당장 진주성으로 들어가 적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성파들의 주장이 더 강했다. 『난중잡록』, 『선조수정실록』에는 공성파의 한 사람이었던 곽재우의 주장을 적고 있다.

“왜적의 세력이 강성하고 아군은 오합지졸이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군량미도 없으니 경솔하게 전진하지 못한다……. 오직 임기응변할 수 있는 자만이 제대로 군사를 부릴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적을 헤아릴 수 있다. 지금 적병의 상대한





조선 후기 때 그려진 진주성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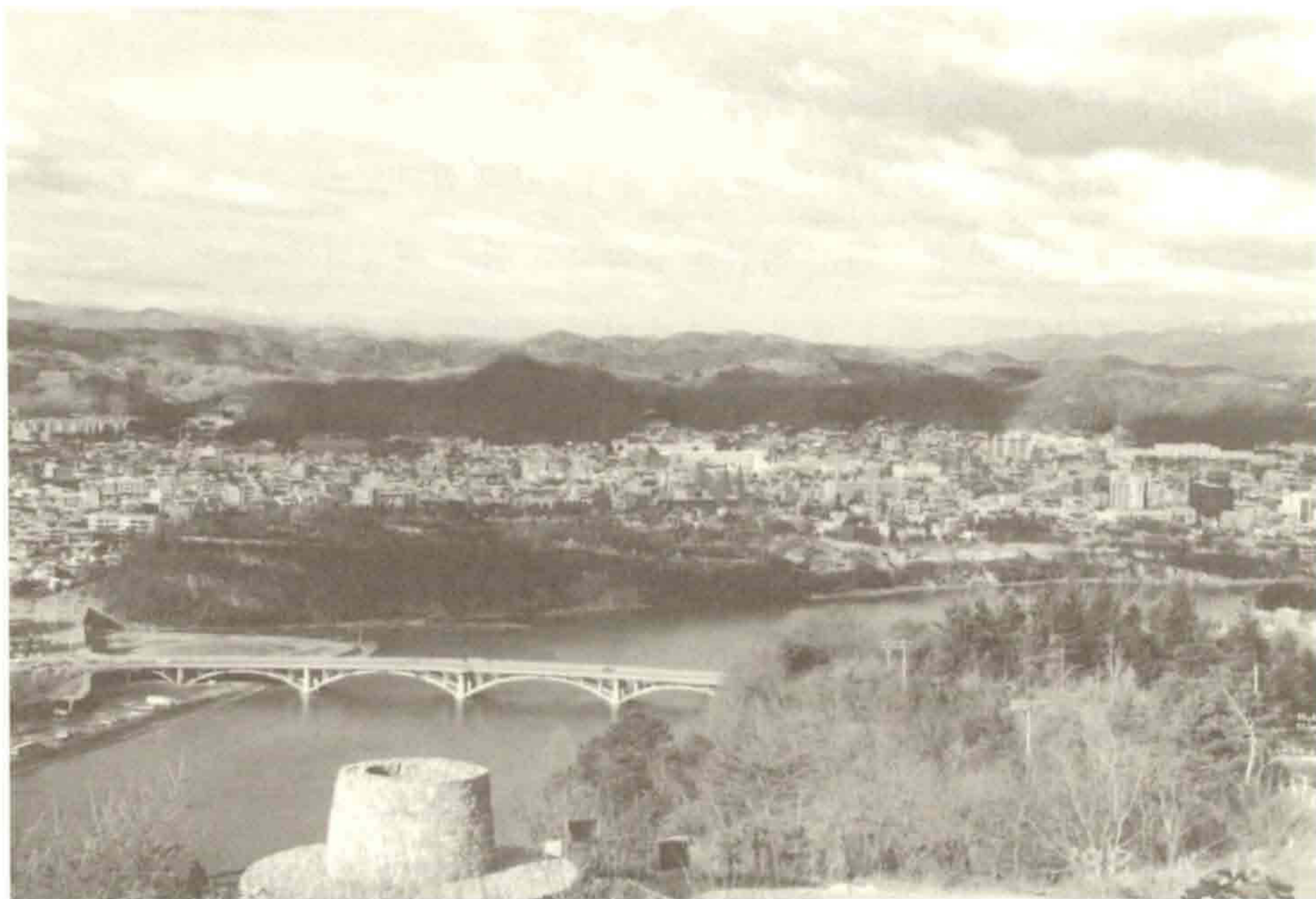
세력으로 보아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들을 3리밖에 안 되는 외로운 성으로 어떻게 방어하겠는가? 나는 차라리 밖에서 원조할지언정 성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죽히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전투 경험이 많은 노련한 군졸들을 어떻게 차마 버릴 수 있겠는가?”

곽재우는 진주성을 사수하기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적을 공격하여 적의 예봉을 꺾는 게 더 좋은 전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수성론과 공성론의 대립이 험악해지자 순변사 이빈은 곽재우에게 의령 정암진의 수비를 요구했다. 그리고 최경희, 황진, 고종후, 선거이, 홍계남은 차례로 진주성에 들어갔다.

도원수 권율은 전라 병사 선거이에게 전령을 보내 성에서 나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가 성을 나가 일시에 산청 방면으로 퇴각하자 성안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동요했다. 최경희, 김천일, 황진은 동요하는 군사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진주성으로 몰려든 3만여 명의 민간인들에게 질서를 유지하라며 위로와 진정책을 함께 사용했다. 그 엄청난 민간인들 중에는 멀리 울산이나 경주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부터 1593년 6월 중순에 이르는 15개월 남짓 남해안을 낀 경상도 지역, 즉 경주, 울산, 부산, 마산, 거제, 함안, 고성, 충무, 남해, 사천, 하동 등지의 주민들은 참혹할 지경으로 왜군들에게 짓밟혔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의병이나 관군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집에는 노인과 부녀자, 어린아이들뿐이었다. 부녀자들이 겪은 수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견디다 못한





남강을 끼고 있는 진주성 전경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 진주성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비록 숫자로는 3만여 명이라 했지만 왜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했다.

이들 피난민들의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였다. 이때 논개와 젊은 부녀자들이 나섰다. 좁은 성안에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행주산성전투에서처럼 각자 역할을 맡아서 전투에 참여하자는 결의를 하고 즉시 조직에 나섰다. 물을 끓일 사람, 끓는 물을 성벽 아래로 쏟아부을 사람, 돌맹이를 주워 모을 사람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켰다.

공성론자들의 진주성 입성 거부는 다른 의병장들에게 여파를



미쳤다. 특히 진주성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빈조차도 산청 쪽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 같은 미묘한 분위기는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경희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또한 정파가 다른 김천일 계열의 서인에 대응하는 동인 계열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경상 우병사직까지 전라도 의병장 최경희에게 넘겨준 점이 정파적 대결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결국 공성론자들이 주장했던 전술, 즉 분산 작전으로 왜적에 대항하면서 적의 예봉을 꺾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 전술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왜군이 다시 의령 일대를 분탕하자 도원수 권율과 이빈 등이 모두 쫓겨 함양을 거쳐 남원으로 도망하고, 정암진을 지키던 경상도 의병들도 이곳을 포기한 채 퇴군하고 말았다.

한편 이같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둔 진주성 안의 형편은 몹시 어지러웠다. 진주 목사 서례원(徐禮元)이 있었지만 의병장 김천일이 성안을 지휘했다. 얼핏 보기에는 지휘 계통의 문란이자 난맥상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일이었다.

#### 4. 진주성의 최후

왜군이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왜군은 치밀한 작전계획에 따라 병력을 여섯 부대로 나누어 각각 책임 구역을 할당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성의 북쪽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지휘 아래 2만 5,600명이



포진했다. 이 부대 안에는 24명의 부장副將이 용맹을 떨치는 병사들을 지휘했는데 그중엔 저 유명한 스모의 제2인자이자 괴력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져 이 부대를 상징하는 천하무적 게이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도 있었다. 성의 서쪽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지휘를 받는 2만 6천 명, 성의 동쪽은 우키타宇喜多秀家의 부대 1만 8,800명, 모리毛利秀元가 책임자인 제4부대 2만 2,300명은 예비대로 대기시켰다. 고바야카와小早川가 지휘하는 제5부대는 가토를 지원하게 했고, 요시카와吉川廣家의 제6부대 약 1천여 명은 남강 오른쪽의 언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응원군을 차단시키기 위해 매복했다.

진주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만약 적절한 응원군이 외곽에서 지원하고, 상호 연락만 된다면 웬만한 공격에는 견딜 수 있는 훌륭한 성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외곽지대와 연락이 두절되고 응원과 보급이 없다면 흡사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곳이기도 했다.

제2차 진주성전투는 경상우도 관찰사의 절제를 받으면서 진주목사가 통솔하는 본주군本州軍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었던 제1차 전투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 우선 적군이 총력전을 펼치고 나오는 만큼 아군도 총력전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적이 함안으로 진출하자 관군과 의병들은 모두 갖가지 핑계를 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버렸다.

한편 명나라군은 대구, 남원, 상주에 머물면서도 조선 정부의 거듭되는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원병을 파견하지 않은 채 방관하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축석루와 진주성 남쪽의 절벽

고 있었다. 따라서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성안으로 들어간 군사들은 성이 완전히 포위된 채 성 밖 백 리 안에는 수성군을 후원하기 위한 단 한 명의 아군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립 상태에 놓였다. 거기에다 진주성 안의 군사는 겨우 3천 명 남짓했다. 왜군이 정예병 9만 3천 명으로 총공격을 펼치는데 아군은 겨우 3천여 명의 혼성군으로 맞섰다.

나머지 수만 명은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전투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데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계속된 왜군들의 약탈과 방화로 양식은 모두 바닥이 났고,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



하자 양식은 더욱 귀해졌다. 진주성 안에 모여든 수만 명의 피난민들은 참담하게 굶주리는 중이었고, 군사들도 군량미가 바닥나서 절망적인 상태였다. 거기에다 외부와의 연락이 모두 차단되고 일체의 응원과 물자 원조가 없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지 않고 왜군들이 포위망을 고수하기만 해도 성안 사람들은 머지않아 굶어 죽거나 투항할 것이란 유언비어가 나돌아 벌써 패색이 짙었다.

왜적들은 진주성을 지원하는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 진주성을 중심으로 모든 인근 마을 곳곳에다 군대를 중첩적으로 분산하여 주둔시켰는데, 그 병력들은 진주성 사방 백 리 안에 꽂 들어차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날의 전투상황을 놓고 지휘관들 사이에는 다시 갈등이 표출되었다. 표의병彪義兵: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희복은 그의 고향 순천에서 아무 벼슬도 없이 살다가 아우인 희열과 함께 의병으로 참전, 진주성 함락 때 전사했다. 두 형제의 의로운 정신을 칭송하는 뜻 부장副將 강희복은 적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관군의 구원요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천일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임우화를 구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그런데 임우화는 특사로 가던 도중 체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왜적은 포로가 된 임우화를 공격 때마다 역이용했다. 결박당한 임우화를 공격진 맨 앞줄에다 세워 놓음으로써 성안의 병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적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동료인 임우화 때문에 활을 쏘지도 못했다. 그런 틈을 이용하여 왜적들은 공세를 취했다. 몇 차례 그런 상황을 겪게 된 성안의 장병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왜적





진주성 순의단에 새겨진 진주성전투도

들의 간교한 술책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었다.

첫날 전투 이후 적은 다시 작전을 바꾸었다. 진주성은 서쪽과 남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기 때문에 이곳으로는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나머지 동쪽과 북쪽 그리고 서북쪽은 인공적인 성벽을 쌓아올렸고, 성 바깥에는 깊고 넓은 인공호수를 파서 성벽을 에워싸도록 해놓았다. 왜냐하면 동쪽과 북쪽은 성보다 훨씬 높은 산이 빙 둘러쳐져 있어서 성벽 접근이 비교적 쉬웠다. 그래서 호수를 만들어둔 것이다.

왜적은 그 호수를 끊고 물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물이 빠져나가자 흙을 퍼붓고 돋우어 평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서는 성 밑에 땅굴을 파서 장대석을 뽑아버림으로써 성벽을 붕괴시켜 성을 함락시키려 했다. 워낙 수가 많았기 때문에 위협은 점점 커졌다.

밤낮없이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왜적의 희생 못지않게 아군의 피해도 컸다. 사흘째 되는 날 최경희와 김천일은 성루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흡사 구원병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김천일이 구원병이 온다고 소리쳤고, 성안 장병들은 큰북을 치면서 기뻐했다. 그리고는 성루에 올라와 구원병이 온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원병은 어디에도 없었다. 앞에는 적병들뿐이었다. 김천일의 눈에 환시현상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만큼 구원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그 무렵 고성 의병장 최강<sup>崔綱</sup>과 이달<sup>李達</sup>은 진주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손을 쓰지 못하고 다시 고성으로 돌아갔다. 이 와중에 최강을 따라왔던 함안의 피난민들 300여 명이 왜군에게 포위당해 위기를 맞았다. 최강은 왜적과 싸워 피난민들을 구출했다. 하지만 광재우에 의해 제의되었던 그 게릴라식 유격전이나 측면 또는 배후 공격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고, 명나라 장군의 명령으로 진주를 구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명나라 장수들은 모두 싸우기를 거부했다. 아군들은 관군, 의





병 할것없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진주성이 서서히 함락되어 가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만 있는 형상이었다.

전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성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비에 젖은 채 여기저기 튕굴었고, 성 밖의 왜적들의 시체도 늘어났다.

전투는 격렬해지고, 군량미 부족이 가져온 심리적 위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갔다. 왜군은 귀갑차龜甲車라는 것을 만들어 전투에 배치했다. 귀갑차는 나무궤짝을 바퀴가 네 개 달린 차 위에 올려놓고 군사가 안에 들어가 작동하는 신무기였다. 이는 침투에 적합한 무기인데 가토 기요마사가 발명해낸 것이었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수성군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왜적들은 줄어들 만큼만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수보다 증강시켜 공격에 나섰다. 성안과 성 밖의 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거기에다 왜군들은 진주성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아낸 다음 그 부분에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취약한 부분은 토성을 쌓아올린 동쪽이었다. 왜병들은 동문 밖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었다. 성벽보다 높게 만든 언덕 위에 올라가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총포를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다. 분명 왜적들의 작전 변화였다.

그러자 성안의 수성군도 황진이 직접 이 구역을 책임지고 나서서 성 밖과의 대좌 지점에 토산을 쌓아올려 응전했다. 흙을 쌓아올릴 때 옷과 모자를 벗어던져버리고 황진 자신이 몸소 흙과 돌을 저날랐다. 이 광경을 본 성안의 피난민들은 감격했다. 모든 피난민이 달려들었다. 참으로 무서운 힘이였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은 밤을 새우며 흙과 돌을 날랐다. 부슬비를 맞으면서 사력을 다해 흙을 나르는 피난민들의 모습엔 독기가 뻗었다.

새벽녘이 될 무렵 커다란 산 하나가 불쑥 솟아났다.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성안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자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쌓아올린 곳에서 현자총통玄字銃筒을 발사하여 왜적들이 쌓아올린 흙더미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왜적들도 보라는 듯이 수천 명을 동원하여 다시 흙더미를 쌓아올렸다.

이날 낮에만 삼진삼퇴, 야간에는 사진사퇴하는 사이에 김천일은



명나라군과 관군 측에 구원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끝끝내 단 한 명의 원군도 보내오지 않았다.

왜적은 목궤<sup>木櫃</sup>를 만들어 생피로 덮어싸고, 이를 각자의 머리에 인 채 탄환과 화살을 막으면서 다가와 성을 허물기 시작했다. 귀갑차도 동원되었다. 귀갑차를 성벽에 바짝 갖다 붙여놓고 그 안에서 성벽을 허물었다.

그러자 성안에서는 큰 돌을 굴러내렸다. 목궤와 귀갑차가 큰 돌에 맞아 찌그러지거나 박살이 났다. 목궤나 귀갑차 안에 있던 왜적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화살을 퍼부으니 적은 또다시 퇴각했다. 적은 다시 작전을 바꾸었다. 이번엔 동쪽 성문 밖에다 큰 기둥을 두 개 세우고 그 위에 판자를 설치한 후 올라가 성안을 향해 불붙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화살들은 성안의 초가들을 겨냥했고 초가는 일시에 불바다를 이루었다. 이에 맞서 황진도 기둥을 세우고 판자를 깐 위에 올라가서 총포를 쏘아 적의 판자 기둥을 쓰러뜨렸다.

전세는 점점 불리해졌다. 진주 목사 서례원은 겁에 질려 당황해했다. 목사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피난민들에게 당장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러자 최경희가 당장 서례원 대신 사천 현감 장윤으로 임시 진주 목사를 삼아 성안의 동요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장병들은 설새없이 계속되는 격전에다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피로가 가중되어 제풀에 지쳐가고 있었다. 거기에다 연일 퍼붓는 폭우로 주무기인 활이 모두 풀어져버려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전세는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불리하고 위급한 지경으로 치달았다. 그때 왜적은 항복을 종용하는 전단을 뿌리기 시작했다. 한





새로 쌓아올린 지금의 진주성

문으로 씌어진 항복을 유도하는 전단의 효과는 뜻밖으로 컸다. 피난민들 가운데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동쪽의 성 한 부분이 무너져내렸다. 왜적들은 이 틈을 타서 성벽을 넘으려 했고 김준민은 이를 막다가 전사했다. 왜적들은 동서 양쪽 성문 밖에다 다섯 개의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엮어서 방책을 만들어놓고 성안을 굽어보면서 총탄을 쏟아부었다. 성안에서 순식간에 300여 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왜적의 공격은 다른 날과 달리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었다. 커다란 나무 궤짝으로 사륜차를 만들어 그 위에 수십 명을 싣고, 각자 철모를 쓴 왜군들이 궤짝을 밀어 성벽 아래까지 접근해



서는 철추<sup>鐵椎</sup>로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 성 바깥에서의 공격만으로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성안으로 적병을 들여보낼 계획이었다. 또한 성의 기층을 굴착하여 성벽을 붕괴시킬 공작도 병행했다. 따라서 성벽 곳곳에 구멍이 뚫리거나 기층이 파헤쳐졌다.

전투를 시작한 지 여드레째가 되는 날 진주 목사 서레원의 실수 때문에 그의 책임구역이 야간을 틈탄 적병에 의해 거의 뚫린 상태가 되었다. 적병이 그곳을 집중 공격해왔으나, 황진과 이종인을 선두로 한 성안 사람들이 사력을 쏟아부은 끝에 겨우 격퇴시킬 수 있었다. 이날 성 아래 잠복해 있던 적병에 의해 황진이 전사했다. 갑자기 성안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성군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전세가 반전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성안에 있던 피난민들이 성을 뛰어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자들은 남강에 뛰어들어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계속된 장마로 불어난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목소리가 가득했다. 달아나던 피난민들은 대부분 왜병들에게 살해되었지만 탈출하려는 사람들 수는 계속 늘어만 갔다.

최경회와 김천일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끝내 관군과 의병들은 진주성 안의 수성군들과 수만 명의 피난민을 외면하고 말 것인가 싶어 분한 기분으로 또 울먹거렸다. 그때 논개는 피난민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패전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최경회는 진주 목사 서레원으로 하



여금 충청 병사 황진을 대신하여 순성장<sup>巡城將</sup>으로 삼았다. 그러나 서레원이 그 직책을 감당해낼 수 없어 사천 현감 장윤으로 대체시켰지만 장윤 또한 전사하고 말았다. 이제 성안에는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후 1시경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부터 문제로 등장했던 동쪽 성문과 성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허물어진 성벽을 쌓을 사람도, 그것을 지휘할 사람도 없었다. 돌이 아닌 흙벽이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비에 젖은 나머지 힘없이 무너졌고,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지는 폭우는 흙벽의 복원을 가로막았다.

왜적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무너진 성문 앞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김해 부사 이종인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창으로 육박전을 벌여서 간신히 적병을 물리쳤다. 그러자 적병은 서북문을 공격했다. 서북문은 김천일의 책임구역이었다. 그러나 김천일은 물밑듯이 밀려드는 적병을 끝내 저지하지 못한 채 축석루 쪽으로 후퇴했다. 적병은 드디어 성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진주 목사 서레원은 도망쳤고 그때까지 살아 남았던 군사들도 더는 대항하여 싸울 기력이 없었다. 적병을 피해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피난민들도 살아 남기 위해 성 밖으로 달아났다.

논개는 썰물처럼 무서운 기세로 밀려나가는 피난민 대열에 떠밀려서 성 밖으로 나왔다. 왜병들은 피난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기 시작했다. 피난민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다. 논개는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난민 대열에 섞였다.



마침내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사방에서 적병이 몰려들었고 폭우는 계속되었다. 남강은 붉은 황톳물로 넘쳐흘렀다.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즉시 조카 홍우(弘宇)를 불렀다. 홍우는 최경회의 중형 경장(慶長)의 큰아들로서 최경회 군대 군관이자 막하 장수였다. 홍우에게 유언을 할 참이었다. 먼저 1592년 9월 우지치전투 때 왜장에게서 빼앗은 그 칼과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 그리고 입고 있던 관복(官服)을 벗어주면서 그 물건들을 고향 화순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조카 홍우가 떠나고 나자 김천일이 달려왔다. 성이 함락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종인, 이잠, 강희복, 오유는 최후까지 왜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결국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는 성 함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자결하기로 맹세했다. 세 사람은 시뻘건 황톳물이 범람하는 남강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 5. 죽음과의 입맞춤

성을 완전히 장악한 왜병들의 광란이 시작되었다. 성안에 살아 있는 것은 모조리 도륙당했다. 성안 곳곳에 시체가 뒹굴었고, 축석루에서 남강 북안에 이르기까지는 쌓인 시체들이 서로 겹치거나 형클어진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청천강에서 옥봉에 이르는 5리 사이에는 시체들이 쌓여 강물을 막았다. 강바닥부터 쌓인 시체들이 강둑 높이까지 차오르자 강물은 핏물로 변해 강기슭에 있는 집들의 안마당까지 질퍽거렸다. 군인 복장을 한 시체보다는 피난민들



시체가 훨씬 많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들 시체 곁에는 역시 뼈가 앙상한 젓먹이들과 어린아이들 시체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왜적들의 광란은 좀체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성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죽은 시체들을 두번 세번 거듭해서 찌르고 토막냈다. 가축도 예외는 아니었다.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죽였다. 이제 살아 있는 것은 왜적 자신들뿐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도끼를 들고 성안에 서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찍어 베어버렸고 우물마다 독을 풀었다. 이제 서 있는 것도 모조리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진주성을 철저히 파괴하여 평지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서 지시받은 대로 진주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런 다음 다시 군대를 두 갈래로 재편성하여 진주성 외곽지대의 초토화에 나섰다. 제1대는 단성, 산청 등지로 나갔고, 제2대는 섬진강을 따라 구례, 곡성까지 진출하여 약탈과 살상을 자행하다가 7월 9일 모두 진주로 복귀했다.

7월 초였다. 가토 휘하의 여러 부장은 제1대에 배속되어 단성, 산청 등지를 유린하고 전라도로 떠난 부대들보다 일찍 진주로 돌아왔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그들은 전승 축하연을 준비했다. 워낙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났고, 병사들의 사기도 그만큼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질탕하게 한판 노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다들 알고 있었다.

전승 축하연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려면 술과 여자가 있어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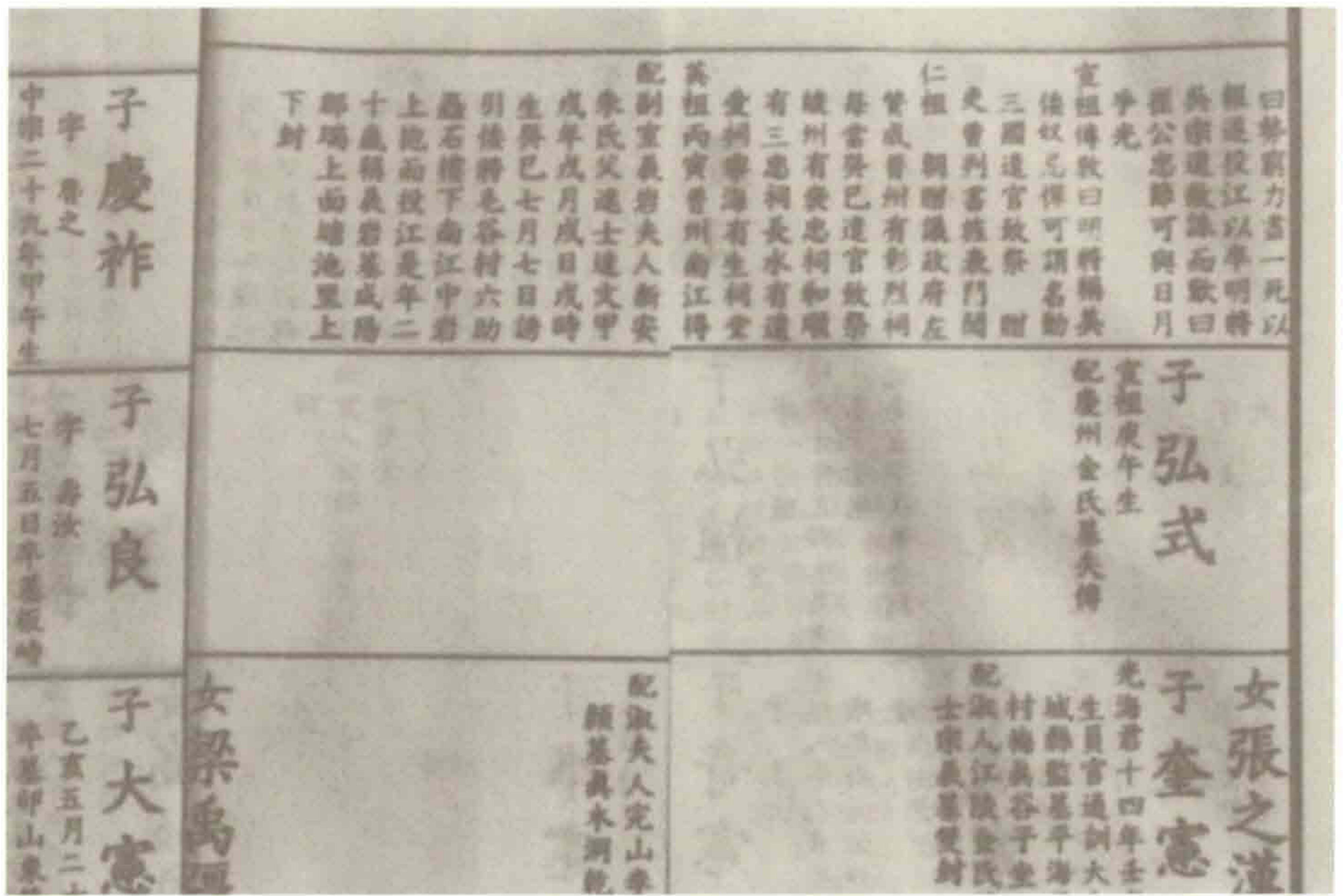


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진주 관기들을 모조리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진주 관기는 옛날부터 유명했다. 제2차 진주성전투가 계속되던 중에도 진주 관기를 대표하는 한 나이 든 기생이 김천일을 찾아와 격렬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 진주성 안에 들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던 관군 중 몇몇이 기생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와서 기생들을 겁탈하는가 하면, 밤낮을 안 가리고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기생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 대표가 김천일을 찾아가 항의한 것이었다. 그러자 김천일은 그 기생을 건방지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기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병사들이 군율에 따르지 않고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군율이 없기 때문이며, 이런 문란한 자세로 어찌 왜적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묻자 김천일이 그 기생의 목을 베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전투 때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관기들은 왜적들의 소집에 전을 했다. 그때 진주성 밖의 작은 암자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논개는 성 함락 이후의 소식을 날낱이 듣고 있었다. 최경희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논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은혜와 사랑 모두를 승화시킬 묘책을 찾고 있던 중 진주 관기들을 소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전승 축하연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선 사람은 진주 관기들뿐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논개는 마침내 그토록 오래 꿈꾸어오던 자아완성의 기회가 왔음을 깨달으면서 한층 더 냉철해졌다.

은밀한 수소문 끝에 진주 관기들이 7월 초순의 어느 날 오후에 축석루로 집결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논개는 관기들 틈에 끼여





해주 최씨 대동보의 의암부인 관련 기록

촉석루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각오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장 한 놈은 죽이고 자신도 죽을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다. 자신이 기생 신분으로 가장하여 왜장을 죽인 다음 생기게 될 세상의 오해와 능멸 따위로 망설일 필요는 없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망설여졌다. 최경희의 부실로서 최경희를 따라 자결해버린다면 한결 편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결해버린다면 정절을 지킨 열녀가 되어 해주 최씨 가문과 신안 주씨 가문의 영예가 될 것이고, 논개 자신은 열녀 반열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손쉬운 삶이 주는 명예보다는 더 높고 큰 삶을 살고 싶었다. 진주성 싸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민중과 함께



하고 싶었다. 문제는 관기들 틈에 끼여서 축석루까지 가는 과정이었다. 고심 끝에 논개는 장수를 떠날 때 몸에 지녔던 약간의 금붙이로 모시를 구해 치마 적삼 한 벌을 급히 만들었다. 관기로 가장하기 위한 극단적 모험이었다.

일부러 머리도 감았다. 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를 다시 찌르고, 새 모시옷을 입었다. 죽음과의 입맞춤을 위해 정신적 변신으로 거듭난 논개는 이제 갓 스무 살의 눈부신 여인이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희고 부드러워 향기 나는 피부였지만 죽음을 속이기 위해 마지막 화장을 했다.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서기 시작할 때 논개는 저만치 뒤처져서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그들을 따라 걸었다. 지난 전쟁 중에 여러 명의 관기가 죽거나 달아났고 더러는 중상을 입거나 해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수가 많이 줄었다. 관기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무거워 보였다. 어쩌면 이번 걸음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기들의 얼굴엔 저마다 수심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날의 축석루 가는 길에는 살아남은 진주 관기 외에도 적잖은 여인네의 모습도 보였다. 전쟁에서 죽지 않은 일반 여인들이 왜병들에게 끌려가면서 발악하거나 울고 있었다. 옆사람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논개는 차라리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축석루에는 주로 왜장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축석루 아래 땅바닥엔 왜병들이 모여 앉아 있다가 관기들과 일반 여인들이 들어서는 모양을 보고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논개는 축석루 가까이 다가서면서 주위를 살폈다. 관기들 속에



섞여서 축석루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축석루에 올라가면 노래와 춤 그리고 술잔 시중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논개는 한 번 더 자신의 위장잠입 목적을 떠올렸다. 먼저 자결한 최경희의 직위만큼 높은 계급의 왜장을 죽일 수만 있다면 다시없는 기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누가 직위가 높은지를 짐작으로 가려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때 축석루 아래 강가에 작은 바위 하나가 보였다. 순간 논개는 그 바위가 자신의 목적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직감했다. 유인책을 쓰자는 생각이었다. 미끼를 향해 달려들도록 피를 짜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탓에 그 바위면은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드러나 있었다. 남강은 범람을 그치긴 했으나 아직도 시냇길 황톳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무섭게 흐르고 있었다. 논개는 매우 위험한 모험에 도전했다. 자신이 바위 위에 올라가 미끼 노릇을 할 때 어떤 왜장이 걸려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쩌면 도리어 능멸을 당할지도 모른다.

왜장들은 벌써 거나하게 술기가 올라 있었고, 병사들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논개는 아주 천천히 마치 산보하듯이 강가를 거닐기 시작했다. 축석루에 올라간 관기들은 몹시 두려워서 주저하다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논개는 강가를 거닐다 말고 강물 저만치 안쪽에 끝부분만 드러나 있는 바위를 바라다보았다. 위암<sup>危巖</sup>





진주성전투를 상징하는 유등행사

이란 바위였다. 물에서 위암까지는 어른 팔로 한 발은 뒹 직한 거리였다. 그때 축석루 위 남쪽 난간에 기대어 앉아서 술을 마시던 왜장 하나가 아래쪽 강기슭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고 거닐고 있는 논개를 발견하고는 저 여자를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지 내기를 걸 자고 했다. 그러자 축석루 위에 있던 왜장들은 일제히 강가에 서 있는 흰 모시옷을 입은 여인에게로 눈길을 던졌다. 다른 관기들도 그쪽으로 눈길을 주었지만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논개는 자신의 계획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제 남은 것은 왜장을 유인하는 일이었다. 논개는 물 속의 위암에 다시 눈길을 주었다. 좋은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다. 위암



사방은 물길이 무섭게 휘감고 돌아 다시없는 죽음의 자리였다.

논개는 신을 벗어 들고 힘껏 뛰어 위암 위로 올라섰다. 그러자 촉석루 위의 왜장들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다. 논개는 짐짓 촉석루 쪽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띤 채 서 있다가 다시 옆모습을 보이면서 우수에 찬 얼굴로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최경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나간 19년의 세월 모두가 최경희의 사랑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 여겨졌다.

그때 왜장 하나가 어느새 달려 내려와 논개를 향해 뭐라고 지껄였다. 논개는 사내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왜장은 당당한 체구였다. 계속 뭐라고 지껄였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건장한 체구의 왜장이 재미있다는 듯이 손짓을 해대는 것으로 보서는 논개더러 물으로 나오라는 시늉 같았다. 그러자 논개가 조금 더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도리어 왜장더러 위암 쪽으로 건너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촉석루 위에서는 왜장들이 함성을 지르며 웃어댔다. 왜장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 논개는 계속 손짓을 했다. 강아지를 부르는 시늉의 손짓이었다. 마침내 왜장이 성큼 위암으로 건너뛰었다. 한쪽 발이 바위에 닿자마자 논개를 덤석 껴안았다. 촉석루 위에서는 다시 함성이 터졌다. 승리했다는 뜻이었다. 왜장은 논개를 다시 껴안았다. 술냄새가 확 풍겼다. 논개는 왜장에게 안긴 채 왜장을 한 번 올려다보았다. 왜장은 싱글벙글 웃었다. 논개의 두 팔이 왜장의 허리를 살며시 휘감았다. 왜장은 몹시 만족한 듯 논개에게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논개는 왜장의 허리 뒤로 돌려진 손끝으로 양손에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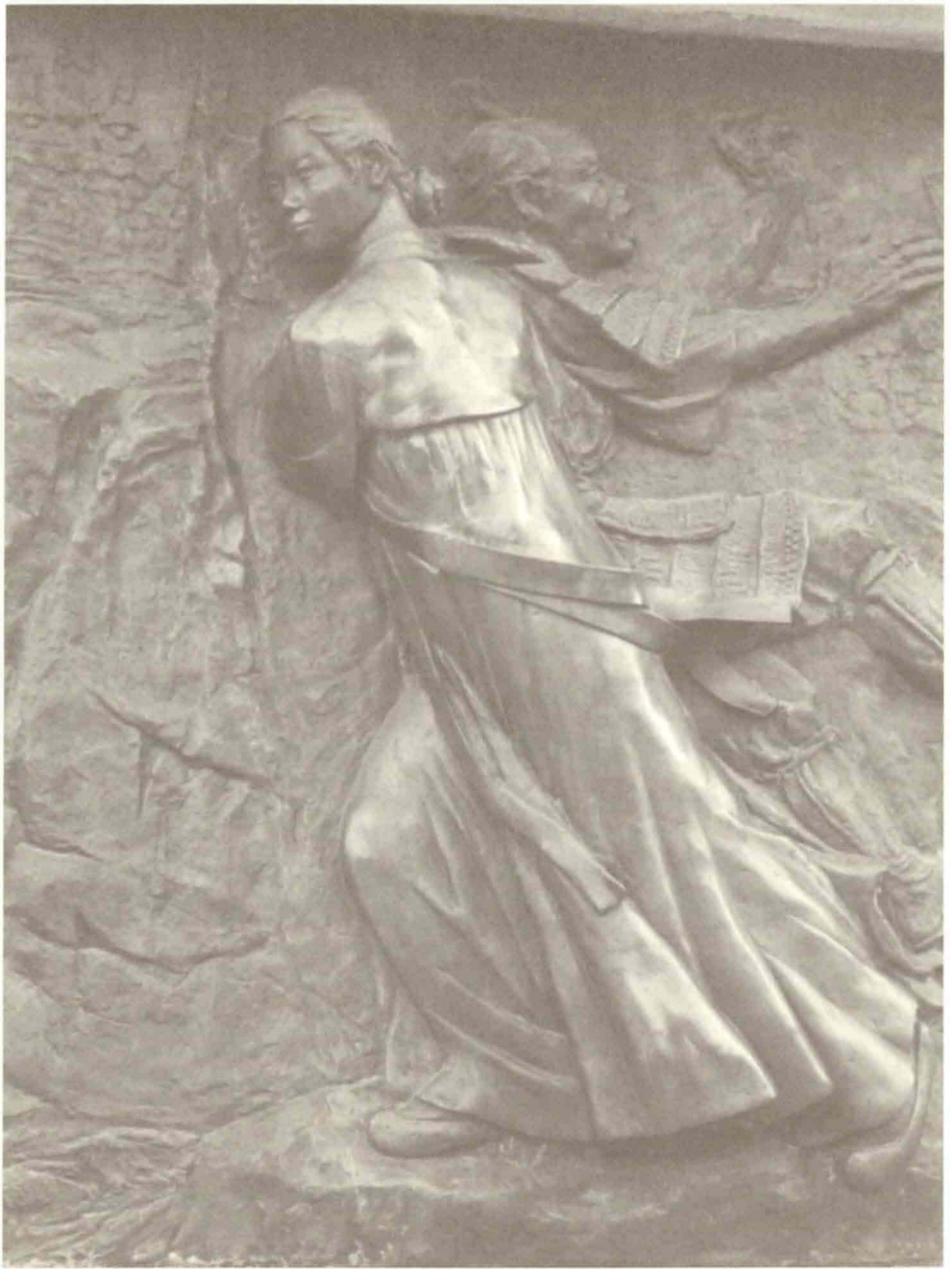
워진 옥가락지를 확인한 다음 깍지를 짝 꺾다. 앞으로 슬쩍 왜장을 잡아당겨보았다. 왜장의 몸이 기우뚱거렸다. 왜장은 몹시 기분이 좋은 모양으로 논개가 잡아끄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촉석루 위에서서는 계속하여 함성이 터져나왔다.

논개는 숨을 몰아쉬면서 위암 끝에 섰다. 한 번 더 최경회를 떠올렸다. 살아서 함께 못다 한 사랑이 목을 찢렸다. 또한 폭우 아래 무너지는 흙담처럼 죽어가던 민중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다. 순간 두 손에 혼신의 힘을 주면서 왜장을 껴안고 강물 쪽으로 힘껏 떠밀었다. 왜장의 비명과 촉석루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던 왜장들의 비명이 들린 것은 거의 같은 순간이었다. 남강 물은 여전히 도도하게 흘렀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게야무라 로쿠스케였다. 게야무라의 죽음은 뜻밖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왜군들은 그동안 진주성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그로 인한 전력의 약화로 사실상 호남 공략이라는 최대 목적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실패하고 만 셈이었다. 결국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시켜야만 한다는 호남 의병들의 당찬 의지는 수많은 죽음으로써 달성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진주성전투가 있었기에 왜적의 침략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남방의 보급기지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호남이 보존될 수 있었다.

죽음에 입맞춘 논개의 의거는 민족적 결단이었다. 그의 죽음은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깊은 울분과 회한에 싸여 있던 모든 민중들의 강렬한 저항의식을 드높였다. 논개가 왜장을 살해한 행위는





왜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드는 논개





규슈 나고야 성 부근에 있는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신사(왼쪽)

민족의 울분을 가시게 한 순국의 여인에 대한 민족적 감정으로 확산되고 승화되었다. 그리하여 진주 사람들은 논개의 의거 현장이자 순국의 성소<sup>聖所</sup>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의 성지<sup>聖地</sup>인 '위암'에 '의암'義巖이라 새겨, 시간을 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삼았다. 또한 그 곁에 '의암사적비'를 세워 논개를 가슴속의 영원한 애인으로 삼았다.

스스로가 창기<sup>娼妓</sup>로서 받아야 할 수모와 모멸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반외세 조국 전쟁의 신성한 목적에 복무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한 근대적이고 혁명적인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논개'라 부른다.

이렇듯 논개에게 살해당한 게야무라 로쿠스케<sup>5)</sup>는 지금도 신화



적인 존재로서 일본인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게야무라는 규슈<sup>九州</sup> 나고야<sup>名古屋</sup>의 기다진자<sup>貴田神社</sup>에 신으로 모셔져 있고, 또 다른 한 집에는 그의 팔과 다리를 상징하는 목제품 조각을 모셔놓고서, 팔과 다리가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전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147년 동안의 의로움

不悲其志而哀其死也

有虎豹在山之勢

誰去環堂越視者抑

公為然義兵將子弘先任弘載







## 1. 전라도 의병들

논개의 죽음은 진주 사람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흠모의 불꽃을 피워놓았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진주는 줄곧 병란의 한가운데서 참혹한 상황을 겪었던 호국의 성지였다. 진주 사람들도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관료들의 부패와 탐학 그리고 이미 여러 해째 반복되고 있는 극심한 기근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관료들의 부패는 진주 사람들을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다. 거기에다 거듭되는 가뭄이 농작물 수확을 어렵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굶어 죽은 사람에 관한 참담한 소문만이 들려와 민심을 어지럽게 한 지 여러 해째였다.

진주로 들어오는 남강 나루터엔 항상 거지떼들이 득실거렸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도적으로 돌변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출몰하기도 했다.

그런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관군들은 이미 군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오합지졸에다 마치 유일한 재능인 양 민폐를 끼치는 조선 내부의 적으로 변한 지 오래였다.

장수들과 계급이 높은 지휘관들은 군량미를 도둑질하고 경비를 착복하기 일쑤였다. 땀 흘려 훈련하는 모습은 사라졌고, 칼은 녹슬



고 활은 늘어지고 낡았다. 임진왜란은 그런 관군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능한가를 철저히 보여준 계기였다. 전쟁은 더할 수 없이 싱겁게 진행되었다. 그만큼 민중들의 부담과 희생만 컸다. 관군들이 무기와 몸으로 방어해주어야 할 위험과 손실을 오히려 비무장의 민중들이 손수 치러내야 하는 것은 잔혹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을 훨씬 넘는 동안 민중들의 가슴은 조정과 관군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더구나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보여준 관군들의 백성에 대한 명백한 배신과 제 목숨만 챙기려는 비겁함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극도로 떨어뜨렸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육전의 공포는 그들을 크게 좌절시켰다.

그리하여 진주 사람들은 오랜 울분과 깊고 큰 회한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때 논개가 보여준 가슴 터질 듯한 의거는 매우 신선했다. 이 의거는 민중들에게 다시 떨치고 일어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책임자는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라는 자신감과 저항의식을 일깨워주었다.

논개가 침략군의 기개 높은 장수를 처단했다는 사실은 민중들의 오래도록 사무쳐 쌓여온 울분과 원한을 풀어준 계기였다. 비록 진주성은 초토화되었지만 논개를 향한 진주 사람들의 뜨겁고 진지한 애정은 곧 그의 시신을 찾아내는 일로 이어졌다. 시신을 수습하여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써 그녀의 거룩한 희생으로 다시 희망의 소중함을 회복한 진주 사람들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

한편 진주성 함락을 전후로 성을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전라도 의병들의 수는 이 전투의 참담함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최경희와



함께 진주성으로 들어온 의병은 500명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420명이 전사하고 살아 남은 사람은 겨우 8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최경회와 함께 온 의병들은 대부분 화순과 능주 그리고 장수가 고향인 청년들이었고, 그들 모두는 최경회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최후까지 그의 곁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가장 큰 희생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그의 의병들은 다른 의병장 휘하의 의병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히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최경회가 자결하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그의 의병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으로 최후를 맞았다. 그 의병 가운데 장수 출신들은 논개와 최경회의 관계가 지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다.

최경회가 자결하던 날의 남강은 열흘이 넘게 계속된 폭우로 범람했다. 수많은 시체가 격랑 치는 강물에 떠밀려갔다. 살아 남은 80여 명의 의병들은 왜적들의 경계심이 다소 늦춰질 때까지 몸을 숨겨야만 했다. 왜적들은 성 함락 후 다시 진주 외곽지대의 초토화에 나섰다. 그 며칠 후인 7월 초순 논개가 왜장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진주는 물론 진주에서 100여 리 밖에까지 순식간에 퍼졌다.

다시 그 며칠 후 왜적들은 울산과 부산 쪽으로 완전히 철수했다. 논개의 죽음은 물러가는 왜적들을 숨어서 지켜보는 진주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논개가 조선을 건졌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진주 외곽지대에서 숨어 지내던 최경회의 의병들은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 진주에서 동쪽으로 3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남강의 한 물굽이에 수백 구도 넘는 시



체들이 떠밀려와 쌓여 있다는 소문이었다.

의병들은 서둘렀다. 진주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남강 기슭을 따라 내려가면서 시체를 찾기 시작했다. 강을 따라가면서 소문으로 들은 그 시체가 쌓여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계속 묻다가 문산에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냈다. '지수<sup>智水</sup>목'이라는 곳이라고 했다. 의병들이 지수목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은 시체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남강이 굽이쳐 흘러 내려오다가 지수목이라는 곳에 이르러 직각으로 휘어졌다. 남강은 지수목에 이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이거나 짧지만 직선으로도 흐르면서 들판과 계곡을 지나다가 지수목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각을 이루었다. 바로 그 직각을 이루면서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는 꼭지점 부분이 안쪽으로 넓게 열려 있었다.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 거대한 자루의 아가리를 그 꼭지점 부근에다 갖다 대고, 자루 안에는 물고기가 꽉 차 있는 형상이었다. 그곳을 지수목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가로 세로가 2킬로미터 정도 되는 늪이었다. 그 늪은 남강보다 지면이 낮았다. 따라서 지수목에 이르기 전 남강은 약 2킬로미터가량을 직선으로 흐르는데, 범람한 남강이 직선으로 곧장 흘러오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물길이 꺾이는 곳에서 오른쪽의 거대한 늪 쪽으로 물길이 쏠리게 되어 있었다.

지수목은 대곡면, 진성면, 사봉면 세 지역의 경계지점이기도 했다. 특히 시체나 통나무 등 무게를 지닌 물체들은 직각으로 꺾이는 그 지점에서는 예외없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지수목의 늪으로





논개와 최경희의 주검을 수습한 지수목  
 경남 진주시 대곡면, 사봉면, 진성면의 경계지점이다  
 (기역자로 강이 꺾이는 모서리 부분 일대)

빨려드는 것이었다.

의병들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수많은 사람이 시체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부터 떠내려오기 시작한 시체들은 밀리고 쌓이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진동했다. 호남 의병들은 후회했다. 빨리 이곳으로 와서 최경희와 논개의 시신을 수습해야 도리였다는 것을 아프게 뉘우쳤다. 두 사람의 시체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주었다. 진주성이 함락된 이틀 뒤 호남 의병 몇 명이 이곳으로 와서 한 의병장의 시신을 수습



하여 산기슭에다 무덤을 짓지 않고 평장<sup>平葬</sup>을 해두었다던데 그 시신이 진주 병사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진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여자의 시신을 건져 역시 평장을 했다는 것이었다.

의병들은 평장을 해둔 두 곳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먼저 가매장해둔 것은 최경희였고, 뒤의 것은 논개임이 확인되었다. 의병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관 두 개를 맞추어 짰다. 의병들은 서둘렀다. 일단 장수까지 운구해 가자는 목표를 세웠다. 지수에서 의령 쪽으로 건너 안의까지는 약 80킬로미터 거리였다. 관을 메고 걷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 밤낮이나 이틀가량 걸리는 길이다. 뛰지 않고 가면서 묘소 문제를 의논했다. 최경희의 시신을 떠메고 화순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그리하여 우선 논개와 한 곳에 매장해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이장을 해도 좋으리라는 데 뜻이 모아졌다.

그러자 논개의 묘지도 문제가 되었다. 장수에는 묘소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의논하던 끝에 논개의 묘지로 최종 결론이 난 곳은 논개의 선조들이 살았고 지금도 일족들이 많은 함양군 서상면 방지 부근이었다. 안의에서 서상까지는 다시 16킬로미터 거리다. 의병들은 함양 서상까지 와서 방지마을이 바라다보이는 양지쪽 산비탈에다 두 사람의 묘지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함양군 서상면 방지는 물론이고 전남 화순에까지 해괴한 소문이 들려왔다. 논개





경남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에 있는 논개 무덤(아래)과 최경희의 무덤(위)

가 진주 관기였다는 것이다. 그날로 논개의 집안에서는 그의 존재를 망각 속에 매장시켜버렸다. 신분 문제 때문이었다. 최경희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논개의 신분 문제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떤 재앙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천한 관기라는 창피와 모멸감 때문이었다.

논개가 순국한 지 147년이 지나도록 논개의 죽음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진주 남강 기슭을 떠도는 애잔한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논개가 죽은 지 147년이 지나도록 조선 정부는 논개의 죽음을 한사코 외면했다.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념으로 굳어진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운명은 남성의 권위와 명





논개와 최경희의 시신을 운구한 의병들의 추모비



예에 종속된 그늘일 따름이었다. 그런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관료들과 사대부의 의식은 철저히 남성중심적이었다. 논개의 죽음이 지닌 충<sup>忠</sup>으로서의 고귀한 정신을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남성들의 치욕이라 여겨 끝까지 그의 죽음을 외면하며 한사코 덮어버리려고만 했던 것은 아닐까.

충<sup>忠</sup>은 왕과 신하, 즉 군신<sup>君臣</sup>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윤리적 도덕성이라 말한다. 남자들은 최고의 덕목을 충성<sup>忠誠</sup>에 두는데 이는 반드시 권력과 상관되는 것이어서 출세를 보장하는 공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효<sup>孝</sup>, 부부 사이의 열<sup>烈</sup>은 곧 『이륜행실도』<sup>二倫行實圖</sup>나 『삼강행실도』<sup>三綱行實圖</sup> 같은 도덕의 전적<sup>典籍</sup>을 간행하여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게 했다. 이 두 전적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권한도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 논개의 죽음을 최초로 기록한 『어우야담』에서 논개는 진주 관기라는 신분으로 나타난다. 성씨, 본관, 가계, 출생지, 나이 등 그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채 그저 진주목의 한 관기였던 논개라는 기생이 왜장을 껴안고 죽었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다.

임진왜란 같은 극한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나 노소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쳐온 것이 삼강사상<sup>三綱思想</sup>이었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 허용하는 한 국가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상의 덕목이라고 주지시켜왔다. 논개는 이 같은 삼강사상의 가르침에 두 가지 경이로



운 변화를 추가했다. 삼강사상의 가르침대로라면 진주성의 함락과 함께 왜구들이 부녀자에게 만행을 자행할 때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결을 해야 한다. 이때 남편 있는 여인이 자결하면 열녀가 되고, 부모를 위해 죽으면 효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논개는 엉뚱하게도 육체적 변신을 시도하여 기생이 되고, 동시에 정신적 변신으로 승화하여 왜군 중에서도 맹장으로 명성을 떨친 게야무라로 쿠스케를 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논개의 죽음은 조선 사회의 이념과 제도로써 설명할 수 있는 삼강사상적 부분과 설명이 쉽지 않은 다른 두 부분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작 문제는 당대의 이념과 제도로써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에서조차 끝내 묵살하거나 폄하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논개가 실재했다는 것과 진주성전투에서 의거했다는 것, 이 두 사실을 최초로 증명하는 문헌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고 한 경상우병사 최진한의 보고서에 대한 비변사의 태도는 곧 논개에 대한 조선 정부의 맨 첫번째 공식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즉 『어우야담』을 지은 유몽인은 모반죄로 참형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저술을 공식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점이다. 또한 최진한의 보고서에서 먼저 논개에겐 자손이 없다고 적었음에도 비변사는 다시 논개의 자손을 찾아내어 특전을 베풀도록 지시하는 점, 그리고 문제의 핵심인 논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없는 자손에게 상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외면이거나 억지다.



이 같은 조선 정부의 냉랭한 태도와는 달리 진주지방 민중들 사이에 떠도는 담론은 논개와 그의 죽음이야말로 진주성전투의 패배와 치욕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담고 있었다. 논개를 되살려내어 죽은 논개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의 길을 말하게 한 주역은, 논개의 장렬한 죽음을 숨어서 지켜본 진주 사람들과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온몸을 던졌던 전라도 의병들이었다. 그들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의 중앙 정부와 지루하고도 애끓는 역사 바로잡기 줄다리기에 나섰다. 그 줄다리기에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47년이었다.

한 인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친다면 인류 역사상 논개의 경우만큼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인물도 흔치 않으리라.

## 2. 『어우야담』에 담긴 비밀

논개의 죽음과 그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유몽인<sup>1559~1623</sup>의 『어우야담』<sup>於于野談</sup>이었다. 이 최초의 기록은 다시 기록 그 자체의 모순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어우야담』 이후의 모든 기록은 『어우야담』이 전하는 대로만 논개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거짓되고 허황한 작태들을 덧붙였다. 그리하여 논개의 진실에 대한 민중들의 믿음을 조금씩 약화시켜갔다.

『어우야담』은 1621년<sup>광해군 13</sup>에 어우당 유몽인<sup>於于堂 柳夢寅</sup>이 당시 민간에 유포되어 전해 내려오는 야담과 설화를 모아 필사본으



金將軍應河守景職江原之缺京人也禹曆乙巳中武君  
 與宣傳軍起授慶源判官六鎮不得盡室而行將行武來  
 言有責家女年事且艱可卜以為妾將軍慨然許曰吾家  
 貧貴家女富之不易待之如妻名分素矣賦之以妾彼人  
 憾矣凡人之福如布帛有幅尺寸有定限緣妾致貴非大  
 夫美事也丁巳遭熱疾將死其友持冷藥大呼曰子嘗自  
 許死國事今曰一疾寂冥而死誰其知者將軍即張目飲  
 盡三椀乃甦戊午兵曹判書朴承宗遭親喪應河即其姻  
 戚也會葬于高陽自丙遣中使設喪或勸將軍接過曰  
 中官見子好風未必返吾於丙將軍喟然嘆曰有所希  
 歟接過寺耶士失事獨不媿在中乎座客咸異之秋建州  
 朝奴兒哈亦犯順天州徵武國兵將軍以助

논개의 죽음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된 유몽인의 『어우야담』

로 편찬한 것이다. 이 책 권수<sup>卷首</sup> 「인륜편」<sup>人倫篇</sup> ‘효열조’<sup>孝烈條</sup>에  
 논개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다.

유몽인은 1559년에 났고, 1582년<sup>선조 15</sup>에 진사<sup>進士</sup>가 된 뒤 1589  
 년 증광문과<sup>增廣文科</sup>에 장원급제한 문장가였다. 그는 진주성이 함  
 락된 직후인 1593년 윤11월 무군사<sup>撫軍司</sup>: 세자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군  
 대에 나가 군사를 둘러볼 때 그 일을 맡은 부대의 관원이 되어 세자를 따라 삼  
 남 지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참혹한 전쟁이 있는 뒤 긴급하게  
 편성된 무군사는 왕을 대신한 세자가 직접 인솔했으며 전쟁 피해



가 깊고 큰 삼남 지방을 돌아보았다. 무군사는 단순한 피해 시찰보다는 계속되는 왜군과의 전투를 위해 새로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급품을 조달하기도 했다. 또한 전몰 가족을 찾아내어 위로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며 구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고 있었다.

유몽인은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머물면서 지난여름 진주와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일을 책임졌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1594년 삼도순안어사<sup>三道巡按御使</sup>가 되어 다시 삼남 지방 곳곳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다. 이때 그는 진주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해 세자 광해군을 수행하여 진주에도 들렀는데 진주에 머물면서 진주성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개의 얘기를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유몽인에게 논개의 순국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한 진주 사람 누군가가 왜 논개를 진주 관기라 말했으며, 성씨며 고향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논개 스스로가 의거 당시 기생으로 위장했는데다 전승 축하연에 참석해 있던 진주 관기들도 처음 보는 논개의 정체를 자세히 알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몽인에게 제보한 진주 사람이란 다름 아닌 전승 축하연에 강제로 끌려나갔다가 천행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진주 관기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나 진주 관기에게서 얘기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민들이 그 전승 축하연에 참석하기란 좀체 상상하기 어렵기도 했겠지만, 강제로 끌려



나왔던 일반 여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논개의 일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남았을지라도, 왜군에게 짓밟힌 부끄러운 사실을 유몽인에게 진술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설혹 왜군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한 일반민이 있었다 할지라도 처음 보는 논개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유몽인에게 제보한 사람이 진주 관기였고 논개 또한 원래 진주 관기였다면 같은 관기 처지로 지내온 터에 논개의 성씨와 고향을 몰랐겠느냐는 상식적인 의심이 생긴다. 이렇듯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타난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는 기록은 그후 207년이 지나도록 논개에 관한 유일한 정보였다. 성씨와 고향과 가계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논개가 진주 관기였다는 것만 기록으로 전승되는 바람에 논개의 실체와 진실 문제는 점점 더 왜곡되고 와전되는 곡절을 겪었다.

『어우야담』에서는 논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한다.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계사년<sup>癸巳年</sup>에 창의사 김천일<sup>金千鎰</sup>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축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피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



어들어 함께 죽었다.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들이라고 해서 정렬<sup>貞烈</sup>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sup>德化</sup>를 입은 인물이라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sup>忠</sup>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 3. 위암<sup>危巖</sup>에서 의암<sup>義巖</sup>으로

논개가 왜장을 유인하여 의거를 일으켰던 그 위태롭게 서 있던 바위를 일찍이 진주 사람들은 위암<sup>危巖</sup>이라 불렀다. 그곳에서 논개가 순국하자 진주 사람들은 ‘위암’이 아닌 ‘의암’이라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리기 시작하자 ‘의암’은 곧 진주성전투가 남긴 가장 상징적인 사적<sup>事蹟</sup>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던 중 정대룡<sup>鄭大隆</sup>이란 사람이 진주로 이사를 왔다. 그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경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정문부<sup>鄭文孚</sup>의 둘째아들이었는데 문장과 필법이 뛰어난 선비였다. 그의 아버지 정문부는 초나라 회왕<sup>懷王</sup>에 대해 시를 지었는데, 이 시 때문에 1624년인조<sup>2</sup> 1월 이괄<sup>李适</sup>의 난에 연루되어 무고<sup>誣告</sup>로 처형되었다. 정문부는 그의 자식들에게 다른 곳으로 멀리 피신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두 아들 대영<sup>大詠</sup>, 대룡<sup>大隆</sup>은 다음해 진주로 이사했다.

진주로 온 정대룡은 진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의암 전설을 전서체<sup>篆書體</sup>로 써서 이 바위에서 축석루가 바라다 보이는 쪽에다 새겨넣었다. 그때부터 위암은 명실공히 의암이 되





1629년 정대룡이 쓴 '의암'





의암의 윗면

어 논개의 진실을 전하는 최초의 금석문이 되었다.

#### 4.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

논개 의거가 있는 지 20년 후인 1612년<sup>광해군 4</sup> 광해군은 홍문관 부제학 이성<sup>李穡</sup>을 책임자로 하여 임진왜란 중에 희생된 충신, 효자, 열녀를 찾아내어 『동국신속삼강행실도』<sup>東國新續三綱行實圖</sup>에 올려 그들의 넋을 추모하고 이들의 행적을 후세에 널리 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광해군 자신이 세자로 있을 때 직접 삼남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방의 각 읍에서는 관인<sup>官人</sup>이나 사서인<sup>士庶人</sup> 및 공사노비<sup>公私奴婢</sup>를 막론하고 충, 효, 열이 현저한 사람을 일일이 보고하였고 그중에는 논개뿐만 아니라 관기로서 순절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그때 『어우야담』의 저자 유몽인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는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1651년<sup>광해군 7</sup>에 이조참판 겸 홍문관과 예문관 제학으로 왕명을 받아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발문을 썼다. 그때 유몽인이 논개의 순국 사실에 대해 어떤 언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 관기는 한 사람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따라서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는 기록의 참조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논개의 의거 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의 일은 논개의 역사적 사실 인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 한 어떤 역사적 사실도 한낱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준 사례였다. 또한 관기로 기록한 문서가 국가의 공문서가 아닌 개인의 기록일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별대우를 받고 능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했다.

## 5. 촉석루에다 새긴 「의암기」

진주 사람들은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새겨진 ‘의암’<sup>義巖</sup>이란 두 글자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진주 목사나 경상우병사로 부임해오는 관리들에게마다 논개의 죽음을 알리고 적절한 포상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진주 사람들은 진주성이 함락되고 논개가 순국한 날짜를 기억하여 해마다 남강가에 제단을 설치하고 순국한 의로운 영혼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진주성전투에서 순국



也於其夕也亦如是云余於此益信其得名之不虛而疑惑之心滋甚遂書其所聞觀者以待夫觀水有術者焉

義巖記

晉陽之城矗石之下南江之濱有一峭巖直入波心四面皆水也自陸而入僅容一步而於其上也若差跬步便是不測處在昔萬曆癸巳黑齒之入寇也倡義使金千鎰率敢死卒千餘人入據晉陽城以抗賊鋒及其力竭城陷之日城中之人舉皆授首求活

而時有官妓論介者誓不與賊俱生視死如歸凝粧靚服飄然特立乎此巖之上衆倭望見而悅之懼其危而莫敢近忽有一倭挺身直進將誘以出妓乃佯笑而迎之遂抱持其倭投江而死故後之人哀而義之遂刻義巖二字以旌其義云義哉巖也庸詎非大易所謂介于石衛詩所謂不可轉者耶彼以南州之一娼妓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辦此烈烈如大丈夫事業以愧夫當日之髯婦苟非我國家深仁厚澤能使人感發者有若南國婦人化文王之政變江漢之俗則何以得此乎或云金海府使李姓人與金

오두인의 『양곡집』 가운데 「의암기」 부분

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와 이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벼슬과 포상이 내려지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리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사는 민중들의 몫이었다. 논개도 민중들이 제관이 된 제사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제사는 곧 순국한 이름 없는 영령들에 대한 살아 남은 진주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여겨졌다.

1651년<sup>효종 2</sup> 오두인<sup>吳斗寅</sup>이 진주에 왔다가 마침 남강 가에서 주민들이 순국한 의혼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적어 남긴 것이 「의암기」<sup>義巖記</sup>다.



진양성 축석루 아래 남강 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위로 솟아 있다. 물에서 그 바위로 건너가려면 한 걸음밖에 안 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다. 계사년에 왜적이 침입해오자 창의(倡義)를 하여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 논개만은 왜적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여겨 순국기로 맹세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 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키면서도 위태로운 지세를 겁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물으로 논개를 피어내려 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하였다 한다.

의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이른 바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 『詩經』에서 이른 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의 한 창기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의 열렬한 사업처럼 처리함으로써 당시 여염집 부인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분발케 한 것이리라. 마치 남국 부인네



들이 문왕<sup>文王</sup>의 인정<sup>人情</sup>에 감화되어 강한<sup>江漢</sup> 땅의 풍속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오년까지 일주가 되었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으로 증명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일진저!

……내가 신묘년에 ……진양성에 다다르니 이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이날 강변에 제단을 설치하고 의혼들에게 잔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한 바 있어 마침내 촉석루에다 「의암기」라 글을 써놓게 되었다.

## 6. 「탄원서」

논개의 순국 사실은 엄연한 하나의 객관적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봉건관료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도 오르지 못했고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어떤 상전도 받지 못한 채 128년이 흘렀다. 이처럼 국가가 논개의 순국을 외면해온 만큼 진주 사람들의 논개 포상에 관한 염원도 간절하여 식을 줄 몰랐다.

그러나 진주 사람들의 이러한 오랜 숙원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성취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덕망 높은 병사나 목사보다는 정치적으로 세력이 강한 사람이 진주 목사나 경상우병사



로 와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 당시는 봉당정치가 극도로 팽배해 있어 실권 장악에서 밀려난 파벌에 속한 사람이 목사나 병사로 부임할 경우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며, 그 같은 현실을 진주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터였다.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다. 1721년<sup>정종 원년</sup> 2월에 경상우병사로 부임한 최진한<sup>崔鎭漢</sup>이 그였다. 그는 당시의 집권세력과 밀착된 인물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그가 부임하자 기회가 왔다고 여기면서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 갖추었다. 철저한 준비 끝에 그해 10월 진주 사람들은 논개의 포상 문제를 조정에 계청<sup>啓請</sup>토록 하는 최초의 건원서를 최진한에게 제출했다.

전前 진주 별장<sup>別將</sup> 윤상보<sup>尹商輔</sup> 등이 지은 글이다.

축석루 아래의 남강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이다. 이 바위에 ‘의’<sup>義</sup>자 호가 붙은 것이 왜란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 년을 두고 불멸할 대의가 아니겠는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수신<sup>首臣</sup>, 수령 및 제장<sup>諸將</sup> 등 혈전을 치르던 수삼십 원<sup>員</sup>이 모두 항절사의<sup>抗節死義</sup>한 뒤 오직 한 기생 논개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축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



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 바위는 강기슭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 정도만 앉을 만하며 그 밑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히 추락당하는 그 화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고 절의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과 더불어 그 빛을 다 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이란 호를 새기었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나라 초기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당해 있던 왕씨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한 여러 신하에게는 사당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00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속으로 애석해하면서 그녀의 의열에 감동되어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날날이 품달稟達하여 처분을 기다



림이 어떻겠는가?

이 탄원서에서 윤상보 등 진주의 사인<sup>士人</sup>들이 논개에게 베풀어 지기를 요구한 포상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즉 당의 왕씨 여인을 승의부인에 봉했듯이 논개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봉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계사년 진주성 함락 때 전몰한 장수들과 같이 사당을 세우고 왕이 사액하기를 요청했다. 이런 요청 사실은 곧 논개의 신분이 반드시 기생이었다는 기존의 증거를 재고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주 사람들의 이 탄원서가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7.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

진주 사람들의 오랜 숙원을 담은 윤상보 등의 글을 받아본 경상우병사 최진한은 크게 감동했다. 그리하여 그는 1722년<sup>경종 2</sup> 2월 윤상보 등의 글을 인용하여 비변사에다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  
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를 올렸다.

……그러나 자세히 참고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sup>野談古記</sup> 가운데서 비로소 그 근인<sup>近因</sup>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암이란 전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sup>野記</sup>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으니 허람<sup>虛覽</sup>된 전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였으나 뒤에는 마침내 의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sup>激勸</sup>:



격려하여 권하는 것할 것을 해야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  
 泯滅: 형적이나 모습이 아주 없어짐되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마땅히  
 포이지례 褒異之禮: 공적을 특별하게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내리는 규범을  
 참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논개 의거가 있는 지  
 129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 공문서에서 논개의 죽음이 정식  
 으로 거론된 것이다.

## 8. 「관문」

경상우병사 최진한의 글을 받은 비변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개의 포양 褒揚: 칭찬하여 장려함을 경종에게 계문 啓聞: 관찰사나 어사  
 등이 임금에게 글로써 아뢰었다.

경종은 마침내 예조로 하여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시행할  
 것을 명했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다  
 음과 같은 「관문」 關文: 지난날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을 보  
 냈다.

관기 논개가 난중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하게 의거할 만한 문적 文籍이 없으니 포  
 미 褒美: 칭찬함의 중전 重典: 장중한 의식을 가벼이 의론하기가 어렵  
 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 本營이 본사 本司에 논보 論



報: 지난날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 9. 「의암사적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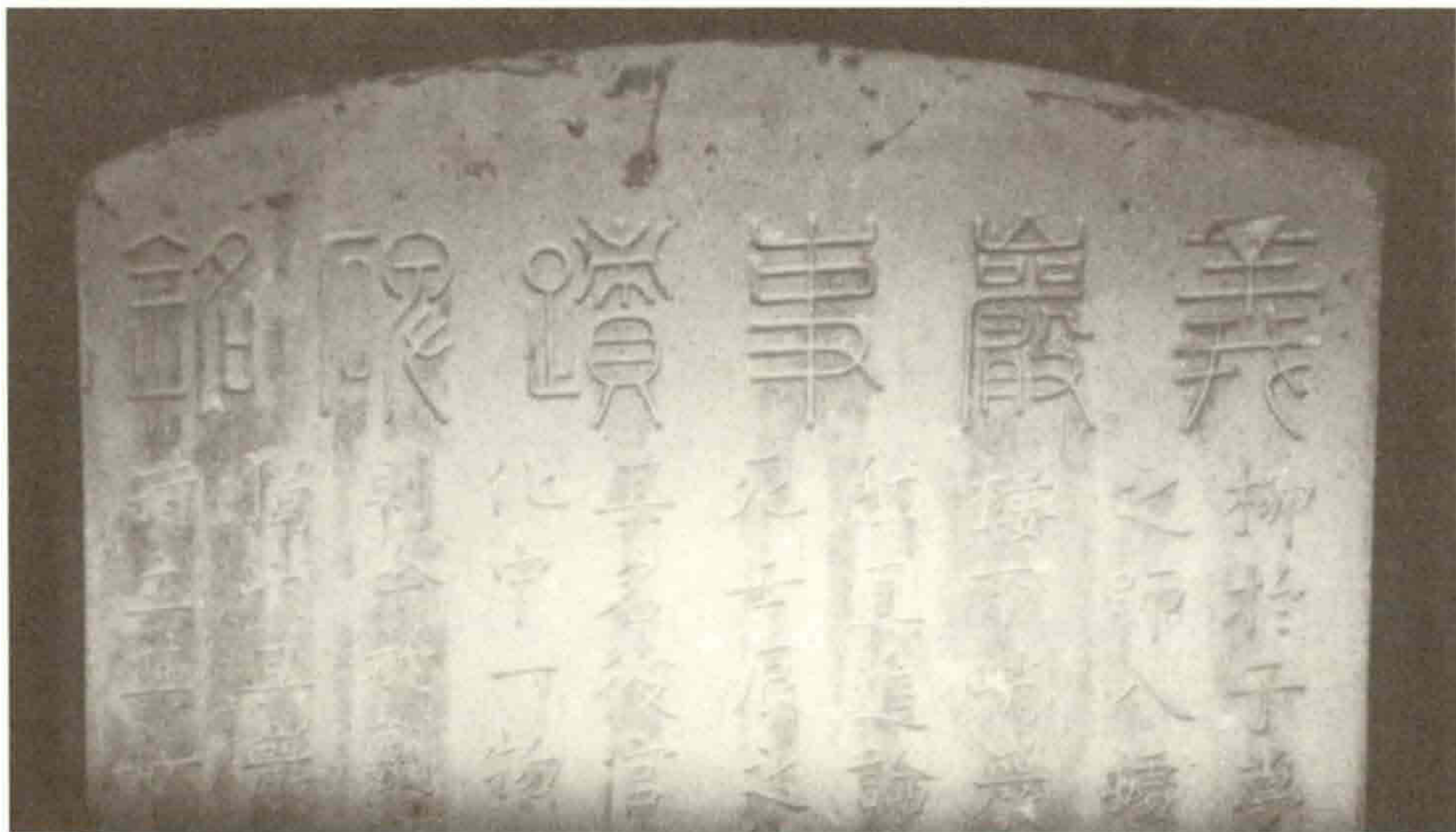
진주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최진한은 진주 사람들과 함께 문제의 저 ‘의거할 만한 문적’을 마련하는 등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진주 사람들이 논개를 포상하라고 130여 년간이나 조정에게 건의해왔지만 그때마다 조정에서는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이번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자 정식鄭弼, 1683~1746이란 선비가 발벗고 나서서 진주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금품이든 곡물이든 가리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얼마간의 기금을 모으자고 했다. 진주 사람들은 너도나도 기금을 보탰다. 이렇게 금품이 모이자 정식은 그 자신이 직접 비문을 지어 논개 의거의 징표로서 의암사적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정식은 본래 진주 사람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족형族兄 밑에서 공부하여 학문에 정통했다. 8세 때 글을 지었고, 젊어서 과옥科屋에 나가 호담암胡澹庵의 척화소斥和疏를 읽고 비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드디어 유건儒巾을 찢어버린 후 패랭이를 쓰고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면 경사經史를 공부했다.

만년에 그는 지리산 계곡에 집을 짓고 세상일을 잊은 채 홀로 지냈다. 생활이 극도로 가난하여 고사리와 소나무 잎으로 끼니를 이





「의암사적비명」

으면서도 태연하게 지내다가 죽었다. 실로 그만한 인물이었으니까 세상 명리와는 무관한 논개의 사적비 세우는 일에 발벗고 나섰을 것이며 그의 이 같은 진실이 진주 사람들에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져 「의암사적비명」<sup>義巖事蹟碑銘</sup>이 완성될 수 있었다. 또 이는 조정에서 논개 의거를 계속 무시하자 진주 사람들이 모금을 통해 사적비를 세움으로써 조정의 잘못에 맞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722년의 일이었다. 「의암사적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우 유몽인 야담집에 말하기를 논개는 진주 명기였다. 만력<sup>萬曆</sup> 계사년에 김천일 등 창의 선비들이 진주성에 들어와 왜적에 항전하였으나 성은 함락되고 군사는 흩어졌으며 인민은 모두 다 죽는 때에 이르렀다. 논개는 곱게 단장하고 아름다



운 옷차림으로 축석루 아래 작은 바위 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깊은 강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군의 무리들이 보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다만 한 왜장이 훌쩍 뛰어들어 오므로 논개는 웃으면서 그를 맞이하였다. 왜장이 그녀를 꺾어 이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그 왜장을 끌어안고 강에 떨어져 죽었다.

임진 난리에 관기 몸으로서 적을 만나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어간 자가 헤아릴 수 없으니 비단 논개 한 사람뿐이리요, 그 이름을 다 알지 못하도다. 그러한 관기를 모두 사람들은 창녀라 하여 가히 정렬<sup>貞烈</sup>로서 일컬을 수 없다 하나 죽음 보기를 고향에 돌아가는 것같이 가볍게 여겨 적에게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것 또한 성스러운 교화 중의 하나다. 차마 조국을 등지고 적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충성일 뿐이니 크게 슬프도다.

이 내용은 당시의 실록에서 나온 것이니 비문에 거듭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새기고 이어서 명하여 이르노라.

유독 가파른 그 바위 위에 그녀 홀로 우뚝 서 있도다.  
그녀가 그 바위 아니었다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겠으며,  
바위인들이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sup>義</sup>자를 얻었으랴.  
이 남강 가의 높다란 바위에는 만고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



## 10. 경상우병사 최진한의 신보

최진한은 의암사적비를 세운 뒤 다시 비면사에 다음과 같이 신보(申報)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알렸다.

관기 논개에 대한 서적(書籍)은 고금의 관청 문적 가운데에는 의거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한 뒤부터 영남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100여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이 없는 데다 족속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의 사연은 곧 옛날에 유몽인이 지은 야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하는 바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의'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히 보는 바이며, 야담의 글은 옛사람들의 공의(公議)이니 의거할 문적이란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監封) 내용을 감사하여 봉하고 도장을 찍는 것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 참고하여 살펴보다하고 행하시어 영남 사람들로 하여금 100여년을 두고 감정을 품게 한 폐단을 풀어주십시오.



## 11. 비변사에서 최진한에게 보낸 재판문

최진한은 신보에서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옛사람들의 공의에 따른 것이니 논개 의거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비변사의 생각은 달랐다. 왜냐하면 유몽인은 그때 모반의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한 뒤 아직 신원(伸冤: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씻음)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죄인이 쓴 기록을 참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유몽인은 1623년인조<sup>1</sup> 이괄의 난 때 이괄과 내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하려 하자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이원익과 김상헌 등의 문초에 모반사실을 부인하며 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나 아들과 함께 사형당했다. 그는 조선 중기 설화문학의 대가였다.

아무튼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최진한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증빙자료가 되지 못한 채 비변사에서는 다시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재판문(再關文)을 내려보냈다.

관기 논개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함으로써 의암이란 칭호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는 것)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 공적을 특별히 찬양하여 특전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



## 12. 재관문에 대한 최진한의 연보<sup>連報</sup>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내려보낸 재관문에는 논개의 자손을 찾아서 포상하라는 포상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진주 사람들과 수령들의 노력으로 조정에서도 이제는 논개의 순국을 사실로 인식했고 동시에 그에 관한 문적이나 금석문을 실록으로 인정한 셈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논개에게 직접 포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자손에 대해 급복의 특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 정부의 처사는 여전히 이중적이며 위선적이다. 논개에 대해 직접 포상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식을 찾아 포상하라는 것은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진한의 신보에서 이미 “자손이 없는 데다 족속이 적어”서라고 밝혔는데도 “자손을 심방한 뒤에 특별히 급복” 운운하는 것은 논개에 대한 직접 포상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때 충<sup>忠</sup>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주로 사대부의 전유물이나 다를 바 없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충이 아니라 열<sup>烈</sup>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몸으로 충을 행한 논개를 어떻게 평가해야 옳을지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적지 않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여 충이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윤리 강령을 능멸하고 인륜 질서를 문란시켰다며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다. 몇몇 사려 깊은 사대부들이 한갓 기생일 따름인 논개의 장엄한 순국 사실을 들어 졸렬하고 비겁한 사대부를 질타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질책이 사대부 모두를 향한 것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그들은 논개의 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논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생이기 때문에 조선 여성에게 부여된 절의<sup>節義</sup>라는 덕목조차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 셈이었다. 이 같은 조정의 처사는 논개가 왜장을 죽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개의 행위를 충이나 열로서 포상할 수는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자 최진한은 다시 보고를 했다.

의기<sup>義妓</sup> 논개의 자손 유무를 관문을 띄워 사문<sup>査問</sup>하였더니 지방관들이 회보<sup>回報</sup>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고로<sup>古老</sup>들을 찾아 물어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의 특전을 베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sup>牒報</sup>: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진한의 이 첩보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논개에 관한 칭호가 관기<sup>官妓</sup>에서 의기<sup>義妓</sup>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논개의 자손을 찾는 관문을 지방관들에게 보냈지만 자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논개가 태어나 성장한 곳은 경상우병사의 관할 구역이 아니다. 전라도 사람의 연고를 경상도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셋째는 이 같은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궁극적 원인은 논개를 진주의 관기였다고 최초로 기록한 『어우야담』에 있다는 점이다.



『어우야담』에 논개가 진주 관기로 잘못 기록되는 바람에 후인들도 그런 잘못을 아무 의심 없이 답습해왔다. 조선시대의 관기는 관리들을 상대하는 천한 신분이다. 그 결과 논개의 친정 쪽인新安 주씨新安朱氏와 시댁 쪽인 해주 최씨海州崔氏 가문 양쪽 모두가 집안 망신이라며 400년 동안 논개와의 관계에 대해 굳게 침묵해온 유일한 이유였다. 또한 이 침묵은 논개의 신분 문제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들의 침묵이었고, 세상의 곡해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급복의 특전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논개의 출생지와 사망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다.

어쨌든 1721년 10월경부터 23년 5월 사이에 진주 사람들과 경상우병사 최진한이 논개의 포상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개의 순국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었고, 의암사적비가 세워졌으며, 급복의 특전이 주어짐과 동시에 ‘의기’란 호칭으로 공인받았다.

### 13. 경상좌병사 최진한의 「청증직소」請贈職疏

진주 사람들은 물러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더욱 당당하게 논개에게 당나라의 송의부인 왕씨녀와 같은 봉작封爵을 베풀거나 건사사액建祠賜額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던 중 경상우병사 최진한이 진주를 떠나게 되었다. 진주 사람들은 다시 좌절을 느꼈다. 최진한은 비록 진주를 떠나기는 하지만 논개의 포상 문제만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자며 진주 사람들을 격려했다. 1724년 최진한은 전라 병사에 임명되었다가, 1725년<sup>영조 원년</sup> 6월 경상좌병사로 부임했다. 최진한은 경상우병사를 사임한 뒤에도 계속하여 진주 사람들과 논개 포상 문제로 오갔다. 최진한은 경상우병사 재직 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경상좌병사로 부임하게 되자 이번에는 종전처럼 비변사에 첩보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이 문제를 소청했다.

유몽인은 문장가로 이름난 사람인 데다 『어우야담』 중 논개의 순국 사실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놓았습니다. 신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sup>異蹟</sup>을 감탄해 마지않았는데, 우병사로 진주에 부임한 뒤에야 과연 축석루 밑 남강 위의 초석에 ‘의암’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로<sup>古老</sup>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가 살신<sup>殺身</sup>섬적<sup>殲賊</sup>한 곳이었고, 그곳의 전설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돌이켜보면서 의담<sup>義膽</sup>: 의로운 마음이 스스로 격동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에 절개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로서 사군자<sup>士君子</sup>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sup>薛仁果</sup>의 항장 방선지<sup>旁仙地</sup>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당해 있던 왕씨란 여인이 그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



자天子가 그녀를 승의부인에 봉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요. 아! 야담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히 실려 있고 이끼 낀 바위에는 '의'義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포旌褒: 선행이나 공적을 표창하는 것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하고 애석해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 데다 직위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연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전하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 업무도 복잡하고 군사를 훈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飢民: 굶주리는 백성을 진구賑救: 지난날 관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할 방도에도 겨를이 없사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됨을 피치 않고 망령되 이 논함은 저 여러 신하와 한 기생이 순국한 후 원한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진청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최진한의 이 같은 상소문은 경종 연간에 비변사에 올랐던 그 어느 첩보문보다도 간곡했다. 논개에 대한 포상이 당나라 왕씨 여인의 예에 의거해서 봉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최진한의 상소에 대한 영조의 비답批答: 신하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은 오히려 경종 때보다 가혹했다.

의암은 비록 있지만 야담의 기록을 어떻게 신빙할 수 있으며, 더욱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경솔하게 건드릴 수 없다.

여기서 다시 『어우야담』의 저자 유몽인이 1623년인조<sup>1</sup> 반역죄로 처형된 후 그때까지 신원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조로서는 비록 『어우야담』의 기록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해도 반역 죄인이 남긴 저술의 기록을 참작하여 논개를 포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영조는 최진한이 “충렬을 포상하고자 하는 뜻이 가상하다”며 묘당廟堂: 조정을 일컬음으로 하여금 품처稟處: 웃어른께 아뢰고 처리함토록 지시했지만 끝내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충렬실록』 권1, ‘비부批附조’는 밝히고 있다.



#### 14. '의기논개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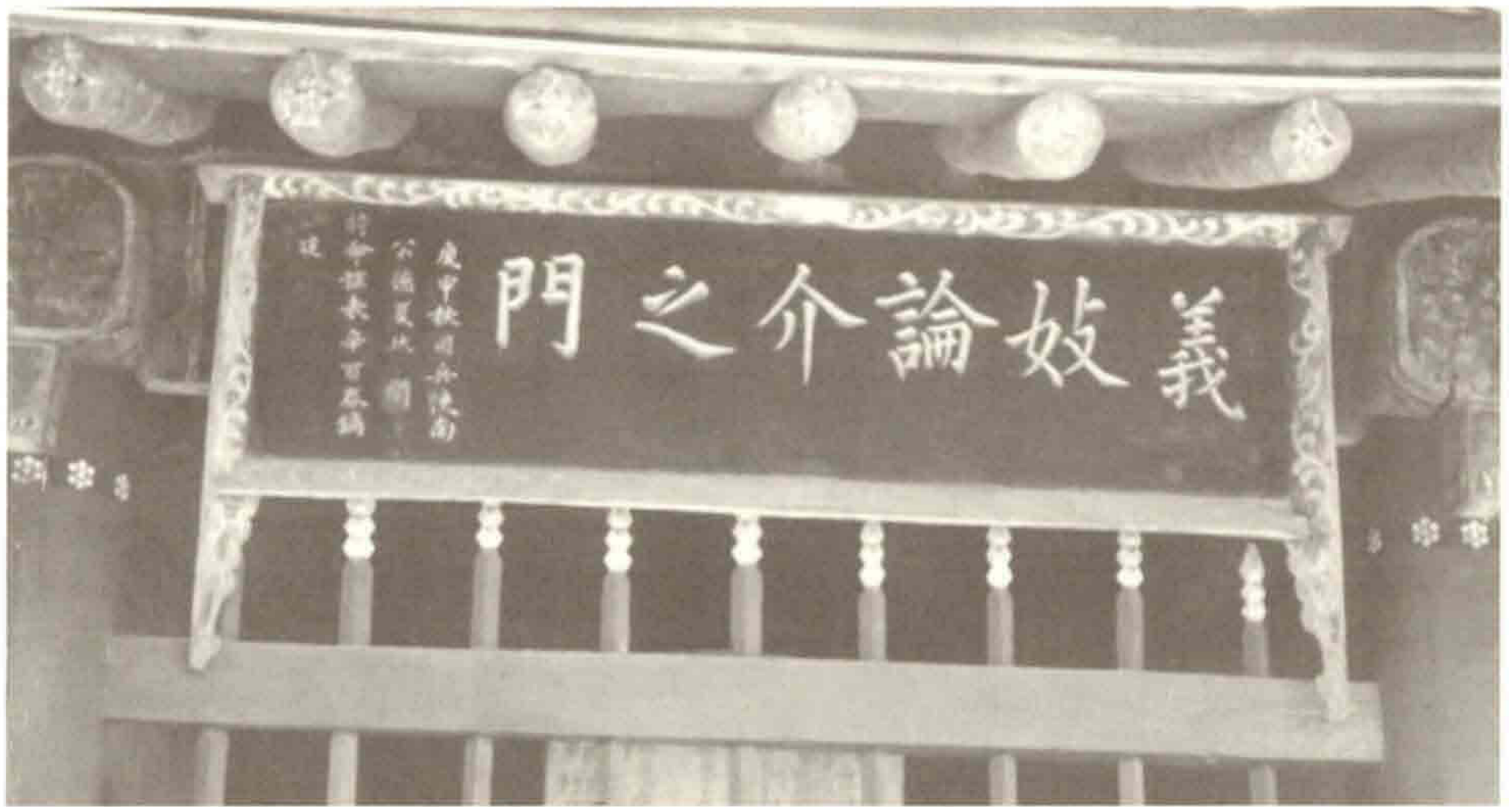
최진한의 「청증직소」 이후 10년 동안 다시 논개의 포상 문제는 침묵과 좌절의 나날을 보냈다. 지난 140여 년 동안 진주 목사, 경상우병사, 경상좌병사의 직위에 부임한 모든 관리에게 논개의 포상 문제는 그칠 줄 모르는 진주 사람들의 집단민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변사에서조차 한갓 관기 논개에 대한 포상 문제가 한 세기가 넘도록 끈질기게 첩보되어오는 바람에 조선조 건국 이래 가장 오래도록 계속된 민원으로 여기며 골머리를 앓았다.

어느 한 가문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대를 물려가면서 조정과 싸우거나 호소하는 예가 없지는 않았지만, 가문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 “당나라 왕씨 여인의 예에 의거하여 봉작해달라”며 한 지방의 사민들과 수령들이 한목소리로 100년도 넘게 한결같이 소원해온 일은 일찍이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진주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는 또 오리라 믿으면서 해마다 남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더욱 정성껏 영혼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성대해졌고 그만큼 진주 사람들의 논개 포상에 대한 염원은 커졌다. 진주성이 함락된 지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대부분의 의병장과 지도자들은 모두 충렬로 포상되고 사당에 모셔져 제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논개와 저 수많은 민중의 원혼은 아직도 살아 남은 자들의 가슴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1738년<sup>영조14</sup> 경상우병사에 부임한 남덕하<sup>南德夏</sup>는 다시 논개 포





1740년 조정의 명령으로 내려진 '의기논개지문'

상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남덕하는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청주 영장營將으로 전사한 충장공 남정년南延年의 둘째아들이며 그 자신도 토복장討伏將: 아버지의 원수를 쳐서 항복받은 장군으로 이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분무원종일등奮武原從一等으로 녹훈된 바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진주 사람들은 남덕하에게 다시 논개 포상 문제를 건의했다. 특히 영조와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일을 추진시켰다.

남덕하는 앞서 최진한이 했던 것처럼 논개에 대해 건사사액建祠賜額 해주도록 계청해달라는 진주 사람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740년에 21명의 신하에 대한 증직과 논개의 정포旌褒를 계청하여 윤희를 받게 되었다. 이때의 윤희는 곧 건사사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축석루 경내에 '의기사'義妓祠가 건



振尹東度為副修撰鄭宗為輔德韓光榮為文學李顯重為說書柳儼為判尹  
 李尚輔為禮曹參判李昌瑄為刑曹參判○上引見時原任大臣上讀象義  
 篇謂諸臣曰考子念親之心人孰無之而未有若此詩之成發者也昔在  
 廟朝亦有陟降功勞之教矣量子筋力月異時不同今番大祭必欲親行  
 者此也左議政金若魯等曰聖教慈惻臣等何敢不奉承而聖使方在靜  
 攝中熾氣又日熾微夜侍事如或受傷特奈何雖竭力請終不許若魯曰訓  
 大特金聖應出入不着天翼極非矣上曰申汝昔常着天翼矣仍教曰近  
 來武臣處身若文臣為令痛弊若此而何以得力於他日乎此後武弁着直領  
 者嚴飭犯者兵判及大將隨現棍治○右議政鄭朋良曰國家財力花消於  
 工監者甚多而戶部有難裁其真偽提調一案以戶判例無則似無如前消耗  
 之弊矣上從之○設瘡祭於八道時瘡疫大熾死亡十餘萬人命遣重臣  
 設祭而又命近臣過祭八道○戊辰上引見大臣備堂○參贊李箕鍊上  
 書略曰我聖上遇災警懼講廟之駕將負運寢卽下代理萬機修省之  
 方宜無所不至而古人應天之道不過一實字徒有修省之言而無實政以行  
 之豈不為欺人欺天之師卽下講經傳則無事口耳體驗身心待臣隣則無  
 修遠幅誠心論確則事無不實大許曰災而為祥矣答曰所陳是矣當體念  
 ○以李受元為司諫李昌儒為獻納李天親為左賓客申晚為同經筵趙雲遠  
 為副應教魚錫汝為修撰趙春會為副修撰申暉為無錫善金陽澤為燕文學  
 金文行為兼司書尹東度金善行為庶政書校理盧學積為慶尚左兵使令  
 贈慶尚兵使崔慶會進士張俊冠之陪州也倡義使金千鎰忠清兵使黃連  
 及慶會死之三忠中慶會樹立尤卓而千鎰進修禮賢殿賜慶會以其子孫  
 之踐教未及請領府事金在魯為之請上許之三世子引接大臣備堂  
 ○諫院以中前連不從又連曰各陳別物以承文宗下擇差事定式  
 而穆陵別檢李景祥技圍槐院溫檢是疏晏然行公物情其駭請法去袪奢  
 尚儉聖世美事一自禁紋殿之後袖水亦一表文章之上服而貴賤老少能  
 着無辨請令法司著為令中革服外士庶五十以上一切禁斷并從之○已  
 巳上御福仁亭召見文科人令講所作數句又召見武甲乙科人至田得而  
 上曰此乃皇朝兵部尚書曾孫也得爾父萬秋終不得為都摠都事矣仍  
 命萬秋子昌兩別軍職差下○此李台重為珍島郡守時台重為全羅監司而  
 久不膺命既回旋宵仍令即日辭朝倍道赴任而終不出仕故有是命也臣

『영조실록』 권기

진주성 함락 때 공이 큰 황진, 김천일, 최경회 3인 중 최경회에게만 시호가  
 내려지지 않은 것은 그의 자손이 잔미한 탓이라고 적었다

립되기에 이르렀고, 이때 '의기'義妓는 곧 사호祠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이란 사액賜額을 받아 정려旌闕: 충신·효자·열녀 등에 대해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기리던 일했다.

의기사가 세워진 것은 종래 강변에서 해마다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온 진주 사람들을 위로하는 길이기도 했다. 의기사가 조정의 명령으로 건립된 뒤에는 진주 사람들이 의기사에서 제례의식을 집전했고, 제수 물자는 우병영에서 책임지도록 했다.

논개 의거가 있는 지 실로 147년 만에 논개의 죽음이 공인된 것



이었다. 그리하여 한 세기 반에 가깝도록 끌어온 죽음의 진실에 대한 격론은 논개와 그의 의거를 기리는 진주 사람들에게 경의와 숭배를 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런지 10년 뒤인 영조 26년이던 1750년에 이르자 영부사 김재로가 경연에서 최경희의 포상에 대해 언급했다. 진주성 함락 157년이 지나도록 최경희에게만 제대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논공행상이 불공평함을 뜻하므로 당장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죽어서 말하는 논개

公曰士道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公也則豈敢隱然有虎豹在山之勢則曩爾小醜又  
何足道哉而彼公誰其環坐越視者抑何心歎公之仲  
凡陳正公為繼義兵將子弘先任弘載弘字或同事於







## 1. 왜곡된 죽음의 기록을 넘어서

논개의 의거 사실을 전승하면서 계속해온 오랜 포상 요구 끝에 뜻을 이룬 것이 논개의 집안 사람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듯이 의암 논개 전설도 신안 주씨 혹은 해주 최씨라는 한 가문의 선조 이야기를 근원으로 삼아 기록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후손들이 가문을 빛내기 위해 조상의 행적을 전설화시키는 일반적인 예와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논개는 곧 민중의 마음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논개의 생애와 죽음의 역사가 점점 체온을 회복하고 제 모습을 갖추어 마침내 우리 겨레의 숨결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논개가 민중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중들의 역사 속에 화석처럼 숨어 있던 논개의 전설들이 하나씩 눈을 뜨면서 논개의 생애가 더 이상 신비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속으로 난 좁고 가파른 길에서의 한 여성의 절규였고 깨달음이 있는 기다림의 나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립문자<sup>不立文字</sup>인 민중의 마음과는 달리 문자로서 존재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하는 식자들은 오직 논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어우야담』을 불변하는 근거로 못박았다. 그리하여 정약용<sup>丁若鏞</sup>도 그의 「진주의기사기」<sup>晉州義妓祠記</sup>에서 논개를 다만 논개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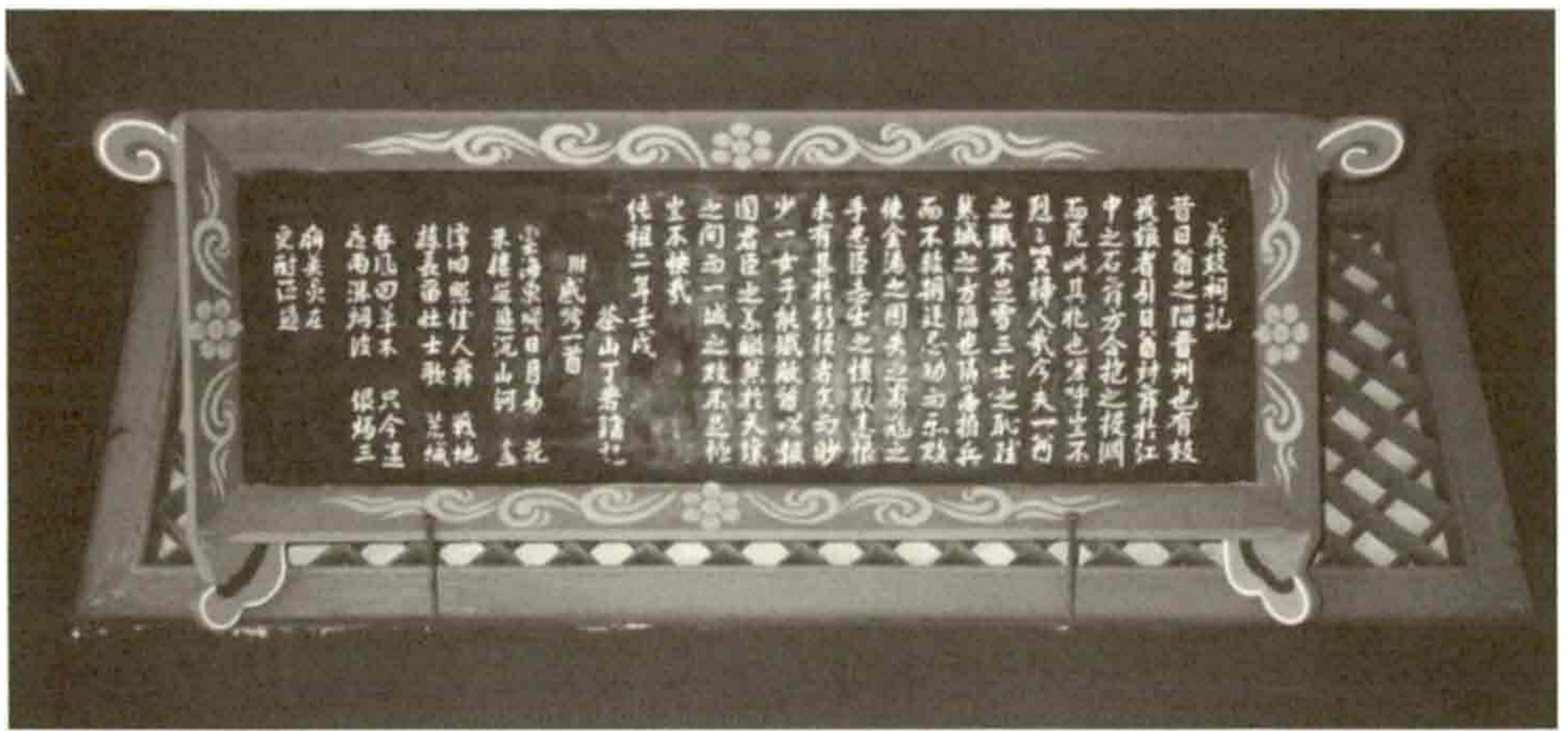


만 말하지 못하고, 조선 여인들의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경우를 든 후, 창기<sup>娼妓</sup>의 허랑됨에 이어 논개가 기생 신분이었음을 지적한 다음 논개의 죽음에 대한 찬사를 덧붙였다. 즉 ‘의랑’<sup>義娘</sup>이라거나 ‘열렬한 현부인’이라는 존칭을 썼지만,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는 옛 문헌의 모순을 그대로 따랐다.

1740년에 건립된 의기사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779년<sup>정조 3</sup> 경상우병사 홍화보<sup>洪和輔</sup>가 처음으로 보수했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이다. 정약용은 1779년 말 그의 아버지 정재원<sup>丁載遠</sup>이 근무하던 화순에 있다가 1780년 2월 정재원이 예천 군수로 자리를 옮기자, 아내와 함께 진주의 장인에게 들렀다. 이때 정약용의 나이 19세였다. 장인 홍화보는 총명한 사위 정약용에게 홍화보 자신이 고쳐 지은 의기사의 내력과 논개 의거를 기리는 글 한 편을 짓도록 권했다. 정약용은 선뜻 붓을 들었다.

부인들의 천성은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sup>節</sup>이니 열<sup>烈</sup>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 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하고 지조 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랑<sup>虛浪</sup>: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많고 착실하지 못함하여 그 마음속으로는 남자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의 도리도 모를 진대, 하물며 군신간의 의리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의기사에 걸려 있는 다산 정약용이 쓴 「의기사기」

이 때문에 옛날부터 전장에서 미녀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없었지만, 일찍이 사절<sup>死節</sup>한 여인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sup>義娘</sup>은 왜추<sup>倭酋</sup>를 유인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 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sup>祠宇</sup>: 사당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sup>三士</sup>: 최경회, 황진, 김천일을 일컫는 말의 치욕을 씻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전공을 시기하고 패배를 달갑게 여겨 금탕<sup>金湯</sup>:金城湯池의 준말로 방어 시설이 아주 튼튼한 성을 뜻함의 견고함을 궁구<sup>窮寇</sup>: 궁한 오랑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임한 왜군은 제1차 전투 때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코 끝장을 보리라는 각오를 했는데, 이 같은 왜군의 복수심에 불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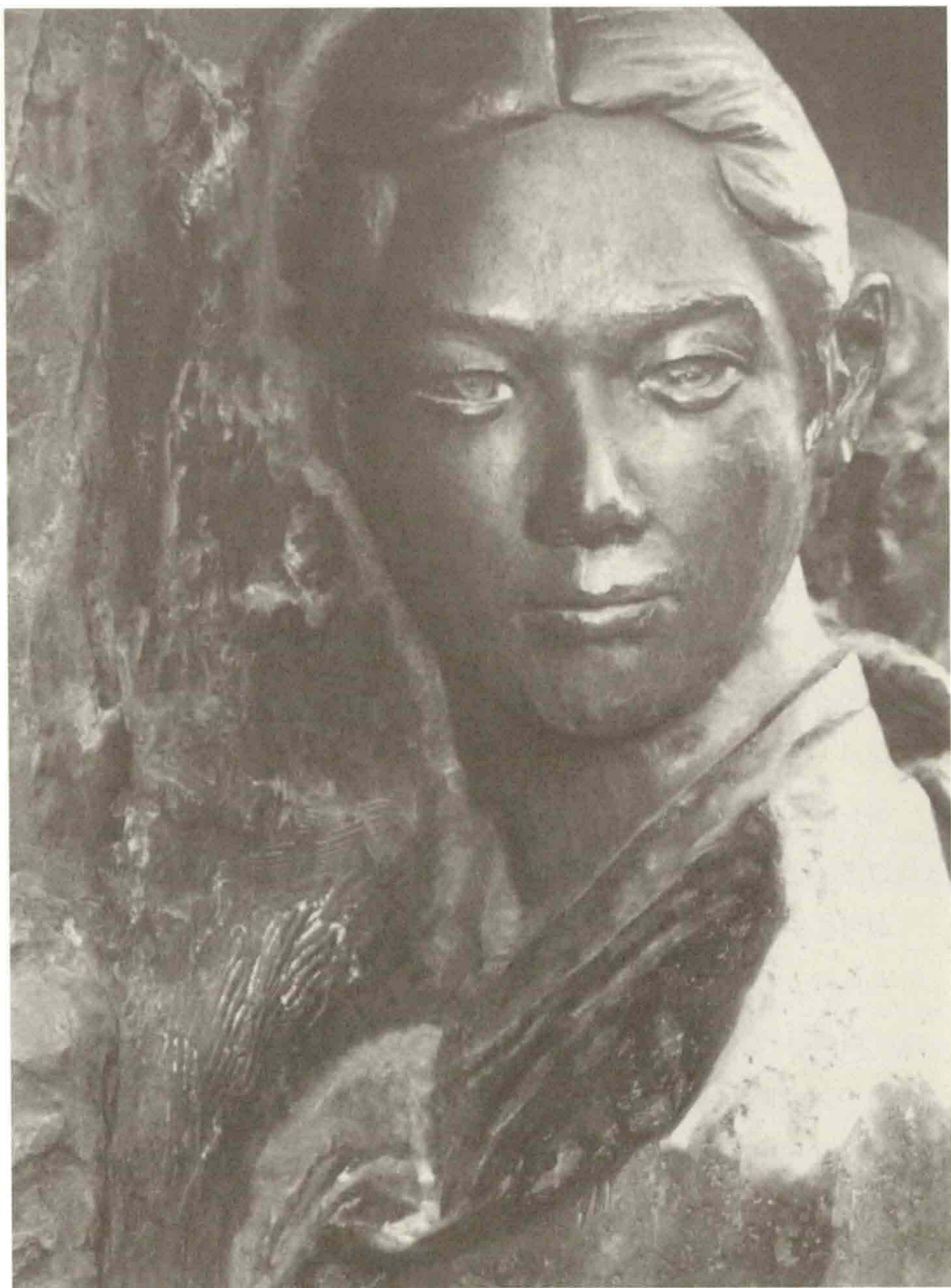


심정을 뜻함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충신 지사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sup>賊酋</sup>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싸움이 오래된 데다 수리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지라, 지금 절도사 홍공<sup>洪公</sup>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 시<sup>詩</sup> 28언을 지어 축석루 위에 써 붙인다.

이렇듯 『어유야담』이란 옛 기록의 잘못을 증명하여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여러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논개의 직계 가족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직계 가족이 없었음은 곧 선조 연간의 신안 주씨 족보에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과 숙부 주달무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논개의 존재와 신분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족보는 완전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족보는 임진왜란 이후에 사족에 의한 향촌질서의 재편성을 위해 사족 중심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때 신안 주씨 문중에서도 처음이든 아니면 보완해서든 족보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유몽인의 『어유야담』에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고 하는 무섭고도 만고에 부끄러울 그 기록을 모를 리 없었을 터이며, 알고서는 논개 관련 기록을 등재했을 리 만무하다.





진주성 순의단 벽면에 새겨진 논개의 청동 부조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논개가 죽음으로써 주달문의 가계는 자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족보에 보완 등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의 『신안주씨세보』新安朱氏世譜는 조선조 중종 연간에서 선조 연간에는 간행되지 않았다. 『신안주씨세보』가 처음 간행된 것은 1902년이다. 이때는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이 죽은 지 이미 300년이 지난 뒤이고, 주달문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신안주씨세보』 편찬 때 논개의 가계를 정리해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논개의 가계는 논개의 순국과 함께 문을 닫고 만 것이다. 여기서 논개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이 비롯된다. 비록 신안 주씨 가문의 일원이었던 주달문과 주논개의 가계는 문을 닫았을지라도 ‘논개’는 그렇지 않다. ‘주논개’가 아닌 ‘논개’의 후손이자 적자는 곧 조선의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기생 신분으로 위장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대부 여성들이 절대 다수였을 그 당시 스스로 기생 신분으로 위장하여 적장 살해라는 실질적 대의명분을 실천한 논개의 행위는 합목적적인 ‘근대인’의 표상이 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씨를 가졌는가 아닌가가 생명을 좌우하던 시절에 이미 ‘주논개’가 아닌 ‘논개’였다면 이제 와서 ‘논개’를 ‘주논개’로 복원시키려는 노력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 논개는 ‘주논개’가 아닌 ‘논개’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삶을 산 여성이었고, 우리가 숭고한 사랑의 여신으로 추앙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러 기록은 논개의 죽음에 관해 매우 작위적이며 모욕적인 허구를 덧붙여놓았다. 마치 자신만이 논개가 진주 관기였음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가이거나 한 것처럼 말이다. 이리하여 논개의 죽음을 묘사한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국가 공문서는 논개가 왜장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사적 기록들은 작성 연대가 논개의 사망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허구와 개인의 상상력에 의한 거짓 수식이 늘어났다.

첫 기록인 『어우야담』은 이렇게 적고 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축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피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몸단장을 곱게 한 논개가 바위 위에 서 있다가 다가온 왜놈을 미소를 띠면서 바위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매우 담백한 기술이다. 『어우야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오두인이 쓴 「의암기」도 비슷한 내용이다.

논개만은 왜적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여겨 순국키로 맹세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 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키면서도 위태로운 지세를 겁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물으로 논개를 띄어내려 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나 『어우야담』과 「의암기」 이후의 기록들은 차츰 엉뚱한 발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윤상보 등의 글은 그런 면에서 엉터리 수식의 최초 문장이다.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수신<sup>首臣</sup>, 수령 및 제장<sup>諸將</sup> 등 혈전을 치르던 수삼십 원<sup>員</sup>이 모두 항절사의<sup>抗節死義</sup>한 뒤 오직 한 기생 논개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축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고<sup>고덕체</sup> 강조는 필자. 이하 같음.

이 글은 논개를 기생치고도 수준급 기생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의암사적비에 적힌 정식<sup>鄭拭</sup>의 글은 윤상보



등의 글과는 달리 자못 진지하다.

논개는 치장 성복<sup>盛服</sup>하고 촉석루 아래 큰 바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되는 강심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왜군의 무리는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한 왜인이 바로 들어갔다. 논개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왜장이 달려어 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앞으로 걸어나가 왜장을 끌어안고 몸을 날려 강심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

논개의 죽음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한 해 전인 1739년에 박태무가 지은 『의기전』에서는 논개를 다시 본격적인 기생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여 이르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하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며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는 의암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었다. 춤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그런 왜곡의 일반적인 추세 가운데서 권적<sup>權摘</sup>이 1748년에 지어



조정에 제출했던 ‘경상우병사 증좌찬성<sup>贈左贊成</sup> 최공 시장<sup>謚狀</sup>’은 그때까지의 모든 기록과는 사뭇 다르게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 좌참찬이었던 권적의 글에는, “또 공의 부실<sup>副室</sup>이 공이 죽던 날 좋은 옷을 입고 강 속 바위에서 노닐다가 적장을 유인해 끌어안고 죽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의암이라 부르고 있으니 역시 열렬하도다”라고 되어 있다.

왜곡은 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공적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논개의 출신지를 맨 처음 밝힌 『호남절의록』마저도 죽음에 관한 왜곡의 흔적을 남겼다. 『호남절의록』은 논개의 출신지 외에 최경희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같은 기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52년 앞서 나타난 권적의 시장<sup>謚狀</sup>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호남절의록』은 진주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기록들의 영향을 받아 ‘적장 두 명을 유인’했다거나 ‘춤을 추다가’ 등의 허위사실을 옮겨 적고 있다.

논개는 장수<sup>長水</sup> 사람으로 공<sup>公</sup>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 성으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며 적장 두 명을 유인, 마주 대한 채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 나서 자신도 죽었다.

그런가 하면 1839년에 간행된 『호남삼강록』은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성이 함락된 뒤 왜장은 논개와 더불어 축석루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뜻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 취하자 끌어안고 누<sup>樓</sup> 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

논개가 죽은 지 246년 후에 씌어진 『호남삼강록』은 논개가 '의암'이 아닌 축석루에서 본격적인 연회에 참석하여 왜장의 술시중을 듣다가 취한 왜장과 함께 축석루 아래로 떨어져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축석루의 위치와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필자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낸 흔적이 역력하다. 즉 축석루에서는 곧바로 남강에 떨어지지 않고 다만 축석루 기둥이 선 맨바닥에 떨어질 뿐이며, 웬만해서는 죽기가 어려운 높이다. 더구나 왜장을 껴안은 논개가 축석루 위에서 남강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의거 현장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명백한 증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은 차츰 그 정도를 더해갔다. 1850년 무렵의 『청구야담』<sup>靑邱野談</sup>에 오면 아예 몸 파는 창기로 그리고 있다.

이때 논개는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왜장 가운데 가장 걸출하게 생긴 자를 찾아 만나고 거짓으로 교태를 부리니 왜장이 기뻐했다. 그가 그녀를 겁탈코자 했으나 그녀는 허락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왜장을 유인하여 강가의 바위 위로 걸어나오게 했다. 그곳에서 함께 춤을 추었는데……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강물로 떨어져 들어갔다.



이처럼 『청구야담』에 이르면 논개가 일본말까지 할 줄 알게 만들어 지금까지의 기록들과는 전혀 다른 본격적인 기생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청구야담』은 단순히 허구적인 기록으로 재미를 주자는 의도 외에 논개를 일본의 몸 파는 여자처럼 만들었다. 또한 뒷날 일본인들이 논개를 일본 여성이라고 주장하게 만든 근거 자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록이다.

논개와 함께 이 바위 위에 올라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술이 반쯤 취하자 논개가 왜장에게 춤을 추자고 청하니 왜장은 기꺼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논개가 왜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이것은 조선 말기의 『금옥총부』金玉叢部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엉뚱하게도 논개가 의암 위에서 왜장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이 반쯤 취해 왜장과 춤을 추었다는 전혀 다른 기록을 하고 있다.

다시 1954년 설창수의 「의랑논개비」에서는 논개 혼자 의암 위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어떤 기록과도 또 다른 장면을 그리고 있다.

다락 밑 강언덕에 외딴 넓적바위 위에서는 한 사람의 꽃다운 여인 홀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만취한 적장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달려 내려가더니 여인과 더불어 열싸안고 환장처럼 즐기는 것이었다. 마침내 여인은 적장을 껴안고 떨어지고 만



다. 그의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 빠듯이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  
이분이 곧 의기 논개다.

앞에서 인용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공통된 모순을 갖고 있다. 논  
개를 몸 파는 창기로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개가 비록  
왜장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지만, 죽음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  
게 한다. 하지만 논개가 이 같은 치명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외세 조국수호전쟁의 신성한 목적에 헌신한 것은 근대적이고 혁  
명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논개는 신안 주씨 가문 소속이  
아닌 조선의 논개다. 그런 논개가 오래도록 기생으로 남아 있게 된  
이유는 조선조의 남성중심적 도덕률에 얽매어 있던 조선 사대부  
남자들의 공모의 결과다.

시대의 이념과 제도의 벽을 뛰어넘은 논개의 삶과 죽음을 평가  
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의 능력 또한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 같은  
남성우월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논개는 다행히  
도 교과서 속에 매몰된 죽은 영웅으로 기록되는 참상을 면할 수 있  
었다. 즉 논개가 체제 선전용 영웅으로 이용되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논개가 천한 신분으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실을 사실대로 다시 기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  
성한 임무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는 스승으로서 우리 곁에 살  
아 있다. 논개의 길은 시대의 이념과 제도의 덫을 뛰어넘은 곳으로  
나 있다.



## 2. 다시 만나는 논개: 정현석에서 성계옥까지

1740년<sup>영조 16</sup>에 조정의 윤희로 의기사가 세워지고, 진주성 함락 일에 그 사당 안에서 진주 사람들은 논개의 제사를 새롭게 올리게 되었다. 우병영에서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수 물자를 보조했다. 이로써 논개는 왕비나 그에 준하는 여성이 아닌 평범한 조선 여성 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선 최초로 국가와 민중의 이름으로 분향하고 절을 올려 생애와 죽음의 의미를 기리는 여성이 되었다.

그렇게 세워진 의기사는 40년이 지난 1779년<sup>정조 3</sup>에 경상우병사 홍화보가 처음으로 보수했다. 그로부터 다시 40여 년이 지나자 의기사는 차츰 퇴락해갔다.

1823년<sup>순조 23</sup> 진주 목사 홍백순<sup>洪百淳</sup>, 경상 감사 이지연<sup>李止淵</sup>이 의기사 중건의 뜻을 모아 다음해인 1824년에 의기사를 중건했다.

홍백순은 의기사를 중건하여 시들해가던 논개의 제사에 다시 향을 사르고 논개 의거 정신을 밝혀 진주 사람들의 의를 숭상하는 기개를 칭송했다. 그러자 진주 사람들은 홍백순에게 ‘애민선정비’<sup>愛民善政碑</sup>를 세워주면서 고마워했다. 그만큼 논개와 그의 제사는 진주 사람들 삶의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자존심이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랑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긍지였다. 또한 논개의 제례가 지닌 특이한 민중적 열정이야말로 논개 순국 후 147년 동안 논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를 물려 조정과 진주 목사, 경상우병사 등을 상대로 집요하게 청원해온 진주 사람들의 정의를 향한 집념과 열정이 승화된 것이라 할 만하다.

이때부터 종래 진주 사람들이 해마다 모셔왔던 6월 29일제를 폐





창렬사.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장수들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지하고, 충민사<sup>忠愍祠</sup>와 창렬사<sup>彰烈祠</sup>처럼 춘추 상제를 시행하도록 바꾸었다. 제관도 일반 민중이 아닌 진주 목사, 경상우병사 등이 참여하는 제사로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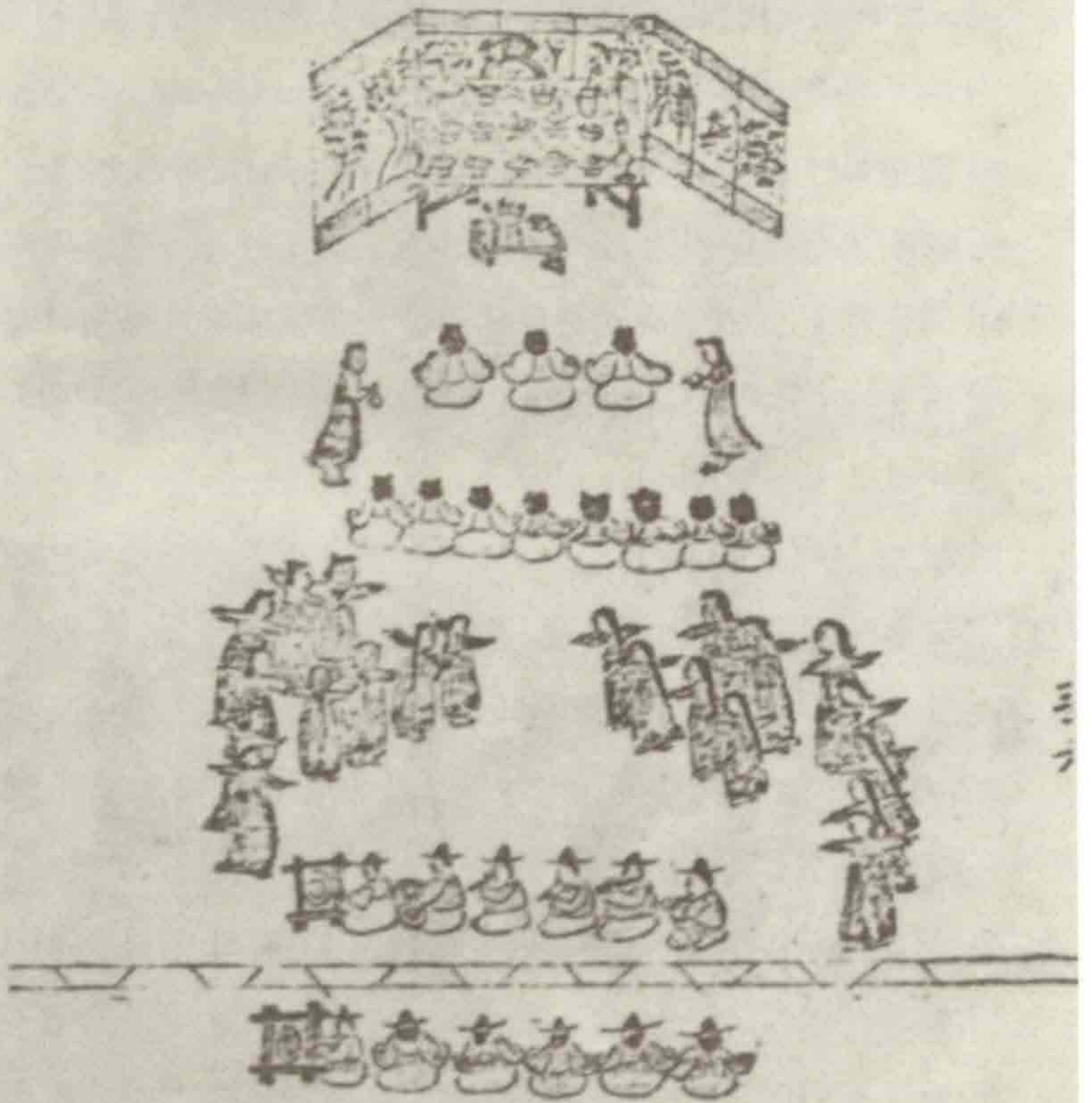
그러다가 진주 목사 정현석<sup>鄭顯奭</sup>이 1868년<sup>고종 5</sup> 다시 경상우병사와 의논하여 의기사를 중건했다. 이때 정현석의 의기사 중건은 그보다 앞서 여러 차례 있어온 중건과는 사뭇 다른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후 논개와 논개를 위한 제례의식 자체의 근본적인 대개혁과 민족예술로의 승화를 향한 일대 진보를 가져왔다. 정현석은 1867년에 진주 목사에 부임하여 1870년에 전임되었다. 그는 문장과 명필로 이름이 나 있었으나 그보다는 국악에 관한 전문가로 더 유명했다. 소리를 아는 드문 선비였던 만큼 국악이론가였다. 그가 진주 목사에 부임했을 때 진주는 여러 해 동안 무거운 침묵과 생동감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1862년<sup>철종 13</sup>에 일어난 이른바 임술민란이 조선 전역으로 확산된 민란의 효시가 된 것만큼 임술년 진주농민항쟁<sup>임술민란</sup>의 영향은 진주 사람들에게 크고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임술농민항쟁의 결과 10여 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수백 명이 중형으로 벌을 받았다. 곧이어 동학 교주 최제우의 체포로 동학도에 대한 대탄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진주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진주농민항쟁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은 곧 동학의 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실제로 진주지방에는 동학교인이 많이 생겨나 처벌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철종의 죽음과 고종의 등극, 경상도의 물난리, 천주교 박해, 괴질의 창



樓石臺



정현석이 지은 『교방가요』 가운데 「의암별제도」



궤로 인한 폐죽음, 이외에도 일반 백성에게 명주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고, 함경도 백성들이 관리들의 착취와 무거운 세금에 못 견디 두만강을 건너 외국으로 탈출하는 등 조선 전역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이 같은 전국적 상황은 진주와 진주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임술년 진주농민항쟁 이후 진주 사람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고, 계속되는 시국의 불안과 물난리, 괴질의 창궐은 진주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때 정현석이 진주 목사로 왔다. 그는 진주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경상우병사와 깊이 의논했다. 그는 진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는 진주 사람들의 역사에서 논개와 관련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솔하고 집요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논개 순국 후 147년 동안 헌신해온 진주 사람들의 인간적 열정과 의를 숭상하는 전통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정현석은 기존의 의기사 춘추 상제와는 별도로 매년 6월 중 좋은 날을 택해 제례의식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의암별제'義巖別祭다. 지금까지의 춘추 상제는 이렇다 할 특징도 의의도 따로 음미해볼 수 없었다. 그저 해마다 그날이 되면 나라에서 주는 제물을 차려놓고 벼슬아치 몇몇이 참가하는 잠깐 동안의 의식으로 끝마치는 지극히 단순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다.

정현석은 논개의 생애와 죽음이 지닌 독특한 향취와 의미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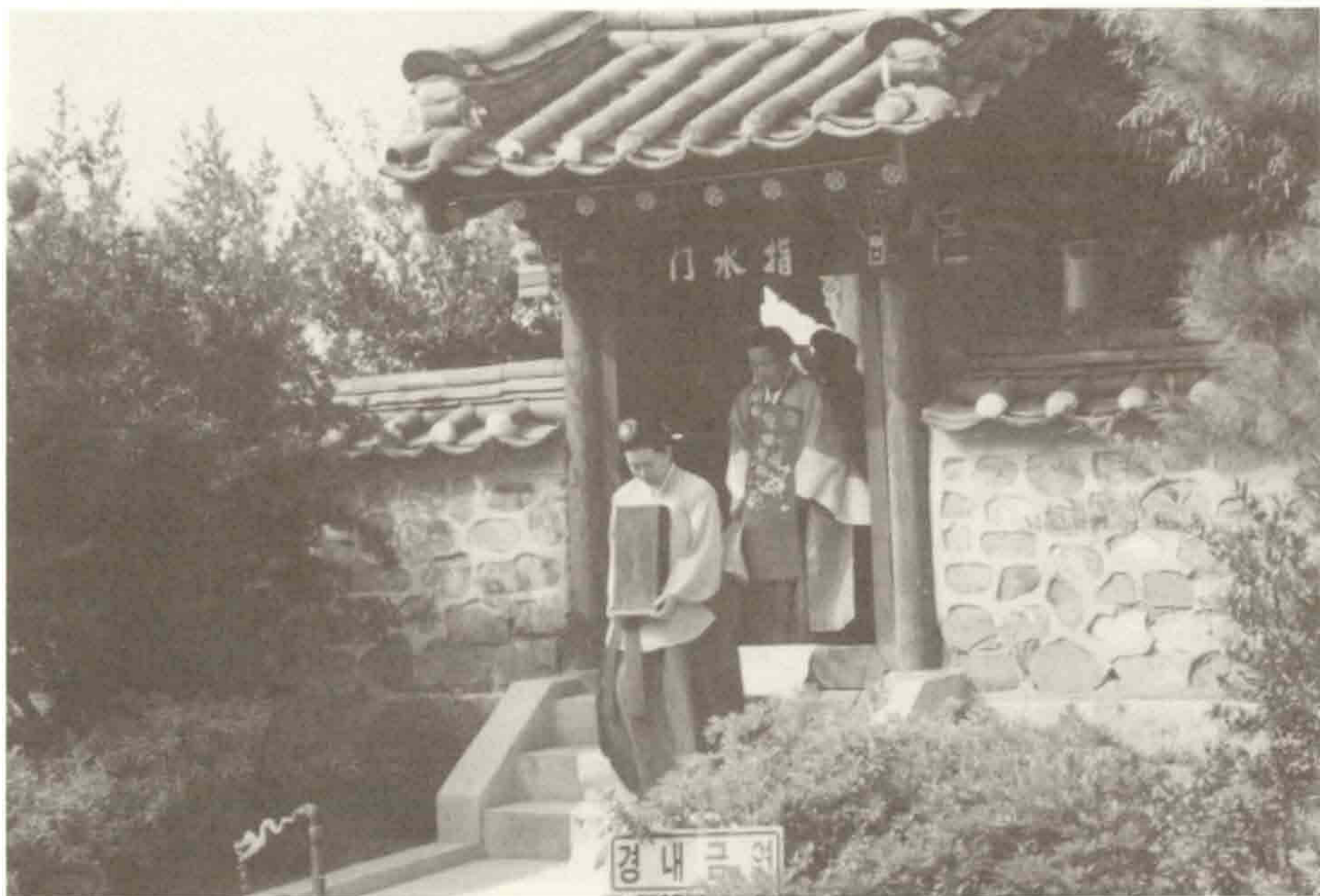
의암별제 제관들이 도열해 있는 광경

요하게 여겼다. 또한 논개의 그 같은 역사성은 논개 혼자서 완성시킨 것이 아니었다. 1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바쳐온 진주 사람들의 정성과 기원이 어우러져서 함께 성취해낸 역사성이자 민족으로서의 마음이었다.

논개에 대한 제례의식은 단순히 논개 한 사람만의 죽음에 한정되는 추모와 찬양이 아니라, 그 죽음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의 삶과 영혼과 역사 그리고 진주성에서 희생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영령에게 바쳐지는 제례의식으로 형상화된 민족예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현석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제사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의 넓과 멋을 모





의암별제 봉행을 위해 의기사에서 위패를 모셔 나오는 모습

두 담고 있는 악<sup>樂</sup>, 가<sup>歌</sup>, 무<sup>舞</sup>를 바탕으로 해서 3일 밤낮 계속되는 장엄하고 화려한 대제전으로서의 민족예술로 담아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별제'別祭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악, 가, 무의 형식 또한 전통적 전범과 원칙을 준수하되 새로운 세계로의 창조적 승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위성과 개방성을 시도했다. 민중의 삶이 변하고, 그 변화가 진보적이고 창조적일 때 민중의 삶의 양식을 담아내는 예술 또한 열린 정신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별제'는 담고 있다. 형식의 틀에 철저히 얽매이고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적 내용들로는 논개 의거가 갖는 자유정신과 근대성, 혁명성을 담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현석은 분명하



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같은 논개이기 때문에 진주 사람들은 그 길고 험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약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논개의 진실을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했던 것이다. 그런 진주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활기를 주기 위해서는 논개의 제례의식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868년에 진주 목사 정현석이 만든 ‘의암별제’는 단순히 논개의 영령을 추모하는 제례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개와 더불어 의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모든 진주 사람의 삶의 숨결이 배어 있는 진주만의 독특한 민족예술이다. 이 민족예술로서의 의암별제를 통해 제례의식에 참여하는 300명의 기녀들과 진주에서 동서남북 각 100여 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흘 밤낮 남강 이쪽저쪽에 모여서 노래와 춤으로 논개의 넋을 달랬다. 참으로 독특한 예술형식이다.

제례는 장엄하게 진행된다. 초헌관<sup>初獻官</sup>: 나라 제향 때 처음 잔을 올리는 일을 맡던 임시 벼슬, 아헌관<sup>亞獻官</sup>: 두번째로 잔을 올리는 일을 맡던 임시 벼슬, 종헌관<sup>終獻官</sup>: 마지막으로 잔을 올리는 일을 맡던 임시 벼슬은 신망이 두터운 노기<sup>老妓</sup> 중에서 뽑는다. 당상집례<sup>堂上執禮</sup>, 당하집례<sup>堂下執禮</sup>는 글을 아는 여기<sup>女妓</sup>를 선임한다. 그 밖에 대축<sup>大祝</sup>, 전사관<sup>典祀官</sup>, 동서찬자<sup>東西贊者</sup>, 알자<sup>謁者</sup>, 사준<sup>司尊</sup>, 봉작<sup>奉爵</sup>, 준작<sup>尊爵</sup>, 봉향<sup>奉香</sup>, 봉로<sup>奉鑪</sup>, 가자<sup>歌者</sup> 8명, 무자<sup>舞者</sup> 12명, 당상악공 5명, 당하악공 6명이 제례를 집행한다. 가히 군왕의 제례의식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내용이다.

이 같은 ‘의암별제’를 위해 정현석은 『교방가요』<sup>教坊歌謠</sup>라는 책을 짓고, 그 책 속에 ‘의암별제가무’와 ‘여흥가무’에 대해 다음과



義巖別祭歌舞

長水妓魯隱介克節度使小序在晉州兵營當壬癸城陷六萬並坑  
妓迴粧成飾獨坐於真石樓下江中巖上佳將寂黯者趨入巖上妓  
笑迎而戲抱倭酋之腰落於江中自是倭寇兵而去後因朝令建義  
妓祠春秋行祭余莅晉之翌年與兵使議重建其祠設義巖別祭  
六月中擇日行事余官并選妓差出肄習餘次母敢失儀歲以為  
常祭之翌夜夢有二女扶一婦入未立於前問誰也答云魯隱介  
因忽不見亦異事也南江漂女每歲潮浸自是年無此患邑人以為  
別祭之效也魯隱介俗稱論介

六月初吉擇日光期五日出祭官差帖使之三日致祭

初獻官亞獻官終獻官老妓有堂上執禮堂下執禮稍耐文理大祝典祀

'의암별제가무' 내용을 기술한 정현석의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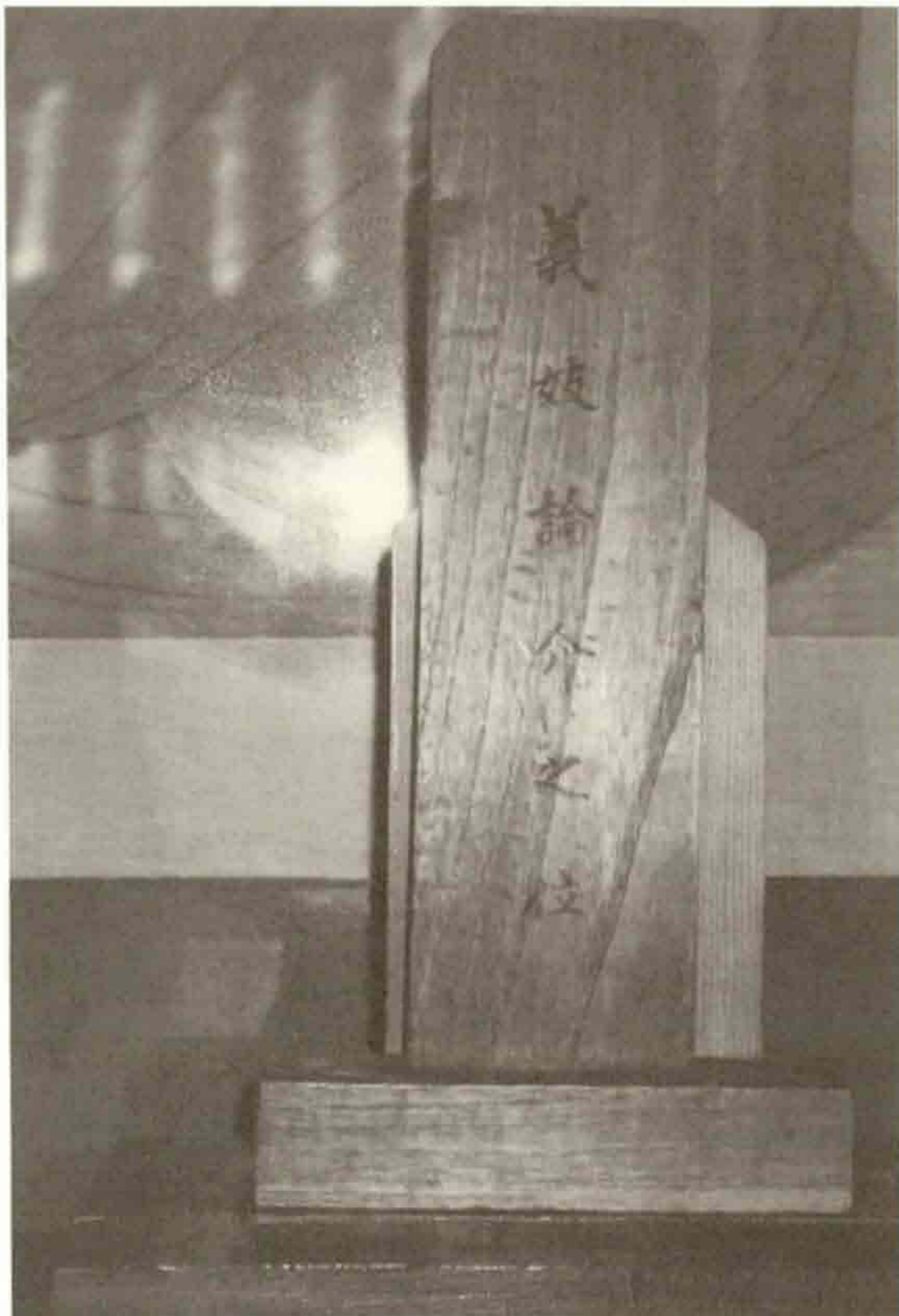
같이 정리해서 남기고 있다.

1) 의암별제가무 義巖別祭歌舞

① 의암별제를 모시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필요한 제관의 수와 역할.

6월 중에 좋은 날을 가려서 미리 5일 전에 제관을 뽑아 차첩差帖 조선시대 하급 관원에게 내리던 임명장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의기사 안에 모셔진 논개 지위

재계(齋戒): 제를 지낼 사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언행을 삼가며 부정을 멀리하는 일케 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은 노기(老妓) 중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뽑는다.

당상집례, 당하집례를 뽑는데 약간 문리(文理)를 통한 사람이라야  
 홀기(笏記):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을 읽을 수 있다.

대축(大祝), 전사관, 찬자동·서창 두 사람, 알자, 사준, 봉작, 준작, 봉



향, 봉로, 노래하는 사람가자 8명, 춤추는 사람무자 12명, 당상악공 6명, 당하악공 6명.

② 제물의 종류, 제단을 차리는 격식, 제사를 시작하는 순서.

제물로 떡, 국수, 밥, 국, 술, 적, 탕, 간, 수박, 포, 식혜를 준비하고, 채화<sup>綵花</sup>: 제사가 유월 그믐 무렵에 있게 되므로 그때는 늘 아름다운 꽃이 드물다. 그리하여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색색의 꽃을 만들어 올린다를 각 그릇 사이에 꽃아, 초와 향을 갖추어 축석루 위에 차려놓는다. 알자는 여러 집사와 헌관을 인도하고 헌관에게 재배하도록 하며, 헌관들이 절한 다음 행례<sup>行禮</sup>에 들어간다. 악공은 절하고 악을 연주한다. 이때 당상악과 당하악이 한꺼번에 연주된다.

③ 의기사에 봉안되어 있던 위패가 축석루에 설치된 제단으로 옮겨 모셔지면서 제례가 시작된다. 대개의 경우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에서 제례가 올려지는 데 반해, 별제는 위패를 옮겨 모신다.

영신곡<sup>迎神曲</sup>을 아뢰는 다음 악을 멈춘다. 초헌관이 세 번 향을 향로에 집어 얹는다. 당상악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사람은 상향악장을 계면조로 부른다.

(상향악장)

무진년<sup>戊辰年</sup>, 해에 따라 달리 부름 유월일<sup>六月日</sup>에

단을 모아 분향<sup>焚香</sup>하여

300명 여기<sup>女妓</sup>들이

정성으로 치제<sup>致祭</sup>하니

논낭자<sup>論娘子</sup> 충혼의백<sup>忠魂義魄</sup>이 내리실까 하노라



④ 대축<sup>大祝</sup>은 종묘제례와 왕가의 제례 때 축문을 읽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암별제의 축문을 읽는 것을 통해 의암별제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춤추는 사람은 '상향무' <sup>上香舞</sup>를 춘다. 노래부를 때는 당상악공이 반주하고 춤출 때는 당하악공이 함께 반주한다. 초헌례 <sup>初獻禮</sup>를 행한다.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이 낭독되는 동안 모든 제관은 물론 일반 참배객들도 일제히 엎드린다.

맏고 매운 영혼이여  
산천의 정기로다  
빙옥같이 맑은 자태  
상설같이 곧은 마음  
임진년의 난리 만나  
왜적에게 무너진 성  
육만의 군민들이  
한 구덩이에 묻힐 적에  
낭자의 충성심이  
죽음 앞에 겁낼쏜가  
백 척 높은 바위 끝에  
홀로 서서 맞은 웃음  
왜놈새끼 무찌를 제  
털끝같이 목숨 바쳐  
이 충렬 힘입어서



나라강상 다시 밝아  
천추에 매운 절개  
만고에 향기롭다  
돌에 새겨 높이 드러내  
사당 지어 제 지내니  
유월달 한여름에  
좋은 날 때를 가려  
삼백 미녀 분장하여  
제청에 치성할 제  
구슬픈 짓대 소리  
제수도 푸짐하다  
임이여 내리셔서  
맑은 술잔 드옵소서

⑤ 축문이 끝나면 북이 세 번 울린다. 초헌관이 올라간다.

헌관이 절하고 악이 이루어지면 노래하는 사람은 초헌악장을  
계면중창으로 노래한다.

(초헌악장)

촉석루 밝은 달이  
논낭자의 님이로다  
향국<sup>向國</sup>한 일편단심  
천만년에 비치오니



아마도 여중충의女中忠義는  
이뿐인가 하노라

⑥ 초헌관이 내려오고 아헌관이 올라간다.

악이 시작되면 춤추는 사람은 춤을 춘 다음 악을 멈추고 아헌례를 행한다. 헌관이 절하고 악이 시작되면 노래하는 사람은 아헌악장을 계면삼창으로 부른다.

(아헌악장)

맑고 맑은 남강수南江水야  
임진壬辰 일을 네 알리라  
충신과 의사義士들이  
몇몇이나 빠졌는고  
아마도 여중장부는  
논낭자論娘子인가 하노라

⑦ 아헌관이 내려오고 종헌관이 올라간다.

춤추는 사람이 춤춘 다음 악이 멈춘다. 다음은 종헌례를 행한다. 헌관이 절하고 악이 시작되면 노래하는 사람은 종헌악장을 우락조羽樂調로 부른다.

(종헌악장)

해동국海東國 삼천리에



허다한 바위로다

풍마우세風磨雨洗하면 어느 돌이 안 변하리

그중에 일편의암一片義巖은

만고불변하리라

⑧ 헌례가 끝나고 사신례辭神禮에 따른 이별곡이 불린다. 이때 음복례飮福禮가 진행되고 일반인들의 분향참배가 이어진다. 또한 축문, 폐백幣帛도 태운다. 의암별곡이 끝나면 제사가 일단 끝나고 위패는 다시 의기사로 모셔진다.

춤추는 사람이 춤을 춘 다음 악이 멈춘다. 다시 악이 시작되면 노래하는 사람이 「의암별곡」을 처사가조處士歌調로 부른다.

족석루에 올라앉아

고금사古今事를 생각하니

의암의 높은 절개

천추千秋에 기절奇節하다

아동방예의국我東方禮義國에

삼강오륜 분명하여

절의를 숭상하니

충신의사忠臣義士 허다하다

예로부터 진양성晉陽城이

번화가려繁華佳麗 제일이라

비봉산飛鳳山은 아미蛾眉 같고



청천강<sup>靑川江</sup>은 금대<sup>襟帶</sup>되어  
 산천의 맑은 기운  
 논낭자로 태어나서  
 빙옥<sup>氷玉</sup> 같은 자질이요  
 상설<sup>霜雪</sup> 같은 마음이라  
 천생<sup>天生</sup>에 고운 몸이  
 노류장화<sup>路柳牆花</sup> 같을쏜가  
 시운이 불행하여  
 임진년을 당하오니  
 늠름충절<sup>凜凜忠節</sup> 삼장사<sup>三壯士</sup>는  
 일배소지<sup>一盃笑指</sup> 남강수<sup>南江水</sup>라  
 불상<sup>不祥</sup>하다 육만인<sup>六萬人</sup>이  
 일일병명<sup>一日竝命</sup>하단 말가  
 이때에 논낭자가  
 충분<sup>忠憤</sup>이 격동하여  
 위국<sup>爲國</sup>하여 순국<sup>殉國</sup>할 일  
 일편심<sup>一片心</sup>에 결단하고  
 녹의홍상<sup>綠衣紅裳</sup> 갑주<sup>甲冑</sup>삼고  
 진수아미<sup>蠓首蛾眉</sup>: 아름다운 용모 검극<sup>劍戟</sup>삼아  
 장대<sup>將臺</sup> 같은 바위 위에  
 올라앉아 기다리니  
 금수 같은 적장<sup>敵將</sup>놈이  
 앞에 와서 범수<sup>犯手</sup>한다



옥수<sup>玉手</sup>로 부여잡고  
 만경청파<sup>萬頃淸波</sup> 떨어지니  
 천지가 암참<sup>黯慘</sup>하고  
 귀신이 우는도다  
 만고에 빛난 강상<sup>綱常</sup>  
 일여자<sup>一女子</sup>가 붙잡으니  
 그 충성 그 의기가  
 여중열사<sup>女中烈士</sup> 이 아닌가  
 남강 명월 밝은 빛이  
 화용옥모<sup>花容玉貌</sup> 다시 본 듯  
 반야<sup>半夜</sup>에 풍우<sup>風雨</sup> 소리  
 슬프고 처량하다  
 비 세워서 기록하고  
 사당 지어 제사하니  
 의암<sup>義巖</sup>의 높은 이름  
 천만년에 전하리라  
 성외성내<sup>城外城內</sup> 여기<sup>女妓</sup>들이  
 모두 모여 치성할 제  
 관현가무<sup>管絃歌舞</sup> 찬란하고  
 화과향촉<sup>花果香燭</sup> 장할씨고  
 태평성사<sup>太平盛事</sup> 이 아닌가  
 국태민안<sup>國泰民安</sup>하오리라



⑨ 위패가 제단을 떠난 뒤부터는 본격적인 여흥가무가 3일 동안 계속된다.

악이 연주되면 제관 이하 참제한 모든 기생도 함께 춤춘 다음 악이 멈추고 변두<sup>邊豆</sup>: 제사 때 쓰는 식기인 변과 두. 변은 과일이나 마른 육류를 담은 대그릇이며, 두는 김치나 젓갈을 담은 나무그릇을 거둔다. 헌관 이하 집사들이 일제히 절하고 물러나면 제사가 끝난 다음 음복례와 아울러 여흥가무가 어우러진다.

(여흥가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노래)

축석루 유월단에 제단 모아 분향할 제  
단장한 수백 미녀 모두 와서 치성하고  
찬란한 새 악부는 진양성에 가득하니  
의암의 높은 이름 천추에 전하리다

## 2) 여흥가무<sup>餘興歌舞</sup>

여흥가무가 시작되면 맨 먼저 진주 팔검무가 추어진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희생된 모든 영혼에게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수모와 치욕을 당하지 않겠노라는 맹세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아박무<sup>牙拍舞</sup>

아박은 상아나 고래뼈, 소뼈 같은 것으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남은 끈을 내려뜨린다. 장단에 따라 이것을 두 손으로 들고 치면서 춤을 춘다.



• 향발무 響鉢舞

향발은 무구 舞具로 마치 심벌즈 같은 모양인데 길이가 한치 한푼이며 오색 매듭 수실을 늘어뜨린 것, 이것을 양손에 매고 춤춘다.

• 황창무 黃昌舞, 진주 검무는 이 춤에서 비롯되었다

8세 소년 황창이 신라 왕을 위해 백제 거리에 가서 칼춤을 추었다. 백제 왕이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하니 춤추다가 마침내 백제 왕을 찔러 죽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황창은 관창 官昌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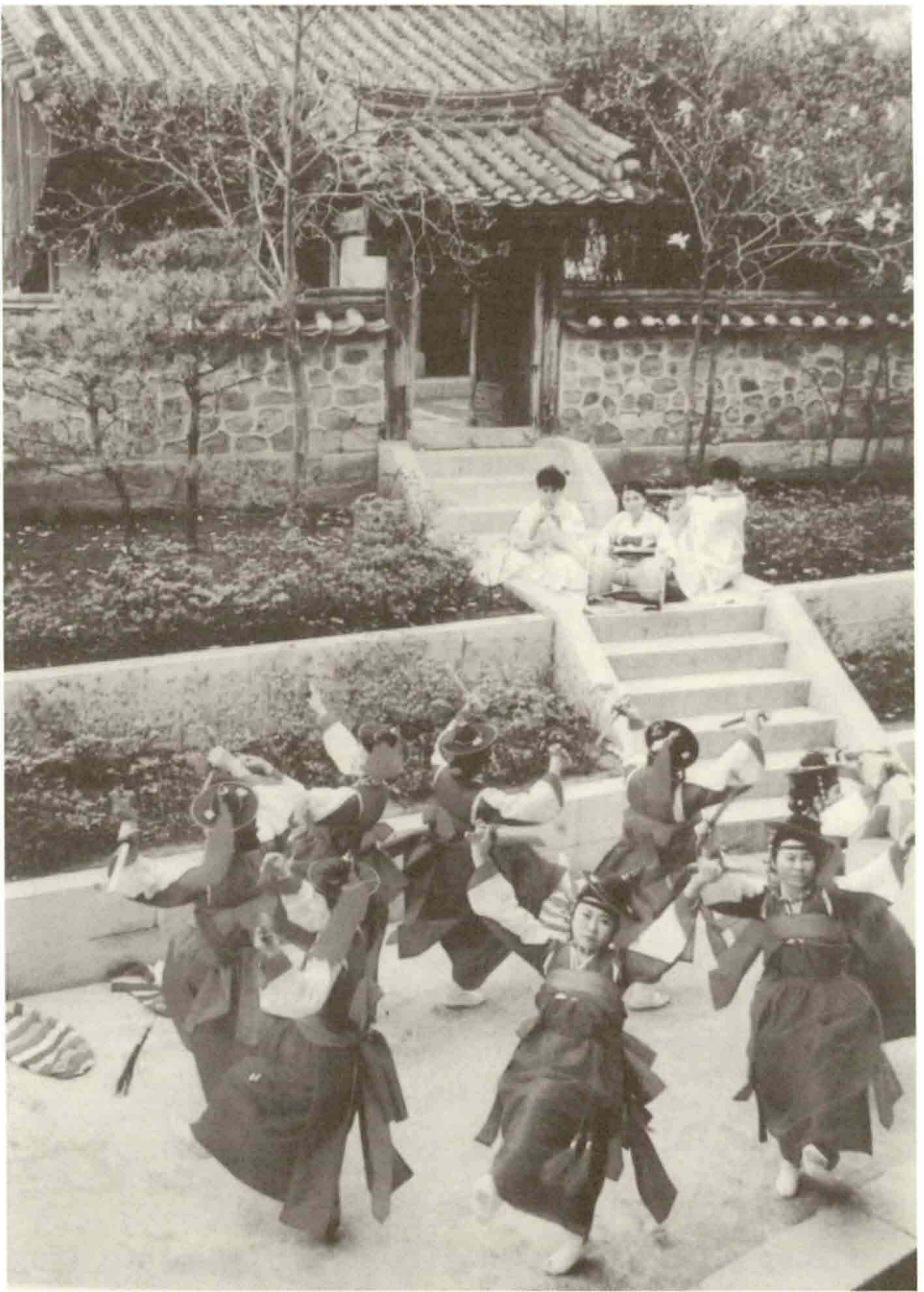
• 처용가무 處容歌舞

신라 헌강왕이 학성 鶴城: 지금의 울산에 유람할 때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덮여 캄캄해졌다. 일관 日官이 말하기를 이것은 동해 용신이 그렇게 한 것이라 하므로 곧 유사 有司에게 용신을 위해 절을 지으라고 명했더니 곧 구름이 개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로 인해 그곳을 개운포 開雲蒲라고 부르게 되었다. 용왕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의 어가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가무로써 찬미했다. 그리고 그 일곱 아들 중 한 아들이 헌강왕의 어가를 따라 도성에까지 들어왔다. 그 이름을 처용 處容이라 하고 바다를 향해 절을 지어 처용을 있게 했다.

• 승무 僧舞

젊은 기생이 절하고 춤을 춘다. 풍류랑 風流郎: 한량이 쾌자 快子: 벼슬아치가 입던 관복의 한 가지를 입고 기녀와 마주 보고 춤을 춘다. 한량이 기녀를 끼고 돌면서 해롱거리고 춤추는 동안 기녀와 아주 친해질 무렵 마루 모퉁이에 한 노승이 옆드려 있고 상좌가 춤을 추며 나오





진주 팔검무, 논개의 사당 앞에서 논개의 녀을 기리는 모습



다가 노승에게로 가서 기녀를 손가락질하며 가리킨다. 노승이 머리를 저으며 보지 않으며 상좌가 다시 노승의 귀에 대고 무어라 말하니 노승이 차츰 머리를 들고 쳐다본다. 상좌가 산석장<sup>山錫杖</sup>: 중 또는 도사가 짚는 지팡이를 끌어당기니 노승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벌렁 자빠지기만 한다.

상좌가 다시 끌어 일으켜 춤추게 하여 기녀에게 점점 접근하게 하고 기녀의 변두리를 한량과 같이 돌고 있는 사이에 상좌가 끼어들어 한량을 피니 한량이 고의로 피해 나간다. 노승이 기녀와 놀아나면서 한량이 있는 곳을 자주 살피니 한량이 가까이 들어오매 피해 가버린다. 한량이 꽃신발을 기녀 발에 신겨놓고 가버린다. 노승도 역시 꽃신발을 바꿔 신긴 후 나가버린다. 한량이 돌아와서 그 바뀐 신발을 보고 화를 내면서 기녀를 마구 때리니 기녀가 거짓 울음을 터뜨린다.

한량이 기녀의 허리를 안아 달래며 나가려는데 노승이 다시 와 기녀를 업고 달아난다. 한량이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두 다리를 뺏고 앉아 운다. 기녀가 노승을 버리고 돌아와 한량의 허리를 안고 울어대자 한량은 마구 때린다. 기녀가 울먹이며 그치지 아니하므로 한량이 달랜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여 계속 달랜다. 그러자 기녀가 다시 일어나서 한량과 춤을 추려는데 한량이 다시 소기<sup>小妓</sup> 한 사람을 안고 있으니 울며 나가자 한량도 따라 나가 버리고 노승은 상좌와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춘 다음 마친다.

이것은 한 마당놀이에 불과하나 그 본뜻을 구명하면 역시 권선징악도 포함되어 있다. 여자란 최초에는 정숙한 것 같으나 나중에



는 음란해지고, 선비는 처음에는 지조를 지키는 것 같지만 끝내 어긋나버리며, 중은 처음에는 계율을 지키는 척하다가 결국 치정에 미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즉 인간 장난에 휩쓸리게 되어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니라.

젊은 호협 풍류랑이 홍장이를 희롱하니  
봄바람에 흔들리는 노승의 마음이라.  
상좌는 스님에게 못된 장난 가르치어  
꽃 보고 미친 나비 이리저리 놀아나네.

• 창가

춘향가: 이도령을 위해 수절하는 내용이다.

심청가: 눈먼 부친을 위해 몸을 파는 내용이다.

포박타령홍부가: 형은 어질고 동생은 완악한 내용이다.

매화타령: 기생에게 흘려서 몸을 망치는 내용이다.

토토끼타령: 용왕을 속여 몸을 빠져나오는 내용이다.

화용도: 지혜로운 장군을 찬양하고 감사한 영웅을 징계하는 내용이다.

• 잡희모두 윤리나 정도가 없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사당사당패놀이: 남자가 노래하면 여자는 화답한다.

풍각풍각쟁이: 젓대나 피리를 불고 다니면서 걸식한다.

초랭이초라니: 가면에 금으로 만든 눈을 붙였다.

산대산대놀이: 선비와 중과 미인이 어울리는데 모두 탈을 쓴다.



괘독꼭두각시: 팽활을 설치해놓고 허수아비를 놀린다.

취승취중: 틀을 놀려 춤을 추게 한다. 술 취한 파계승이 각시를 데리고 노는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

### • 잡요

산타령: 놀랑패노래. 이것은 걸사들의 사당패 소리로 또한 사설이 음란하고 가사가 천하다.

저타령방아타령: 꽃방아타령이라고도 하는데 마부들이나 종들도 이 소리를 잘 알고 있다.

### • 단가

어젯날 옳던 것이 오늘 그림 깨달았네  
부귀영화 다 던지고 고향을 찾아드니  
산천은 예와 같고 송죽은 새로운데  
초가삼간 뜰 안에는 잡초만 우거졌네  
청풍에 흥이 겨워 한가히 누웠으니  
붉은 연꽃 못에 가득 벽도碧池도 향기롭다  
이른 아침 새는 날고 아이들은 밤을 줍고  
생선 파는 장사 소리 사립문에 개 짖는다  
아래윗마을 두서너 집 저문 연기 깔려드네  
봄이 오면 시냇가에 이웃끼리 모여 놀 때  
당사실 가는 그물 여울가에 던져놓고  
도롱이 작은 샓갓 낚시 메고 내려가니  
물결 따라 노는 고기 푸덕푸덕 뛰는구나  
크고 작고 쓸어 잡아 버들가지 꿰어 들어



싱싱한 연잎사귀에 가득 쌓인 실회細膾로다  
 두루미에 가득 찬 향기 높은 술 부어서  
 마셔라 취하여라 만포장滿醵觴이 되었구나  
 서산에 해 저물고 동녘에 달 돋으니  
 었더지락 자빠지락 초옥삼간 찾아들 제  
 안해는 마중하고 어린 자식 부축하네  
 이 강산 진짜 주인 나뿐인가 하노라

광대가 선창을 부른다. 이 노래는 개후음목구멍을 열어서으로 부른다.

### 3) 성경린이 정리한 '제의홀기'祭儀笏記

제의홀기 제사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은 원래 『교방가요』에서 홀기가 필요하다는 것만 적고 있을 뿐이어서 성경린成慶麟: 인간문화재이며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이 종묘제례의 예를 참고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다.

- 집사執事와 전사관典祀官은 재배再拜하고 정위定位에 나아가 선다.
- 재배한다.
- 관세위盥洗位: 제향 때 제관이 손을 씻는 곳에 나아가 세수洗手를 한다.
-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인 동·서창東西은 함께 나아간다.
- 재배한다.
- 정위에 나아간다.



• 창홀<sup>唱笏</sup>: 의식의 순서를 창땀으로 말함

- 전악<sup>典樂</sup>은 가자<sup>歌者</sup>, 무자<sup>舞者</sup>, 당상악공, 당하악공을 거느리고 정위에 나아가시오.
- 알자는 대축<sup>大祝</sup>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sup>拜位</sup>에 나아가 서시오.
- 재배하시오.
- 대축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 대축과 여러 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를 하시오.
- 각자 정위에 가서 서시오.
- 전사<sup>典祀</sup>와 봉향<sup>奉香</sup>, 봉로<sup>奉爐</sup>는 오르시오.
- 배 위에 내려가 서시오.
- 알자는 대축을 인도하고 전향문<sup>傳香門</sup> 앞에 나아가시오. 축판<sup>祝板</sup>과 향궤<sup>香櫃</sup>를 받들고 (이어) 향소<sup>香所</sup>에 나아가시오.
- 배 위에 올라가시오.
- 알자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시오.
- 알자는 행사<sup>行事</sup>를 청<sup>請</sup>하시오.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유사<sup>有司</sup>로 하여금 삼가 행사를 청하도록 하시오.
- 영신악<sup>迎神樂</sup>을 아뢰시오.
- 재배하시오. 헌관 이하 재위자<sup>在位者</sup>는 모두 재배하시오.
- 악지<sup>樂止</sup>하시오.
- 상향례<sup>上香禮</sup>를 행하시오. (이어)
- 알자는 초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관수<sup>盥水</sup>: 손을 씻음.



- 세수悅水: 손을 수전에 닦다 (이어) 논개의기論介義妓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 상향악上香樂을 아뢰시오. 가자는 상향악장을 부르고 무자는 상향무를 추시오.
  - 악지하시오.
  - 초헌례初獻禮를 행하시오.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논개의기 존소尊所에 나아가시오.
  - 봉작奉爵과 준작奠爵은 오르시오.
  - 사준司尊은 작爵에 술盎齊: 술이름을 채워 봉작에게 전하고 봉작은 작을 받들어 초헌관에게 전하시오.
  - 초헌관은 작을 잡아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작을 받아서 신위전에 놓으시오.
  - 초헌관은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악지하시오.
  - 대축은 축祝을 읽으시오. 대축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동향東向하고 꿇어앉으시오.
  - 축문을 읽으시오.
  - 대축은 내려가 정위에 서시오.
  - 헌관은 재배하시오.
  - 초헌악을 아뢰시오. 가자는 초헌악장을 노래하고 무자는 초헌무를 추시오.
  - 악지하시오.





상향무를 추는 모습

-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논개의기 준소로 나아가시오.
- 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 아헌악을 아뢰시오. 가자는 아헌악장을 부르고 무자는 아헌무를 추시오.
- 사준은 작에 술을 채워 봉작에게 전하고 봉작은 작을 받들어 아헌관에게 전하시오.
- 아헌관은 작을 잡아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작을 받들어 신위전에 놓으시오.
- 악지하시오.
- 종헌례(終獻禮)를 행하시오.
-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논개의기 준소로 나아가시오.
- 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 종헌악을 아뢰시오. 가자는 종헌악장을 부르고 무자는 종헌무를 추시오.
- 사준은 작에 술을 채워 봉작에게 전하고 봉작은 작을 받들어 종헌관에게 전하시오.
- 종헌관은 작을 잡아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작을 받들어 신위전에 놓으시오.
- 악지하시오.
- 의암지악義巖之樂을 아뢰시오. 가자는 의암별곡을 부르고 무자는 의암무를 추시오. 제관祭官 이하 제기諸妓는 모두 일어나 춤추시오.
- 철변두徹邊豆: 제사 때 쓰는 그릇, 즉 과일과 마른 육류를 담은 대그릇, 김치나 젓갈을 담은 나무그릇을 거둔다를 행하시오.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하 여러 집사 모두 재배하시오.
- 일동 퇴출退出하시오.
- 제향祭享이 모두 마치었소.
- 준여餽餘: 제사를 물리고 난 후의 음식물를 먹는다.

#### 4) 의암별제의 재현

의암별제는 진주 목사 정현석이 논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특설한 대제전이다. 1868년에 시작된 의암별제는 제관이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며, 제례의식에 이어 여흥가무가 사흘 밤낮으로 베풀어져 전국 명창들이 운집하고 원근에서 몰려든 인파가 남강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일종의 조선 명창대회 겸 국악경연대회라



할 만했다. 더욱이 진주 원근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제례의 식은 해마다 기다려지는 진주 특유의 풍류이자 명절에 준하는 문화잔치였고 예술행사의 전형이었다. 따라서 의암별제는 진주지방 예술행사의 원류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도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독창성과 대중성을 함께 지닌 매우 수준 높고 흥미진진한 진주지방 예술행사의 전형성을 지닌 것이었다.

그처럼 품격과 재미를 균형 있게 구비한 의암별제를 통해 논개 정신의 불멸성을 민중 속에 심어오던 이 예술행사는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민족주의 선전행사'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다가 끝내 금지당했다.

의암별제 집전이 엄금된 후로도 한동안은 진주의 노기들이 한밤중을 이용하여 일본 경찰 몰래 축석루에 숨어들어 제사를 모셨다. 그러다가 발각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처벌된 뒤로 사실상 의암별제는 명맥이 끊어졌다. 그러자 해마다 의암별제를 올리는 날만 되면 예의 그 노기들은 축석루 대신 의암에 올라가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서 절규했다.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정신을 보냈는데, 물러갔던 왜국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나라를 강점당하고, 급기야 제사마저 금지당하자 그 통한과 울분으로 통곡했다.

그렇게 단절된 의암별제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잊혀갔다. 그후로도 의암별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성계옥<sup>6)</sup>이 일제에 의해 폐지된 지 82년 만인 1992년에 세상 사람들에게 까맣게





성계옥의 집념으로 재현에 성공한 의암별제

잊힌 의암별제를 재현시켰다.

### 3.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 1) 다시 모독당한 죽음

논개와 최경희는 진주성에서 왜적과의 전투로 모두 죽었지만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다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일제로부터 치욕적 수난을 겪게 된 것은 논개였다. 일제 통감부 치하의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 2년<sup>1908</sup>에 발간된 『초등 대한역사』라는 책과 관련한 수난이었다. 한성에서 출판된 『초등



대한역사』는 국한문 혼용체로 된 180쪽 분량의 책이다. 이 책에는 단군에서 조선조까지 왕 중심의 기술이 아니라 항일 인물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이 서술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자주독립, 주권수호 의지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초등 교과서였다. 항일운동에 관한 사료를 그림과 함께 편집하여 주제별로 단원을 묶은 이 교과서는 일제의 폭력에 의해 멸망해가는 조국의 운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의 '조선조' 제56절에 논개의 순절도와 논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 대한역사』 109쪽부터 110쪽까지 2쪽 분량에 걸쳐 실려 있는데 논개 이야기는 '부일장추수' 負日將墜水란 제목으로 그림이 곁들여져 있다.

진주성이 함락될 때 의병장 고종후를 비롯하여 김천일, 유복립, 황진 등이 전사했다. 왜장이 진주성에 들어와 축석루에서 기생과 악공을 불러 놀이와 잔치를 벌일 때 진주 기생 논개가 왜장의 술취함을 틈타 등에 업고 남강물에 뛰어드니, 왜장이 물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논개의 손이 더욱 단단하게 잡아끄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후세 사람들은 축석루 밑의 바위를 의랑암 義娘巖이라 부르고 바위 위쪽에 의랑사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처럼 구한말 개화기 때의 국사교과서에 실렸던 논개의 항일 정신과 애국심에 대해 일제는 이 교과서를 압수했다가 한일합방



愛國義娘論介墮水圖



晉州陷城時에 義兵將高從厚  
柳復立과 黃暹等이 戰死하  
다 日本將이 晉州에 入  
하야 盪石樓에서 妓樂을 불너 遊讌  
할새 邑妓論介

가 日將의 醉음을 乘  
하야 背에 負하고 水  
에 墜하니 日將이 躍  
出코자 하니 妓의 手  
가 固結不解하야 江  
中으로 引入하야 溺  
斃하니 後人이 樓下  
의 巖을 義娘巖이라

1908년 『초등 대한역사』에 실려 있는 논개 이야기



직후부터는 금서로 지목했다.

논개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의암사義巖祠 경내에 있는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暨名碑는 논개를 기리기 위해 장수땅에 세워진 최초의 금석문이다. 원래 이 비는 장수현 시장터에 세워져 지나가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논개의 충절을 기리게 하고 장수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는 데도 말없는 공헌을 해온 이 고장 사람들의 정신적 사표였다. 그런데 이 비석이 다시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일제가 전북 금산의 ‘칠백의총비’와 남원의 ‘황산대첩비’를 무참하게 폭파시켜버렸듯이 ‘수명비’도 곧 폭파하리라는 조선인 순사의 귀뜸이 있었다. 이른바 1940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의 애국 역사적 기념물 파괴 지시에 따른 만행은 거침없이 자행되었다.

‘수명비’가 파괴될 것은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사태가 다급해진 1943년 11월 중순의 어느 추운 날 저녁이었다. 장수에서 의협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이재영은 그의 친구 다섯명과 함께 시장터에 있는 ‘수명비’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숨기기로 했다. 그들은 수레 위에다 ‘수명비’를 싣고 시장터에서 십 리나 떨어진 장수군 천천면 장팔리 길 옆 빈 밭에다 파묻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밭 전체를 쟁기로 갈아엎어 위장시켰다.

그다음 날 일본 경찰은 문제의 ‘수명비’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발악했다. 경찰의 분노는 엉뚱한 쪽으로 폭발했다.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일대에 남아 있던 논개 직계 조상들의 묘를 파헤치고





일제 때 총독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수명비'를 파묻었던 곳

기름을 쏟아부어 불을 질렀다. 또한 묘비들도 모조리 폭파시켰다.

그런 뒤 해방이 되어 장수 사람들은 1945년 8월 18일 땅속에 숨겨두었던 '수명비'를 파내어 장수읍 두산리에 다시 세우면서 해방의 의미를 아프게 되새겼다. 이처럼 가계가 몰락하고 후손이 단절되어버린 논개의 경우에는 그가 죽은 지 253년 만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과 조상들의 무덤이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그런 논개에 비해 그의 부군 최경회의 후손들이 일제로부터 받은 탄압은 더욱더 컸다. 1593년 진주성 함락 당시 최경회의 비장한 순국은 전투에 참전했던 그의 조카 홍우에 의해 화순의 해주 최씨 문중에 기적적으로 전해졌다.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최경회의 급



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비분과 항거의 불길을 일으켰다. 최경회 군대의 군관이었던 홍우는 큰아버지 경운<sup>慶雲</sup>, 아버지 경장<sup>慶長</sup>, 그리고 일가의 형제들에게 최경회의 유지<sup>遺志</sup>와 함께 그의 최후를 전했다. 조카 홍우 편에 보낸 최경회의 관복으로 육신을 대신하여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에 초혼장<sup>招魂葬</sup>으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

비보를 접한 최씨 일가에서는 최경회의 형제들, 자식들, 조카들 모두가 복수를 결의한 뒤 이어달리기식으로 의병의 길로 나섰다. 이른바 계기의병<sup>繼起義兵</sup>이란 말은 이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최경회는 경운, 경장에 이어 막내였다. 가문의 가장이었던 최경운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고향 화순에다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을 모으면서 가재를 털어 군량미를 마련했다. 마침 모친상중이었는데도 그는 큰아들 홍재<sup>弘載</sup>를 의병장 고경명 부대에 보내 복무하도록 했다.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막내동생 경회가 1592년 7월 기복<sup>起復</sup>: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가는 것의병장으로 일어났고, 경회가 순국하자 1593년 8월에는 다시 가운데 동생 경장이 대를 이어 의병장이 되었다. 최경장은 문과 출신으로 그때 나이 65세였다. 아들 홍우에게서 최경회의 유품인 언월도<sup>儼月刀</sup>: 1592년 9월 중순 우지치 전투에서 고바야카와 부대의 한 장수에게서 노획했던 칼을 가리킴을 전해 받았을 때, “이 칼에는 내 아우의 정충<sup>精忠</sup>과 의기가 서려 있다”면서 호곡했다. 칼을 들고 싸우다가 죽을 것을 동생의 영혼에 맹세했다.

최경장은 이 칼을 들고 남원으로 진출하여 왜군을 추격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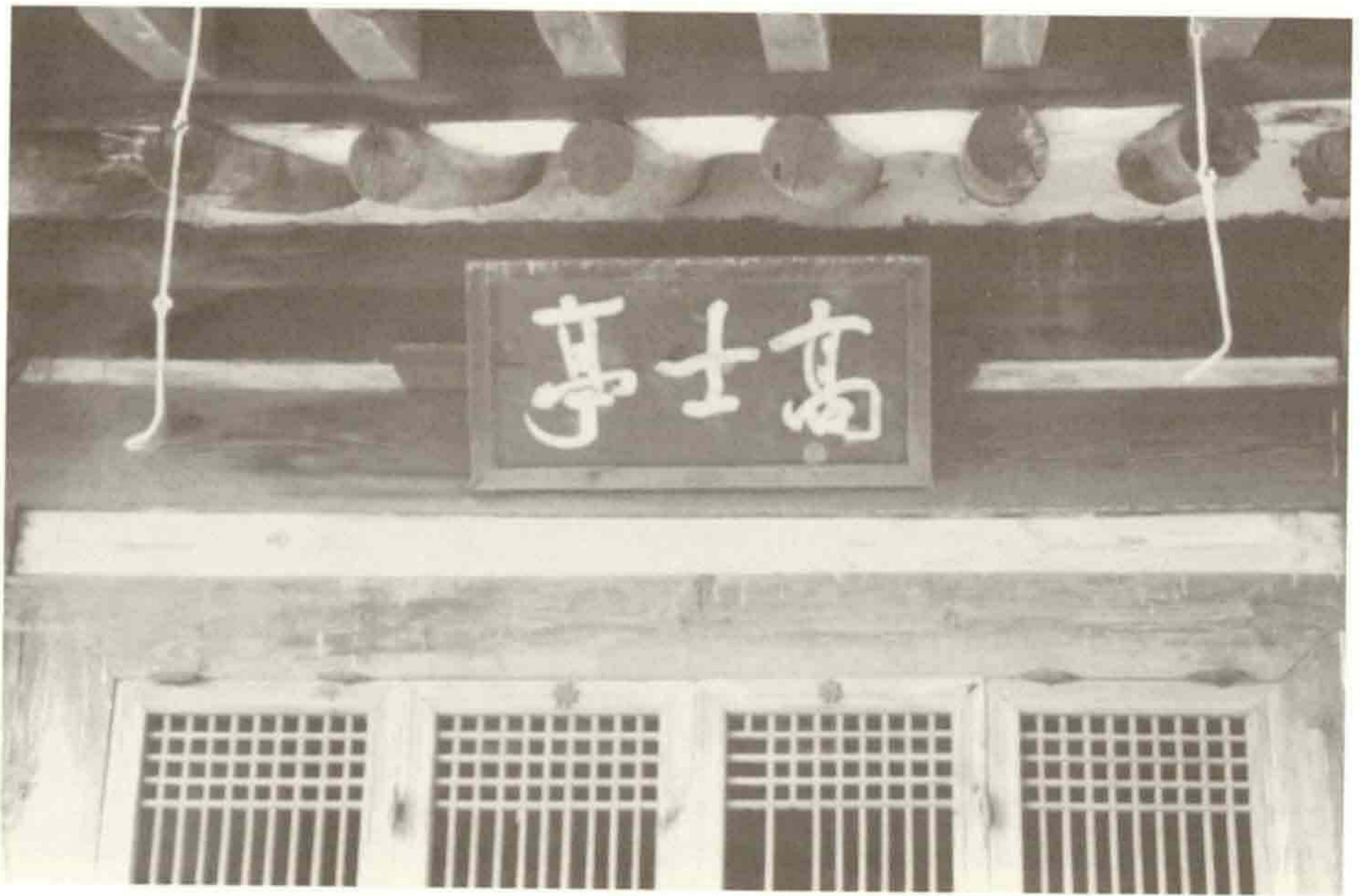
최경희의 묘소. 조카 홍우가 가져온 관복을 초혼장으로 묻었다

후 함양을 거쳐 곤양과 사천 등지에서 유격전을 벌여 왜병을 격퇴한 뒤 고성 견내량<sup>見乃梁</sup>을 방어했다. 이어 구례의 석주관<sup>石柱關</sup>으로 이동하여 방어전에 참가하던 중 전국의 의병을 김덕령<sup>金德齡</sup> 군에 통합시킨다는 조정의 방침에 따라 병력을 넘겨주고 귀향했다.

이같이 의로운 정신으로 결속된 화순땅의 해주 최씨 가문에 대한 일제 경찰의 탄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번째는 이른바 '칼'로 인해 벌어진 참상이었다. 1593년 6월 29일 최경희가 진주성에서 자결하기에 앞서 조카 홍우에게 남긴 그 칼이 화근이었다.

그 칼을 전해 받은 최경희의 중형 최경장은 이 칼과 함께 동생의 의병장 역할을 계승하여 왜적과 싸웠다. 또한 정유재란 때와 뒷날





최경희의 형제 경운, 경장 등이 의병을 모집하여 훈련시켰던 의병청인 고사정

의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때도 최씨 집안을 대표하는 의병이 나와 이 칼로 적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칼은 마침내 해주 최씨 문중의 보물로 자리 잡았다.

조선을 병탄<sup>併呑</sup>: 남의 영토나 주권을 강제로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삼음한 일제는 지난 역사 속에서 특히 일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조선 사람들의 후손과 역사적 흔적에 대해 지독한 말살정책을 썼다. 최경희 후손들에게도 그 정책은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

문제의 그 칼은 최경희의 중형 최경장의 후손들에게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하여 최경장의 후손 최영조<sup>崔泳朝</sup>가 칼을 보관한 채





화순 해주 최씨 문중의 의병 깃발

일제시대를 맞았다. 그때 일본 경찰은 그 칼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의 소재가 알려졌다. 최영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엉겁결에 칼을 담장 밑에다 파묻었다. 워낙 급했기 때문에 달리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

얼마 후 경찰이 덮쳤다.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다. 칼을 어딘가에 감췄다는 것을 눈치챈 경찰은 최영조를 고사정<sup>高士亭</sup> 앞 마당가에 있는 회화나무 가지에다 상투를 묶어 매달았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자 이번엔 거꾸로 매단 채 코에다 물을 붓는 등 온갖 악랄한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지만 최영조는 몇 차례나 혼절하면서도 끝끝내 칼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일본 경찰도 마침내 물러섰다.

칼 외에 다른 또 하나의 탄압은 좀더 광범위하게 그 해악이 미쳤다. 즉 일제 시기 전 기간을 통해 최씨 문중 사람이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볼 경우 반드시 최경희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었다. 만약 최경희의 후손임이 판명되면 어떤 경우 일지라도 채용을 거부했다.

그토록 암울하고 가혹한 식민통치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최영조는 담장 밑을 파헤쳤다. 그런데 땅속에 파묻었던 칼이 칼날만 남고 오동나뭇잎 문양이 새겨진 나무로 만든 칼자루는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 때문에 썩어 없어지고 만 것이다. 최영조는 자루 없는 칼날만이라도 지켜낸 것을 고난의 보람으로 알고 잘 간수했다.

그런데 6·25전쟁이 터지자 이 칼은 다시 수난을 겪는다. 화순지방을 점령한 폭도들에게 다시 칼을 빼앗겼다.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루도 없는 그 칼을 가져가서 겨울철 난로에 넣는 장작을 쪼개거나 석탄 난로를 헤집는 데 사용했다.

전쟁이 끝난 뒤 최영조의 아들 유상<sup>有相</sup>은 칼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화순경찰서에서 석탄 난로의 부지깽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칼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최씨 문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성산성(가운데 봉우리). 이곳에 최경운 등의 전망유허비가 있다

## 2) 히코산 보수원의 '논개'

히코산<sup>8)</sup>과 더불어 이름 높은 게이무라 로쿠스케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인품도 모범이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어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전주성에서 분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걸고 구국의 일념에 불타는 젊음의 의암 주는 개에 의해 함께 남강의 수중 깊이 사라졌으니 그 무상함이 바로 인과정토<sup>因果淨土</sup>일 것이라 가슴을 세게 칩니다.

영령들이시여,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영원히 원한은 사



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상대를 구원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원한을 스스로 없애는 길이며 이것이 원한을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령이시여, 이것이 곧 불교에 의한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이 글은 1983년 음력 6월 29일 '제11회 한·일 군관민 합동진혼제'라는 희귀한 이름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이 제사의 제주 노릇을 한 일본인 우에쓰카 하쿠유<sup>上塚博勇</sup>라는 사람이 읽은 제문의 일부다. 우에쓰카는 일본 후쿠오카<sup>福岡</sup> 현의 다가와<sup>田川</sup> 시에 사는 은퇴한 건축 설계사인데, 임진왜란 때 진주성 아래 의암에서 논개에게 살해당한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흠모하는 사람이다.

그는 후쿠오카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남짓 걸리는 곳에 있는 히코산 기슭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밭을 갈던 중 흙 속에서 다듬어진 돌을 발견했다. 흙을 털어내고 문질러서 살펴보니 누군가의 묘비였다. 그는 묘비에 적힌 글자들을 모두 읽었다. 그때부터 그는 묘비에 적힌 사람들과 사연들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보았는데, 그 결과 묘비에 적힌 인물들이 놀랍게도 일본 역사상 한때 이름을 크게 날렸던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출정한 왜장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군으로 알려진 가토 기요마사 군대의 선봉장이었던 부장<sup>副將</sup>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역사 한 토막이 그 묘비에 새겨져 있었다.

게야무라는 조선에 출정하기 직전 아내와 처제의 죽음을 겪었는데, 아내와 처제를 묻어주고 그 묘비를 세워준 다음 조선 침략군





1786년에 초연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신화를 주제로 한 가부키에 등장하는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모습

의 선봉으로 나섰다. 우에쓰카는 바로 그 게야무라의 생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게야무라<sup>9)</sup>는 혹독한 고행을 극복하고 신검<sup>神劍</sup>이란 명성을 휘날린 검술 사범으로서 출세한 입지전적인 사무라이였다. 수많은 영광과 은총 속에서 당대 청년들의 우상이었다. 가토는 그런 게야무라를 그의 군 선봉장으로 추대했다. 가토 군대는 천하무적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게야무라를 추앙하는 병졸들의 역전<sup>力戰</sup>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 게야무라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다 이긴 전승기념 연회에서 조선의 여성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일본 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거기에다 게야무라의 죽음은 곧 수많은 왜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리멸렬하게





히코산에 있는 논개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묘지

만든 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호남평야를 눈앞에 두고도 장악하지 못한 채 퇴각해야만 하는 억울함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 게야무라의 비극적 생애를 우에쓰카는 흠모했다. 그래서 게야무라를 대신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 게야무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우에쓰카는 한 가지 일을 은밀하게 추진했다. 게야무라와 논개를 부부로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다. 기괴한 발상이었다. 이미 400년 전에 죽은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이른바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자는 계획이었다. 그는 1973년 처음으로 진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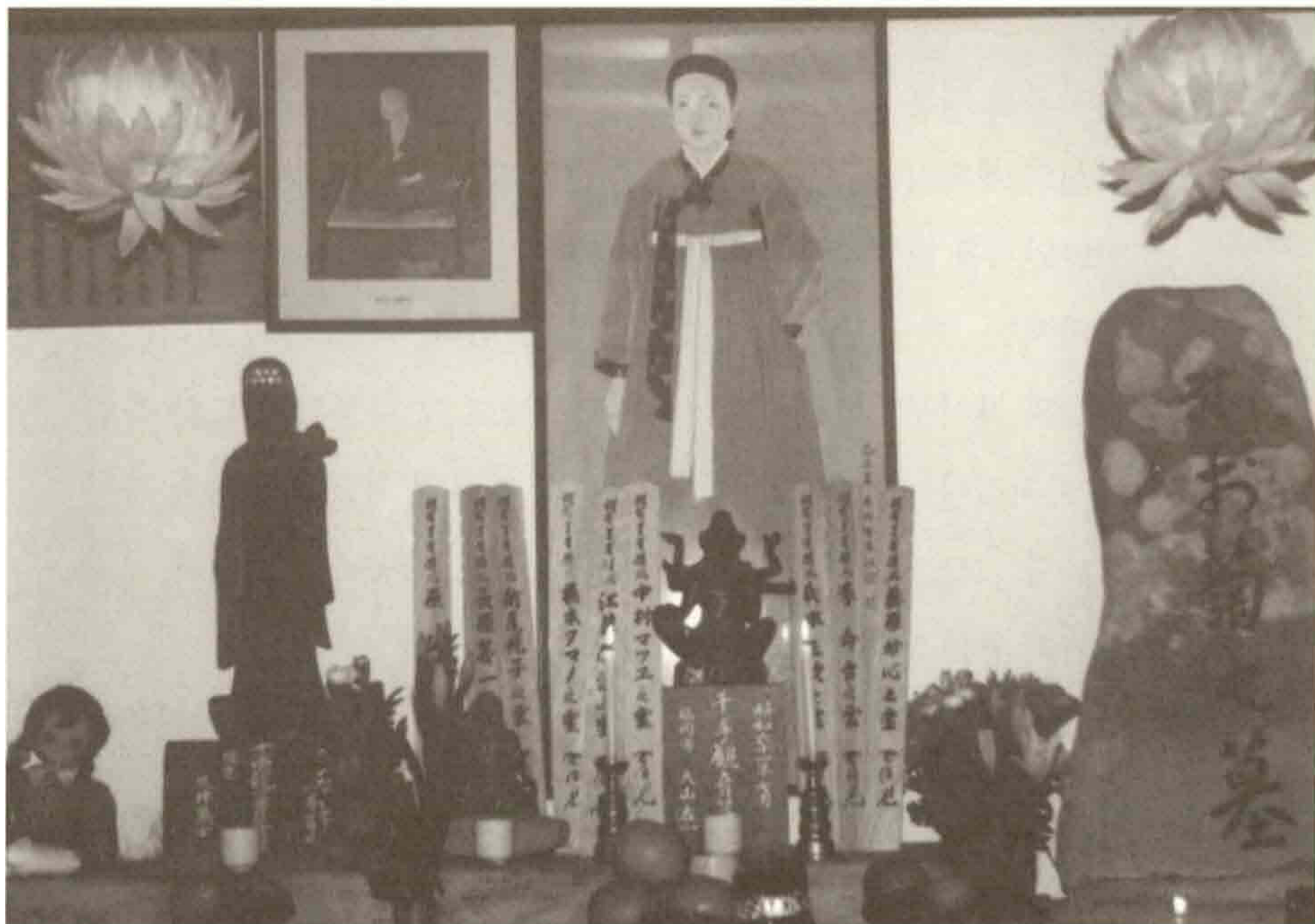


찾아와서 영혼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능멸하는 것이며 분노하게 하는 망발인지를 뒤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엉뚱한 발상을 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논개와 게야무라를 한 장소에다 모셔놓고 그 나뭇의 기도와 축원을 바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묘비를 찾아낸 히코산 기슭의 자기 땅에다 '보수원'寶壽院이란 사당을 짓고 그 사당에다 논개와 게야무라를 함께 모시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그가 논개의 영혼을 모셔가기 위해 꾸며낸 계략은 당시 진주에 사는 몇몇 인사의 마음을 뒤흔들어놓는데 성공했다. 한일간의 역사적 화해, 원혼들의 천도, 새로운 한일교류 등이 그의 주된 논리였고, 이 논리는 꽤나 설득력을 얻었다. 논개와 게야무라의 넋을 건지는 의식과 건져낸 넋을 일본으로 모셔가는 의식은 일본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주 남강에 국화꽃을 뿌리고 1천 마리의 종이학을 띄우면서 염불을 했다. 우에쓰카는 원래 승려가 아니었는데도 이 의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본 승려처럼 삭발하고 승려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의식을 본 진주의 몇몇 인사는 논개의 영혼을 건져 일본으로 모셔가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그는 승려로 행세하면서 진주, 함양, 장수의 논개 사적지를 십여 차례 순례했다. 그때마다 그는 그의 계획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설명했다. 게야무라와 논개를 원한 관계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하여 맺힌 인과를 풀어줌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수원’의 내부 모습.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영정 곁에 논개 영정이 걸려 있다

결국 그는 은밀하고 집요한 노력 끝에 히코산에다 논개의 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다. 진주의 모래와 나무, 흙, 그리고 논개의 고향인 장수의 돌을 히코산으로 운반해갈 계획을 세웠다. 진주의 몇몇 인사는 그의 계획에 감동하여 논개의 영혼을 일본으로 보내는 환송 의식을 베풀어주었다. 마침내 그는 오랜 숙원대로 논개의 영혼을 일본으로 모셔가는 데 한국인의 동의를 얻어낸 셈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진주 축석루 옆 ‘의기사’에 걸려 있는 논개 영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린 영정까지 가져갔다. 그리하여 그는 히코산에다 ‘보수원’을 짓고, 진주와 장수에서 가져간 모래, 흙, 나무,



돌로서 논개의 묘를 만들고 묘비까지 만들어 세울 수 있었다.

보수원 안에는 논개의 영정이 걸려 있고 계야무라의 위패 옆에는 논개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한 그 곁에는 계야무라의 아내와 처제의 위패까지 놓여 있다. 누가 보아도 논개는 영락없는 계야무라의 여자로 오인받도록 되어 있다.

1976년 음력 6월 29일 '보수원' 준공식 때는 진주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부부 동반으로 그 의미심장한 준공식에 참석했고, 당시 진주 시장은 우에쓰카에게 감사장까지 수여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논개를 일본 잡신의 하나로 규정짓고 있다. 그들의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쾌락의 상징 혹은 아들을 점지해주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잡신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 여성이 일본인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는 씨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으로 모욕적인 역사적 평가를 내리게 만든 그 '보수원'의 주인 우에쓰카의 역할은 곧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적 확신을 숭배하는 한 극우 일본인의 빗나간 애국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우에쓰카가 1996년 여름 다시 진주에 왔다. '의기사'에 걸려 있는 논개 영정이, 일제 때 저 유명한 「금차봉납도」金釵捧納圖를 그린 행적 때문에 해방 후 친일파로 지목된 바 있는 동양화가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가 그린 것이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 영정을 우에쓰카 자신이 사가기 위해서였다. 친일파가 그린 영정이니까 일본인이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 방법이 아니겠느냐면서 말이다.



### 3) 의기사 영정폐출운동과 표준영정의 제작

논개가 죽은 후 조정과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논개 죽음의 진실을 역사 안으로 안고 들어와 사랑과 애국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진주 사람들이었다. '의암'義巖을 새기고, 의암사적비를 만들어 세운 것도 진주 사람들의 진실을 향한 열정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지난 1997년, 진주 사람들은 또다시 논개의 진실 문제로 고뇌했다. 친일파로 지목된 바 있는 화가가 그린 논개 영정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다. 1993년에 시작된 이 논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른바 '논개영정폐출운동'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진주정신지키기모임'과 '논개영정폐출대책위원회'다. 이들은 축석루 경내의 의기사에 봉안된 논개 영정이 몇 가지 이유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폐출되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 1993년 12월 16일자로 제출된 이 청원서에서는 논개 영정을 폐출시켜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순국 의열의 상징적 인물인 논개의 영정을 그린 화가가 나라 잃은 시대에 민족의 운명을 저버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왜로倭虜에 빌붙어서 겨레를 배반했던 부왜화가의 우두머리 김은호였기에 호국의 일번지진주성의기사당에서 폐출되어야 한다”고 청원의 동기를 밝혔다. 이 같은 동기에서 시작된 이들의 청원 이유는 첫째로 우리 민족혼을 제대로 깃들이게 하기 위해, 둘째로 역사와 인물에 대한 잘못된 고증을 바로잡기 위해, 셋째로 복식과 머리 모양의 잘못된 고증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이 운동을 둘러싼 진주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





의기사 현판

이었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당 김은호가 그린 의기사의 논개 영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증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1978년 한국근대미술연구소에서 간행한 『이당 김은호』에서 김은호의 작품을 해설한 이구열<sup>李龜烈</sup>의 다음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기 논개」1955, 비단에 채색, 151cm×78.5cm, 전주 논개사당.

이당은 임진왜란 때의 전설적 의기인 논개의 상像을 같은 시기에 똑같이 두 번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의 것이다. 1955년 정초에 이당은 논개의 출생지라는 전북 장수의 관민 유지들이 고장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증축키로 한 논개



사당의암사의 영정을 의뢰받고 전주로 내려가서 과거에 남원 춘향묘(春香廟)를 위해 춘향상을 그렸던 감회를 되새기며 기꺼이 채필(彩筆)을 들었다.

그때의 첫 논개상은 현지의 뜻대로 장수의 사당에 봉안되었다. 한데 그 논개상이 거의 완성되던 무렵에 한 정치적인 인사가 전주의 이당 거처를 방문하였다가 그 화상(畫像)에 감명을 받고 또 하나를 특별히 간청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져가려는 심산이었다. 결국 전주에서 똑같이 거듭 그리게 된 두 번째 논개상은 간청자의 의도대로 일단 경무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내 이대통령의 사려 깊은 결정과 지시에 따라, 동란 중 파괴된 후 보수된 의기의 역사적 현장인 진주 축석루 경내의 사당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논개상이다.

6·25전쟁으로 불타버린 진주 의기사에는 원래 논개 영정이 봉안되어 있지 않았다. 의기사는 사당(祠堂)이며, 사당 안에 영정을 봉안하는 것은 유교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54년에 6·25 때 불탄 의기사를 재건하는 문제가 정부 측과 논의되었는데 이 논의는 진주를 둘러보러 왔던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 덕분이었다. 의기사의 재건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60년에야 제 모습이 완성되었다. 의기사가 완공된 뒤 관계자들은 새로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종전대로 위패만 모시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장수 의암사처럼 논개 영정도 함께 모시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결국 장수의 예를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경무대에 보관 중이던 한 미인도가 의기사에 봉안되어 이른바 논개 영정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논개영정폐출운동 당사자들이 이 같은 내력을 지닌 의기사의 논개 영정을 폐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1993년 12월 22일 문화체육부는 이 문제를 경상남도로 보내면서 지역 현안은 지역민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상남도는 같은 해 12월 27일 진주시로 하여금 논개 영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진주시는 다음해 1월 11일 대학교수 2명, 진주문화원,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신안 주씨 김해·양산 종친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때 진주시는 ‘논개영정폐출대책위원회’의 청원 사실과 청원 이유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논개 영정 폐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원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시 없이 질문한 진주시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무튼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는 “영정의 예술성이 높아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했고, 진주문화원은 “세계화로 발돋움하는 시대에 비추어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서를 내지 않은 진주박물관이나 전북 장수군청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처럼 했다. 진주시가 왜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진주 시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경상남도는 1995년 4월 21일 논개 영정 폐출청원을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보내 심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논개 영정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대신 영정 문제는 진주시가 책임을 지고 시민, 학계, 관련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경상남도도 이 같은 뜻을 진주시에 알렸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24일 '진주정신지키기모임'과 '논개영정폐출대책위원회'가 진주시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7월 25일 폐출대책위원회는 진주시에 다시 논개영정폐출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1996년 2월 8일 진주시는 처음으로 논개영정폐출청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는 모두 23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토론 결과 폐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7명, 나머지 사람들은 찬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기권해버렸다.

진주시는 다시 침묵했다. 그러자 1996년 3월 4일 경상대학교의 '민족교육을 생각하는 교수모임'의 교수 113명은 진주시에 논개영정 폐출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다시 3월 16일에는 진주교육대학교의 '진주정신을 생각하는 진주교대교수모임'의 교수 35명이 논개 영정 폐출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그러자 진주시는 다시 같은 해 4월 19일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 10명은 이 문제를 시의회에 상정하여 시의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거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두 의견으로 나뉘었다. 진주시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



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진주지역 교사 문화모임’에 소속된 초·중·고교 교사 194명이 논개영정폐출촉구서명서를 진주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진주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1월 30일에 이르러 ‘논개 영정 폐출에 대한 찬반 의견 청취의 건’이란 이름으로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결국 진주시는 뜨거운 감자를 시의회에다 떠넘겨버린 셈이었다. 진주시의회가 논개 영정 폐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다시 반년이나 더 지나야만 했다.

1993년 12월 16일에 시작된 의기사 논개 영정 폐출 문제는 만 4년 동안을 질질 끌면서 이렇다 할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을 허비하면서도 단호하게 결정을 짓지 못한 진주시는 진주시 나름의 고뇌와 계획이 따로 있었을지 모른다. 아무튼 논개 영정 폐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주시가 주관했던 찬반 토론회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개 영정 폐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김은호가 친일파라면 당시 조선 사람 99퍼센트가 친일파다.
- ② 일제 때 친일 안 한 사람 어디 있나?
- ③ 화가의 사상과 작품은 별개의 문제다.
- ④ 배일 감정으로 보면 어느 누구보다 앞섰던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에게 제작을 의뢰했겠느냐?
- ⑤ 유명 화가가 그린 비싼 그림이다.
- ⑥ 떼어내고 나면 김은호만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구할 수 있



느냐?

다음은 논개 영정을 폐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견해다.

① 이승만 대통령이 제작을 의뢰하여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은 『이당 김은호』 도록에 적혀 있다. 1955년에 전북 출신의 한 정치인이 김은호 화백에게 성춘향과 같은 미인도 한 점을 부탁했다. 그 정치인은 그 그림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불에 타버린 의기사가 복원되던 무렵 이 대통령이 진주를 방문했고, 진주 관계자가 복원된 의기사의 영정을 걱정하자 이 대통령이 경무대에 사람을 보내면 적당한 그림을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그가 한 약속대로 그림을 보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김은호가 그린 그 미인도였다. 그냥 미인도일 뿐이지 논개 영정은 결코 아니다. 냉정하게 역사의 앞뒤를 살펴야지 행정편의주의나 관료 독선에 동의하면서 사태를 얼버무리려는 반드시 화근이 재발한다.

② 친일 화가가 그린 의기사의 영정은 논개의 호국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떼어내야 한다.

③ 역적이 쓴 가훈을 글씨가 좋다고 걸어놓겠는가?

④ 김은호가 그린 논개 영정에 친일의 요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논개의 영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성보다 공적인 상징성이다.

⑤ 의기사는 유명 화가의 명작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니라, 호국의 일번지로서 정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다. 그는 분명 친일 혐의가 있다.

⑥ 이승만이 한때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



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극렬한 친일파들을 등에 업은 사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뒤 그들을 비호하는 악법과 위법을 자행한 사실 또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이승만의 친일파 비호가 결국 한국 현대사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불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모르고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꼭두각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왜 논리와 증거를 무시한 채 억지만 부리는가?

⑦ 일제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식의 사고야말로 천민적 막가파식 억지다. 이당을 꾸짖는 것은 그가 예술계의 거장이자 당시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⑧ 유명 화가의 값비싼 그림이라서 폐출시킬 수 없다는 말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욕되게 하는 말인 줄 모르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⑨ 「금차봉납도」가 어떤 그림인가? 일제의 '대동아성전' 전쟁 비용에 보태 쓰라고 조선 여성들이 몸에 지녔던 은비녀와 가락지를 벗어 일제의 조선 총독에게 헌납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아닌가? 도대체 이 그림의 상징성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봤는가? 조선의 여성들이 몸에 지녔던 은비녀를 뽑아서 조선 총독에게 헌납한다는 행위가 무얼 상징하는가?

조선 여성이 비녀를 찌른다는 것은 곧 한 남자와 부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비녀를 뽑아 바친다는 것은 조선 여성의 정조를 일본군에게 바친다는 뜻이 아닌가?

또한 금가락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 역시 순결한 정조와 사랑의 약속이다. 금가락지를 뽑아서 헌납하는 그 그림은 곧 조선



여성을 집단 능욕하고 훼손을 자초하는 것을 상징한다. 단적으로 이 그림 한 점이 곧 저 수많은 조선 여성의 정신대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친일은 그 횡수가 문제가 아니라 친일의 성질과 친일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한 점의 그림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논개 영정 문제는 바로 김은호의 친일성의 극대점인 「금차봉납도」와 연결된다는 그 자체가 논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긴 역사 동안 논개의 진실성을 위해 희생해온 수많은 진주 사람을 능멸하는 처사다. 찬성, 반대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 반대한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⑩ 밤에 의기사의 그 영정에다 불을 썬질러버리기 위해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생각해봤다. 그런데 불을 질러버리게 되면 괜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

1997년 5월 16일 진주시의회는 오래도록 진주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있던 논개 영정 폐출 문제를 결정짓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 2명씩의 대표자를 내보내 의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 및 그 증거를 설명하도록 한 다음 표결에 들어갔다. 찬성 9명, 반대 24명으로 논개 영정 폐출 청원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주시의회로부터 이 같은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진주시는 지체없이 의기사의 논개 영정은 그대로 봉안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의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 참석했다. 토론자로서나 설명자로서가 아니라 방청객으로서였다. 첫



번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몹시 당혹스러웠다. 논개 영정을 일본의 조선 침략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미술품으로만 봐야 한다는 사람들의 견해도 그러했지만,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민족말살 정책에 대한 용서와 이해, 나아가서는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해 최악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식의 일본옹호론까지 서슴없이 제기하는 데는 차마 고개를 들기가 민망했다.

이 같은 논개 영정 폐출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곧 논개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영혼 결혼식, 히코산 보수원에 논개와 적장의 영정을 함께 걸어두는 일, 장수의 돌과 진주의 흙을 일본으로 실어다 논개와 적장의 무덤을 만든 일에 적극 동참했던 진주의 관련 인사들이 줄곧 주장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언제까지나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과거의 일로 원한에 사무쳐 원수로만 지낼 수 있겠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선린우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인 것 같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민족말살정책과 관련한 한일관계는 선부른 감정이나 경제적 이해 문제 따위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논개의 죽음과 진주성의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한 채 토론회에 참석하여 반대 발언에 나선 사람들의 주장은 경솔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폐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억지였다. 더구나 이 같은 주장이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맞물려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거기에 비해 폐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오래도록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기존 영정의 폐출 후에 뒤따를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의기사의 기존 논개 영정은 우선 그곳의 유교적 전통에 따라 위패만 모시고 그 어떤 영정도 봉안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에 적합하므로, 만약 영정을 봉안하는 것이 변화된 민족 정서에 맞는 것이라면 영정의 제작과 봉안에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당당하고 흠이 없는 예술가의 작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개 영정으로 일컬어지는 기존 의기사의 그림은 그 제작 동기와 과정, 의기사로 오게 된 배경만으로 살펴볼 때도 한국 민족주의의 성지인 진주성 의기사에 봉안되기에는 도덕적으로 매우 결함이 많다. 또한 제작자의 정치적·민족적 결점이 용납되거나 무시되어도 팬찮은 대상으로서의 논개라고 한다면, 지난날 그 술한 진주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쉬지 않고 논개의 진실을 위해 굳이 희생했겠는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⑪ 오랜 논의 끝인 2005년 9월 27일 진주시와 장수군은 논개 표준영정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4년 동안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표준영정을 현상공모했다. 진주시청과 장수군청에서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윤여환충남대 교수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다시 문화관광부 동상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2월 4일 정부표준영정 79호로 지정되었다. 110cm×180cm의 영정 심의본은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이모본 두 점은 진주 의기사, 장수 의암사에 모셔졌다.











지난 역사 속의 한 인물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그 인물이 부정적이라거나 긍정적이다 혹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평가를 내린다. 이 같은 역사적 평가는 먼저 그 인물이 실존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실존했던 인물일지라도 그의 생몰연대가 모두 불확실하거나 출생과 사망 중 어느 한쪽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된 인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가능하다.

그런데 논개의 경우는 지난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후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에 관한 일반적 경우와는 사뭇 다른 매우 특별한 사정이 그가 죽은 직후부터 생겨나 4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살아 있었던 동안의 그의 신분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즉 그는 기생이라는 천민 신분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평범한 조선의 일반 백성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신분 문제는 그의 삶과 생애에 관한 평가와 해석 과정에서 적잖은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냈다.

논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어우야담』에서부터 최근 기록들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종류의 논개 관련 자료 대부분이 논개의 신분을 관기 혹은 기생으로 단정짓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후세 사람이 흔히 '진주기생이애미'로 알아 노래했고 전설을 쌓아왔다. 그러



면서 천하디천한 기생 신분으로 왜장을 죽인 일을 두고 뒷날 여러 문장가는 갖가지 표현으로 자신들의 체면을 지켰다.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라고 해서 정렬<sup>貞烈</sup>로 칭함이 불가하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왕의 덕화를 입은 인물이라 하겠거니와……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 유몽인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의 한 창기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같이 대장부의 열렬한 사업처럼 처리함으로써 당시의 여염집 부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 오두인

관기 논개가 난중에 일신을 돌보지 않고 왜적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하다 하겠다……. 그러나 명백하게 의거할 만한 문적이 없으니…….

• 비변사 관문

부인들의 천성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창기 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하고 지조 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하여 그 마음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하물며 군신간의 의리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기생 의량은……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 정약용

논개의 죽음을 칭송한 글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글 모두 논개를 관기로 단정하고, 천한 신분의 여자가 행한 일치고는 제법 가상하다는, 글쓴이의 우월감과 차별적 감정이 짙게 느껴지는 내용들이다.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대의 윤리관 여성을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 또는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는 여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논개의 신분이 여성인 데다 천민으로 분류되는 관기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단순한 천한 신분의 여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 때문이다.

그리하여 될 수 있는 한 온갖 구실을 내세워 시일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덮어버리려고 했던 증거가 곧 경상우병사 최진한의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대답이다. 최진한이 먼저 올린 상소에는 분명 “논개는 자손이 없는 데다 족속도 적어 그 당당한 이름을 후세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라고 했다. 그런데도 비변사는 최진한의 상소에 답하면서 자손을 찾아서 은공을 베풀라고 능청을 떠낸다. 또 비변사는 정작 논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는 자손에게 포상하라고 하는데, 이는 고의적인 회피였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분명 논개가 여성이라는 점, 관기라는 점 때문



에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논개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과 전설이 그의 신분을 관기로 못박고 있는데, 과연 논개는 진주 관기 혹은 장수 기생이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 논개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그간의 여러 평가의 잘잘못이 규명될 것이다.

논개를 진주 관기였다고 최초로 밝힌 『어우야담』은 유몽인이 직접 진주에 와서 전투에 참전했거나 왜군의 전승 축하연에 참석했던 자에게서 증언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유몽인에게 논개의 죽음에 관한 증언을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

후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여겼던 것 같다. 축석루에서 벌어진 전승 축하연은 진주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욕에 불타는 왜군들의 승리자로서의 피에 굶주린 본능적 충동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피의 파티장이었다. 그런 곳에 어울리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실제로 1650년 무렵 민순지가 쓴 『임진록』은 진주성 함락 후 왜군들은 수많은 기생과 여인을 능욕했다고 기록해놓았다. 따라서 유몽인에게 논개의 의거 사실을 증언한 사람이 여성이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논개가 진주 관기였고, 논개의 의거 사실을 증언한 사람도 관기였다라면 유몽인은 논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유몽인이 당시 이름 있는 전기작가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남긴 기록처럼 그냥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고만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성씨, 고





복원된 논개 생가

향, 가족관계 정도는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또한 증언자도 논개와 함께 관기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서 우연하게 논개라는 이름을 들었거나 보았을 뿐이기 때문에 단지 논개라는 이름밖에 증언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유몽인은 논개에 관한 한 불멸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어우야담』에서 단지 “논개는 진주 관기였다”고만 썼다. 이후 모든 기록은 『어우야담』을 아무 의심 없이 인용했다. 따라서 논개는 진주 관기가 되었고, 진주 사람이라고까지 단정하면서 갖가지 억측과 허위 사실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800년 『호남절의록』에서 논개는 진주 사람이 아닌



전라도 장수 사람임이 밝혀졌다. 이때부터 다시 장수 기생이라는 주장이 생겨났다. 이후 1900년을 전후하여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자 논개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애국운동의 하나로 떠올랐다. 해방 뒤 논개는 잠시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논개가 다시 한국 사회 전면으로 떠오른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였다.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지난 역사 속의 몇몇 인물에 관한 확대해석과 군사정권의 도덕성을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인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논개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논개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시작한 것은 몇몇 재일한국인이었다. 1962년 여름 동경에서 발행되는 『한양』이란 잡지가 그 효시였다. 그해 7·8월호에 발표된 김정주의 「진양 성과 임진왜란」, 최용진의 「논개」, 1965년 배호길의 「진주 축석루와 주논개」가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논개에 관한 많은 역사가 새롭게 혹은 처음으로 정리되거나 창작되었다. 그중 매우 이채로운 것은 논개와 최경희가 만난 연대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1586년 혹은 1589년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논개 아버지의 죽음이 논개가 열두 살 때라든가, 이름이 달문이라는 점, 논개를 민며느리로 팔았다는 숙부의 이름이 달무라는 것까지 등장했다.

그 뒤 1970, 80년대를 지나면서 논개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그의 탄생지가 성역화되고, 논개 관련 문화사업이 활기를 얻어갔다. 그러면서 논개의 무덤이 발견되고, 논개에 관한 매우 정교하고 그럴듯한 기록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렇듯 1960



년 이후 나타난 대부분의 기록이 그 이전 기록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공통된 모순을 그대로 지닌 채 그 모순들을 사실처럼 고착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 모순이란 첫째는 논개와 최경희가 처음 만난 것이 1586년 혹은 1589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논개를 기생으로 못박으려 한다는 점, 둘째는 최경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논개에게서만 모든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논개를 진주 관기라거나 장수 기생 또는 기생이라고 하는 말, 논개가 1586년 또는 1589년, 즉 논개 나이 12세 또는 15세 때 그의 숙부가 저지른 민며느리 사건 때문에 당시 장수 현감이던 최경희와 첫 대면을 하게 되어 인연이 맺어졌다는 주장, 논개는 진주 사람이었다는 전설, 논개 아버지 주달문이 논개 나이 12세 때 죽었다는 전설이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최경희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의 연대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물과의 비교 설명 없이 그저 논개라는 한 인물에 대한 영웅적 평가에만 매달린 나머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논개에 관한 모든 의문은 최경희를 제대로 알면 금방 명확해진다. 따라서 최경희는 논개라는 역사 수수께끼를 푸는 역사의 열쇠다. 최경희가 장수 현감을 지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논개가 장수에서 태어난 것이 1574년인 것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논개가 진주성에서 죽던 해인 1593년에 그의 나이 19세였기 때문이다. 최경희가 장수 현감을 지낸 것이 1577~79년이라는 것도 공식기록





복원된 생가 앞마당의 탄생지 기념 비각

이다.

1586년에는 장수 현감이 아닌 영해 부사였고, 1589년에는 사도 시정으로 서울에 있었다. 따라서 1586년 또는 1589년에 최경희가 장수 현감을 지냈고, 그때 논개의 재판 관계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개의 삶의 기구함과 극적인 운명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소설적인 논개를 만들어낸, 경솔하고 천박하기조차 한 몇몇 사람의 글과 말이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욕되게 하고, 그 같은 모욕과 능멸을 민중의 몫으로 떠넘겨버린 것은 혹시 한국인의 유별난 차별의식의 증



거이며, 이 증거를 또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바라보며 사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과연 차별의식과 무관한 것일까?

논개가 처음 진주에 온 것은 1593년 6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인데, 그해 6월 29일에 진주성이 함락되었고, 늦어도 7월 5일 안에 죽은 것으로 볼 때, 논개가 진주에 머문 것은 기껏해야 20일 남짓 밖에 안 된다. 유몽인의 글처럼 논개가 진주 관기였다면, 관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논개는 최경회를 따라서 진주로 왔기 때문에 경상우병사인 최경회의 부실이 무슨 연유로 진주 관기가 되었겠는가. 논개는 최경회의 부실이었던 것, 최경회를 따라서 진주로 왔다는 것, 논개가 왜장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몸치장을 하고 적장을 유인했다는 점, 최경회가 장수 현감일 때 논개는 4~6세에 불과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논개를 기생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음 기록들이 입증한다.

① 1751년 의정부 좌참찬을 지낸 권적<sup>權摘</sup>이 최경회에게 좌찬성 벼슬을 추증해야 한다고 쓴 시장에, “공<sup>公</sup>최경회의 천첩이 공이 죽던 날 좋은 옷을 차려 입고 강 속 바위 위에 노닐다가 적장을 유인해 끌어안고 함께 죽으매……”라고 했다. 이 기록은 그동안 최경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못한 탓으로가문의 쇠락이 주된 원인 최경회의 공적과 함께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기록의 발견으로 그동안 논개를 관기라고 적은 모든 기록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됨과 동시에 논개가 최경회의 배위<sup>配位</sup>가 아니라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시켰다. 또한 이 기록은 『승정원일



기』영조 26년 3월 25일와 함께 뒷날 『호남절의록』의 근거가 되었다.

② 1800년 『호남절의록』은 “논개는 장수 사람으로 공의 소실이 다. 진주에 입성할 때 공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논개가 진주 사람이라거나 진주 관기였다는 기록과 전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논개가 진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1722년 경상우병사의 첩보문과 「비변사관문」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③ 1650년 무렵의 민순지의 『임진록』은 최근에 와서야 알려진 기록이면서 그동안 논개에 관한 수많은 오해와 과오를 말끔히 씻어준 참으로 위대한 문헌이다. 여기서 비로소 논개가 적장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곧 ‘의기 논개’가 되는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알게 해주는 일대 사건이다.

④ 순조 33년<sup>1833년</sup>은 진주성이 함락된 지 240년 만이자 네 번째 돌아오는 계사년이기도 했다. 이 해 6월 왕은 그때까지도 정당한 포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던 최경희에게 충의공이란 시호를 내리고 부조지전<sup>不薦之典</sup>을 베풀었다. 즉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고 제사지내도록 하는 특전이다. 그해 6월에는 왕이 최경희의 제문을 지어 내려보내면서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논개는 죽은 지아비를 따라 자결함으로써 열녀가 되고, 가문과 문중에 영예를 안겨주는 것보다는 기생 신분으로 위장까지 하여 적장을 죽임으로써 적극적인 충<sup>忠</sup>을 실천했다. 논개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받게 될 오해 따위 때문에 적장을 죽이는



如此今年大厥被文滿死雖無此種被界之異然外邑播誦之入耳者視長吏之治否而民情有恃而為命與窮若無歸之不同然則民命生死實聽於守令而非但休戚而已每值政月屢動飭教而銓曹舉行雖未見有實效或至能之不敢審察疎眠之不免為累殆若置民命於膜外而不之恤也是豈到庶制但悉心對揚之意哉近來人才益乏然其黃杜召雖不可得至於存心愛物之士則頃刻之材心誠求之當不至於全無其人請以此另加申飭於監官從之又後言各管衙門所掌財賦到底得幾一則曰刁徒外受之贖年滯納也二則曰負役之例陳舊奸便餽通員也為部官者既不留心典守至有犯犯之說身為官長不惟不能東下乃反為吏胥者操以常理寧或有是得此梁楚臣為取之下官不職漢法所不貸比意請一體分付使各該衙門堂上隨現隨俸俾各衙門從之○禮部判書趙萬永啓言今春晉陽致備之命實出於舊甲與感之志意忠誠公者慶會殉節卓絕請依全千鍾黃進例施以不換之典詢大臣從之慶會以本道節度使同時殉節者也○以檢校輔養使使○庚申○辛酉行都政○以尹慶大為吏曹參議金說為漢城府判尹任內當為司諫院大司諫李光文為司憲府大司憲○壬戌放牧經四○

英宗大王實錄卷之三十三

癸亥左議政沈象奎晉命全吾門外諭曰今聞入城之報予之欣豁當何如也卿果與即地見予之心而又為此晉命之舉予為喜過矣國事待卿而共濟潘爾待卿而議定卿其即為入未前命予方臨軒以待○甲子召見左議政沈象奎○乙丑刑曹判書曹鳳樓上疏陳情乞速批曰向來事在卿可謂無妄也不幸也今於萬事已省之後何可退擬以傷事面乎勿辭前命○丙寅○丁卯○戊辰○秋七月己巳朔詔崇政殿月臺傳太廟永寧殿秋享香祝○以金基當為江華府留守特除也○左議政沈象奎陳疏辭職批曰日前定席相對見卿顛髮之衰覺予非昔之戚語到清泉殆若夢境卿何忍更提情勢重誠予心乎况國勢之凋瀝民情之倒懸莫令時若如卿老成宿德之人尚不欲着手則予將復望於誰乎卿既出膺更勿辭其克盡弘濟之策以幸國家以安予心○命施蔚山府民家夫火一百一尹到恤典○庚午以朴宗董為左賓客○辛未雨水深一尺五寸八分○壬申以朴宗董為吏曹判書具致愚為參議○癸亥○甲戌○乙亥○丙子宗廟景慈宮展謁有命左議政沈象奎以霖暑上朝請遷期仍陳情疏批曰廟宮展謁遷期之請卿言如此休施情苦二字此何言也卿之前後所經予已盡照燭而已宜釋斯卿尚不信予而有此云云

『순조실록』 권33(순조 33년 기사 7월조)

최경희에게 내린 부조지전 특전을 언급하고 있다

목적은 포기하지는 않은 것이다. 적장을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가문과 본인에게 치욕이 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개의 행동은 혁명적이다. 그래서 목적이 감춰진 '의기 논개'가 빛나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알려저온 대로 저 '기생 논개'에 대한 오해와 과오를 극복한 다음이 아니고는 고고한 목적을 감춘 채 신분까지 위장하여 목적을 달성한 '의기 논개'가 지닌 혁명적 실천과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논개에게 바쳐진 노래들

... 志而不悲其志而哀其死也  
... 虎豹在山之勢  
... 越視者抑  
... 兵將子弘筦任弘載







조선시대를 살았던 시인들 가운데 논개가 단신으로 의거한 역사의 현장인 진주의 축석루와 의암 그리고 남강이 지닌 역사적·윤리적 의의를 형상화시킨 사람은 많다.

위급한 조국의 운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실에 대해 시인들은 논개의 엄한 순절을 처연한 감정으로 노래했다. 비상한 역사 사실을 회상하면서 전쟁의 잔혹한 상흔과 잔영이 단지 지난 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논개의 진실을 추억하고 되새겨 삶의 동반자로 껴안기를 맹세했다. 그때의 시편들을 오늘 다시 끄집어내 읽어보면서 논개의 길을 따라가보기로 하자.

#### 축석루 현판의 운을 따라

지난 세상 묻고자 하나 강물만 동으로 흐르고  
저물어가는 모래톱에 갈매기만 외롭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은 목숨을 던지지만  
시절이 평화로울 때 시인은 누각에 의지했다  
붉게 떨어지는 바위 꽃은 장한 혈기 머금었고  
푸르른 강물에는 의기의 수심이 서렸네  
태평한 성대에는 책이 묵고 칼이 녹스나니



노래 한 곡 크게 부르며 멋지게 놀아보세

往塵欲問水東流 只見沙鷗立暮洲

世亂忠臣踏死地 時平騷客倚高樓

巖花紅落鍾雷血 江草青留義妓愁

聖代居然書劍老 浩歌一曲恣遨遊

이 시는 염호 허회謙湖 許繪, 1758~1829가 쓴 것으로 『염호문집』謙湖文集 제1권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논개의 죽음을 한 떨기 붉은 꽃으로 단장시켰다. 푸른 강물 위에 떨어지는 붉은 꽃잎, 푸른 강물은 우리 민족의 살아 있는 미래이며 그 강을 물들인 붉은 꽃잎은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논개의 사랑임을 노래하고 있다.

### 의기사당

봄 산초 가을 계수나무는 강가에 허허롭고

한밤중 바람에 환패環佩 소리 쓸쓸하다

이후로 논개 영혼 의지할 곳 있도록

붉은 기둥 한 칸 집 성 가운데 세웠네

春椒秋桂野汀空 環佩淒然半夜風

從此精靈依有所 一間朱棟起城中

이 시는 희곡 이지연希谷 李止淵, 1777~1841이 쓴 것으로 『희곡문집』 제1권에 실려 있다. 그는 세종의 다섯째아들인 광평대군 여흥의 후





족석루의 현판

손이다. 이 시는 그가 경상 감사 재임 때 의기사를 증축한 뒤 논개의 충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 족석루에서의 회고

바다 동쪽 오랑캐를 바라본 지 그 오랜 세월  
붉은 누각은 높고 멀리 산과 언덕을 베었네  
옛날의 그 물결 위엔 꽃 같은 가인의 춤이 어리고  
단청 동자 기둥엔 장사의 노래 길이 남았네  
전쟁터의 그 봄바람은 초목을 휘감고  
쓸쓸한 성의 밤비에 물안개 불어나네  
지금도 사당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남아 있는 듯



삼경에 촛불 켜고 강신술을 올리네  
 蠻海東瞻日月多 朱樓招遙枕山阿  
 花潭舊照佳人舞 畫棟長留壯士歌  
 戰地春風回艸木 荒城夜雨漲煙波  
 只今遺廟英靈在 銀燭三更酌酒過

이 시는 다산 정약용<sup>茶山 丁若鏞, 1762~1836</sup>이 쓴 것으로 『여유당전서』 제1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그의 나이 19세 때 경상우병사로 있던 장인 홍화보의 청에 따라 지은 것이다. 남강 물결 위에서 춤추는 논개의 모습을 떠올리는 감회와 논개를 추모하는 사당에서 논개의 거룩한 영혼을 감지해낸 듯한 느낌을 노래한다.

촉석루 현판의 운을 따라

지난 세상 말하러 하니 분한 눈물이 흘러  
 힘없이 고개 돌려 옛 강가 바라본다  
 이 금수강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던가  
 비바람에 황량한 장사 누각뿐이구나  
 대독으로 호령하던 일 옛 꿈인 듯 희미하고  
 왜놈들 날뛰니 새로 걱정이 생기네  
 의기암 강가엔 물결만이 분노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속절없이 노니는가  
 欲說前塵憤淚類 悄然回首古汀洲  
 江山繡錯誰家物 風雨荒涼壯士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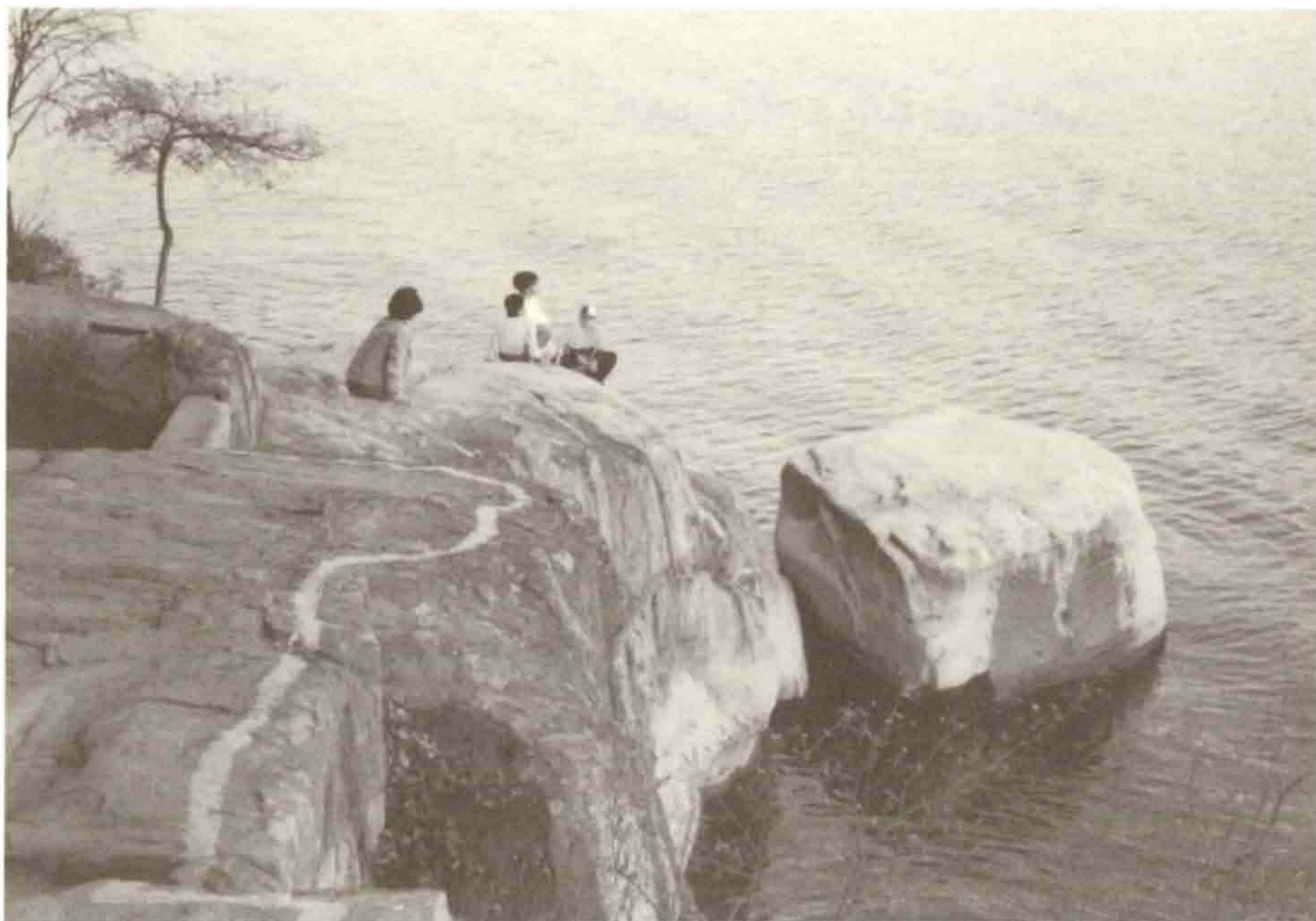
大轟號令迷舊夢 小酋橫突釀新愁  
娼娥岩畔波猶怒 我輩何心汗漫遊

이 시는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心山 金昌淑, 1879~1962)이 쓴 것으로 『심산유고』 제1권에 실려 있다. 이 시는 일제 때 나라를 빼앗긴 분노를 충절의 혼이 서린 촉석루와 의암을 찾아와 다시 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위기를 논개의 충절 정신에서 일깨우려고도 한다. 그리하여 의암가의 강물결이 분노하고 있다고 노래한다.

#### 촉석루에 올라

십년 만에 다시 찾은 촉석루  
긴 강만 외로이 성을 안고 흐르는데  
적막한 옛 언덕에는 부질없는 산새들이요  
아득하게 긴 세상 한서린 갈매기네  
삼장사의 석잔 술은 송백의 절개요  
논개 충절의 바위는 가을의 눈서리네  
상녀(商女)의 정화곡(庭花曲)을 듣자니  
아득히 놀던 옛일 그림네  
十載重尋瀛石樓 長江獨自擁城流  
古邱寂寞啼山鳥 浩劫蒼茫恨岸鷗  
壯士三杯松柏節 義妓一石雪霜秋  
忍聽商女庭花曲 往事蒼茫憶舊遊





남강가의 '의암'

이 시는 옥간 최병식(玉澗 崔秉軾, 1867~1928)이 쓴 것으로 『옥간집』 제1권에 실려 있다. 조선 말엽 선비였던 그는 10년 전 촉석루를 찾았던 일을 회고하면서 그날의 감회와 함께 논개의 절의를 노래한다.

#### 의암에서

형세의 빼어남이 남쪽 고을에서 으뜸인데  
 의로운 여인의 자취가 이 강가에 남았구나  
 천년의 슬픈 원한 강물결도 흐느끼고  
 만고의 아름다운 이름 바위에까지 남았구나



적막한 외로운 성 구름은 산골에 흩어 있고  
 쓸쓸히 지는 낙엽 달은 가을을 머금었네  
 바람을 맞고 이렇게 우뚝 섰자니 마음이 저려와  
 어렴풋이 먼데 푸른 산 보며 나루에서 눈물짓네  
 形勝南州第一區 義娥遺躅此汀洲  
 千年哀怨江波咽 萬古芳名石面留  
 寂寂孤城雲銷峽 蕭蕭墜葉月籠秋  
 臨風最是傷心處 翠黛依依泣渡頭

이 시는 명암 정식<sup>明庵 鄭弼</sup>, 1683~1746이 쓴 것이다. 그는 진주 사  
 람으로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나 신동으로 이름이 났고, 커서는 패  
 령이를 쓴 채 산천을 두루 돌아다녔다. 늙어서는 지리산에 들어가  
 초가를 짓고 고사리와 솔잎으로 끼니를 잇다가 죽었다. 그가 쓴 이  
 시를 보면 논개에 대한 추모의 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논개의 포상을 위해 시민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을 만큼 열렬한 논개 지지자였다.

논개암에서

〈서시<sup>序詩</sup>〉

남강물은 만 길이나 깊고  
 강바위는 천 길이나 높구나  
 그 위에 백 척의 높은 누각이 있어



장사들의 충혼이 머리카락 솟게 하네

江水萬仞深 江巖千丈直

上有百尺高樓 壯士忠魂髮衝冠

〈둘째 시〉

살아서 욕됨이 미치지 않고자 하더니

미천한 몸이 진실로 욕을 보게 되었네

왜장 하나 죽인 일들이라 말하지만

현인들은 오직 왜적 하나만이라고 하지 않네

작은 여인이 왜장 하나 죽인 것이

왜적들의 자만스런 웃음을 그치게 했네

生不欲被汚 鱗介誠爲辱

等是死殲一倭酋 尙賢已莫道壹倭

少人殲壹倭 倭且休堪笑

〈셋째 시 - 제1부〉

여인들이 노래하며 걸어다니니

오고 가는 발길에 강둑 풀이 노랑구나

구름은 둥실 떠 오동나무 꽃을 이루고

요염한 여인이 창문으로 고개 미네

집집마다 천자의 아들 돈 쓰듯

노래와 웃음 다투어 봄을 간지럽히네

논개는 태어나서부터 어려움에 떨어져





복원된 생가의 논개상

몸은 창루 가에 맡겨졌네  
 꽃다운 나이 열여섯인데  
 다만 우뚝한 자태 가련하구나  
 천성은 본디 곧고 미빠서  
 바치고 싶어도 결코 버릴 수 없다네  
 步出閨閣曲 井井黃蘗塢  
 英英刺桐花 冶豔當窗戶  
 千家錢樹子 歌笑爭春妍  
 妾生墮髮樹 寄身娼樓邊  
 芳年屬破篋 多姿最可憐



天性苦貞諒 欲羅不能忘

〈셋째 시 - 제2부〉

나라의 운명이 임진·계사년의 간난 속에서  
천한 왜구에게 오래도록 짓밟혔네  
관리들 사로잡혀 욕을 당하고  
종묘와 토성도 송두리째 타버렸네  
날 저물어 기둥에 의지하며 생각에 잠겼는데  
긴 칼 끝에 초승달 모여드네  
고립된 성의 담장이 무너지니  
견고한 진주성도 지킬 수가 없구나  
슬프다! 육만의 성민들이여  
관민이 한날에 죽음을 맞았네

天步屢辰巳 醜虜長蹂躪  
衣冠辱俘據 廟都隨灰燼  
日夕倚柱念 蛾眉攢脩劍  
孤城乏儲胥 坐失金湯險  
哀哀六萬人 同日爲猿鶴

〈셋째 시 - 제3부〉

탐욕한 왜장은 걸상에 의탁한 채  
술에 흠뻑 취해 방자히 지껄이며 희롱한다  
미련스레 깔깔 웃으며 짐승처럼 나대더니



끌어내어 매질하며 제멋대로 음탕하다  
 단칼에 죽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욕되게 목숨을 마친다면 무슨 도움이 되리요  
 피를 내고 곧 일어나서  
 기쁘게 그를 따라 춤을 추네  
 높은 누각은 시 읊기에 좋지 못하나  
 강가의 바위는 크고 넓어 믿을 만하단다  
 손을 끌고 가면서 원하여 말하기를  
 어두워질 때까지 노닐자 하더라  
 어리석은 왜놈은 이미 정신이 녹아서  
 그 말 따라 응낙을 하였네  
 위험한 바위는 절벽을 깎아 만들었나  
 위에는 겨우 소반 하나 놓을 만한데  
 아래로는 천 길 못이 있네  
 흐르는 물결 힐끗 보니 맑고 잔잔한데  
 섬뜩한 무서운 생각에 와락 끌어안긴다  
 몸을 가까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허리를 엮어 끌어안는다  
 힘을 써 갑자기 발을 날리니  
 만 길 떨어져 풍덩 소리 났네  
 頑酋據胡牀 縱酒恣謹謔  
 駭渠牡牡性 挑撻肆淫黷  
 一劍諒非難 經瀆竟何益



作計乃爾立 忻然隨俯仰  
高樓正不韻 江石洵訐廣  
願言攜手去 徜徉窮曛旭  
癡奴魂已銷 隨語聲應礪  
危巖陡戍削 上可容盤礴  
下有千仞潭 流睇澹清漣  
強忍巖閃意 近身稍向前  
緊緊拘其腰 用力儵舉趾  
颯颯萬丈下

〈셋째 시 - 제4부〉

나와 너 함께 죽었으니  
추한 뼈는 상어와 악어의 먹이가 되고  
아름다운 넋은 용궁으로 모셨네  
용궁은 바다에 통한다 하니  
멀리 대동강과도 통하겠구나  
대동강에도 의로운 기생이 있어  
왜놈의 배를 칼로 찢었다네  
빛나는 강물 얇은 듯 깊은  
대동강은 서북으로 흐른다  
당대에 빼어난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어  
어여쁜 절개, 그 이름 영원하라  
吾與爾共死



醜骨餌鮫鱔 香魂侍龍宮  
 龍宮達于海 遙與淇江通  
 滌上有義妓 割刀奴腹中  
 菁江淺如泓 淇水西北流  
 絕代兩佳人 姘節名不休

이 시는 만성 박치복<sup>晩醒 朴致復, 1824~94</sup>이 쓴 것으로 『만성선생문집』<sup>晩醒先生文集</sup> 제3권에 실려 있다. 논개의 의거를 노래한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압권으로 알려진 것이다. 축석루에 서린 충렬들의 영혼을 기리는 서시, 논개의 절의를 찬양하는 둘째 시, 총 70구로 된 출생에서 사후까지의 논개 생애를 그린 셋째 시, 셋째 시는 다시 4부로 나뉜다. 제1부는 논개의 출생, 성장과 성품, 제2부는 진주성 전투의 참혹함, 제3부는 논개 절의의 결행과 왜장의 죽음, 제4부는 논개정신의 영원함 등으로 된 장시다.

#### 의기를 노래하다

푸른 강물은 빛나는 그날의 치맛빛이런가  
 강 위에 피는 꽃은 숨쉬는 그녀의 넓이런가  
 강 밑에 잠겨 있는 그 뼈나마 거두어  
 천년토록 우리들 곁에 모셔두자  
 의로운 바위에는 봄바람 스치고  
 쓸쓸한 사당엔 이끼만 무성하다  
 오늘 강가를 거니는 여인들은



물에 비친 그 모습 곧 미인일세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춤추는 그대 모습은  
 얼마나 고왔으랴 그대의 머리 단장은  
 내 이제 와 그대의 서린 원한 물어보노니  
 강물만 소리없이 흐르고 있네

江水羅裙碧 江花魂氣遲  
 願收江裏骨 千歲傍要離  
 孤石春風厲 荒祠蘚色滋  
 至今江上女 照水正蛾眉  
 愛娘眞珠舞 愛娘錦纏頭  
 我來問芳怨 江水無聲流

이 시는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 1850~1927)이 쓴 것으로 『소호당시집』(韶濩堂詩集) 제3권에 실려 있다. 그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사직하고 1908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강언덕에 피는 꽃은 논개의 녀이요, 그의 정신은 천년토록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서 피어나리라 노래한다.

### 의기를 노래함

풍천나루의 강물은 아직도 향기로우니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씻고 의로운 논개에게 절하노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적장을 죽였을까?  
 죽음을 각오한 채 거룩한 뜻을 단행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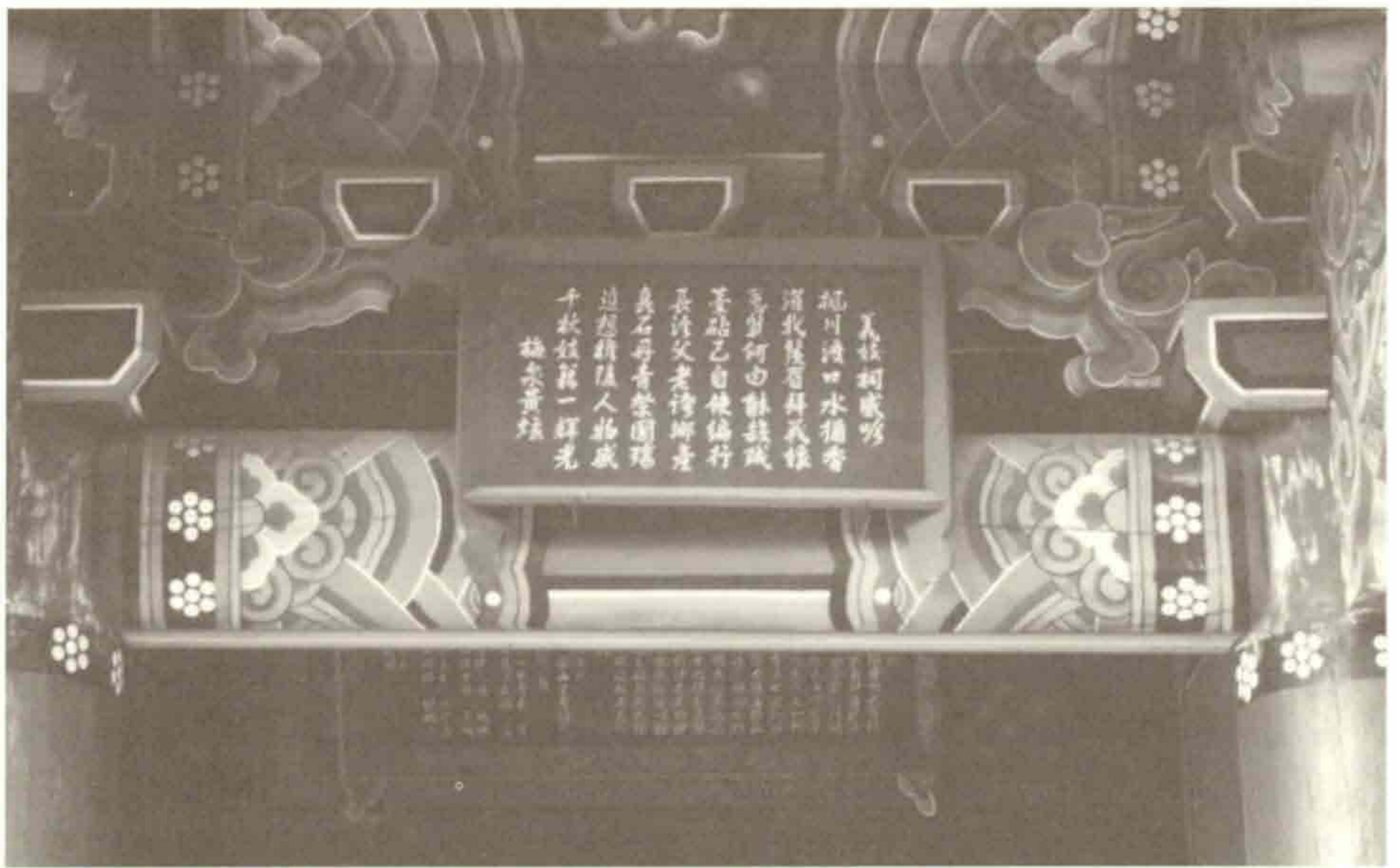
장계의 연로자들은 고향 사람이라 자랑스러워하고  
 촉석루에서는 단청하고 순국함을 제사지낸다  
 화려한 왕조 돌아보면 인물이 많다 하지만  
 기생이었어도 오랜 세월 그 이름 한결같이 빛나도다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產 蠶石丹青祭國殤  
 追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이 시는 조선조의 명재상 황희의 후손인 매천 황현<sup>梅泉 黃玹</sup>, 1855~1927이 쓴 것으로 『매천집』 제3권에 실려 있다. 논개의 출생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논개의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논개의 장한 죽음은 장수의 자랑이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빛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칭송하고 있다. 매천은 이 시를 쓴 후 1910년 경술년의 국치 때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다.

#### 의기암에서

한 여인이 의롭게 죽었으니  
 곰과 물고기의 덕이라 하겠네  
 밝게 빛나는 청정한 자태여!  
 늙름하고 결백한 지조여!  
 왜장 한 놈 죽였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네





의기사에 걸려 있는 매천 황현이 쓴 논개 시

한 작은 여인이라 말하지 마라  
 만 장부의 팔뚝처럼 떨쳤다네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갈지 못하니  
 천년의 의암은 언제나 남아 있네

女子死於義 態魚判容易

濯濯永玉姿 凜凜霜雪志

莫謂一倭死 萬膽同日墜

莫謂一女小 能奮萬夫臂

江流石不磨 留得千載義

이 시는 희재 안중창(希齋 安鍾彰, 1865~1918)이 쓴 것으로 『희재집』



希齊集 제1권에 수록되어 있다. 논개의 표상을 청정한 자태, 능름한 지조라고 노래한다.

### 의기암에서

기특하고 아름답도다! 이 나라 역사 위에  
기녀로서 의암이 있었다는 것  
괘씸하구나! 고기 씹는 작자들  
나라를 버리고서 무엇을 그리 탐하느냐?  
의기사는 바위 위 언덕에 높은데  
남강물은 의암 아래로 흐르네  
지금의 탐욕스런 부자들아  
의암의 충절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는가!

奇絶青邱史 娼家有義巖  
咄哉肉食子 負國尙何饑  
祠高巖上岸 水咽岩下潭  
卽今封豕食 此義少人傷

심산 김창숙은 이 시에서 논개야말로 우리의 역사상 충절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칭송하면서 논개의 정신을 되살려 독립정신을 고취시키자고 절규하고 있다. 특히 “괘씸하구나! 고기 씹는 작자들/ 나라를 버리고서 무엇을 그리 탐하느냐?”고 질타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한국 현실을 향해 시인의 분노가 교훈으로 와 닿고 있음을 느낀다. 국가의 운명이 존망위기에 몰려 있



는데도 게걸스럽게 고기를 먹고 배를 채우는 매국적 무리들은 지금 이 땅에도 적지 않다. 여기서 '고기'란 곧 물질적 탐욕과 부패한 정치적 권력의 탐학성을 뜻한다. 물질적 탐욕이 지나쳐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과 협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부패한 정치권력을 향한 목숨을 건 질주에 조국이나 이웃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권력지상주의는 곧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불행하다.

이처럼 임진왜란이라는 매우 참혹했던 침략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논개의 의로운 순국행위가 지닌 고도의 상징성은 당시의 도덕적 기준과 정치적 목적을 초월한 전인적인 혁명적 행동에 담긴 정신의 순결이 남긴 향기다. 따라서 논개에게 바쳐진 시편들이 지닌 나라사랑과 그 조건으로서의 절개, 의리, 분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성을 지닌 한국인 특유의 심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논개는 곧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열정과 의지의 우리 자신들이며, 의암은 우리들이 서 있는 현실이며, 남강은 우리와 함께할 미래이자 영원의 상징이다. 논개는 우리 자신이다. 논개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하러 여기 왔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야 하는 현실의 명제이자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화두다.



논개 전설<sup>10)</sup>

三國正史不悲其志而哀其死也向使三公早見  
其志則葛爾小醜又  
誰能而彼誰能越視者抑何心歎公之仲  
凡此三公為繼義兵將子弘先任弘載弘字或同事於







## 1. 의암 논개 ①

옛날부터 이곳은 원래 산골이라서 주로 사람들은 산을 의지해서 살았지요. 그때만 해도 저 그 우리 농촌에 삶이라 카는 것이 산을 위주로 해서 살았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산에서 딸감 가주오고 나물, 아이 저거 풀도 비와서 논에나 밭에나 거름을 해서 그래 가지고 모도 심거먹고 있는데, (듣는 이들: 예, 그랬지요) 그런데 요 우쪽 산 너머가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금선골, 거문고 금<sup>췌</sup>자 신선 선<sup>仙</sup>자, 금선골이라 카는 곳인데, 거기서 이곳 방지마을 사람들하고 전라도 장수 주촌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고 자주 그랬대요. 그러다 본께 서로가 사정을 잘 알고 지냈지요.

그런데 주촌마을에는 훈장이 없어서 애들한테 글도 못 가르치고, 방지마을에는 글하는 이가 많으니께, 훈장 어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사람을 모시겠다. 그래 논개 아버님 되시는 분은 요게 학자로서 달문이라는 그분은 요기서 태어나시고 원래 서하 박씨하고 결혼을 이루었거든요. 그래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촌으로 넘어가 훈장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듣는 이: 그러니까 이곳이 논개 할머니하고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이께는 마을에서 훈장 어른한테 주촌마을 사람들이 살림집도 지어주



고 그래 마 대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어른에게 아들이 하나 계시는데, 다 큰 아들이 큰 대<sup>大</sup>자 용<sup>龍</sup>자 대룡이라 카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 마 잘생기고 똑 똑했더라고, 그런데 그만 도중에 요절하게 되었답디다. 그래 도중에 다 키와가주고 아들이 죽고 난께 그만 세상이 싫어졌던가 봐요. 세상이 그만 싫고 뭐 뜻이 없어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요 너머 덕유산 영각사라는 절 속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거서 부부가 기도하고, 뭐, 심부름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지내는데, 그러다가 부부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태몽을.

그래서 다시 절을 내려와가지고 장수 주촌으로, 전에 살던 데로 다시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논개를 낳게 되었더랍니다. 9월 3일날이 그 어른 논개 할머니님의 생신일입니다. 그런데 뭐 전해오는 얘기로는 사갑술, 갑술이 네 개 곁쳤대요.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그래서 개 술<sup>戌</sup>자니께 개를 논다, 이쪽 경상도에서는 방언에 낳는 걸 논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개를 논다, 개를 낳다고 카는 것은 요것은 갖다가 옛날에 명 길어라고 그 참말로 어린아이에게 아명<sup>兒名</sup>을 지어줄 적에 무엇에 비유해서 판바우니 시령이니 지어주었는데, (듣는 이들 모두 웃음) 그래서 아명을 논개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 논개는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인물도 참 좋았다고, 제가 어려서 들은 말로는 우리 신안 주씨<sup>新安朱氏</sup> 15대 조부 되시는 용<sup>龍</sup>자 한 일<sup>一</sup>자 어른의 묘소가 저 산 너머 고사릿골이라 카는 곳에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거 있어요, 그 자리가 명당이라 캅니





논개의 조상들이 살았던 주촌마을 입구의 논개 비각

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논개가 태어났다고 그래 뭐 인물이라 카는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일찍 그만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던가봐요. 그 래노니께 사는 기 어렵잖았겠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듣는 이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한다) 사는 기 어렵고 그렇게 그때 주달무라는 이가, 삼촌이 한 분 있었는데, 논개의 삼촌이 형님이 돌아가시고 한께, 인제 주달무라는 동생이 사는 기 어렵고 하니께 어디다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해요. 논개를 최풍헌에게, 장계에 아즉도 그 후손이 살고 있는데 그 뭐,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잠시 말이 맴돈다) 민, 민며느리라고 하는 걸로 그래노니께 고마 논개 모녀가 그걸 알



고 밤을 도와가지고 자기 외갓집으로 피난을 해버렸어요. 서하 송  
계이거든요.

그래 모녀가 피난을 와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인제 최풍헌이 논  
개 모녀를 고발하는, 최경회 현감한테 소장을 냈다고 그래요. 관  
에다가 고소를 했던 거지요. 그래 요새처럼 지인들을 잡아다가 넘  
겨주는 그런 기 옛날에도 있었던 모양이지요? (듣는 이들에게 묻  
는다)

그렇게 안의 현감이 논개 모녀를 붙잡아가지고는 장수 현감한  
테로 넘겼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경회 현감이 논개 모녀를 불러  
놓고 재판을 해보니까, 그 삼촌이라 카는 주달무가 돈을 받고 팔았  
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너들 모녀는  
죄가 없다 하고 무죄방면해서 인제 내보냈는데, 그런데 인제 논개  
모녀는 어데 돌아갈 곳도 없고, 또 뭐 살아갈 일도 막연했던가봐  
요. 그래 이 모녀들이 이왕 내보내주니까 우리 살길도 마련해주라  
고 떼를 쓰니까 처지가 딱한 걸 알고 최 현감이 논개 모녀를 관아官衙  
에서 아니, (말하는 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내아內衙에서 살게, 침  
방엘 앉혔다 캐요. 공방 침방 뭐 방이 일곱 개가 있다 캐요.

이렇게 해서 논개하고 최경회 현감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침방이란 데 머물고 있으면서 최경회 부인의 눈에  
들었던 모양 같애요. 논개가 원래 총명하고 인물도 좋았다고 했은  
게 그랬는데, 그후에 최 현감의 부인한테는 깊은 병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오래 더 살 가망이 없어가주고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 인  
제 마 논개를 앉혀놓고 부인이 부탁을 했다고 합디다. 그때는 인제



논개도 다 큰 처녀가 되었으니까, 그레가주고 현감 부인은 인제 먼저 최경희 영감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몸도 병이 들고, 인제 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논개가 어떠냐고, 그레야만 눈을 감겠다고. 그레가주고는 논개를 불러 앉혀놓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영감하고 후사를 부탁했던가봅니다.

(묻는 이: 최경희 장군한테는 후실로 여흥 민씨가 있었다고 하고, 논개는 부실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뭐 부실이라 할 것 같으면, 본부인이 살아 있을 때 같이 살았다 할 것 같으면 부실이 되는 기고,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을 버리고 난 연후에 드갔다 카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이 부실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본부인께서 청을 내가지고 그 뒤를 며 후사를 부탁한 거니까 후실이 아이겠습니까? (말하는 이가 동의를 구한다. 듣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정말 첩 같으면 정실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텐데, 대개 원수지간이잖아?) 예예, 그렇지요. (묻는 이: 그러면 최경희 현감하고 논개 할머니가 부부 인연을 어디서 맺었는지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최 현감이 장수에 3, 4년 있다가 담양, 영해 등지로 근무지를 옮겨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경희를 따라서 같이 다닌 것으로, 우리는 그레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부부로 인연을 맺고 얼마 안 있다가 최경희 영감이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그레 인제 벼슬을 그만두고 시묘살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같이 화순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때 최경희 영감은 논개를 장수로 보냈던가봅니다.



그러다가 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처음에는 시묘살이 때문에 거병을 못하고 있다가, 장수 의병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최경회 영감을 저들 장수로 그렇게 의병대장으로 모셨답니다. 원래 최 장군이 장수 현감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인심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수 군민들이 선정비도 세우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 장군이 다시 장수로 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경상, 저거 마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라 카는 직함을 받고 진주로 건너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의병장으로 가시면서 그 논개, 그 부인마저 데리고 갈 예정이었는데, 같이 가지를 못하고 먼저 떠나셨더라 캐요.

그래가지고 먼저 떠나시고 그 뒤에 논개 부인께서 가마를 태워가지고 가다가 산청 오부에서 왜놈들한테 붙들렸다 카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최경회 장군 다음에 황진 장군이라 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시다가 그걸 보고 왜놈들을 보고 잡아다가 이 어른을 모시고 갔다 캐요. 그래가지고 인제 진주에서 진주성에 들어가가지고 왜놈들과 싸우는데, 그날이 계사년<sup>癸巳年</sup> 6월 29일이었다 캐요. 그해 장마가 저가지고 성이 진주성이 그만 무너져서 왜병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최경회 장군이 다른 장수들과 의논해서 그만 성이 무너지고 한꺼, 비가 장마가 나서 그 바람에 진주성이 한쪽에서 무너져내리는데, 그래노니까 힘으로 인제 더 이상 왜놈들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뭐 김천일 장군하고 황진 장군하고 삼장사가 물에 남강 물에 그만 투신해서 죽었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죽을 때 최경회 장군께서는 조복을 벗어가지고 그때 조카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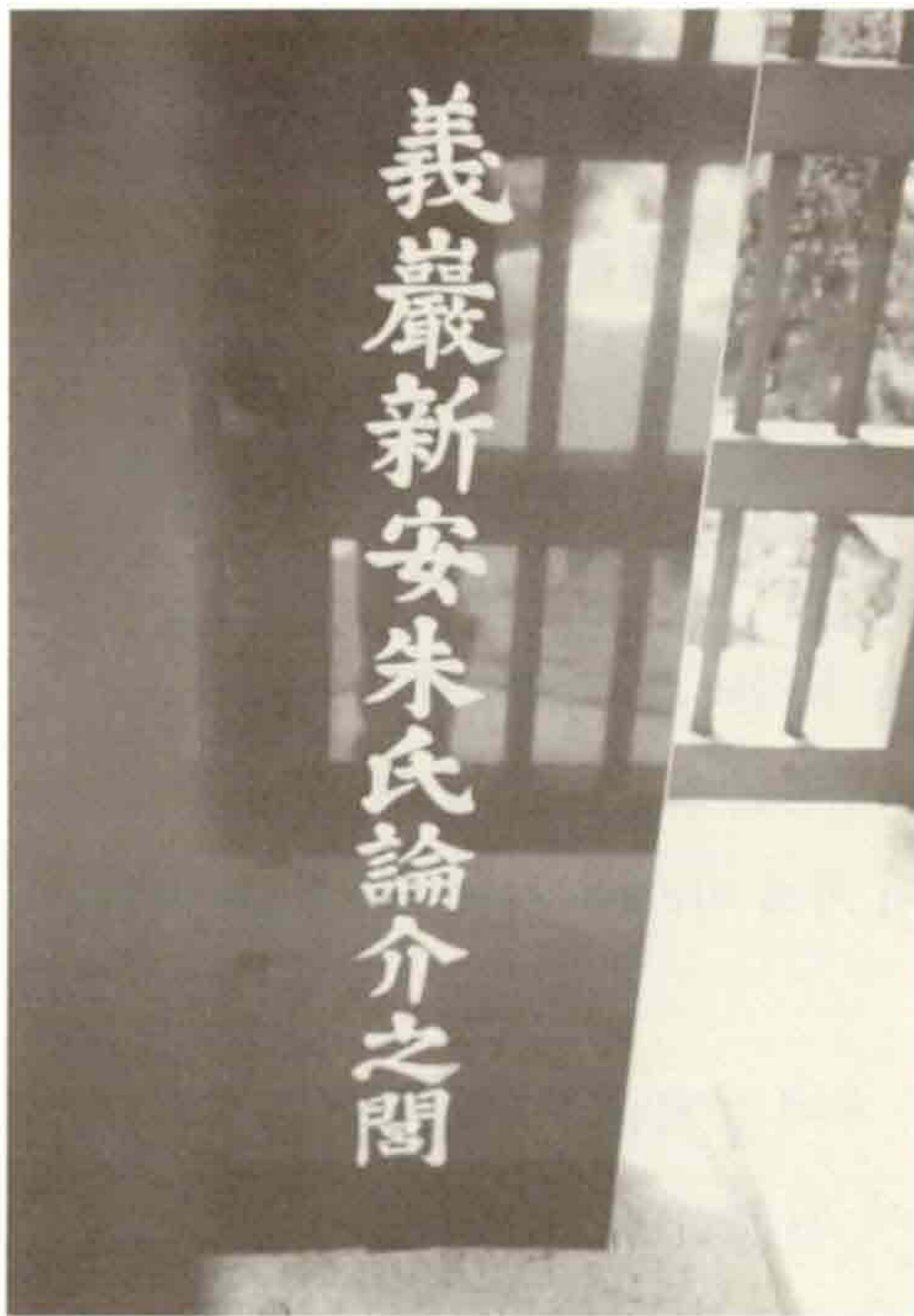


이 의병에 나갔다고 그래요. 장군께서는 조복<sup>朝服</sup>: 관리들의 예복을 벗어주면서 고향에 돌아가 형님께, 최경회 장군한테는 형님이 두 분 계셨다 갑디다. 그래 형님께 전하라고 했지요, 관복을. 그래 지금도 화순에는 혼백만 모신 묘소가 최경회 장군 가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손들이 여계, 장수 사는 오치황 씨란 분이 여러 번 이곳을 드나들면서 논개 할머니 묘소를 찾아내고, 그걸로 해가주고 그 우에 나란하게 있는 무덤이 최경회 장군 묘소라는 걸 알아내고부텀은 그 후손들께서 일 년에 두어 차례 이리로 차를 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묻는 이: 최 장군이 자결한 후에 논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노이께 인제 논개가 남편이, 최 영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버르고, 뭐 손구락에다가 가락찌를 열 손구락 모두 찌고 왜놈 장수를 유인해가지고 거 끌고 의암 바우, 남강 가에 있는 그 바우 위로 가서 떨어져서 왜장하고 같이, 그 원수를 갚고 그래 죽었다는 얘기 아입니까? 뭐 이런 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묻는 이: 그러면 논개 할머니를 기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기생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소문이 기생이라고 나니까 오히려 집안에서 쉬쉬하고 물어버리고 마 족보까지 그 사람들 우에 웃대 어른들까지 들어 없애버렸다 카는 얘기가 있지요. (듣는 이: 아따, 훈장의 딸인 데다가 나이 어려서 관아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배웠을 낀데, 뭐 기생이 그리 쉽게 되는 기가? 또 최 영감하고 부부가 되었다 카는





「의암신안주씨논개지려」

데 어째서 기생이 될 수 있겠나?)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웃음) 이런저런 사정을 잘 모르고 쉽게 하는 소리지요. (듣는 이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한다)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로 볼 것 같으면 왜놈들이 우리 조선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잘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생들, 진주 관아에 속해 있는 기생들을 모두 저들 승전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방을 붙였다고 하지요. 일반 여염집 여자들이 아이고, 관기들을 불러서 인제 잔치를 했던 거지요. 그렇게 논개도 인제 기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남편 원수를 갚겠다고 그 왜놈들 잔치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지금도 그 의아미 바우



라는 기 있지 않습니까? (묻는 이: 그러니까 기생은 진짜 신분이 아니고 가짜, 위장 신분이란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듣는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 왜놈들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생긴 말이겠지만 여 논개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오줌을 싸가지고 그 왜놈들을 물리쳤다 카는 얘기가 있어요) (묻는 이: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저, 그런 소리는 그런 말은 공연히 사랑방에서 하는 참 이야기꾼이라 칼까요. 사랑방에 그 이야기꾼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좀 지나친 과장된 이야기를 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분을 정숙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묻는 이: 오줌 싼 얘기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묻는 이에게 동의를 구한다) 사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 〈제보〉 주규상: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65세, 농업, 남, 1995. 7. 15.

## 2. 의암 논개 ②

의암 논개 부인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요는 제일 잘 아는 데가 장수예요, 장수. 그럼 장수에서 주장하는 말 들으면 그건 틀림없는, 틀림없어요. 여기는 멀잖습니까? 여그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다 그쪽 사람들 얘기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멀리 있으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지요. 그러니 장수·함양, 그쪽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제일 자세한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충의공 최경희 장군하고 논개 부인하



고는 인연이, 그러니까 송사 사건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인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저, 형편이 어려워서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관아에, 그러니까 내아에 충의공 내아에 가서 그 물을 길러 나르고, 하인 비슷하게 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가서 쪽 있다 보니 인자 어디 장수도 가고 어디 담양도 가고 늘 이렇게 다니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인자 정실부인께서는 몸이 건강치를 못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인자 내중에 성숙, 십칠팔 세 그 무렵에야 아 그 부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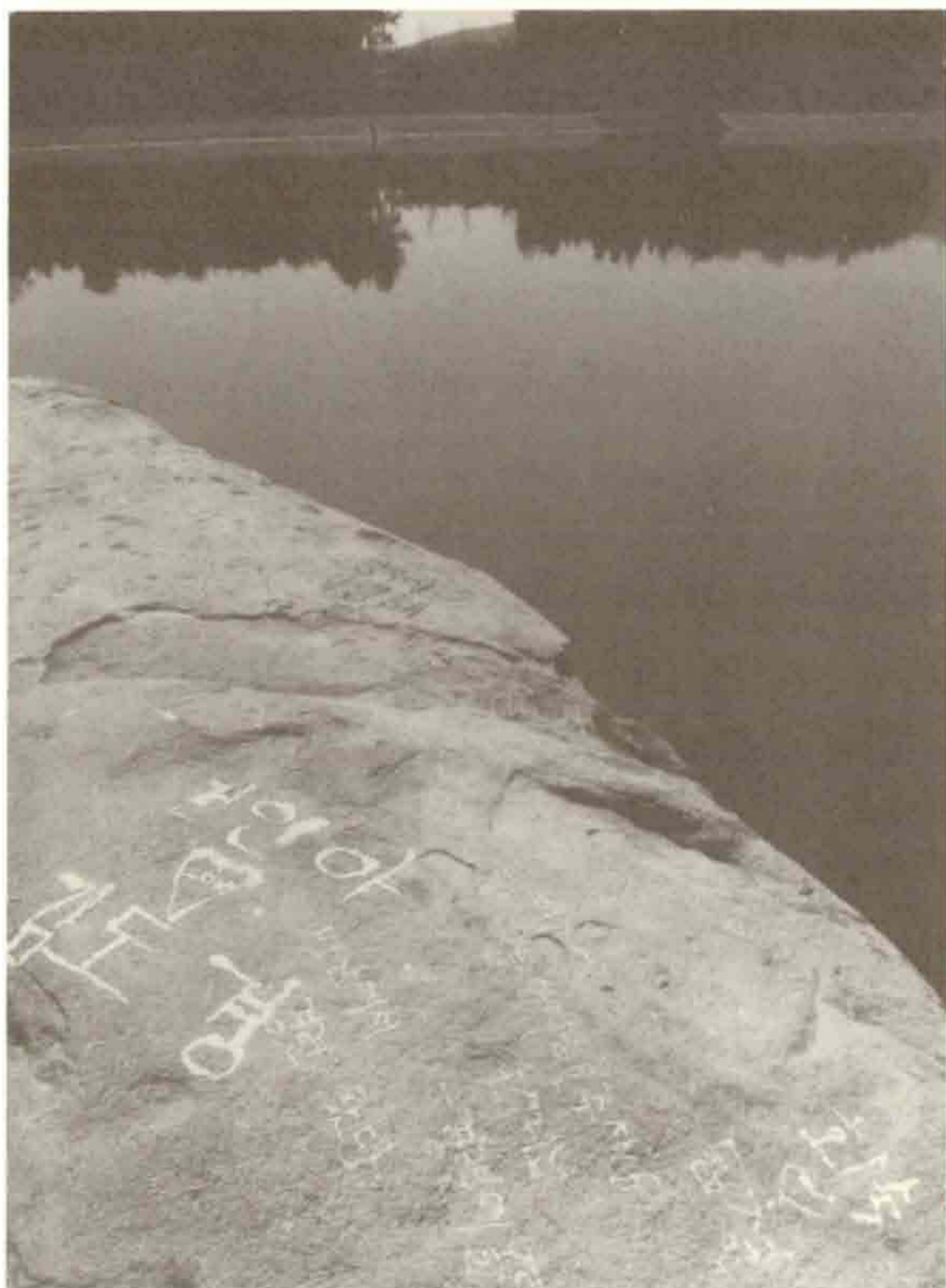
아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어르신들, 저의 부모님도 열네 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 선고가 열네 살 때, 그 당시에는 열네 살, 열다섯 살, 거의 그렇게 결혼 안했습니까? (듣는 이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제 누님도 열여덟 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최근이지요. 뭐, 옛날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당시 몇백 년 전 아닙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 당시에야 뭐 처음에는 시중들고 다닌 분이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야 함양에 그 논개 부인 모친 되시는 박씨 부인께서 충의공을 모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충의공을 좇았고, 그래 또 충의공 부인 되신 분이 몸이 병약하고 해서 응, 어떻게 모실 수도 없고 하니까 응, 상의를 해서 논개를 부실로 맞아들이시요, 최 현감 보고 말씀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인자 그럭저럭 지냈겠지요. 최 현감 정실부인 눈에 들었다면 그건 인물이 아주 훌륭했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다저러다 최 현감이 모친상을, 최 장군께서 모친상을 당하게 되니까 최 장군 혼자 고향에 오셨고, 논개를 다리고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 논개 부인은 그곳에서 머무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잘 모르지요. 최 현감이 장수에 있으면서 논개와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초에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최 장군이 장수에서 3년간인가 현감으로 계셨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은 곳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또 인자 백성들도 숭배했을 것이고, 또 인자 논개와 인연도 있었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좀 달랐겠지요. 그래서 왜란이 일어나고 장수 의병들이 모시겠다고 하니까, 장수 월강평야<sup>月岡坪野</sup>에다 장대<sup>將臺</sup>, 훈련장 말입니다. 장대를 설치하고 훈련을 시키게 되었고, 장수 의병들이 모두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랬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래 의병장 최 아무개가 장수에 의병장으로 왔다 하니까 당연히 논개도 안 찾아보겠습니까, 최 장군을? (말하는 이가 웃음)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틀림없는 사실이요. 최 장군이 인자 경남을 진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떠나실 적에 논개 부인도 물론 인자 따라갈란다 했겠지만 못 따라오게 안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아녀자가 어찌 따라올 수 있느냐 했어도 이분은 논개 부인은 그 아주 특별한 정신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결과로 봐서. 그래도 나는 간다, 단신으로 뒤에 안쫓아왔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인데, 틀림없이 그분은 최 장군 부실인 것이 사실이라고 봐요.





현대 문명 속의 '의암'

그런데 인제 기생이냐 아니냐? 그것은 물론 그것은 전설과 마찬가지로 승전연에 참여할 때에 기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놈들이 왜장들이 여자들을 다 모으려고 한 것이 아이고, 왜장들이 승전연을 할 때에 기생을 모으라 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할라면 기생 아이면 못 가니까 기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의암 부인도 그 승전연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분이 가만 숨어 있었든지, 아이면 성 내에서 같이 싸웠든지 기생들도 그 당시 승전연에 참여를 했고, 의암 논개 부인도 참여를





왜장을 꺼안고 죽을 때 논개가 끼었던 가락지를 상징하는 진주교의 장식

했다. 그것은 인정이 돼요. 인자 그렇게 해서 투강을 했다. 이거 다 진주 성민한테서 나온 얘기 아이겠어요?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평상 지방민이 다 그렇게 얘길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게 기생으로 가장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진주민들은 진주성민들은 그 당시 진주성민들은 기생으로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한 것이 당연한 소리고, 인자 우리 원칙으로 이분은 기생이 아니었고 한다는 것은 인자 내중에서 이분은 충의공 참 부실이었고, 참 장수 출신이었고, 장계 출신이었고, 기생이 아니었고, 장수의 양가의 그 참 집안 규수였다. 그냥 그렇게 틀림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 조리가 맞아요. 그것이 그래 그 얘



기가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상 관기 명단에 등재했다 할지라도 가장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자 그 당시 가장해서 들어갔든지 어쨌든지 진주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인자 뭐냐 기생이었다 주장하는 것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옳아요. 또 기생이었기 때문에 설마 양반도 아니고 일반 선비도 아니고 기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나라를 휩쓸고 했다 해서 그래서 진주성민들이 그렇게 추앙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은 말이에요. 일반 그 어떤 분의 그 부실이 그 남편으로 해서 죽었다면 우리 진주성민들이 이렇게 받들것냐, 개인의 문제이지, 그 말이 옳아요. 진주서 주장하는 것도 옳은데, 인자 그 기생이란 말은 옳은데, 진주서 그 말은 옳은데, 장수 사람이 그 장수에서 인자 남편 최경회를 따라서 온 기생이 아니고 양갓집 딸인데 그건 자기들은 모르고 좌우간 진주 기생이라고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잘못이다. 아, 이것을 알아보니까 과거 내력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것이 나와야 할 건데 끝내 그것은 주장을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다. 저 생각에는 그래요, 진주에서 주장하는 말이.

• <제보> 최재양: 전남 화순읍 향청리 46번지, 65세, 남, 1995.

8. 4.

### 3. 의암 논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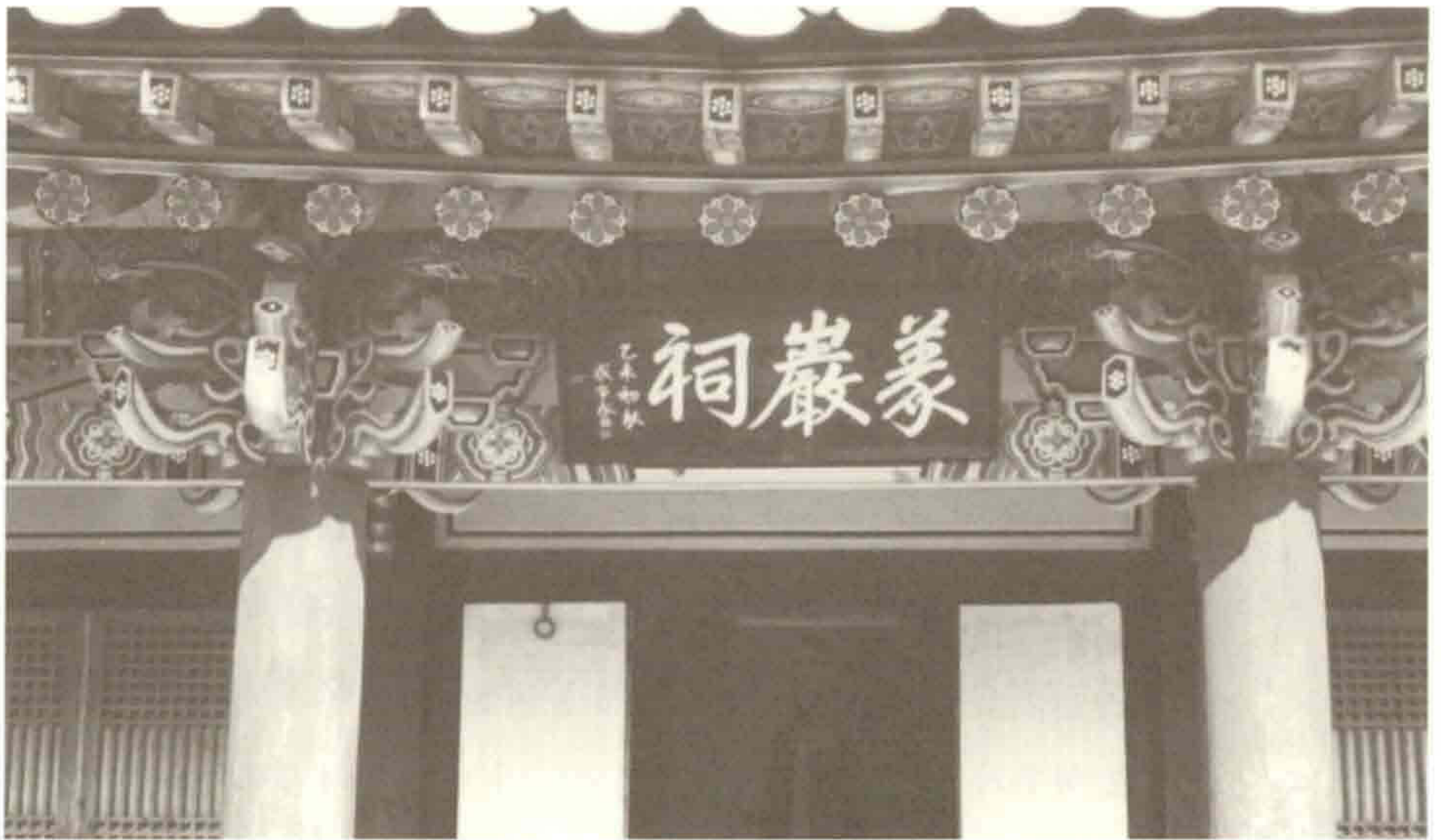
요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밑에 바위가 의암 바웁니다. 저기 저 (손으로 가리키면서) 관에서 써붙인 걸 보면은 틀렸어요. 관



에서 한 기 틀린 거고. 거 보면 위태로울 위<sup>危</sup>자, 그래서 본시 의암<sup>義巖</sup>이라 카기 전에 위암<sup>危巖</sup>이라 했다고 했는데 거기 틀린 겁니다. 옛날에는 본시 부암, 뜰 부<sup>浮</sup>자 부암<sup>浮巖</sup>이라고 그리 불렀어요. 지가 올해 일흔넷인데 여기 진주서 나갔고 여서 이 장사를 한 5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가마이 생각해보면 사실이 그렇기밖에 될 수 없는 기 웬고 하니, 저 간판에 보면 저 물 가운데 있는 바우가 이리로 이 큰 바우한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고 안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러니까 위암<sup>危巖</sup>이 아이라 부암<sup>浮巖</sup>이라 캐야 맞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우가 사실은 이쪽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이고, 우짜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오르면 이쪽 바우하고 저 바우하고 자연 새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날이 가물아가지고 물이 줄면 반대로 이쪽 저쪽 새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저 부암이 밑에 바닥에는 이 큰 바우에 붙어 있어요. 그래 바우가 서로 벌어졌다 좁아졌다 카니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우가 이리로 붙었다 떨어졌다 카고 그래썬지요.

그래 이 바우를 부암이라고 불러왔는데, 그 저 임진란 때 왜놈들이 여 진주성을 보름 동안이나 포위를 해가지고 여 성민들하고 의병들하고 관군들하고 마 이래 가주고 힘을 다해서 싸왔지만 당해 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삼장사라고 세 장수가 술 한 잔씩을 하고 죽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중에 최 병사라고 하는 분이 기셨어요. 전라도 의병장으로 여기 진주성에 참전을 하신 분인데, 그 어른이 여리로 올 적에 논개 부인도 같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암사 현판.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의 글씨다

인자 최 장군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때도 뭐 북향재배, 임금님한테 고하고 그래 여 남강 물에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되니까 논개 부인은 인자 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 별르고 있었는데, 그때가 6월 29일날이었지요. 그 최 병사가 돌아가신 날이. 그런데 이 왜놈들이 인자 이겼다고 마 크게 잔치를 벌이는데, 여 인근에 있는 기생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 여 (손으로 가리키면서) 우에 가면 축석루, 본시는 축석루를 남장대南將臺, 남장대 말고도 북장대北將臺, 서장대西將臺가 또 있어요. 그래 남장대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바깥에는 축석루라고 써 붙여놨지만, 안에는 아직도 남장대라고 그래 해놨어요. 나중 가시다가 한번 보소만. 그래 여 남장대에서 칠월 칠석날 승리한 기념으로다가 잔치를 크게 열



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생으로 꾸며가지고, 그래야지 원수를 갚을 거 아닙니까?

(묻는 이: 본래는 기생이 아닌데?) 예, 기생이 아이지요. 그렇게 거짓으로 원수를 갚을라고, 원수를 갚아야 되게 꾸몄지요. 그래서 논개 부인이 또 여서 응, 왜장 그 이름이 털 모<sup>毛</sup>자, 골 곡<sup>谷</sup>자, 모곡 촌육조<sup>毛谷村六助</sup>, 마알 촌<sup>村</sup>자, 도울 조<sup>助</sup>, 그 왜놈들 말로는 게야무라 로쿠스케라 카는 놈을 머 참 열 손구락에다가 옥가락찌를 전부 찌고서는 인자 여러 (손으로 가리키면서) 부암 바우로 유인을 해서 술로 잔뜩 먹여서는 춤을 추자면서 자꾸 유인을 해가지고, 그 왜놈 장수란 거는 인자 술이 잔뜩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됐는 거지. 연약한 아녀자가 안 그러면 그놈을 죽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 고만 이 물 속에다가 밀어넣어요. 인자 그렇게 남편 원수를 갚는다고 의암 부인이 그랬는데, 거기 바로 나라 원수 아닙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젊은 나이에 그 저, 충렬을 바치신 거지. 요새 같으면 어렵도 없을 꺼 아닙니까?

전부 지 몸 하나만 생각한게. 여 와서도 아나 어른이나 논개, 논개 해췄는데 그러만 안 되지요. (묻는 이: 의암 부인에게서 투신하시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 잘 모르지요. 이 강이 지금은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물이 많이 찰 때는 여러 저 의자 있는 뚝까지 물이 올라와요. 그래 해마다 한 해에도 여러 사람이 죽어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 저 어디 해명<sup>海鳴</sup>양 어디 산소가 있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 <제보> 허덕환: 경남 진주시 축석루 매점, 74세, 1995. 10. 7.





의암사 경내의 논개 비각

#### 4. 논개

관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거는 관기가 아이다. 그 뭐 장수에 있던 사람인데 최경회 씨가 자식이 없으니까, 어, 훈장의 딸이다. 가난한 선비의 딸을 최경회 선생이 소첩을 두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관기다, 여는 관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의기 사적비라고 비가 있어요. 거꺼기 보면 늙은 관기 애아 딱 붙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기가 아이고, 거기 중요한 거는 아이지요. 우쨌건 최경회 씨를 따라온 거는 틀림없어요. 장수에 있다가, 이분이 요게 와서가지고 게야무라 로쿠스케 왜놈 장수하고 의암 바위에서 죽었는





장수군민의 날 논개대축제

데, 그때까지 의암이 아이지요. 죽었는데, 저분이 같이 죽은 대상은 해방 후에 상당한 시간까지도 가등청정<sup>加藤清正</s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가등의 목을 안고, 노래가 있고, 이 뭐가 있는데, 다 가등의 목을 안고 이리 되었는데, 이게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일본 역사하고 모두 이 (두 손바닥을 겹치면서) 비춰볼 때 가등 청정이는 분명히 일본에 가서 구마노도 성도 쌓고 뭐, 저 뒤에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었다고 칼라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꾸며지는 게 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거는 누냐? 게야무라 로쿠스케다. 가등청정이의 부하 중에 힘이 제일 셉니다. 전국역사대회 나가주고 아주 힘으로써 당연히 일등이 될 텐데, 가등청정의 부하라서 저렸다고 이리 돼 있습니다. 가등청정의 부하가 돼가 있



어요. 풍신수길이가 내 부하가 되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방법으로, “내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기면 말이지, 부하가 되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기도 자기 역사<sup>力主</sup>를 하나 안 내것어요? 그러는데 다 집어던지고 가등청정이 부하 옆에 뭐 넘어 볼 때는 그리 힘이 강한 역사도 아닌데, 저줬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가등청정이 부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즈그 야사에 있습니다.

그렇다쿠며는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얼마나 힘이 센 인재였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진주성민이 높은 고개나 이런 데서 싸우는 걸 봤을 때 그 당시는 힘세고 (두 손을 벌리면서) 긴 칼 들고 말 잘 타고 하는 그기 영웅이니까, 그걸 보고는 저놈이 가등청정이다. 가등청정이가 제일 세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모양이랴요.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제일 센 놈이 누냐? 그 당시에 보몬 가등청정이다. 죽은 놈이 누냐? 내나 그놈이 죽었다. (조사자: 그렇게 생각해버렸다) 그러니까 가등청정이 틀림없이 죽었다. 요 (가슴을 가리키면서) 명패 써가 있는 것도 아이고, 그래가지고 쪽 나오다가 일본 역사에 그거는 게야무라 로쿠스케 이리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이쥬서도<sup>이쪽에서도</sup> 그리 인정하고 게야무라 로쿠스케라고 돼 있습니다.

- 〈제보〉 박세제: 경남 진주시 본성동 496번지, 64세, 남, 1980.

8. 20



## 5. 의암 논개 묘소

이 두 무덤이 아래우로 나란히 있었는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표시가, 표석도 없었고, 이 동네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인제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치욕의 묘라 카는 정도로 우리 집안에서는 전설이 돼서 전해 내려온 게지요. 이 어른이 신안 주씨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런데 옛날 왜란 때 이분을 갖다가 장수 의병들이 시신을 모시고 오다가 이곳에 주씨가 살았었기에 주씨들 너의들 받아라 카니께 받을 텍이 있습니까?

(묻는 이: 이 동네에 주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족들이 주씨들이 옛날에는 남 못지않게 이삼십 호 살았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처음 함안 박씨들이 여기에 터를 잡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함안 조씨들이 들어와서 살았고, 또 신안 주씨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씨들한테 받아라 카니께 주씨들이 안 받으니께 욱을 하면서 요 산 (손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언덕빼기에, 요기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옛날에는 길이었어요. 시신을 운구해가다가 진주서 시신을 가지고 이리, 일단 이리로 와가지고 고향으로 갈라 카다가 그 무슨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래우로 내외간이니까 이곳에다가 자기들이 묻고 갔다 캡디다.

(묻는 이: 왜 주씨들이 많이 살면서도 시신을 안 받겠다고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전쟁에서 뭐 사실은 공을 세우신 분이거나 우짜거나 간에 거에임란을 뜻함 참전한 것이 후사가 두려워가지고 집안에서 받지를 안했다고 그래요. 후일이 두려워 보





논개의 조부와 형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주용일의 무덤

복이라도 있을까, 요게 살고 계시는 분의 바로 따님이라도 되면 하지마는 떠나고 없는 사람들 아십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자기 할아버지 때는 요기 살았지마는 그후에는 요기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기생 소리와 노래에도 아주 그 뭐 진주 기생 의아미니, 그 소리 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치아도 보지 않고, 우리 집안에 치욕이라고, 이래가지고는 그 뭐 호적, 아이 호적이란다, (손을 내저으면서) 족보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 받아라 못 받겠다, 받아라 못 받겠다 해썬다가 급하니께 그만 욕을 하면서 저거들이 요 길가에다가 묻고 요 뒤에 (손으로 가



리키면서) 민재를 넘어서 가버렸다고 해요. 요게 앞에 (손으로 멀리 산을 가리키며) 저게 저 뒤에 산이 높이 안 솟아 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 뒤에 본다면 그리로 해서요, 저 뒤에 산이 요렇게 (동작을 하면서 설명한다) 주름이 가운데 끊겼지요. 그리로 해서요, 거기가 새미기라 카는데, 그 뒤에 가다가 은피라 카면서 저 뒤에 또 잘록한 산이 안 있습니까. 바로 건너면 바로 함양읍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한양길 천릿길에 요게 한양길 가는 길입니다, 바로 요 골짜기가. 요리 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육십령을 넘어서, 그러니까 바로 길 옆에 묻은 거지요. 원래 오부로 해서 산청 생초로 와가지고, 생초를 널비라 캬거든요, 수동으로 와가지고 거 유림 쪽으로 바로 건너가지고 유림이 바로 거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래 유림이라 카는 데로 해가지고 요리 (손으로 가리키면서) 함양 한들이라는 데로 지나서 저 (손으로 가리키면서) 고개를 넘어서 와야지요.

(묻는 이: 최 장군의 경우는 화순으로 운구해야 할 텐데요?) 거, 화순이 고향이라 카는 것만 알았지, 거 연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시신을 운구해온 사람들이 장수 의병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래노니까 연고를 잘 몰랐지요. 그래서 이분<sup>논개</sup>을 모시고 올 목적으로 같이 모시고 왔다 갑디다. (묻는 이: 그럼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논개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전에는 이 묘소가 누구 묘손지 확실히는 몰랐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15대 종손이신데, 그 어른까지는 알고 지냈습니다. 그분이 인제 마지막에 돌아가





수몰된 논개의 생가터와 주촌마을

시면서 그런 정도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땐 이 근처,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에 큰 절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탐시기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풀이 덮어서, 나무가 짝 우거졌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이 근처에는 잘 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냥 버려진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옛날부터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치욕의 무덤이 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오래전부터 들었다고, 그렇게 전설이 돼오고 있었지요.

- <제보> 주규상: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65세, 농업, 남, 1995. 7. 29.





의암주논개상을 제정하여 전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6. 의암 논개 조상 산소

요 마을 우로 (손으로 북쪽 산 밑을 가리키면서) 저거 저 산 밑에 그 논개님한테 몇 대조 할아버님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 조상님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님 산소 때문에 논개님이 태어나셨다고 우리 처녀 적에 듣고 컸어요. 산소터가 묘터가 아주 좋아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뭐 그거 청룡이 좋답디다. 청룡이 좋다 보니까 청룡은 물이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래 물이 좋아가지고, 산소 그 옆으로 방죽이 있는데, 그리로 물이 좋아가지고 논개님이 태어나셨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논개님하고 물은 인연이 아주 깊다고 그래요.

그거 진주 남강에 가가주고 왜놈 장수를 강물에 미끌어넣어서



죽여가주고 남편 원수를 갚은 것도 그렇고, 또 여로 (손으로 저수지 한복판을 가리키면서) 논개님 생가가 있었는데 생가 마을에 땀이 들어선 거나, 저 아래 물이 짙은 곳이 바로 생가 마을이었어요, 주촌리라고. 그래 수몰이 돼가지고 거시기 장수군에서 여로 (손으로 가리키면서) 옮겼지요. 여 땀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개님 생가터가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첫째 딸 낳고 그 아가 세 살 때 학교가 썼으니깐 지금부터 38년이나 39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수군에서 그 생가를 요리로 옮기면서 이래 지었습니다. 또 화순에도 논개님 사당이 저거 그 (묻는 이: 의암사?) 예. 사당이 있었는데 그거도 여 처럼 수몰이 돼가지고 그 자리가 좋아서 저수지가 들어섰답니다. (듣는 이: 예, 우리도 직접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당을 옮긴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깐 논개님하고 물하고는 인연이 아주 짙은 거지요. 그런 기 다아 그 조상님 산소가 물이 좋아서 논개님이 태어났다 그러는 걸 우리 처녀 적에 들었어요.

- <제보> 이선옥: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논개 사당, 65세, 여, 1995. 8. 12.



## 주

- 1) 이 사람은 현재 69세로 경남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에 거주하고 있다.
- 2) 논개 아버지 이름이 주달문이고, 숙부가 주달무라고 한 것은 논개의 생애 복원을 위한 실험적 의도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주달문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그가 살았을 중종, 명종, 선조 연간에 해당되는 시기의 주씨 세보에서 찾아보면 그런 이름은 없다. 그러나 주씨 세보 중 가장 처음 만든 것이 1733년이므로 얼마든지 제외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주달문이란 이름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 3) 이른바 '주달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논개의 숙부는 얼마간의 징역살이를 마치고 주촌으로 돌아왔다. 그때 주촌에 모여 살던 신안 주씨들은 논개의 일로 몹시 괴로워했다. 주달무의 반인륜적 행위가 신안 주씨 문중에 회복하기 힘든 모욕과 불명예를 자초했다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주촌을 떠나 민재 너머 경상도 함양으로 이사를 갔다. 부끄러움으로부터의 도피였다. 결국 주촌에 남게 된 것은 주달무와 그의 직계들뿐이었다. 주촌을 떠난 주씨들은 논개의 일을 되도록 잊어버리거나 철저하게 은폐시킴으로써 가문의 윤리적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썼다. 그 같은 집요한 노력은 마침내 1902년 신안 주씨 족보를 만들 때 논개와 직접 관련된 직계 씨족 자체를 완전히 제외시켜버렸다. 그러나 주촌에서 죄인처럼 누대에 걸쳐 살아온 주달무의 후손들은 이 같은 문중의 처사에 아무런 항의도 해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1925년 여름 강원도 고성땅으로 모두 이사해가고 말았다.
- 4) 선조 7년 5월 최경희가 경직(京職)에 있을 때 문신2품 이하들이 활쏘기 시험을 받았는데 25분(分)으로 장원을 했다(『선조실록』 권8).
- 5) 게야무라 로쿠스케와 논개에 관련된 문제는 게야무라에 대한 일본 역사에



서의 평가와 함께 그가 사망한 이유와 시기를 둘러싸고 약간의 논의가 있어왔던 점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의 통설에 따르면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소문난 효자였으며 팔과 다리의 힘이 굉장했던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있기 몇 해 전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38명의 장사들이 겨룬 스모대회 때 두각을 나타냈다. 그 대회에서 게야무라는 36명을 연파했으나 마지막 한 명에게 패했다. 그가 패했던 장사는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였는데, 그 스모대회를 기점으로 게야무라는 가토의 부장으로 등용되면서 사무라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얻은 이름이 기다 마코베(貴田孫兵衛)이며 그의 아들은 기다 곤나이(貴田權内)다.

그는 가토의 부장이 되어 임진왜란에 참전했으며 가토 부대가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규슈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맨 먼저 전해주었다. 그런데 게야무라 로쿠스케와 논개의 관련성을 부정해온 견해들은 그 주장의 근거로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게야무라는 진주성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조선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와 57세 때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이 있어왔다.

① 압록강변 사망설: 게야무라가 압록강변에서 전사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논개와의 관련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가토 부대가 압록강까지 진출했다는 기록은 없고 실제로 진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통설이다. 또한 가토 부대가 함경도 지방에 진출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후까지 게야무라는 가토에게서 여러 통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② 울산성에서의 사망설: 울산성 전투에서 게야무라가 전사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일본 생환 후 사망설: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 자식까지 낳고 살다가 57세에 죽었다는 설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에서 죽은 뒤 시신으로 돌아와 사후신(死後神)으로 신사에 모셔졌기 때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로 그는 규슈 나고야 성의 텐진진자(天神神社) 경내에 있는 기다진자(貴田神社)에 신으로 모셔져 있는데, 이는 곧 그의 생환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④ 진주에서의 사망설: 이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그의 제삿날이 8월 초순이라는 것을 든다. 그가 조선 어디에선가 죽은 뒤 시신이 일본으로 운구되었는데 그의 시신이 도착한 8월 초순을 제삿날로 삼았다는 것이다. 8월 초순에 시신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교통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에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8월 초순에서 한 달 전이면 7월 초순이 되는데 그 무렵 조선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는 진주성전투뿐이었고, 실제로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과 7월 9일까지 추가로 벌어진 왜군들의 산청, 함양, 구례, 곡성까지의 정밀수색과 살상전을 참고로 해볼 때 게야무라는 진주에서 죽은 뒤 일본으로 시신이 운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 6) 성계옥

- 1927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에서 한학자 성갑주의 딸로 태어남.
- 1948~50년 산청 차황국민학교 준교사.
- 1967년 진주검무 사사(이윤례, 강귀례).
- 1974년 진주민속보존회 설립.
- 1978년 진주팔검무 예능보유자.
- 1985년 고려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 연구생 수료.
- 1986년 진주시립국악학교 시작.
- 1987년 『진주의암별지』 간행.
- 1992년 중단된 지 82년 만에 의암별제를 재현했다.

7) 최경장의 큰아들 홍우는 임진왜란 뒤에 조정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벼슬을 받았으나 모두 사양했다. 왜냐하면 숙부인 최경회는 전사했고 수많은 의병의 목숨이 희생된 임진왜란의 원한을 갚지 못한 자신은 벼슬을 할 자격이 없다고 여긴 때문이었다. 그러자 인조는 1624년 홍우의 태도를 듣고 '남주(南州)의 고사(高士)'라는 호를 내렸다. 1678년 홍우의 아들 후현이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이 정자를 지었다.

8) 일본의 3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는 이 산의 주요한 특성은, 그 자태가 남근(男根)의 상징과 여근(女根)의 상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이 산은 부부 금실을 원하거나 자식을 갈망하는 일본인의



기도처로도 유명하다.

- 9)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신화는 일본의 유명한 가부키로도 전해지고 있다. 1786년에 초연된 이래 계속되는 '히코산 곤겐치 가이노스케다치'(彦山權現誓助劍)란 이름의 가부키다.
- 10) 이 「논개 전설」 부분은 경성대학교곽정식 교수의 논문 「의암논개 전설의 연구」에 딸린 '자료편'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조사에는 곽정식 교수와 그의 제자들인 김영숙, 김점순, 최정식, 민경록, 정상박, 김현수, 류종목, 최정여, 강은혜, 박종섭, 임강량 씨가 참여했다. 조사는 1995년 7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을 비롯해 전남 화순, 전북 장수, 경남 진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보를 해준 지역민들의 말을 그대로 실었다.



## 연보

- 1574년(1세) 장수현 계내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6년(3세) 부친 주달문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둘만 남게 됨.
- 1577년(4세) 숙부 주달무의 권유로 두 집 살림을 합침. 주달무가 어린 조카를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아 도망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했다가 논개와 함께 체포되어 수감됨.
- 1578년(5세) 장수 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관비를 자청한 어머니와 함께 장수현 관아에서 살게 됨.
- 1579년(6세) 어머니의 간청으로 어머니와 함께 최경희를 따라 무장현 관비(내아의 침방관비)로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 군수로 전직되자 다시 영암군 관비로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의 부실이 되다.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해 사직하고 고향 화순으로 돌아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돌아가 기다리게 됨.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다시 만나 의병 훈련을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서 제2차 진주성전투를 할 때 성안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함. 성이 함락되자 최경희가 책임을 지고 자결한 뒤,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자결함.



# 참고문헌

## 1. 자료

- 「경상우병사증좌찬성최공시장」(권적)  
『경종실록』 권10  
『교방제보(가요)』(정현석)  
『대동기문』  
『대한매일신보』(1908년 12월 4일자)  
『동감강목』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명암집』(정식)  
『벽계승람』  
「병사 증좌찬성충의공 최공경희 신도비명」(송병선)  
『삼절의 고장』  
『서계집』(박태무)  
『선조실록』 권45, 권46  
『순조실록』 권33  
『승정원일기』 1,054책  
『승정원일기』 82책, 919책  
『어우야담』, 『어우집』(유몽인)  
『여유당전서』 제1집  
『연려실기술』 권16  
『영조실록』 권6  
『영조실록』 권71  
『의암기』, 『양곡집』(오두인)



『일성록』 618, 순조 33년 계사  
 『일휴당실기』  
 『임진록』(민순지)  
 『장수군지』  
 『장수읍지』  
 『전북인물지』  
 『정충록』 권1  
 『진양속지』  
 『청구야담』  
 『충렬실록』 권2  
 『충의공최경희장군약사』(해주최씨세보)  
 『해동야서』  
 『해주최씨종지창간호』  
 『호남삼강록』  
 『호남읍지』  
 『호남절의록』  
 『호남절의사』  
 『희곡집』(이지연)

## 2. 금석문

- ① 유유인신안주씨논개지묘(孺人新安朱氏論介之墓) 상석(床石): 경남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
- ② 의랑논개의 비: 1954년 설창수 지음. 진주성 안 축석루와 의기사 중간에 위치.
- ③ 의암(義巖): 1629년(인조 7) 진주 남강변 위암(危巖)으로 일컬어져온 바위에 새긴 정대룡의 전서체 글씨.
- ④ 의암논개반장의병추모비(義巖論介返葬義兵追慕碑): 경남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
- ⑤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 1722년(경종 2) 정식(鄭栻) 지음. 진주 의암 부근.



- ⑥ 의암신안주씨논개지려(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 1996년 김상두 지음. 전북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
- ⑦ 의암주논개랑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1960년 이재순 지음. 전북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
- ⑧ 의암주논개유허비: 1982년 박청준 지음. 전북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
- ⑨ 주논개생가사적비: 1987년 하관선 지음. 전북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
- ⑩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 1846년(헌종 12) 정주석(鄭胄錫) 지음. 전북 장수읍 의암사.
- ⑪ 통정대부주공지묘(通政大夫朱公之墓) 묘비: 전북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

### 3. 주요 논문

- 강대민, 「논개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고두영, 「논개 출생에 관한 소고」, 논개탄신 42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1997.
- 곽정식, 「의암 논개 전설의 연구」,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임진왜란과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박물관 개관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8.
- 김강식, 「송암 김면의 의병활동과 역할」, 『남명학연구』 제2집, 1991.
- 김강식, 「진주성전투의 역사적 의의」,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김무조, 「통과의례로 본 논개의 생애」,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김정주, 「진양성과 임진왜란(上), (下)」, 『한양』, 1962년 5·7월호, 동경.
- 김준형, 「진주지역 일제잔재 어떻게 청산되어야 하나? — 친일화가가 그린 논개영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주 YMCA시민사업부, 1993.
- 김철범, 「한시문을 통해 본 논개 사적의 문학적 연변」,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민병욱, 「논개 설화의 극적 형상화 구조와 의미구조」,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민주개혁진주연대회의, 「논개영정 폐출반대 결정, 시의회는 각성하라!」, 경상대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외 19개 사회단체, 1997. 5. 29.
- 박경수, 「논개 인유시의 양상과 의미」,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박기정, 「시문에 나타난 논개의 충절」, 논개탄신 42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1997.
- 박성식, 「계사 진주성 전투 소고」, 『경북사학』 4, 1982.
- 배호길, 「진주 축석루와 주논개」, 『한양』, 1965년 3월호, 동경.
- 송정현, 「전라의병과 최경희 장군」, 화순군, 1988.
- 오병무, 「논개의 가계에 대하여」, 논개탄신 42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1997.
- , 「문헌에 나타난 논개」, 논개탄신 42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1997.
- 유승주, 「진주성의 의기 논개고」,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1987.
- 윤성효, 「친일화가 작품 논개영정 폐출운동과 역사적 의미」, 『한민족문학』 제 5집, 1995.
- 이정옥, 「의암 다시 보기」, 『시사월간 WIN』, 1997년 5월호.
- 이해준, 「17세기 초 진주지방의 리방재편과 사족」, 『규장각』 6, 1986.
- , 「화순지방의 임란의병활동 — 충의공 최경희를 중심으로」, 화순군, 1988.
- 임채용,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문학적 이해」, 논개탄신 42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1997.
- 장세호, 「논개의 의리정신」,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정동주, 「논개의 생애와 죽음」, 『시사월간 WIN』, 1997년 5월호.
- 정동주, 「진주성 전투와 논개」, 『임진왜란박물관 개관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8.
- 정순태, 「논개」, 『시사월간 WIN』, 1997년 5월호.
- 조갑상, 「논개의 소설화 작업에 대한 고찰」, 경성대 학술심포지엄, 1995.
- 조원래, 「임란 호남의병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지승중, 「진주성 전투와 호남의병」, 『시사월간 WIN』, 1997년 5월호.
- 진주문화사랑모임, 「진주시의회 논개영정 폐출반대 결정에 대한 진주의정지 기단의 입장」, 진주환경운동연합 외 5개 시민단체, 1997. 6. 5.
- 차철욱, 「최경희의 의병활동」, 『논개사적연구』, 1996.
- 최용진, 「논개」, 『한양』, 1962년 8월호, 동경.
- 허선도, 「임진왜란의 극복과 영우의병(영남우의병) — 그 전략적 의의를 중심



으로, 『진주문화』 4, 1983.

#### 4. 단행본

- 강홍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문운사, 1947.
-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사적연구』, 신지서원, 1996.
- 고두영, 『주논개』, 장수문화원, 1997.
- 고은, 『만인보 3』, 창작사, 1986.
- 고창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 권오만,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1989.
- 김소운, 『언문 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 노경상, 『의랑논개』, 함양군 문화공보사, 1977.
- 모윤숙, 『논개』, 광명출판사, 1974.
- 『문화유적총람(중권)』, 진주시 「의기논개사당」,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7.
-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박종옥, 『쌍원시조집』, 고려문화사, 1948.
-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 성계옥, 『진주의암별제지』, 진주민속예술보존회, 1987.
-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 심재완, 『교본역대시조전기』, 세종문화사, 1972.
- 『여지도서』, 제읍지, 국사편찬위원회영인본, 1973.
- 오병무 외, 『논개의 생애와 충절』, 장수문화원, 1977.
- 『우리 고장의 전설』, 함양문화원, 1994.
- 『의암사적조사보고서』, 장수번영회, 1984.
- 『의암주논개사적조사보고서』, 장수번영회, 1985.
- 이병기 옮김, 『황현전집』, 아세아문화사, 1995.
- 이형석, 『임진전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4.
- 임기중, 『필사본 역대 가사문학전집(19)』, 여강출판사, 1988.
- 임동권, 『한국민요집 1』, 집문당, 1961.



-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 임선목, 『근대 시조집총람』, 단국대 출판부, 1988.
- 임유경, 『일사유사해제』, 여강문화사, 1991.
- 장지연, 『일사유사』, 규장각, 1922.
- 정동주, 『서사시 논개』, 창작과비평사, 1985.
- 정인보,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 정태진,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회, 1946.
- 조원래, 『임란의장 김천일연구』, 학문사, 1985.
- 『진주목읍지』, 아세아문화사, 1981.
- 『진주문화』 제14집, 진주문화원, 1992.
- 『진주시사』, 진주시사편찬위원회, 1979.
- 최관, 『문록·경장의 역(임진·정유재란)』, 동경: 강담사, 1994.
- 최동원, 『고시조소고』, 삼영사, 1990.
- 한용운,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 5. 논개 설화를 소재로 한 극작품

- 김봉열, 「논개」, 조선일보, 1927. 11. 24~12. 1.
- 여성국악단, 「논개」, 진주극장, 1947.
- 이운방, 「남강의 풍운」, 동일창극단, 1944. 4.
- 이재현, 「논개」, 한국연극협회, 광복절기념 중앙무대, 1969. 8. 15.
- 조영출, 「논개」, 예술극장, 1946. 10.

#### 6. 논개를 주제로 한 한시

- 「논개암」(論介巖): 박치복(朴致馥, 1824~94)
- 「등축석루」(登矗石樓): 최병식(崔秉軾, 1867~1928)
- 「의기가삼수」(義妓歌三首): 김택영(金澤榮, 1850~1927)
- 「의기논개비」(義妓論介碑): 황현(黃玹, 1855~1927)
- 「의기사」(義妓祠): 이지연(李止淵, 1777~1841)
- 「의기사감음」(義妓祠感吟): 기생 산홍(山紅)



「의기암」(義妓巖): 안중창(安鍾彰, 1865~1918)

「의암」(義巖): 정식(鄭栻, 1683~1746)

「촉석루 원운」(蠶石樓原韻): 신유한(申維翰, 1681~?)

「촉석루차판상운」(蠶石樓次板上韻), 「의기암」(義妓巖): 김창숙(金昌淑, 1879~1962)

「촉석루차판상운」(蠶石樓次板上韻): 허회(許滄, 1758~1829)

「촉석회고」(蠶石懷古): 정약용(丁若鏞, 1762~1836)

## 7. 논개를 주제로 한 소설

김성한, 『임진왜란』, 제6권, 「불타는 진주성」.

박종화, 「논개」(단편), 1946. 6~1946. 7(『신세계』 연재).

전병순, 『논개』(장편), 『민족문학대계』 제14권, 동화출판공사, 1979.

정비석, 『진주기논개』(열전), 1974. 4. 2~1979. 2(『조선일보』 연재).

정한숙, 『논개』(장편), 1969. 9. 30~1973. 9. 30(『한국일보』 연재).



















## 장계향 조선의 큰어머니

『음식디미방』의 저자로 유명한 장계향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수신과 애민을 택한 조선시대의 모범적인 여성 성리학자였다. 큰 재산을 가진 양반사대부이면서도 상속 대신 가난한 삶을 택했다. 직접 노동하여 토지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어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고, 그것을 다시 빈민들과 나누는 것을 편안한 삶이라 믿었다. 몇몇한 소유만을 용납하고 나눔을 실천해 세상을 치유했다.

정동주 지음

## 늘 푸른 소나무 한국인의 심성과 소나무

세상에 태어나서는 솔잎으로 만든 새끼줄의 보살핌을 받고, 소나무로 기둥 삼아 집을 짓고, 죽어서는 도래솔을 심어 소나무의 지킴을 받는다. 소나무가 서 있는 마을마다 삶의 나이트로 스며 있는 애환과 세상 사는 이야기, 식물학으로서의 소나무 이론들, 한국인의 기상을 이루어온 솔그늘과 솔바람의 멋과 풍류까지 우리 겨레와 함께 숨쉬어온 소나무의 늘 푸른 자태와 곳곳한 정신의 날들을 되짚어본다.

정동주 지음

##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우리 겨레는 산의 정기를 타고나서 산기슭에 살다가 산으로 되돌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았다. 우리는 어딜 가나 산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눈에는 늘 산이 들어 있다. 우리 산은 '사람의 산'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산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산의 역사, 산의 문화가 독특하게 빚어졌다. 사람은 산을 닮고, 산은 사람을 닮아 한 몸이 되었다.

최원석 지음

## 홍천강변에서 주경야독 20년

농토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선 땅을 사랑해야 하고, 작물을 가꿀 만한 체력이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또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애정으로 지켜보는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 산골생활 20년의 체험을 장황하게 끼적거렸으나 이로써 내 기록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기력이 다할 때까지 땅과 함께하는 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하루하루 진정한 촌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최영준 지음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후 벌어졌던  
왜군들의 전승 축하연 때 신분을 위장하여 연회장에 잠입해  
적장을 살해함으로써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과 역사 사이를 아무 거리낌없이 넘나들고 있는,  
근대적이며 혁명적인 삶을 살다간 논개. 부녀자의 몸으로,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집이나  
간략한 행장을 써서 남길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숨가쁘게 살아온 불과 열아홉 살의 나이에  
시퍼런 복수심이 숨을 죽이고 타올라  
차라리 넉넉한 고요로 몸을 바꾼 열정의 화신.  
부군 최경회를 따라 자결해버렸더라면  
열녀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 터인데도 열녀가 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실천해 보인 것은 나라를 향한 충성이었다.  
이러한 논개의 죽음은 패권주의적 폭력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인간상의 한 전형이었다.  
또한 역사의 숨결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좁고 험한 길 저편에 있는 의羲의 거처를 가리키고 있다.

• 지은이 정동주

값 15,000원



ISBN 978-89-356-6961-5

www.hangilsa.co.kr

